

2018 한국여성민우회

제 31차 정기총회

일시 | 2018년 1월 27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자료순서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의 다짐
- 제31차 정기총회 식순
- 제30차 정기총회 의사록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및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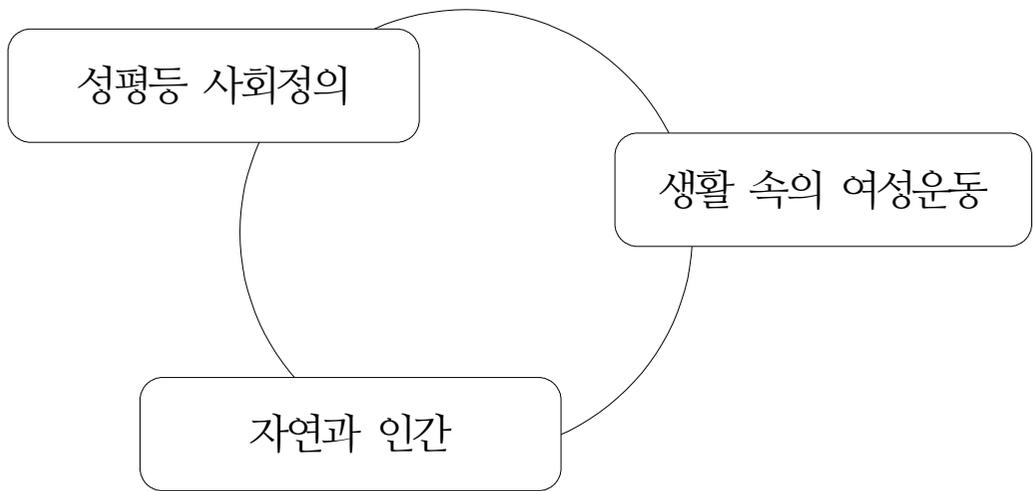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15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25
특별사업 25	연대 등 49
여성노동·노동상담 58	성평등복지 93
여성건강 101	회원조직 127
지역정치교육반차별 155	정보·홍보·재정 181
회의체계 211	
•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213
•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244
• 한국여성민우회 결산(안)	279
•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283
• 한국여성민우회 감사 보고서	289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및 예산

• 한국여성민우회 사업목표(안)	297
• 한국여성민우회 특별사업 계획(안)	299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301
•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사업계획(안)	327
•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안)	331
•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340
•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343

별첨자료

• 임원 선거 후보 명단	351
• 2017년 활동일지	352
• 2017년 성명·논평 목록	362
• 2017년 발간자료 목록	367
• 31차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368
• 본부/지부 활동가 명단	369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의 다짐

우리는

하나,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만듭니다.

2018년 제31차 정기총회 식순

●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개회선언
 - 인사말
 - 여성의례
 - 회원다짐 ‘우리 민우회 회원은’
 - 의순채택
 - 대의원성원보고
 - 회의록작성자 및 서명인 선출
 - 전차회의록 낭독
 - 의안심의 및 특별프로그램
 - 1)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 2) 2017년 지부사업 총평 보고
 - 3) 2017년 감사 보고
 - 4) 감사 임원선거
- ※ 특별프로그램
- 함께가는 회원상, 올해의 반짝반짝 활동상, 감사패, 심지상 수상
- 5) 선출임원소개, 선거결과 발표
 - 6)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7) 2018년 지부사업계획 보고
 - 8) 폐회선언

2017년 제30차 정기총회 의사록

1. 개최일자 :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00 ~ 5:30

1. 개최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총대의원수 180명 출석자수 131명 (위임 2명 포함)

상임대표 박정숙은 의장석에 앉아 정관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는 총회구성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제30차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뒤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의순을 채택하다.

동의 : 지숙현

재청 : 이지예

총회 의사록 작성자로 신혜정, 정예원을 선출하고, 서명인으로 김은아, 안은석, 윤정주를 선출하다.

동의 : 정윤경

재청 : 채현자

이가희 : 전자회의록을 낭독하고 심의를 구하다.

동의 : 이해경

재청 : 문지은

의안1.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사업보고〉

최진협(사무처장)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결산안〉

최진협(사무처장)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동의 : 백희정

재청 : 김성희

〈감사보고〉

허성우(사업감사)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변영선(재정감사) : 보고서대로 허성우 감사 대독하다.

〈지부사업총평〉

김성희(동북 대표)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위의 보고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의안2. 정관개정 및 기타 보고

김문정(공동대표)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박예림 : 정관개정안 제 7조의 각항 3번이 2번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음을 지적하다.

이경란 : 현 정관 4조 2번의 유지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김문정 : 번호 기재 오류부분 수정하기로 하다. 정관 4조 2번의 경우 개정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차후에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답하다.

참석대의원 수 131명, 찬성 대의원 수 127명, 반대 대의원 수 1명, 기권 3명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을 통과하다.

현행	개정
----	----

<p>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p> <p>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p> <p>②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평생회비 및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p> <p>2. 일반회원 : 생협조합원과 본회 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로 한다.</p> <p>③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p>	삭제
<p>제7조 (회원의 가입)</p> <p>① <u>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u>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u>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 할 수 없다.</p>	<p>제6조 (회원의 가입)</p> <p>① <u>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u></p> <p>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p>
<p>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p>제9조 (회원의 권리)</p> <p>①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p> <p>② 일반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p>제10조 ↓ 제32조</p>	<p>제9조 ↓ 제31조</p>
<p>제33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본부와 지부의 중요사업을 논의, 의결하며, 본부대표단과 사무처장 및 사무처 주요부서장, 지부대표, 생협이사장, 본부의 부설 및 주요기구의 책임자로 구성한다.</p>	<p>제32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본부와 지부의 중요사업을 논의, 의결하며, 본부대표단과 사무처장 및 사무처 주요부서장, 지부대표, 본부의 부설 및 주요기구의 책임자로 구성한다.</p>
<p>제35조 2(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생협운동 및 소비자 권익사업을 하며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한다.</p>	삭제

〈기타 보고 사항〉

김문정(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다.

1. 고양, 광주, 서울 동북 이상 3개 지부 등기부등본 상 분사무소 폐지
- 위 3개 지부가 형식상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기에 한국여성민우회 등기부등본 상 아래 3개 지부의 분사무소를 폐지하기로 하다.

고양여성민우회

주소지: (10401) 경기도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602-2

폐지일: 2017년 1월 21일

광주여성민우회

주소지: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센터별관 102호

폐지일: 2017년 1월 21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주소지: (013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210 115호

폐지일: 2017년 1월 21일

2. 춘천여성민우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 분사무소 주소를 변경하기로 하다.

기존 소재지 : 춘천시 중앙로 14 1층

변경 소재지 : (우)24312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98번길 8, 2층

이전일: 2017년 1월 21일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가결하다.

의안3. 대표 및 이사 임원선거

현미숙(공천위원장) : 2017년 임원선출을 앞두고 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희(동북 대표) 김진선(본부 팀장), 김희영(본부 팀장), 이지예(회원), 정경주(성폭력상담소 소장), 현미숙(군포 대표) 총 6명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라 2017년 1월 5일, 공천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 등록된 대표와 이사의 활동 경력서를 검토하여 상임대표에 김문정후보를, 공동대표에 강혜란후보를 추천하고, 이사 후보로는 김진, 김현미, 박정숙, 석재은, 이진정, 정형욱, 조인섭, 홍성수 후보 8인을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정아(선거위원장) : 2017년 임원선출을 앞두고 1차 총준위에서 나인형(광주 대표), 이정아(고양파주 대표), 지숙현(원주 대표), 신필규(회원), 박미숙(본부 팀장), 윤정주(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최진협(본부 사무처장) 총 8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2인 선출방식과 이사 8인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대표 2인, 그리고 이사 8인의 일괄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동의 : 김현숙
재청 : 문준희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가결하다.

[특별프로그램]

1. 함께가는회원상, 올해의 반짝반짝활동상, 평생회원패, SNS홍익인간상, 심지상, 감사패

사회 : 이연아 (동북여성민우회)

- 함께가는회원상 수상 : 박혜란(인천), 신필규(본부)
- 반짝반짝 활동상 수상 : ‘민우연애공작소 데이트폭력 캠페인’(동북), ‘일이삼반 카드뉴스 이성애자들의 20가지 그림자’(본부)
- 평생회원패 수여 : 강경희, 이해경, 이은숙
- SNS 홍익인간상 수상 : 최혜영, 소정(광주)
- 심지상 : 김미경(본부), 김희영(본부), 이광지(진주), 최양희(남서)
- 감사패 수여 : 박정숙, 김경희, 김연순, 김인숙, 백영경, 윤홍식, 장지연, 정영애(이상 본부), 채현자(인천)

이정아 선관위원장 : 투표용지를 통해 ‘이사 후보는 특정한 연령·교육수준·직종종사자만 될 수 있는가, 쿼터 및 청소년 쿼터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의가 있어 이를 공유하다. 현재 특정 성별이나 이력이 임원 후보의 조건은 아니며 다만 오랜 시간 여성운동의 현장에 있던 후보를 공천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다.

대표 김문정(상임대표, 중임), 강혜란(공동대표, 취임)에 대한 투표 결과 참석대의원 수 131명, 찬성대의원 수 124명, 반대대의원 수 3명, 기권 4명으로 대표를 선출하다.

대표 김문정은, 강혜란은 2017년 1월 26일 이사장으로 중임(김문정), 취임(강혜란)할 것을 승낙하다.

이사 김진, 김현미, 박정숙, 석재은, 이건설, 정형욱, 조인섭, 홍성수에 대한 투표결과 참석대의원 수 131명, 찬성대의원 수 125명, 반대대위원 수 4명, 무효 2명으로 이사를 선출하다.

이사 김문정, 박정숙, 강혜란, 김진, 김현미는 2017년 1월 26일 등기이사로 중임(김문정, 박정숙), 취임(강혜란, 김진, 김현미)할 것을 승낙하다.

위와 같이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다.

2017년 1월 26일에 전임이사 임기가 만료되므로 오늘 선출한 이사, 대표들은 1월 26일부터 취임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으로 최진협을, 부설기구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정경주를, 부설기구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으로 윤정주를 임명하다.

정책위원으로 강을영, 김현영, 김원정, 홍미리, 박건, 박진경, 이혜경, 장다혜, 전희경, 최은영을 위촉하다.

의안4.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업계획〉

최진협(사무처장)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김선희 : 10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킹을 위한 〈열, 길〉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함을 밝히며 10대들을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김문정(상임대표) : 사업계획에 포함된 상반기 자문회의를 통해 10대와 관계맺을 때 염두해야 할 태도 및 유의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것임을 답하다.

정규현 : 〈열, 길〉 사업계획은 10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남성들만의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남학생들 대상의 활동도 필요함을 제안하다.

김문정(상임대표) : 향후 사업 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 더 논의할 것을 답하다.

이지예 : 부설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시행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최진협(사무처장) : 2017년 3월경 진행할 예정임을 답하다.

문준희 : 인건비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활동량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인건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일지 질의하다.

최진협(사무처장) : 인건비는 상여금 없이 기본급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활동비 상승을 위해 더 많은 모금, 회원 및 회비의 확대가 필요함을 답하다. 이를 위해 2017년 1,000명의 회원 확대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는 단지 재정적 목표만이 아니라 조직을 더 탄탄히 하는 과정으로서의 계획임을 부연하다.

류지연 : 당해년도 가입자에게만 증정되는 물품을 소장하고 싶은 기존 회원을 위해 지인 3명에게 가입을 추천한 회원에게도 물품을 증정하는 등의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다.

김문정(상임대표) : 향후 사업 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 더 논의할 것을 답하다.

〈예산안〉

최진협(사무처장)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동의 : 김선희

재청 : 김효경

<2017 지부 사업계획>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대표)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위의 보고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 기명날인하다.

2017년 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김은아



안은석



윤정주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안)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페미니스트들의 1만가지 연대

2017년은 87년 민주화운동 30년, 민우회운동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였으나, 한편 2008년부터 이어진 이명박-박근혜 부패 정권의 집권, 특히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형식적인 수준인지 드러내고 있다.

평등, 민주, 평화, 정의 등 헌법적 가치가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체제 구축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1,000만 국민 촛불의 힘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견인하고 있다.

민우회는 그동안 남성중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도전하여 왔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속에서 박근혜 정부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대선 정국, 다음 정권의 정책 비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 가치로 '성평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우회는 더 많이 질문하고 연결하면서 여성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1.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 목표

1. 30주년을 맞아 제2의 '나여기 캠페인', 여성들의 일상의 삶에 반응하는 활동을 통해 성차별적인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2. 낙태죄,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 의지를 연결하여 전 사회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한다.
3. 팟캐스트 강화, 유튜브 등 여성주의 확산 채널 확대, 회원 확대 캠페인, 10대 물길 등을

통해 여성주의자들과의 온·오프라인 소통과 연대를 확장한다.

4. 지역여성주의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성차별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지속가능한 운동 모색 공동워크숍 등 본부 지부 간 협업을 강화한다.

II. 2017년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30주년을 맞아 ‘여성의 목소리가, 삶이 운동의 의제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권력감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용감하게’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한해

3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일상의 공간, 삶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발굴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아내고자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_시즌2(이하 나여기II)’를 진행하였다. 나여기II 활동은 2017년의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 외부 캠페인, 지부 연계, 세대를 다각도로 드러내기 위한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차용하여 5천여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가 일상적 문화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하는 과제이자 향후 민우회의 활동의제이기도 하다.

수집된 차별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은 1999년과 달리 노골적 무시와 차별(“미스김 커피한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여자 손님이네”)만큼 성별화(“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여자가 꼼꼼하지”, “축구는 남자가 더 잘하지”)에 따른 성역할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2017 성차별보고서’ 발간과 토론회에서 공론화되었으며,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30주년 기념식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에서 미래비전과 함께 발표되어 여성운동의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을 선언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30주년 기념식은 민우회 역사와 함께 길을 열어간 100여명의 추진위원이

1)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

1. 딸이라는 역할은 없다.
2.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3. 우리는 얼굴로 일하지 않는다.
4. 통금? 치안은 국가에게 맡기세요.
5. 2017 택시, “반말 없는 곳으로 가 주세요.”
6. 외모플레인은 이제 그만
7. 제가 저의 보호자입니다만?
8. 다양한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성캐릭터를 보고 싶다.
9. 여자니까 말고 동료니까 리스펙트(respect)
10. 벽 밀치기, 손목꽂기, 기습키스 그만하자♪ 그만하자♪

조직되고, 당일 35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가 모여 앞으로도 용기있게 걸어갈 힘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30주년 기념 릴레이 강연 <불나방 페미 연대기 : 여성운동의 역사가 된 6개의 순간>은 참가 신청자가 291명에 달했으며,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읽는 여성주의 실천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성평등에 대한 대중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 이은 박근혜 퇴진행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화계_성폭력] 대 응활동까지 올 한해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응활동의 연속이었다. 연초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웠던 시간, 국회에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합성 그림 [더러운 잠]이 풍자 대상의 소수자성을 부각시키고 남성의 시각을 재현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더 나은 민주사회는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기 대선 국면에 다양한 여성주의 단체와 그룹, 페미니스트 개인들이 참여한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행사를 통해 유의미한 유권자 그룹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의 일상 속 다양한 요구들을 확인하였고, 연대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을 가시화한 점, 또한 단순히 '페미니즘 정권'을 바란다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를 통해 페미니즘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라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선언한 것에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하는 후보에서조차 여성의제가 실종되었음을 드러내, 대선국면에서 여성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새롭게 교체된 문재인정부의 인사과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인사과정에서 드러난 젠더의식 부재를 짚어나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참여형 개헌으로 시민사회계 내 다양한 이슈들이 집적되는 개헌 논의의 장에서 성평등 조문의 신설을 넘어 다양한 차별금지사유,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 · 사회권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페미니즘 관점을 담아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2)

1. 여직원 구함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 안경착용불가' - 모집채용 성차별로 44개 대기업을 고발하다
2. 시청률 54%의 외모표평쇼, 미스코리아 대회를 지상파에서 퇴출시키다
3. 제대로 바꾸려면 동네에서부터 - 여성들, 지방의회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다
4.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 - 성인지 예산 분석이 지하철 손잡이 높이를 바꾸다
5.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 '낙태죄'의 '죄'를 묻다
6. 다운로드! 당신도 공범일 수 있다 - '몰카'와의 싸움을 시작하다

강남역 사건 1주기를 맞아 #변한것과_변하지_않은_것 해시태그 온라인 액션과 ‘다시 포스트 잇을 들다’ 거리전을 통해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다시 사회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였다. 이어 여성 BJ를 ‘살인’하겠다고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한 사실에 대해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한 경찰을 규탄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묵인하는 공권력에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 또한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긴급포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응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영화계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대응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여성건건과 관련하여 외모피로사회를 꼬집는 다양한 액션들(#월간액션_머리어깨무릎발)을 시도하며 몸 다양성 확보 운동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체감했으며, 산부인과 소책자 재발행·생리대 안전성 대응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여성건강 이슈 현안에 대응했다.

여성노동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문제(르노삼성자동차 사건, 00은행 사건, 한샘 사건 등)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성희롱을 회사와 노동부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는 실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고용노동부에 묻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올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워 추진한 첫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과만을 내세우는 허울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겠다.

성폭력 피해 관련하여 무고고소 상담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법적대응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인 항고권이 박탈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해군성폭력 사건 대응의 경우 후속작업으로 퇴역 및 현역 여군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 진행함으로써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의 조건과 처리 방식, 미비점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없는, 성평등 정책제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군에 대한 문제제기-조사-피드백 시스템과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하여, 더 다양한 군의 여성현실을 드러낼 방안과 경로가 어떠해야할지, 나아가 여성단체가 군 혹은 군사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는 논의과제로 남는다.

이외에도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공동행동,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육군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반대하여 대형 플래카드 퍼포먼스 ‘군형법 92조 6 폐지’ 긴급행동,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거제도 개혁운동, ‘사드배치 강행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캠프 참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방통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토론회, 지상파 편법 중간광고에 대한 의견 제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지상파 재허가에 대한 시청자 참여 요구 등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였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지속되고 정부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퇴행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세 속에서 민우회는 각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이슈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에 함께 했다. 특히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조직한 점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지부와 함께 하는 반차별 운동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삶이 운동의 의제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력 감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에 보다 많은 회원 그리고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방식으로 기획되고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차별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 의지를 연결하여 전 사회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한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사진촬영 프로젝트, 임신중절 당사자 이야기모임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이야기모임은 여성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하는 장이 되었다. 형법 제 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몸에 적은 여성들의 사진 269장을 모으는 사진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는 85명의 여성참여자와 함께 100여장의 사진을 사진작가 혜영과 촬영했고, 나머지 169장은 해시태그 액션을 통해 모았다. 사진이었기 때문에 참여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대중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안전함을 느끼며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해방감과 위로를 얻어간다는 피드백을 남겨주기도 했다. 이어진 해시태그 액션에도 목표치인 169명의 참여를 훨씬 웃돌아 400명이 넘는 참여가 이어졌다. 촬영된 사진은 4개 언론을 통해 일부 사전공개 되었고, 전체 사진은 전시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밖에도 이슈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시리즈 발행, 지부와 함께 진행한 거리액션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연대체를 조직해 공동행동을 함께 추진하고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 각 연대단위별 정보와 자원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간 점은 적절했다. 이후 자기 삶과 밀접히 관련된 당면과제로서 낙태죄 폐지를 의미화하고, 낙태죄폐지의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임금격차와 관련된 활동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포에트리 슬램 워크숍, 참여형 공연 집회, 거리 인터뷰 영상 등)로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는 개개인의 목소리로 흩어져 있던 여성 노동의 현실을 ‘성별임금격차’라는 문제제기의 언어로 묶어낸 과정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입장에 처한 이들의 의견과 반응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담아 제작된 영상은 12,000회의 조회수가 보여주듯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3시 STOP 조기퇴근시위’ 진행, 19대 정부에 여성노동 정책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및 청와대 전달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여성노동의제 중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여성노동운동단체들이 공동의제로 설정하면서 주요한 시대적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후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공동대응을 지속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대안적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 대응 또한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하 첫사람)은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의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70명의 시민이 첫사람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에 함께 하였고, 43명의 첫사람 재판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총 18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연예인 박00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건의 국민 참여재판, 남배우 A 사건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그것이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과정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성폭력전담재판부와 피의자 변호사에 의한 2차피해를 문제제기하기 위해 ‘미어캣 기획단’ 활동을 기획하여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정보공개청구 및 기사화 하고,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광고 분석을 통해 이들 광고문구가 ‘꽃뱀’론과 피해자 유발론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재판부 및 피의자 변호인의 신문방식 변화와 공동체가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사건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변호사 광고의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성폭력 변호사 검색시 ‘억울’, ‘실수’, ‘호기심’ 등의 성폭력 피의자 변호 광고로 연결되는 현재 포털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등 후속활동이 과제로 남아있다.

2012년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공생의조건> 활동의 연속으로 2017년에는 <공생의 조건 시즌 2 :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기>를 진행하였다. 시민단체, 정당 등 운동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되짚어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개념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공동체의 성찰적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토론회는 36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고민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과 담론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맥락에 기반 한 제대로 된 개념의 사용과 새로운 개념 발굴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더욱 확산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성차별적이며 여성 혐오가 담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화된 젠더관점의 지수 개발이 시급하였다. 이를 위해 지나 데이비스 재단과 지나 데이비스 포용 지수 개발 과정을 비롯한 모니터링 결과와 성과를 들여볼 수 있는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그간 해 왔던 모니터링 내용을 점검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의 규제기관 및 방송사 등을 조사하여 젠더 관점의 방송 가이드라인, 다양성 바로미터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는 본격적으로 지수 개발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하여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집담회를 통해 그 결과를 지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상파 및 유료, 온라인 속 성차별 광고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였다. 모니터링단은 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모니터링 도구를 광고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였는데, 이는 타 모니터링 도구에 비해 젠더 관점을 강화시켜 성차별을 분명하게 드러낸 도구로 평가를 할 수 있다.

3.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연결되는 곳으로서의 민우회 : 10대 물질, 팟캐스트, 교육, SNS

지난해 대중강의나 토론회 등 행사와 온라인 활동에서 10대들의 참여에 주목하면서, 올해는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로서 10대 페미니즘을 주요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를 열고 이들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는 모듬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사업에 10대의 참여가 가장 높았는데, 10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올해는 폭을 좁혀 학교에서 10대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과 혐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1회의 집담회와 4회의 주제별 워크숍, 신촌에서 열린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통해 10대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임파워링을 통해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데 힘을 더하고자 했다. 특히 신촌역에서 진행한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 있다]는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연기와 당일 폭우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15여명의 10대 페미니스트의 발언이 이어졌다. “비록 여성혐오가 가득한 사회지만 나부터 목소리 내면 분명히 다른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등 10대 페미니스트의 발화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으며 10대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연애, 가족, 미디어 등 다양한 이슈발굴을 통한 이슈화와 10대 페미니스트들이 발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의 기획을 통해 10대 당사자의

임파워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페미니즘 강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하게 진행된 강의가 교육 참가자들의 성찰과 연대의 힘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봄부터 시작된 대중강좌 [민우특강: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맞아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응하여, 평균 100여명이 참가하여 페미니즘 정치를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페미니즘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참여 독려로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미디어 속의 여성혐오의 문제를 짚어보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동시에 미디어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연속특강을 진행하였다. 이후 기획된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는 열린 대중강좌외에 10대를 위한 기획강좌와 고양파주, 군포, 인천, 원주, 춘천 5개지부와 함께 5개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다시 만난 세계> 참여자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주의를 접하고 있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로, 지부에서 새로 만난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작업에 대한 기획이 과제로 남는다.

지난 해 17,600명이던 트위터 팔로워는 55,000여 명으로 약 300%이상 증가하는 등 기존에 운영해 오던 온라인 플랫폼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 공동액션, 교육 등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의 확장 도구이자 여성의 목소리가 모이고 전달되는 창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소식지 [함께 가는 여성]은 기획 꼭지를 전면 배치하고, 디자인을 개편하면서 가지고 싶은 페미니즘 서적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였으며, 팟캐스트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는 작년 1,219명이던 구독자 수가 올해 1,761명 (11/21)으로 증가하고, 다운로드 수는 평균 6,000여건으로 몇몇 에피소드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1만여건으로 집계되는 등 청취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만큼, 이를 다루는 방향과 의미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과정속에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4. 본부 지부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여성주의 운동의 활성화를 이끌고자 노력한 한해

올해 민우회는 지부와 본부 간 협력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여성운동이 그 동력을 기반으로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선 전, 대선주권자행동의 일환으로 각 지부에서는 대선주권자파티를 통해 지역의 작은 광장을 마련, 여성들의 삶의 의제를 모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총파업 주간에 민우회 전 지부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년 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거리 액션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를 지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여 회원·지역주민들과 함께 몸의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인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 및 여성폭력 반대 공동행동,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등 다양한 의제에 함께 공동대응하였다.

그러나 활동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자는 지향에는 다소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계획된 액션을 제안하는 데에서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을 도모하여 지역의 역량강화에 일조하고, 나아가 여성주의 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넓은 의미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과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의사소통 관련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열었던 [오늘부터 우리는: 민우 여성주의 조직문화 워크숍]은 현재 지부 공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되며, 이 워크숍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지역민우ON]을 통해 지부의 다채로운 사업을 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했고,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공동액션을 독려하는 한편 갈무리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향후 지부의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전체 지부의 활동 내용을 골고루 알리고, 더 많은 대중에게가 닿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더 많은 페미니스트와 연결될수록 강해지는 민우회

2017년, 민우회에 가입한 사람은 699명(본부 434명 || 지부전체 265명)으로 현재 회원수는 총 6,355명(본부회원 3446명 || 지부전체회원 2,909명)이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문제로 페미니즘 이슈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위기의식 속 자생적 회원가입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캠페인·행사가 52명에서 126명으로 두배 넘게 상승하였고 회원활동관심 영역이 월등히 높아졌다. 이는 다채롭게 기획된 캠페인과 교육, 각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장이 접점이 되었고 이러한 회원가입은 회원활동의 활성화와도 연결되었다. 특히 30주년은 곳곳에서 그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는데 회원조직 사업 역시 30년간의 활동 성취와 미래지향을 담은 ‘깡판 3종 뱃지(호주제폐지, 미스코리아 지상파 방송 폐지, 낙태죄 폐지)’를 제작 등 참여와 공감을 통한 회원가입과 회원활동에 주력을 맞추어 더 많은 페미니스트의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올해 회원가입서 리

뉴얼과 온라인 회원가입 및 후원장을 개설하였는데 2018년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부 뿐만 아니라 지부와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원확대 캠페인 등의 기획을 통해 민우회의 전체적인 회원 층을 확대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획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으로 많아진 회원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이슈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시도했다. 지역 민우회원을 만나러 가는 ‘민우봉고가 간다.’ 회원과 함께하는 ‘장미대선 번개’, ‘1+1 사무실 포틀럭 영화제’, ‘아이캔 스피크’ 영화 시사회, 오픈 소모임 활동을 통한 ‘불온한 당신’ 상영회, 커밍아웃 파티 ‘세바퀴’ 등 민우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행사를 작고 크게 기획하였다. 그리고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무공간의 리모델링을 단행하였다. 작은 평수이지만 회원공간이 생긴 만큼 민우회 사무실이 회원들로 북적이며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회원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원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 고민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재정안정성은 회비수입이 지난해 대비 16.3%가 상승되어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2015년	2016년	2017년
회비수입	247,979,900	293,149,094	340,993,512
전년대비 증가율	14.1%	18.2%	16.3%

또한 비정기적인 일시기부를 통해 민우회의 활동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후원자도 지속되었다. 별도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바자회는 매해 후원금 규모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재정마련을 위한 의미를 넘어 물품을 통한 후원의 의미가 조명되고 바자회 진행에 가까이 품을 내어준 회원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연대의 마음으로 바자회를 함께 즐기고 나누어준 수많은 페미니스트와 만나는 장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30주년기념식과 연계되어 진행된 후원의 밤은 목표대비 후원액의 115%를 달성하였다. 5개의 30주년 기념사업의 배치로 지출규모가 확대되어 평년에 비해 규모를 높인 후원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우회 창립30주년을 동시에 의미부여하는 수많은 회원과 후원자 덕분에 후원목표를 초과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특별사업] 30주년 기념사업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30주년을 맞아 제도의 변화와 일상의 실천을 결합한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_시즌2’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삶이, 목소리가 운동의 의제가 되는 민우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 성평등의 비전을 만들어간다.

2. 평가 및 과제

- 1) 30주년을 맞아 온라인 플랫폼 제작, 외부 캠페인, 지부 연계, 세대를 다각도로 드러내기 위한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5천여개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2017년 여성들이 일상의 공간, 삶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드러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변화를 여는 열가지 선언’을 구성하여 다양한 차별현실과 해결과제를 확인하였다.

창립 30주년이자 1987년 민주항쟁 30년 후를 맞아 민우회는 1999년에 진행했던 나여기(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시즌 2를 진행하였다. 1999년과 달리 오프라인 설문지와 함께 참여 접근도를 높이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모아진 사례가 실시간 게시되도록 함으로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차별의 목격자이자 증언자로서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기존의 수첩형식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제작하되,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기본 인적 사항 외에 대부분의 문항들을 주관식으로 구성하였음에

도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최소 한개 이상, 많게는 다섯 개 이상의 차별 사례를 제공하였다. 6월부터 7월 두 달 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1,257명의 여성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총 4,788건의 차별 사례를 수집하였다. 한정된 연령대와 설문지 조사라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10대 여성 5명, 50대 여성 5명, 총 10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대 구분 없이 전 영역에 걸쳐 성별화(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차별과 외모지적, 다이어트 강요, 반말, 무시, 직접적 위협을 포함한 여성성 비하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1999년과 비교했을 때, 노골적 무스와 차별사례보다 성별화(“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여자가 꼼꼼하지, 축구는 남자가 더 잘하지” 등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모든 말들)에 따른 성역할 차별 사례가 훨씬 많았다. 이는 노골적 차별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온/오프라인 공히 10대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 중에 두 번째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해 10대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차별이 일어나는 영역 순위에서도 학교가 3위로 도출되었다. 때문에 수집된 10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브로슈어<이게 학교다? 이게 학교죠!>를 제작하였다. 이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을 주요 배포대상으로 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집된 차별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정된 10대 과제는 30주년 기념식과 별도의 30주년 기념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소책자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1,000부 제작하였으며 성차별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차별 사례를 활용하여 세대별 여성의 하루를 구성하여 차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후 참여자, 신청자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에 배포 및 이슈파이팅이 과제로 남았다.

토론회 <2017 성차별 보고서>는 90여명이 참여했으며 운동단체 및 연구자뿐 아니라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했던 10대들과 지역 여성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기존의 토론회와 다르게 전문가 중심이 아닌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교복 입은 참여자를 보는 것이 새로웠다. 당사자들이 좀 더 발언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토론자 경우 여성주의 연구자, 여성가족부, 교육청, 기자까지 다양한 패널을 구성하여, 담론부터 실제 제도 실무자의 고민, 미디어 현실 진단 등 다각도의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성혐오, 학교 내 여

학생 차별, 기울어진 미디어 재현 등 다양한 문제의식은 이후 캠페인, 문화제와 같은 구체적인 이슈파이팅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여기 시즌2 사업의 핵심은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드러내는데 방점을 맞춰서 진행하였다. 주제가 ‘성차별’인 만큼 영역이 방대하고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한 만큼 팀/국, 지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차별 사례 분석과 10대 과제 등이 논의, 선정되고 그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방대한 조사과정과 30주년 기념사업 준비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팀/국, 지부와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갖지 못했다. 전체사업의 경우 좀 더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함께 내용을 구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했겠다.

2.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기념식과 릴레이 강연을 통해 20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의 이슈들과 만나는 감동과 힘을 얻는 경험을 나눴고,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책 출판, 회원 공간 마련 등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하는 더 많은 페미니즘의 확산과 실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30주년 기념식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는 36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가 모여 앞으로도 용기있게 여성운동의 길을 걸어갈 힘을 다지는 자리였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우회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민우회 역사와 함께 길을 열어간 100여명의 추진위원이 조직된 것은 큰 성과였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우회의 미래비전과 함께 나여기 시즌2 사업을 통해 찾아낸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민우회의 미래비전을 회원 및 후원자들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었고 2017년 새롭게 확인된 여성운동의 과제를 함께 실현해 가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앞으로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이 단순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대중적인 참여방식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0주년 기념 릴레이 강연 <불나방 페미 연대기 : 여성운동의 역사가 된 6개의 순간>은 민우회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여성운동의 굵직한 이슈들을 강사가 아닌 당시에 활동했던 전현직 활동가가 짧은 릴레이 강연으로 들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강연이었다. 참가 신청자가 291명에 달했고, 강연 당일에도 209석 규모의 강연장이 꽉 차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

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30년 여성운동 현장에 있던/있는 사람들과 이야기와 그 과정들이 역사가 되어 다시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금의 시간에서 되새겨볼 수 있었다.’, ‘시대의 변화, 또 변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싸워야 할 것들이 보였다.’, ‘여성들의 유쾌한 에너지와 연대로 인한 변화들을 듣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었다.’ 등 평가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다루면서 동시에 현재의 참석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페미니즘의 대중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거나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회원들과 더 가깝게 만나고 ‘참여하는 여성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공간 마련을 위한 사무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비록 작은 평수이지만 회원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 민우회 사무실이 회원들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회원들 스스로 다양한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캠페인 시즌2

: 2017 지금 여기 여성차별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 설문조사 기획

1) 기획회의

○ 1차

- 일시 : 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망원역 갤러리원
- 참석 : 김희영, 김진희, 서지영, 최원진
- 내용 : 1999년 나여기 캠페인 공유, 시즌2 목표 설정 및 방향 논의, 세부 계획 기획

○ 2차

- 일시 : 3월 8일(수) 오후 1시, 광화문 스타벅스
- 참석 : 김민문정, 김희영, 서지영, 최원진

- 내용 : 연구자 선정 및 설문조사 방법론 논의

○ 3차

- 일시 : 3월 24일(금) 오후 3시 30분,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민문정, 김희영, 서지영, 최원진
- 내용 : 차별사례 설문지 초안 논의

2) 자문회의

- 일시 : 4월 18일(화) 오전 10시,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현미(주연구자), 김민문정, 김희영, 서지영, 최원진
- 내용 :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논의, 설문지 초안 검토

3) 지부 활동가 회의

- 일정 : 4월 28일(금)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지부 활동가(서울남서_이주용, 동북_문지숙, 고양파주_손홍만, 인천_박해란, 군포_이현정, 진주_조윤미, 원주_심재희, 광주_김의영), 본부 활동가(김희영, 최원진)
- 내용 : 사업 배경 및 의미 공유, 설문지 기획 및 사례 수집 방법 논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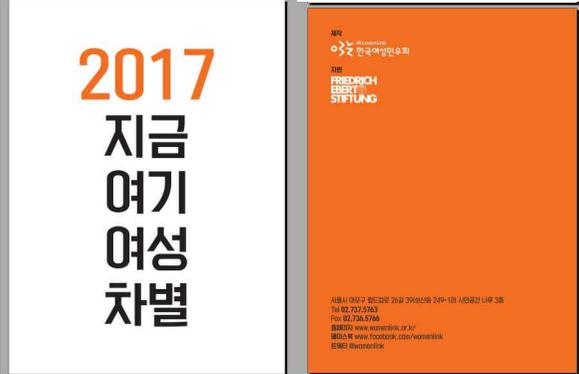
2. 설문지 배포 및 수거

1)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 대상 : 전 연령대 여성
- 방법 : 온라인 페이지 및 오프라인 설문지(2,000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사례 수집
- 응답 기간 : 6월 1일~ 7월 31일
- 총 응답자 : 1,257명 (온라인 : 497명/ 오프라인 : 760명)
- 총사례건수 : 4,788건

○ 오프라인 설문 (주요 배포 : 지부 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개발센터, 대학교 총여학생위원회 등)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2,000부 - 규격 : B6 - 컬러 : 4도(올컬러) - 페이지 : 16p
----	---

<p>표지/ 뒷표지</p>	
<p>기본 질문</p>	<p>◆ 나이 _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p> <p>◆ 현재 사는 지역 _ 예시 : 경기도 부천</p> <p>◆ 한국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나요? ① 예 _ 그 이유는? ② 아니오 _ 그 이유는?</p> <p>◆ 성평등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가 있다면?</p>
<p>본문 (사례 적기)</p>	<p>당신이 겪었던 성차별 사례를 작성해 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하거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을 이용할 때 예) 운전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 있다. 은행대출, 부동산계약과 같은 신용관련 업무 안에서 예) 공인중개사에 혼자 갔을 때, 중개사 분이 반말을 계속 했다. 가족 관계에서 예) 남동생은 저녁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지만, 나는 안 된다. / 언제나 밥을 차려야 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일터에서 예) 여초 직장에 다니는데, 관리자는 모두 남자다. /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자만 화장이 필수다 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에서 예)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분홍색은 여자색이라고 했다. / 학급에서 번호를 정할 때 항상 남자가 먼저다. 커뮤니티(동창회, 취미모임 등)안에서 예) 등산모임을 하는데 술자리에서 여자가 한명 있어야 좋다는 말을 했는데, 다들 그

냥 웃어 넘겼다.

7. 친밀한 관계(애인, 친구 등)안에서

예) 애인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가 농담처럼 '난 살찐 아줌마 싫어하는데' 라고 말했다

8.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등)에서

예) 일일연속극을 보면, 여자캐릭터는 항상 착한 여자 주인공과 그녀를 질투하는 조연으로 등장한다.

9. 기타

이 외의 영역에서의 사례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온라인 설문 <http://minwoo-poll.parti.do>

- 참여자 : 총 497명

○ 설문결과

- 응답 기간 : 6월 1일~ 7월 31일

- 총응답자 : 1,257명 (온라인 : 497명/ 오프라인 : 760명)

- 총사례건수 : 4,788건

- 응답 연령대

나이	명	비율(%)
10대	235	19
20대	434	34
30대	183	14
40대	200	16
50대	141	11
60대	25	2
70대	5	1
미응답	34	3
합계	1,257	100

- 응답자 거주지

지역	명	비율(%)
서울	503	40
인천	76	6
경기도	316	26
충청도	42	3
강원도	57	5
경상도	37	1
전라도	18	1
대전	20	2
광주	70	5
대구	36	3
부산	23	2
울산	8	1
제주도	2	0.1
해외거주	6	0.4
미응답	43	3
합계	1,257	100

- 한국은 성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답변

답	명	비율(%)
예	26	2
아니오	1169	93
무응답	62	5
합계	1,257	100

- 영역별 성차별

영역	건수	비율(%)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2위)	699	15
은행대출, 부동산계약과 같은 신용업무 안에서	193	4
가족 관계에서(1위)	1092	23
일터에서(4위)	629	13
학교에서(3위)	659	14
커뮤니티 안에서	403	8
친밀한 관계 안에서	438	9
대중매체에서(5위)	607	13
기타	68	1
합계	4,788	100

- 전체 순위별 성차별

순위	영역	비율(%)
1위	가족 관계에서 ("오빠 밥 좀 챙겨줘" "위험하니까 일찍 일찍 다녀라")	23% (1,092건)
2위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택시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해요")	15% (699건)
3위	학교에서 ("왜 여자교복은 치마 밖에 없죠?",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	14% (659건)
4위	일터에서 ("결혼은 언제쯤?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구하는데?")	13% (629건)
5위	대중매체에서 ("며느리는 싸가지 없고,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13% (607건)
6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9% (438건)
7위	커뮤니티 안에서 ("뒷풀이 때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사이에 앉으라고 한다")	8% (403건)
8위	은행대출, 부동산계약과 같은 신용업무 안에서 ("집 계약 할 때 '남편 분은 언제오세요?'라고 질문을 자주 들었다.")	4% (193건)
	기타	1%(68건)

- 영역별 세부 순위

■ 가족 관계에서(1092건)

1위) 가사/돌봄 노동 강요 (379건)

2위) 통금/규제 (191건)

- 3위) 성별고정관념/외모지적/애교 강요 (180건)
- 4위) 가족 내 남성과의 대우 차이/남아선호사상(172건)
- 5위) 제사/명절/장례 차별 (92건)
- 폭력/기타 (15건)

■ 운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시(699건)

- 1위) 운전 시 폭언/위협/무시/비하 (299건)
- 2위) 택시 승차 차별/사생활 간섭/반말 등 (182건)
- 3위) 불쾌한 접촉/찍별/시선/성희롱 (94건)
- 4위) 대중교통에서 무시/시비/폭언/ (87)
- 5위) 두려움/공포 (37)

■ 학교에서(659건)

- 1위) 성별/성역할 차별, 고정관념 (245건)
- 2위) 복장, 행동 규제/ 외모 지적(108건)
- 3위) 교사에 의한 성차별 (105건)
- 4위) 대표는 남자 (97건)
- 5위) 무시/배제/비하(63건)
- 6위) 성폭력/성차별적 문화(37건)
- 기타(4건)

■ 일터에서(629건)

- 1위) 외모지적, 복장규정(165건)
- 1위) '여성적' 역할 강요/성별고정관념 (165건)
- 3위) 고용승진업무상 차별 (126건)
- 4위) 무시/배제/비하(104건)
- 5위) 결혼/출산/육아 여부에 따른 차별 (49건)
- 6위) 성희롱(20건)

■ 대중매체(607건)

- 1위) 고정된 여성 캐릭터/역할/성차별적 묘사/여적여구도 (224건)
- 2위) 가부장적 관점/신데렐라 스토리(104건)
- 3위) 상품화/대상화(86건)
- 4위) 외모집착/강요(69건)
- 5위) 여성부재/비중 없음(40건)
- 6위) 여성희화화/비하(39건)
- 7위) 폭력 묘사(24건)
- 기타/소수자 혐오(21건)

■ 친밀한 관계 안에서(438건)

- 1위) 외모평가/관리강요 (148건)
- 2위) 성역할 차별/고정관념 (92건)
- 3위) 무시/배제/비하(87건)
- 4위) 행동/옷차림 간섭(56건)
- 5위) 성희롱/데이트폭력/가해자옹호(28건)
- 6위) 기승전 ‘연애, 결혼, 육아’(13건)
- 기타 (14건)

■ 커뮤니티 안에서 (403건)

- 1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모임의 꽃, 접대요구) (157건)
- 2위) 무시/배제/비하 (85건)
- 3위) 성역할 차별/ ‘여성적’ 역할 강요 (51건)
- 4위) 외모/복장 지적(47건)
- 5위) 남성이 모임의 중심, 여성은 부수적 역할 부여(33건)
- 6위) 성희롱/성적비하(23건)
- 기타(7건)

■ 은행대출 등 신용 및 계약 시 (193건)

- 1위) 무시/반말/설명미비(98건)
- 2위) 남편 및 보호자 요구(48건)
- 3위) 대출 및 카드발급 제약/명의 차별 (36건)
- 4위) 성희롱/플러팅/기타 (11건)

■ 기타(68건)

- 1위) 여성무시/비하(18건)
- 2위) 성희롱/성폭력(13건)
- 3위) 외모평가/관리(10건)
- 3위) 주민번호/연금제도/병원/공공기관 등(10건)
- 기타 (17건)

2) 인터뷰 (면대면)

- 일정 : 8월~10월/ 10대 5명 ,50대 5명/ 총 10명 진행
- 대상 : 차별 경험이 있는 10대, 50대 이상 여성
- 인터뷰어 : 김현미(연구자), 김민문정, 김희영, 김진희, 최원진, 서지영
- 인터뷰이

○ 10대

이름(가명)	나이	일시 및 장소	인터뷰어	내용
이예림	17세	9월 15일(금) 오후 6시,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무실	김진희	고등학교 재학 중. 또래 남학생들과 소통이 어렵다고 느낀다. '예쁘기 때문에' 방송반 아나운서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포함하여, 외모가 기준인 학교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김하수	19세	8월 4일(금) 오후 4시, 서울대역 토즈	최원진	예술 고등학교 재학 중.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여성차별과 혐오에 대해 자각했다. 예고 특성상 무대에 설 일이 많은데, 유독 여성에게만 까다로운 외모 기준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
신의정	18세	8월 3일(목) 오후 4시, 인천부평역 인근 카페	김현미	고등학교 재학 중. 아이돌 팬질로 시작한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 이슈를 접했다. 강남역 사건 이후 남학생들이 '김치녀'라는 말을 욕으로 쓰고, 4대 미녀를 뽑는 등 또래 남성 문화를 실시간 목격하면서 페미니즘을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호민	16세	8월 4일(금) 오후 2시, 서초역 토즈	김현미	중학교 재학 중. 오빠의 조기유학을 차별로 인지하고, 낙태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강요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교 성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선우	18세	8월 10일(목) 오후 2시, 수유역 인근 카페	서지영	고등학교 재학 중. 생리비하, 순결강요, 머리스타일 간섭, 학생들 외모 폼핑 등 교사들에 의한 성차별 경험이 다수 있다. 교과서에서 남성이 가사노동의 보조자로 그려지거나, 여성 과학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역시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5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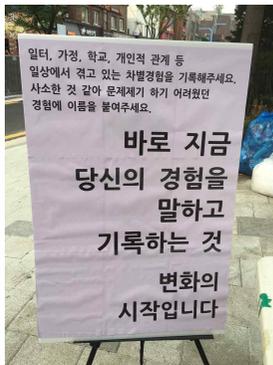
이름(가명)	나이	일시 및 장소	인터뷰어	내용
손자민	56세	8월 17일(목) 오전 11시, 영종도 자택	김희영	통역사, 기혼, 자녀 없음.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 여성은 '투명인간'화 되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남자였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해보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하영	55세	8월 9일(목) 오후 4시,	김현미	지역아동센터 교사, 기혼, 자녀1남1녀.

		인천지역아동센터		담배 값 인상은 정치화 되는데, 필수품인 생리대는 사소화 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원가족에서 유산 상속 때 오빠와 차별당한 경험 이 있다.
배주현	56세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승배기역 인근 카페	최원진	다문화센터 방문교사. 별거 중. 자녀 1남 2녀. 제사상은 내가 차리는데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김강이	53세	8월 14일(월) 오전 11시, 군포여성민우회 사무실	김민문정	학교병설유치원 청소노동자, 기혼. 남편이 가부장적이지 않지만 여성운전자를 비하할 때 불편하다고 느낀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남편의 몫이다.
이수영	64세	8월 28일(월) 오전 10시, 인천여성민우회 사무실	서지영	전 사회복지사, 사별, 자녀 3녀. 아들을 낳지 못해 시댁에서 차별받았고 막내 출산 전 낙태를 종용받았으나 버틴 경험이 있다. 나이많은 여성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3) 캠페인

○ 1차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4시~6시, 홍대역 8번 출구
- 내용 : 차별 사례 전시,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등
- 참여 : 50여명



○ 2차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5일(토) 오후 1시~6시, 시청광장
- 내용 : 차별 사례 전시,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등

- 참여 : 200여명



3. 사례 분석 및 주요 해결 과제 선정

1) 사례 분석회의

○ 1차

- 일시 : 8월 3일(목) 오전 10시 반,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현미, 김민문정, 김희영, 최원진, 서지영
- 내용 : 향후 일정 공유,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방향 및 초안 잡기

○ 2차

- 일시 : 8월 17일(목) 오후 4시,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민문정, 김희영, 최원진
- 내용 : 나머지 사례 1차 정리한 것을 토대로 영역별 핵심 의제 논의

○ 3차

- 일시 : 8월 24일(목) 오전 10시 반,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민문정, 김희영, 최원진
- 내용 : 상집 의견 공유 및 10대 과제 초안 도출, 토론회 기획

○ 4차

-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4시,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김현미, 김민문정, 김희영, 최원진
- 내용 : 10대 과제 논의 및 토론회 기획

2) 10대 과제 선정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

조사과정에서 성평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많은 여성들이 '유토피아'라고 답했습니다. 현실엔 도저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무력감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4,563건의 성차별 사례는 한국사회가 일상적 문화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하는 과제이자 향후 민우회의 활동 의제이기도 합니다. 성평등을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10대 과제이자 선언입니다.

1. 딸이라는 역할은 없다.

“오빠(남동생) 밥 좀 챙겨줘”, “넌 딸인데 왜 이렇게 무뚝뚝해?”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남동생과 오빠의 지원을 중용하는 노골적 차별보다 가사노동을 은근히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였다. 조건의 변화는 있었으나 가사노동 배분에 있어, 성별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우리에게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왜 여자교복은 치마 밖에 없죠?”, “여자들은 정지에 관심 없잖아”

각 학교별 복장 규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시정권고조치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별은 수업시간 내 특정 교사들에 의한 여성에 대한 비하, 무시, 차별적 발언이었다.

3. 우리는 얼굴로 일하지 않는다.

“돈 더 줄 테니 화장 하고 오래요” “왜 여자만 안경도 안 되고, 바지도 안 되고, 뽕얼도 안되죠?”

성별화에 따른 역할 구분은 학교를 거쳐 일터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여성은 000해야 해.’라는 고정관념은 실제 규정들을 만들어낸다.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화장, 옷차림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은 노동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4. 통금? 치안은 국가에게 맡기세요.

“여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위험하니까 일찍 일찍 다녀라”

통금시간 규제는 걱정이나 간섭이 아닌, 명백한 성차별이다. 폭력, 강도, 강간, 살해와 같은 치안의 문제는 여성 개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 예방이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로 동원되고 있음을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2017 택시, “반말 없는 곳으로 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해요.” “사고 났을 때 내가 여잔걸 확인하면 바로 욕부터 나와요”

일상적 반말, 무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젠더 불평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들이 다수였다. 또한 ‘김여사’와 같은 여성은전자를 비하하는 단어는 실제 운전 시 무리한 추월, 욕설, 위협과 같은 실제로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외모플레인은 이제 그만

“살만 빼면 예뻐 것 같은데” “살 빠졌네?” “살 좀 쥘 거 같아. 건강을 위해서 빼면 어때?”

외모평가, 다이어트 강요 사례의 경우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왔다. 특히 사적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외모 코멘트는 직접적 차별이나 규제보다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외모플레인 이란? 맨스플레인(mansplain : man(남자)과 explain(설명하다)을 결합한 단어. 남성이 여성에게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체 하는 태도를 의미)에서 착안한 단어. 본 글에서는 전사회적으로 개개인들이 행하는 외모에 대한 지적, 칭찬과 걱정을 가정한 개입, 자기 비하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활용함.

7. 제가 저의 보호자입니다만?

“집 계약 할 때 ‘남편분은 언제오세요?’라고 질문을 자주 들었다.”

“은행대출 시 ‘혼자 사느냐’ ‘남편이 없느냐’와 같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질문을 들었다”

돈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 시,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을 독립적 개인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관계가 여전히 많았다.

8. 다양한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성캐릭터를 보고 싶다.

“며느리는 싸가지 없고,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김삼순 이후 10년, 우리는 여전히 똑똑하다. 주말, 일일 연속극을 통해 무한 반복되는 여성 캐릭터들의 문제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구태의연하다.

9. 여자니까 말고 동료니까 리스펙(respect)

“결혼은 언제쯤?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구하는데?”

“기혼 여성은 남편이 돈을 버니까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 차별보다 은근한 배제, 눈치주기 혹은 ‘여자니까 ooo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교묘한 이중 메시지 까지. 일터에서의 차별은 훨씬 더 정교하고 촘촘해졌다. 승진 배제, 특정 역할(접대, 감정노동)강요와 남녀임금격차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10. 벽 밀치기, 손목뜯기, 가슴키스 그만하자 ♪ 그만하자 ♪

“억지로 끌거나 밀어붙여서 하는 키스를 설레는 행동으로 묘사함”

“짝사랑 상대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려진다”

더 이상 폭력적 행동이 로맨스로 둔갑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은 여성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 장면 에 대한 시장권고 조치가 강력하게 요구된다.

4. 10대 과제 및 해결 실천 선포

1) 30주년 기념식 (10대 과제 선포)

-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화) 오후 7시, 여의도 중소기업청

2)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30주년 기념 토론회 ‘2017 성차별 보고서’>

-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목)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홍대역 2번 출구)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시간	순서	
15 : 00 - 15 : 50	발제	① 바로 여기서 차별에 대항한다 :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정동적 전환 _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② 2017 성평등의 얼굴을 그리다 : 변화를 위한 열가지 과제 _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탐·회원팀 팀장)
15 : 50 - 16 : 30	토론	- 김홍미리 (여성주의 활동가) - 유샛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사무관) - 최지은 (대중문화 기자) -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
16 : 30 - 16 : 50	질의 응답 및 전체토론	

- 참여자 : 총 88명

- 기사

일시	언론사	헤드라인
9/28	중앙일보	여성 93% “한국, 성평등 국가 아니다”

9/29	중앙일보	"오빠 밥 차려줘라" 외모 평가는 기본...일상에 만연한 성차별 발언
9/28	인사이트	'한국은 성 평등 국가인가요?'...한국 여성 93% "아니다"
9/28	경향신문	1999년 "여자가 된 공부냐", 2017년 "여자에는 분홍색"
9/28	경향신문	"우린 얼굴로 일하지 않는다"...성평등 '10대 과제' 체크해봐요
9/28	서울경제	"외모지적·밥 차리기·역지키스 그만!"
9/28	서울경제	"오빠 밥 차려줘라" 가족 간 성차별 가장 많아
9/28	뉴스1	'한국은 성 평등 국가인가요?' 여성들 93% "NO"
10/1	머니투데이	"누나니까 설거지해라"...가족 내 성차별 가장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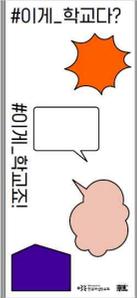


3) 브로셔 및 소책자 발간

○ 브로셔 <#이게 학교다? 이게 학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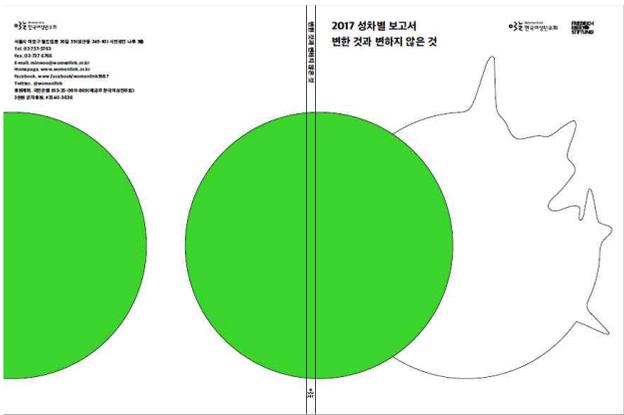
- 목표 : 설문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10대의 목소리를 담은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하여, 변화를 촉구한다.
- 대상 : 학교 및 교육청, 관련 정부기관, 정당 등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1,000부 - 규격 : 세로 20cm / 가로 15cm - 컬러 : 4도(올컬러) - 페이지 : 8p
표지	

	
<p>서문</p>	<p>10대 차별 통계</p>
<p>본문</p>	<p>“왜 여자 교복은 치마 밖에 없죠?” 여학생에게 더 까다로운 복장 규정, 치마 제한 사례 소개 및 대안</p> <p>“선생님 그건 성차별입니다.” 교사들의 성차별 발언, 사례 소개 및 대안</p> <p>“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체육 시간 차별 사례 및 대안</p> <p>“성교육을 받을 때 항상 여자가 조심하라고 했다.” 성통념을 강화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교육 사례 및 대안</p>
<p>나가며</p>	<p>*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가이드라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 과목 내 성평등 교육 신설 2. 교사 양성과정 및 연수 시 성평등 교육 의무화 2. 여학생 바지 선택권 보장 3. 성차별적인 복장규정 개선 4. 성별 구분 없는 동등한 체육교육 실시 5. 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p>* 성평등에 동참하는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자는, 남자는’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기 2. 학생들에게 칭찬을 포함한 외모평가하지 않기 3.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기회 부여하기 4. 학생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존중하기
<p>○ 소책자 <2017 성차별 보고서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목표 :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나왔던 성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세대별 여성의 하루를 서술하고,</p>	

키워드별로 분석하여 성차별을 대중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소재자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 대상 : 인터뷰 및 설문지 참여자, SNS신청자, 일반 대중 등.

<p>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1,000부 - 규격 : 세로 20cm / 가로 15cm - 컬러 : 2도 - 페이지 : 70p 					
<p>표지/ 뒷표지</p>						
<p>서문</p>	<p>여는 글 : 발간 취지와 의미</p>					
<p>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숫자로 보는 성차별 보고서/인터뷰이 소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어떤 하루</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생 김셋별(10대) - 83년생 김현진(30대) - 59년생 정미순(50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키워드로 본 성차별</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강남역/ 강요된 예의/ 그래도 가장은 나야 나 기승전 결혼/김여사 ㄴ. 남성연대/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분홍색 네가 더 잘하니까 ㄷ. 다이어트/ 대표는 남자/ 딸바보 ㄹ. 메갈이니?/ 몸가짐 ㅂ. 반말/ 분위기가 사내 ㅅ. 4대 미녀/ 성교육 ㅇ. 안경/ 애교/ 엄마 VS 여성/ 여적여/ 열등감 잘 모르시죠 ㅋ. 콘크리트 천장 ㅌ. 통금/ 투명인간/ 트위터 ㅍ. 픽미픽미 VS 나야 나 ㅎ.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td> </tr> </table>		어떤 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생 김셋별(10대) - 83년생 김현진(30대) - 59년생 정미순(50대) 	키워드로 본 성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강남역/ 강요된 예의/ 그래도 가장은 나야 나 기승전 결혼/김여사 ㄴ. 남성연대/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분홍색 네가 더 잘하니까 ㄷ. 다이어트/ 대표는 남자/ 딸바보 ㄹ. 메갈이니?/ 몸가짐 ㅂ. 반말/ 분위기가 사내 ㅅ. 4대 미녀/ 성교육 ㅇ. 안경/ 애교/ 엄마 VS 여성/ 여적여/ 열등감 잘 모르시죠 ㅋ. 콘크리트 천장 ㅌ. 통금/ 투명인간/ 트위터 ㅍ. 픽미픽미 VS 나야 나 ㅎ.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떤 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생 김셋별(10대) - 83년생 김현진(30대) - 59년생 정미순(50대) 					
키워드로 본 성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강남역/ 강요된 예의/ 그래도 가장은 나야 나 기승전 결혼/김여사 ㄴ. 남성연대/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분홍색 네가 더 잘하니까 ㄷ. 다이어트/ 대표는 남자/ 딸바보 ㄹ. 메갈이니?/ 몸가짐 ㅂ. 반말/ 분위기가 사내 ㅅ. 4대 미녀/ 성교육 ㅇ. 안경/ 애교/ 엄마 VS 여성/ 여적여/ 열등감 잘 모르시죠 ㅋ. 콘크리트 천장 ㅌ. 통금/ 투명인간/ 트위터 ㅍ. 픽미픽미 VS 나야 나 ㅎ.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열 가지 상상	10대 선언문
--	---------	---------

2. 30주년 기념식 :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

- 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저녁6시~9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
- 참석자수 : 360여명
- 프로그램(사회 최진협 사무처장)

순서	시간	소요	내용
식전	6:00~7:00	1시간	접수, 식사, 참여전시, 포토존
본행사	7:00~7:05	5분	장내 정리, 사회자 등장
	7:05~7:15	10분	대표+ 추진위 무대위 인사 + 플로어 추진위 인사
	7:15~7:45	30분	오신 분 소개
	7:45~7:50	5분	30주년 기념 영상
	7:50~8:30	40분	민우회 30년을 보여주겠습니다
	8:30~8:35	5분	활동가 공연
	8:35~8:45	10분	비전 발표(김민문정),나여기 결과 (강혜란)
	8:45~8:50	5분	회원 합창단 공연



3. 30주년 기념 릴레이 강연

<불나방 페미 연대기 : 여성운동의 역사가 된 6개의 순간>

- 1) 일시 : 8월 30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2) 장소 : KT스퀘어 드림홀 (208석 규모)

3) 참석인원 : 200여 명 (참가신청 : 291명)

4) 프로그램

사회 :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7:30-7:40	오프닝	사진으로 보는 1987~2017 여성운동의 역사적 순간들
7:40-7:50	강연1	여직원 구함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 안경착용불가” - 모집채용 성차별로 44개 대기업을 고발하다 : 정강자(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7:50-8:00	강연2	시청률 54%의 외모품평쇼, 미스코리아 대회를 지상파에서 퇴출시키다 : 조정하 (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8:00-8:10	강연3	체대로 바꾸려면 동네에서부터 - 여성들, 지방의회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다 : 용정순 (전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8:10-8:15	질문 수거	민우회 2016년 활동 영상 상영 / 질문 수거
8:15-8:25	강연4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 -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 지하철 손잡이 높이를 바꾸다 : 윤정숙(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8:25-8:35	강연5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 ‘낙태죄’의 ‘죄’를 묻다 :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8:35-8:45	강연6	다운로드! 당신도 공범일 수 있다 - ‘몰카’와의 싸움을 시작하다 : 이선미(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8:45-9:15	질의응답	강연자 6인에게 질의응답

5) 영상 제작

- 6개의 강연을 각각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 배포 당시 온라인상 반응이 크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의 의미가 있음.



4. 30주년 기념출판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 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 20주년 이후 발생된 기관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글을 모아 책을 출판함.

- 2쇄까지 진행

<목차>

추천의 글

서문

- 내 몸의 기억과 감각을 만나는 시간
- 여장놀이를 추억하며, 젠더의 경계를 생각하다
- 일시장애
- 여름날의 커리어 우먼 코스프레
-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OTL
- 난 개구리가 아니다
- 왜, 지금, 누구를 위한 피임약 재분류인가?
- 해움의 머리 기르기

/ 누구로 기억할 것인가, 누구와 기억할 것인가 /

- 우리는 매일 아침 능(陵)에서 눈을 뜬다
- 엄마 아빠, 다 거짓말이야
- ‘오빠’가 뭐길래?
- 경계 밖과 안의 그들
- 교회, 침묵을 말하다
- 얼굴 없는 (성)폭력
- 운이 좋아 살아남은 나는, 인간입니다
- 혼자 사는 여자

/ 정색해도 괜찮아 /

- 따로 또 같이 살기
- 나는 왜 결혼했을까? 화성인의 지구생활기
- 엄마노릇과 내 삶의 중간성적표
- 나는 매일 시험 보는 기분으로 산다
- 결혼합니다, 위로해주세요!
- 이별이라는 벤치
- 함께 살기 15년, 공생의 조건
-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기
- 여자, 명절과 춤추다
- 내 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게 평화를
- 남자 셰프 말고, 엄마의 쿡방은 안 되겠니?

/ 여성에게 여행이 필요한 이유 /

- 나쁜 배려,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배려일까?
- ‘동기’도 아닌, 그렇다고 ‘여자’도 아닌
-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해내겠어, 바꿔놓겠어
- 직장인 건강검진 체험기
- 페미니스트 의사가 되겠다던 야심찬 결심
- 회사에서 커밍아웃하기
- 여자의 적이 이제 그만 여자였으면 좋겠다
- 난 어찌다 페미니스트가 되었을까?
- 점이 아닌 선, 에피소드가 아닌 역사
- 소통은 가능하다는 희망
- 하늘로 가는 길에도 남녀가 따로 있더라
- 그냥 이렇게 살아 있는 그대로

/ 페미니스트 & 고수가 알려주는 싸움의 꿀팁 /

- 선언문: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5. 30주년기념, 공간개선을 통해 ‘회원공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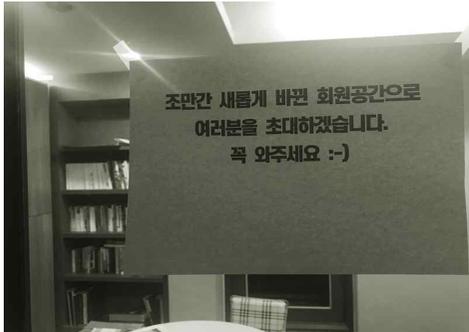
1) 공간TF 구성 : 강혜란, 최진협, 류형림, 신혜정, 김진희

2) 내용

: 회원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민우회를 만들고자 함.

: 환기가능한 창, 테이블과 의자교체 등 사무공간 변화를 통한 활동공간개선

3) 리모델링 기간 : 12월 7일~12월 12일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 연대 등

여성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을 회원 그리고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방식으로 기획하여 역동적으로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에 이은 박근혜 퇴진행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화계_성폭력] 대응활동까지 올 한해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응활동의 연속이었다. 연초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웠던 시간, 국회에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합성 그림 [더러운 잠]이 풍자 대상의 소수자성을 부각시키고 남성의 시각을 재현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더 나은 민주사회는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기 대선 국면에 다양한 여성주의 단체와 그룹, 페미니스트 개인들이 참여한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행사를 통해 유의미한 유권자 그룹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의 일상 속 다양한 요구들을 확인하였고, 연대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을 가시화한 점, 또한 단순히 '페미니즘 정권'을 바란다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를 통해 페미니즘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라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하는 후보조차 여성의제가 실종되었음을 드러내, 대선국면에서 여성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새롭게 교체된 문재인정부의 인사과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인사과정에서 드러난 젠더의식 부재를 짚어나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대표성확대, 여성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참여형 개헌으로 시민사회계 내 다양한 이슈들이 집적되는 개헌 논의의 장에서 성평등 조문의 신설을 넘어 다양한 차별금지사유,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사회권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페미니즘 관점을 담아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강남역 사건 1주기를 맞아 #변한것과_변하지_않은_것 해시태그 온라인 액션과 '다시 포스트 잇을 들다' 거리전을 통해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다시 사회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였다. 이어 여성 BJ를 '살인'하겠다고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한 사실에 대해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한 경찰을 규탄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묵인하는 공권력에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 또한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긴급포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응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영화계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대응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외모피로사회를 꼬집는 다양한 액션들(#월간액션_머리어깨무릎발)을 시도하며 몸 다양성 확보 운동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체감했으며, 산부인과 소책자 재발행·생리대 안전성 대응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여성건강 이슈 현안에 대응했다.

한편 올해는 혐오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 일부 보수기독교세력의 반 인권적 행태가 이어지고 교체된 정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퇴행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현안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이에, 민우회는 각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이슈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에도 활발하게 결합했다.

1/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Link 2017" 참석
1/7	세월호 1000일, '세월호를 인양하라' 행진 및 집회참여
1/14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 정치쫓범 및 재벌총구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1/21	"세계여성_공동행진_서울"
1/20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거리에 선 페미니즘' 출판기념회
1/24	표창원 '사국풍자 전시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한 침삭지도
~3/8	#세계여성의날 #왜_때문이죠? 모든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은 왜 투표할 수 없나?'고 질문했던 100년 전 여성의 날처럼. "미용실에 남성컷과 여성컷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은행가면 왜 여성 직원만 유니폼을 입나요?" "옆 남학교에는 있는데 왜 여학교에는 축구 골대가 없나요?"
2/3	[논쟁] 계속되는 <더러운 잡> 논란에 부쳐, 성평등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2/4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구속, 촛불개혁실현 14차 범국민 행동의 날 '2월에는 탄핵하라'
2/10	연예산업 안에 만연한 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예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성행위 촬영물, 성상납 등은 분명 문제이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관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11	물리설 수 없다! 2월 탄핵! 특검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퇴진, 신속 타핵을 위한 15차 범국민 행동의 날'
2/13	<이재용 영장재청구 촉구서명> 특검은 즉각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2/15	선거법 개혁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2/18	1.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2.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

2/20	<p>‘#미루니까_시기상조 #지금당장_페미니즘’ 영상 제작 배포</p> <p>1) 배포일: 2/20</p> <p>2) 배경 : 2월 13일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과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시기상조’를 언급.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미루니까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서 배포</p>
2/22	<p>박근혜-최순실게이트 왜곡보도를 지시한 ‘언론장악부역자’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자격 없는 MBC 사장 선임 강행 중단 및 원천 무효를 요구합니다.</p>
2/23	<p>“MBC를 국민의 품으로” 촛불집회</p> <p>#언론장악중단 #공영방송_지배구조개선</p>
2/24	<p>"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방문진 이사회는 MBC 김장겸 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해체하라!"</p>
2/25	<p>[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전국집중의 날</p>
2/27	<p>[기자회견문]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즉각 황교안을 탄핵하라!”</p>
3/4	<p>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집회</p> <p>[38세계여성의날 기념, 페미대행진 ‘페미니스트가 나라를 구한다’]</p> <p>[3.4 풍선캠페인]</p> <p>1) 일시 : 3/4(토) 오후 2시~4시</p> <p>2) 장소 : 광화문, 보신각, 청계광장</p> <p>3) 내용 : 3월 4일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 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쓰인 풍선을 배포.</p>
3/7	<p><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정책을 밝.히.다> 토론회 참석</p>
3/8	<p>[기자회견]#STOP_영화계_내_성폭력</p> <p>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p>
3/10	<p>[논평] 현재의 전원일치 파면결정,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p> <p>[논평]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국민들로부터 일찌감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근혜에 대한 파면 절차가 오늘로써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4개월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1500만 촛불이 승리한 날이다.</p>
3/15	<p>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p> <p>: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p> <p>: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선언대회 선언문>에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투표 연령은 만18세부터/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등의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3/15	<p>'박근혜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참사로 꼽히는 <사드배치 강행중단을 촉구하는 비상 시국회의> 참석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p>
3/23	<p>[성명] 진실규명-미수습자 수습의 희망이 인양되다</p>
3/23	<p>차별금지법제정여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p>

3/23	[카드뉴스] #TV조선_탈락소취 : 종편 재승인 심사에 부처
3/24	여성차별out! 평등사회를 만드는 10대 대선 여성노동정책요구 10만인 서명운동 <4대 의제 10대과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2. 일-돌봄-쉼의 균형! 3.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4.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3/30	청와대가 작성한 "문제단체" 블랙리스트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4/5	127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4월5일(수) 오전12:00~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김진희(바사), 서지영(썰리), 이가희(달래) ○ 내용 : 나비 붙이기 퍼포먼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소모임 풍물굿 '함께누리'공연, 성명서 등을 낭독했고, 수요시위 전날 이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250명 이상의 시민들의 참여 및 추모함.
4/13	대선 후보 캠프 앞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4/15	세월호 참사 3주년 기억식 - '함께 여는 봄' ○ 일시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7시~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10여명 회원들과 참여
4/25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질의 및 기자회견
5/7-8	사드배치 반대 평화캠프 참여 . 일시 : 5월7~8일 (1박2일) . 장소 : 성주 소성리 평화 캠프촌 . 참석인원 : 김민문정(시원), 정슬아(여경), 서지영(썰리), 이가희(달래), 이운소(운소), 최진협(나우), 강혜란(미몽), 김진희(바사) . 내용 :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트레킹, 소성리 별빛 문화제 참여.
5/15~	■ #변한것과_변하지않은 것 온라인 액션 . 기간 : 5/15~ 기한두지 않음. . 참여 방법 : 강남역 사건 이 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어 #강남역_1주기 #변한것과_변하지않은 것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기. 참여 수 : 민우회 최대 리트윗 501회, 개인 참여자 : 611회 [지역] 광주(518민주광장) / 남서지부 / 경남(창원 상담분수광장) / 전북(전북대구정문) / 대구(대구백화점) / 수원역 로데오거리/ ※ [언론보도-40여개 매체 실림] .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사진권]'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 연합뉴스 강남역 여성살해 1주기 추모..."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종합) . 동아일보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마스크 침묵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전국에서 추모 행사 · KBS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여성 차별·폭력 근절해야” · 여성신문 강남역 여성살해 1주기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 세계일보[이슈플러스]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강남역 살인 사건’ 1주기
5/17	<p>1. 강남역 1주기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 행동]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1.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1) 프로그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광화문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5월 17일 오후 12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여 : 60여명 ■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 참가자 발언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서경남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김세정 불꽃페미액션 엄세진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주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p>○ 2차 신춘편(30여명 참여) / 흥대(60여명)</p> </div>
5/25	<p>군형법 92조 6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 1) 일시 : 5/25 10:30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청계 광장, 시청 광장 3) 내용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육군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반대하여 대형 플래카드들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함.</p>
5/25	<p>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번째 ‘기지개’ 워크숍 1) 일시 : 5월 25일 (목) 오후 1시~6시 2)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3) 프로그램 1부 ·차별금지법운동 10년, 지금 우리가 놓인 지형은? _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 내용과 쟁점 _ 혜인(희망법)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계획 초안 _ 진희(장애여성공감)</p>

	2부 전체토론
6/16	[논평]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6/16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6/10	6.10 민주항쟁이 30년맞이 시민한마당 1부 민주시민대동계 6.10민주난장 2부 6월민주항쟁 30년맞이 국민대회 '6월의 노래, 다시 광장에서'
6/1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전달
6/26	[나이들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7/7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사건 2차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환영기자회견 1. 무고죄남발중단 대안을 마련하라! 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기소기준 마련하라! 3. 수사기관에 의한 2차피해 감소를 위한 검찰대상의 체계적/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라!
7/11	[논평]이연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급식의 질'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 둘다 보장하는 정책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바꾸는 정책에 앞장서는것!
7/11	[성명]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없이 성평등 없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중단하라 -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7/12	[성명]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7/19	[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가치와 이를 받침 하는 핵심요소가 요양종사자의 노동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7/21	[2017 활동가 집담회] 시민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페미니즘과 성인지 운동이란
7/26	<문제는 마네키이야> 기자회견
7/27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7/25), 최저임금에 대한 원내수석부대표 이연주의원의 발언.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적 있습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디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WHAT?
8/9	황우석 사태 당시, 민우회는 박기영 임명자(당시 청와대 보좌관)가 이미 과학기술정책의 책임자로서 자격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부적절한 인사를 ctrl c+v 임명한 정부! 우리도 당시의 성명서를 ctrl c+v 합니다.
8/17	[영화 상영회] 파란나비효과 '나루' 공동체 상영회 ○ 파란나비효과 : 성주 사드(THAAD)배치 반대투쟁을 소재로 만든 다큐 ○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저녁8시~10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8/11	[기자회견]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한다!
8/2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는 국민건강의 권리다! - 식약처는 현재 밝혀진 독성물질을 누락시킨 부실한 일회용 생리대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라!

	- 배포된 일회용생리대를 전량회수하여 감출된 독성물질과 피해사례의 역학관계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라!
8/24	2017 여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탐색, 숙고, 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캠프
8/26~	[8.26 공동행동]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를 손글씨로 적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 교사와 학교에 대한 공격은 멈춰져야 합니다. 서명 운동 1) 9. 12 (화) 10:00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3) 상시 거리서명 : 광화문광장 세월호 서명대 맞은편 평일 오전 11시~오후 1시. *민우회는 9/19(화) 광화문 서명운동, 10/8(일) 보라X뮤직페스티벌 부스에서 서명운동 진행 . 그 외 민우회 행사에서 상시 진행 4) 온라인 서명 : bit.ly/차별금지법
9/1	[기자회견문]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9/6	기자회견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9/6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9/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9/20	[긴급토론회]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9/25	선거제도와 참정권 확대, 정치를 바꾸는 청원서명운동 http://govcraft.org/petitions/55 #정치야_말좀들어
9/26	9.26 공동행동 #학교에_페미니즘을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라!" "교사 양성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9/28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문제는 생리대 유해성이야]
9/29	#MBC정상화 #KBS정상화 #공영방송정상화 #언론장악_진상규명 #고영주퇴진 #김장겸퇴진 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9/29	한국여성민우회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KBS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이후 행보를 기대합니다. #우리는_연결될수록_강하다 #공영방송정상화 #언론적폐청산 #공공성회복
	10월~11월 지역간담회 및 내부간담회 1)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의 현실에 비추어 법안 내용을 점검하며, 쟁점을 토론했기 위한 연속 집담회 2) 간담회 일정 지역 간담회 : 10/17 전주, 10/20 울산, 10/27 고양, 10/31 광주, 11/1 인천, 11/2 수원, 11/9 안산, 11/17 부산, 11/25 춘천 단체 간담회 : 10/16 전교조, 10/23 공공운수노조, 10/25 홈리스행동, 11/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1/9 인천대, 11/22 고려대, 11/29 이대, 12/6 청년참여연대 *민우회 참가 : 10/31광주와 11/25춘천 간담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10답> 소책자 제작. 배포

	<p>1) 책자 크기는 A5, 내지 30페이지. 2) 20부 1만원(배송비 3,000원) / 40부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3) 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함께 해요 • Q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 Q2 여러 개혁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 Q3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 Q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 Q5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 Q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Q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 Q8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 Q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Q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10/17	[기자회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및 전달식
11/6	<p>그 '정치가 놓친 것들 : 탁현민 사건의 현재진행형에 대한 여성운동 집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 11. 6(월), 오후 4시~7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여 : 60여명 ○ 취지 및 기대 <p>- 탁현민 해임요구에 담겨왔던, 촛불저항 이후 시작된 정부에 기대하는 젠더정치를 말한다 - 탁현민의 자작행위 이후, 어느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비판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청구를 한 '개인적' 선택과 공적 담론의 소멸에 대해 젠더정치의 눈으로 해석하고 비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젠더정치 :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여.세.연) ○ 발제 2. 여성폭력과 사회적 손해의 책임(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1/16	<p>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1만명 서명 돌파 기자회견 <1만명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이자, 12월 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11/16(목) 10:00 2) 장소: 광화문 광장
11/6	<p>탁현민 사건의 현재진행형에 대한 여성운동집담회 그 '정치가 놓친것들 : We Can Speak</p>
11/8	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 및 국회-정당 공동포럼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 참여
11/9	<p>촛불혁명 1년, 이제는 국회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p>
11/9	가정폭력 쉼터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11/9	<p>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p>
11/11	<p>2017 정치페스티벌 참여 #낙태죄를 폐지하라 부스운영</p>

11/21	[토론회]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네번째, 국민주도 성평등 헌법개정 토론회 참석
12/9	12/9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1) 일시 : 12/9(토) 14:00 2) 장소 : 광화문 광장
12/11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 토론회

여성노동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여성노동의제로 이슈파이팅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 정부 노동정책 및 일상적 노동이슈 대응 활동을 지속하며, 특히 ‘면접 시 STOP 결남출(결혼/연애/출산 질문 금지) 캠페인’을 통해 성차별적 질문이 난무하는 구직문화 개선을 모색한다.

2. 평가 및 과제

1) 성별임금격차라는 종합적 여성노동의제를 여성 개개인의 일상과 경험의 언어로 구체화하여, 이 의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대선 국면에서 여성노동운동 단위들과 연대하여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제시했다. 이후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중사업 기획과, 정치적 의제를 대안적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 필요하겠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심각하지만, 일상적 언어가 아니라 대중들은 이 이슈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무색하게도 대중들은 성별임금격차를 이미 여성노동권의 문제로 체감하고, 공감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포에트리 슬램 워크샵, 참여형 공연 집회, 거리 인터뷰 영상 등)로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내었는데, SNS 공간에서는 해시태그(#성별임금격차_왜때문이죠)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모으는 활동을 하며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여성노동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

8월에는 성별임금격차를 상징하는 날짜에 공연 형식의 집회를 열어 100:64라는 상징적 숫자를 알리기도 했다. 공연 형식의 집회였기에, 행인들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자신이 겪은 성별임금격차 사례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공연을 하였고, 추상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이야기와 목소리가 있는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3년차인 나(여성)보다 내게 일을 배우는 신입(남성)의 월급이 더 많은 걸 알게 된 순간', 희망연봉을 물어보기에 답했더니 남자는 다 쓸 데가 있는데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어디다 쓰냐며 나(여성)의 연봉을 후려치던 면접의 경험', '아이가 생기면 남자 사원은 축하를 받고, 여자 사원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처럼 현실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는 개개인의 목소리로 흩어져 있던 여성 노동의 현실을 '성별임금격차'라는 문제제기의 언어로 묶어낸 과정으로 평가된다.

포에트리 슬램 워크숍과 거리 공연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영상은 성별임금격차라는 의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이 의제를 확산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영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여성만의 문제', 혹은 '일상과는 거리가 먼 복잡한 문제'로 여기는 이들에게도 이 이슈가 모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의제임을 자연스럽게 설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다양한 성별, 연령(십대부터 중년까지), 직업군(학생, 청소노동자, 약사, 배우 등)의 인터뷰이를 섭외해 이들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자신의 편견, 분노, 성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을 담았다. 정답이 정해진 주장이 아닌 다양한 입장에 처한 이들의 의견과 반응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드러낸 이 영상은 12,000회의 조회수가 보여주듯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했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총파업 주간에 민우회 전 지부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년 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성별임금격차를 이슈로 대중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제도 개선 활동은 여성노동운동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만들어갔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3시 STOP 조기 퇴근시위'를 진행하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슈파이팅을 가능하게 했던 대규모 집회였다. 이어서 19대 정부에 여성노동 정책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결과에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성별임금격차해소가 19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이후 가능성 모색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전 국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의제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노동운동단체들과의 연대의 힘이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성별임금격차’를 여성노동운동단체들의 공동의제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여성노동의제 중에서 특히 성별임금격차를 주요한 시대적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는 토론 속에서 공동의 의제를 설정해나간 연대의 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대안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구성된 연대는 이후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파이팅 해나가기 위한 동력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임금격차를 이슈파이팅한 일 년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라는 언어로 여성노동권 문제를 말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올해 확인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대중적 이슈파이팅 지점들을 더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의제로 제시된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실효성 있는 제도나 정책으로 기획,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

2) 시사적 이슈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시대적 의제라는 문제의식 속에 KTX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구직문화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과정 참여하는 방식의 후속 활동을 지속하였다.

올해 민우회는 한국도시가스공사 채용 성차별, 한샘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 뜨거운 여성노동 현안들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한샘 사건의 경우, 피/가해 구도 속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관련 인터뷰와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여성노동권을 보장해야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슈 대응을 해나간 점이 유의미하다. 이는 20~30대 여성노동자 인터뷰, 직장내 성희롱 상담 등을 통해 쌓인 고민과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응이었다. 연초에는 맥도날드 망원점 임금체불 사건 대응에 동참하기도 했는데, 지역의 노동 현안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나가면서 대표적 여성 비정규직 사안인 ‘KTX 해고 승무원’ 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다.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철도공사 내에서 여성이 전담하는 승무원업무는 정규직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책위 활동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화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당초 사업 계획 중에는 구직·입직 과정에서 겪는 성차별을 다룬 2016년도 사업 ‘9직X2직=18:나의 육두문자 구직라이프’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확산 작업에 대한 기획이 있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대중적 이슈파이팅보다는 인터뷰, 자문회의 참석 등 올해 민우회에 요구되는 역할 속에서 후속 활동을 해나가게 되었다. 7월에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13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존중이 오가는 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개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지만 회신을 조직하고 이후 해당 기업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작년 사업의 내용을 확산하자는 취지만으로는 후속활동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2017년,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 말하기

1. 세미나

- (1) 일시 : 2월 13일(월), 2월 17일(금) 총 2회
- (2) 참석 : 김문정, 류형림, 문보미, 박미숙, 이가희
- (3) 자료 :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 [2016 젠더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포럼 : 월급봉투가 묻는다, 젠더 불평등과 사회정의] 강의&토론 녹취록
 - 1강 :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동과 젠더불평등의 변화
 - 2강 : 임금불평등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
 - 3강 : 젠더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 4강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재구성

2. #성별임금격차_왜때문이죠

- (1) 기획 회의
 - 일시 : 3월 22일 (수)
 - 참석 : 김문정, 류형림, 문보미, 박미숙, 이가희
 - 내용 : 민우회 계정 SNS에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편견&비난의 댓글이 달림. 이 댓글들을 내

용별로 정리해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SNS에 올리며 진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말해보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

- 결과

: 카드뉴스 RT 137개

: '#성별임금격차_왜때문이죠'로 4일(3/24~3/27)간 40 여개의 글이 올라옴.

The collage consists of 12 individual social media-style posts arranged in a grid. Each post has a yellow header and a blue body. The posts contain various text related to gender wage inequality, including questions, statements, and calls to action. Some posts include small images or icons. The overall theme is to raise awareness and discuss the reasons behind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3. 성별임금격차 포에트리 슬램 워크숍

(1) 취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단한 랩으로 만들어 공연하는 ‘포에트리 슬램’이라는 새로운 퍼포먼스 형식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표현하여, ‘참여형 거리 공연’에 앞서 성별임금격차 포에트리 슬램의 예시를 제시한다.

(2) 일시 및 장소 : 8월 11일 (금) 오후 7:30, 합정 카페 ‘허그인’

(3) 참석 : 이유영, Diana,, 민문, 햇살, 차혜영(강사), 문보미, 이가희 총 6명

(4) 내용 :

항목	내용
소개	민우회 활동 소개와 워크샵 취지 설명
설명	랩가사를 쓰는 방법 강의
경험 나누기	성별임금격차 사례 나누기
가사쓰기	사례를 다듬어 글로 정리
발표	원하는 비트에 맞추어 랩 가사를 발표

(4) 평가 : 주제와 형식으로 인해 조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별임금격차를 이야기를 랩에 담아내고, 발표하는 것에 대한 참여자들의 즐거움이 컸고, 예상보다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이 나왔음.

4. 참여형 거리공연 SLAM 36.7%

(1) 취지: 성별임금격차 36.7%를 365일로 환산하면 8/20부터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 무급으로 일한 지 일주일 째 되는 날인 8/25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집회를 기획했다. 성별임금격차라는 의제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집회를 구성했다.

(2)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 (금) 오후 7:30, 신촌 나무테크

(3)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출연
19:30 ~	<SLAM 36.7%> 시작	이가희
무대①	노래 '3시에 멈춰라'	기타모임<명치>
무대②	발언 '나는 92년생 김지영' : 대학생이 느끼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전국학생행진
무대③	발언과 춤 '37%가 모자라' : 남성 입장에서 느끼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발언 :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를 개사한 <37%가 모자라>에 맞춰 춤 공연	신필규
무대④	랩 '취준스토리-나만 이런 걸까?' :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진운선
무대⑤	랩 'HOT <전사의 후에> 개사'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랩	<갯큐티>
무대⑥	성별임금격차와 관련된 소설과 시 낭독	문학모임 <너머>
무대⑦	랩 '3년차인 나보다 신입 남직원의 월급이 더 많다고?' : 중년 여성이 경험해온 성별임금격차 이야기	이영진
무대⑧	랩 'One Hundred Percent'	<355>

	: 2-30대 직장 여성이 느끼는 성별임금격차의 현실	
무대⑨	초대가수 공연 ① 'mic swagger + 내꺼야' ② 'ma girls' ③ '임금격차'	페미니스트 랍퍼 '슬릭'
~ 21:00	<SLAM 36.7%> 종료	이가희

(4) 행사배포용 굿즈 제작

- 제품명 및 제작 수량 : 핸드형 LED 메시지 선풍기 55개
- LED 메시지 내용 : ♥성별임금격차 해소♥



(5) 평가

-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동안 '성별임금격차' 주제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들리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집회가 아닌 거리 공연이라는 형식이 효과가 있었음.
- 무대에서 랍을 하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사 내용의 전달보다는 무대의 완성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나 듣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언보다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 리듬을 타는 형식의 말하기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장단점이 존재함.

(6) 언론보도

- 여성신문, 8월 25일, "성별임금격차...여성은 8월 21일부터 무급노동"
- 9/11 웹매거진 지속가능바람 인터뷰



(7) 홍보

- 8/4 카드뉴스 : 트위터(RT94), 페이스북(좋아요85)

<p>SLAM 성별임금격차</p> <p>영국에서 내년 4월 임금 차이 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BBC 고소득 방송인 임금 공개</p> <p>성별임금격차 5배까지!</p> <p>거센 성차별 논란</p> <p>"남성 진행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동의하면 무시당하거나 하찮게 취급되었어요. 사내 성차별적 문화가 문제가 근원이에요" - 라디오 뉴스쇼 진행자 레아벨 버튼</p>	<p>SLAM 성별임금격차</p> <p>BBC, 2020년까지 방송 출연진 성비를 1:1로 하고 임금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p> <p>그러나 임금차별 비판은 진행 중</p> <p>"방송인 뿐 아니라 모든 여성 직장인이 겪는 문제" "피아넷살리브스 노조" "여성임금 차별 해명하지 않으면 파업 불사"</p> <p>만약 한국에서 임금 차이 공개법이 시행된다면?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까요?</p>
<p>SLAM 성별임금격차</p> <p>더 타임즈 일론 Musk이 더 타임즈 Kevin Myers Sorry, ladies — equal pay has to be earned</p> <p>"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덜 아프고 임신을 안 하니 더 많은 돈을 받는 것"</p> <p>각계 비난 쇄도!!</p> <p>당일 정오 - 신문사 사과문 발표 데일시 마이야스의 어떤 칼럼도 실지 않기로 결정</p>	<p>SLAM 성별임금격차</p> <p>그런데, 이 비싼 한 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p> <p>만우회 제약 잇달음 중</p> <p>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되고 하는 말이 마르는데 = 여성들이 일하는 직군이 임금 이 낮을거 아니라 남들 볼줄이도 귀찮고 귀찮아지려만 유난히 손으로 할 일인가 있는줄 모르다 보니 그런건 아무나 할수 있는 후쿠지라고 아니고 그냥 나를 능력이 있고 뭐에 안맞아서 그런 실용만 받는것</p> <p>어떻게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여자들은 어떻게 돈을 덜 받고 어떻게 해서인지 일고 같은 한 번 하고 덜치근하고 출산 과 아무까지 일물하고 해서 안 갔잖아</p> <p>역설이나 뭐라고 갖게 주장하고 말하면서 보다 특하게 일하고 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보고 나보다 더 많이 벌어야 어떤 과묵한 소리 할수 있을까?</p> <p>소중한 특 집에서 '일손 공짜'가게 변형하는건가 - - - - - 이유게를여 남자가 가 많고 인공게를이나 리물 게말의 여자가 많다느긴 말고나 있을만하. 그런 것론 사물어 여의 중들이 걸정되기 때문이로 그게 공짜가(인공게)고 남자가 고를 있으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때문이로 여자가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것</p> <p>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편견을 다음주부터 하나하나 따져주세요!</p>

- 8/10 카드뉴스 : 트위터(RT74), (좋아요87)

<p>SLAM 성별임금격차</p> <p>"남자가 더 많이 일하거나 많이 받는 거 아니야?"</p> <p>과연 그럴까요...?</p> <p>성별임금격차, 팩트체크 들어갑니다.</p>	<p>SLAM 성별임금격차</p> <p>남자 평균 월급 256만 8천원 여자 평균 월급 169만 7천원</p> <p>남자 월 평균 근로시간 158시간 여자 월 평균 근로시간 150시간</p> <p>8시간 더 일해서 87만원 더 받는다고요??</p> <p>자료 :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p>	<p>SLAM 성별임금격차</p> <p>성별임금격차의 62.5%가 연령, 직종, 근무기간, 고용형태, 산업, 사업체 분포 차이 등에 의해 설명되지 않음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형태 별 부가소득사유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결과)</p> <p>결국,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성차별!</p>
<p>SLAM 성별임금격차</p> <p>우리과는 여자가 더 많아 직장에서도 여자가 더 많아 그런데 취업, 승진, 월급은 남자가 더 많아!</p> <p>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여자라서 조금 주는 거잖아</p> <p>성별임금격차 하, 기가 차! 알았 있다면 =></p>	<p>SLAM 성별임금격차 36.7%</p> <p>POETRY SLAM 무료 워크숍</p> <p>Poetry Slam(포에트리 슬램)이란? 자립은 글로 말하고 자립을 영어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p> <p>언제? 8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어디서? 헤그민 (한양대 3번 출구) 주제는? 성별임금격차! 누구의? 페르미인 청소년들 <연말과 무명의 무야 신청방법은? 아래 구글폼으로 문의 02-757-5763 equilov@womelink.kr</p> <p>이웃 한국여성단체연합회</p>	

- 8/16 민우회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녹음

5. 성별임금격차 인터뷰 영상

1) 기획회의

(1) 일시 : 9월 22일 (금), 9월 26일 (화), 10월 10일 (화)

(2) 참석 : 강유카람 감독(9/26), 김문정(10/10), 류형림(9/22, 10/10), 문보미, 박미숙, 이가희

2) 촬영

(1) 1차 촬영 (12명 촬영)

- 이화여대 : 중년여성 청소 노동자 1명, 20대 여대생 5명, 30대 남성 1명 총 7명

- 망원동 : 중년여성(비온뒤숲속약국 약사, 행복한 마당 사장)2명, 노년 남성 1명, 시민공간 나루 남성 활동가 2명 총 5명

(2) 2차 촬영 (7명 촬영)

- 성미산 마을학교 : 10대 여성 2명, 10대 남성 1명 총 3명

- 성차별보고서 토론회 : 10대 여성 4명 총 4명

3) 결과

- 10/31 온라인 배포 :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 11/13 영상 조회수 : 페이스북(6,597), 트위터(4,534), 홈페이지(446), 유튜브(333)

4) 평가

- 얼굴과 직업을 공개한 채 몸담고 있는 업계의 임금차별을 밝히는 컨셉으로는 섭외의 난항이 예상되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 담기라는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컨셉을 수정함.

- 아름다운재단 사업과 30주년 행사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인터뷰 영상 작업 일정을 7~8월에서 9~10월로 늦춤.

- 영상 친화력이 높은 20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려 했던 영상제작 목적에 맞게 조회수가 높았던 페이스북에서도 25~34세 여성들에게 반응이 가장 높았음.

- 성별임금격차해소로 나아가는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 속에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이슈화 될 때마다 본 영상이 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상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함.

6. 최저임금 대응활동

1) 최저임금인상 액션 <최저임금 1만원 페미액션 : (여성노동자에게도) 만원이 시급하다!>

(1) 일시 : 7월 4일 (화)~7월 7일 (금)

- (2) 장소 : 민우회 전 지부 근처의 마트/학교 등 유동인구 많은 장소
- (3) 진행
- ① SNS 홍보를 통한 최저임금 액션 홍보 및 액션단 조직(7/4)
- ② 전 지부에 액션에 사용할 피켓 문구와 배포할 유인물 공유(7/4)
- : '나는 마트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만원인 곳에서 장을 보고 싶습니다.'
- : '나는 청소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만원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 (4) 내용 :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1만원 실현을 위한 만원행동>에서 6월 30일~ 7월 7일을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 민우회 전 지부가 7월 7일(지부 일정 상 일부 예외 있음) 마트 앞으로, 대학교 앞으로, 피켓을 들고 출동
- (5) 액션 시간 및 장소

주최 단체	일시 및 장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7/4(화)~7(금) 고양여성영화제 상영관 앞
광주여성민우회	7/7(금) 오후2시 전남대학교 후문
군포여성민우회	7/7(금) 오후2시 이마트 산본점 정문, 산본역 3번출구 뉴코아아울렛
남서여성민우회	7/6(목) 오후2시 이마트 앞
동북여성민우회	7/7(금) 오전11시 이마트 창동점 앞 (창동역)
원주여성민우회	7/5(수) 오후2시 원주시청 백운아트홀
인천여성민우회	7/7(금) 오후4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지하 이마트) 앞 광장
진주여성민우회	7/7(금) 오후 4시 평거동 축협사거리
춘천여성민우회	7/7(금) 오전11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한국여성민우회 (장마로 인해 두 차례 취소됨)	7/7(금) 2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동국대 학교 정문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틈'과 함께합니다) 7/7(금) 4시 이마트 구로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노동운동단체 연대

1. 여성노동운동단체 연대 세미나

- (1) 성별임금격차관련 여성노동정책제안_장지연(1/25, 저녁 7시, 민주노총) : 박미숙, 이가희 참석
- (2) 기본소득과 젠더_박이은실(2/2, 저녁 6시, 민주노총) : 민우회 활동가 12명 참석

(3) 새 정부의 여성노동방향 및 입법과제_박선영(6/19, 오전 10시, 민주노총) : 김문정, 박미숙, 이가희 참석

2.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1) 기획회의

- (1) 일시 : 1월 25일(수), 2월 8일(수), 2월 22일(수), 3월 2일(수) 총 4회
- (2) 장소 : 민주노총
- (3) 내용 :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행사 기획 및 대선 의제(4대 과제 10대 요구) 확정

2) 기획내용

성별임금격차 100:64

여성은 매일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3월 8일 (수) 3시

<집회와 행진>

- ① 14:30~15:00 민주노총 주최 사전대회
- ② 15:00~15:30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본대회
 - 사회자 개회 및 취지 설명 [사회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① 최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는 여성
 - 발언②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정부 여성 일자리 정책 규탄
 - 발언③ 남자동기 연봉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을 때
 - 발언④ 여성의 경력단절
 - 퍼포먼스
 - : 동요 '그대로 멈춰라'의 개사곡 '3시에 멈춰라'를 부르며 카드 섹션을 진행

<세시에 멈춰라>

1.

똑같이 일을 해봤자 어차피 100:64

세시부터 무임금이다 그대로 멈춰라

성별임금격차 OECD 1등인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돈을 내나라!

회의 중에도 알바 중에도 그대로 멈춰라

끝나지 않는 집-안일도 그대로 멈춰라

2.

힘들게 일을 해봤자 어차피 최저임금

세시부터 무임금이다 그대로 멈춰라

최저임금 6470 나가 한 번 살아봐라 여자라서 최저임금 알고 있거든!

15년 째 똑같은 격차 이제 좀 바꾸자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다 세시면 멈춰라

③ 15:30~17:00 행진

- 행진코스 : 광화문 -> 보신각 -> 서울고용노동청 -> 청계로 -> 광화문

- 공동구호 :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시간제일자리 거부한다, 세시부터 무급이다, 그대로 멈춰라

④ 17:00~17:30 정리 (선언문 낭독, 여성노동계 4대 과제 10대 요구 발표)

<온라인액션 : 3시STOP, 일단STOP, 뭐든STOP>

- 조기퇴근을 못하는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3시STOP 액션

: 3시 알람 맞추기, 3시 되면 회의하다가도 멍 때리기, 괜히 탕비실/화장실 가기 등 태업하고 인증샷 올리기

3) 홍보

- 2/20 웹자보 : 페이스북(좋아요 339명), 트위터(RT 1,502회)

- 2/22 동영상 : 페이스북(좋아요 51명), 트위터(RT 61회)

- 3/3 유명인 지지자(가수 강허달림, 이은미, 배우 김꽃비, 소설가 김별아)

: 페이스북(좋아요 390명), 트위터(RT 602회)

- 3/3 카드뉴스(온라인 액션) : 페이스북(좋아요 139명), 트위터(RT 299회)

3. 정부 여성노동정책 대응활동

1) 연대회의

(1) 일시 : 5월 11일(목), 6월 8일(목), 7월 5일(수), 8월 10일(목) 총 4회

(2) 장소 : 민주노총

(3) 안건 : 정권 수립 초반에 성별임금격차를 노동의제로 주류화하고, 성평등 노동정책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기획

2) 19대 대통령선거 여성노동 정책요구 10만인 서명운동

: 성별임금격차를 포함 4대 의제 10개 여성정책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10만서명운동

4대 의제	10개 요구
I. 성별임금격차	1. 최저임금 1만원으로
	2. 임금 공시제도 실시
	3.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 기준 제시
II. 일-돌봄-쉼의 균형	4.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전면 도입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6. 남성육아휴직의 의무화
III.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7.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8.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IV. 불안전 노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9. 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자영업, 특수고용) 적용 확대
	10.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고용형태 및 퇴사 사유 불문)

3) 19대 대선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2) 제목 : 촛불광장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

(3) 기조 : 남녀고용평등주간(5/25~5/31)에 새 정부가 힘써야 할 성평등 노동정책을 선언하며 '여성노동정책 요구 10만인 서명운동'의 결과를 알리고, 이를 전달한다.

(4) 프로그램

① 기자회견문(4대 의제 8대 과제 선언문) 낭독

② 서명용지를 사전전에 신고 이동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퍼포먼스

(5) 공동주최 : 노동자연대, 민중의 꿈 여성운동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6) 평가

: 서명지의 내용이 길어 내용 전달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연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공론화, 이슈화 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었음

4. 여성노동 대토론회

1)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15일 (금) 오후 3시,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의실

(2) 참석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김명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지현, 민우회 박미숙, 여성법률지원센터 이영희

(3) 안건 : 토론회 기획

2) 여성노동대토론회(가)

(1) 제목 : [성평등 노동정책 대토론회] 성별임금격차, 15년째 최하위, 이제는 바꿔보자!

(2) 목적 : 여성노동단체들과 관련 정책 담당 국가기관이 함께 하여 여성노동 문제를 중요문제로 재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

(3) 주최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4) 진행상황 :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면서 의원실과 공동주최 등이 어려워지고, 거버넌스 토론의 당사자인 행정부 섭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2월로 토론회 일정 연기함

3. 다양한 노동이슈에 대한 일상 대응

1. 한샘 직장내 성희롱 사건

1) 카드뉴스

- 11/9 온라인 배포

- 트위터(RT 2,329), 페이스북(좋아요 693), 홈페이지(189)

2)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2) 제목 :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 용기 있는 여성. 악랄한 기업 그리고 고장난 시스템

(3) 주최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서울여성노동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구여성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포항여성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4)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권박미숙

- 발언 2. 서울여성노동자회 김정희 상담팀장

- 발언 3.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 나영

- 발언 4.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발언 5.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 박윤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포토 타임 : '용기 있는 여성이 고장 난 시스템을 바꾼다'

<카드뉴스>

한샘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

1 여성들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있다

화장실 가면 물키우는 남자 동기
웃으면 (방송 시연의 경우 '귀자 쿠먼') 그린라이트/플러팅/섹스 신호로 보는 남자 상사
그래서 안 웃으면
예의 없음/사회성 결여로 성격을 지적 받는 상황

2 회사의 대처
무조건 조용히, 그리고 불이익조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하려 압박, 회유 불이익을 예고하고, 실제로 주기도

3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기업과 국가

회사에 성희롱 신고하면?
(2번 카드 참고)
그래서 국가에 신고하면?
2012-16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 불이익조사'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4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여성 노동권의 문제

프라이엄경제
[기자수첩] 원생의 배신, 난내 급여격차로 예견됐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남성 중심 기업, 조직문화가 유지되는 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계속 된다는 것을

5 여성에게는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대대적인 불매운동은 남성중심기업환경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s time to change!!
It's time to change 직장내성희롱
It's time to change 성별임금격차
It's time to change 채용승진차별

6 그리고 더 이상 '꽃뱀론'은 통하지 않는다

역시나 또 등장한 '피해자 꽃뱀론'
친하든/호감 있는 사이든/ 연인이든/부부든/꽃뱀이든/뱀이든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입니다. 모르면 외우세요.

3) 언론보도

- 기자회견 언론보도
- : 11/10 연합뉴스/여성단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여성혐오에 분노"

- : 11/10 뉴스1/여성단체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 강화법 개정 환영"
- : 11/10 뉴시스/"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꽃뱀 여론몰이 멈춰야"
- : 11/10 SBS/여성단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여성혐오에 분노"
- : 11/10 중앙일보/여성단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기업·사회 환경 바뀌어야"
- : 11/10 오마이뉴스/고용부에 성희롱 진정 넣어도 기소되는 건 0.2%
- : 11/10 참세상/“한샘, 현대카드, 르노삼성”...문제는 기업과 고장난 시스템
- : 11/10 서울신문/“꽃뱀? 무고? 이게 여성혐오” 여성단체, 한샘발 성폭행 분노
- : 11/10 여성신문/“여성 노동자 ‘성적 대상’ 취급...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
- : 11/10 레디앙/“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
- : 11/10 매일노동뉴스/여성·노동단체 “일하는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
- : 11/10 경향신문[포토뉴스]
- : 11/10 뉴스웨이[포토뉴스]
- : 11/10 비즈니스위치[포토뉴스]

- 대응 인터뷰

- : 11/7 <SBS 8시뉴스> 침묵 깬 한국, ‘미투’ 캠페인 바람...성폭력 문제 공론화
- : 11/8 <SBS 8시뉴스> 성폭력 당하고도 밀보일까 ‘침묵’...두 번 우는 비정규직
- : 11/8 <한겨레> 기업 ‘성범죄 해결’, 시스템 마련만이 능사 아니다
- : 11/8 <시사저널-e> 대기업 성폭력 구제 시스템 ‘있으나 마나’
- : 11/9 <YTN> "나도 당했다"...사내 성폭력, 소통 없는 '갑질'이 원인
- : 11/9 <한겨레> 한샘, 현대카드...‘직장 내 성폭행’ 한참 뒤 폭로되는 이유는?
- : 11/9 <뉴시스> 잇따른 직장내 성범죄, 대처법은...“철저한 증거 수집”
- : 11/11 <SBS 8시뉴스> 성폭력 당하고 뒤집어쓴 '무고'...증거부터 모아야

2. 그 외 이슈 대응

1) 이연주 의원 발언

(1) [논평] 이연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7/11)

- 내용 : 이연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 반응 : 홈페이지(민우액션 525, 성명논평 1,121), 페이스북(좋아요140), 트위터(185)

(2) [한줄 논평](7/25)

- 사건 내용 :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연주의원의 발언,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습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

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 대응 내용

: “임금 떼여도 참는 게 공동체의식”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 이연주의원 발언에 부처

2016년 체불임금 1조 4천억원 공동체 의식이 있는 국민의당과 이연주 의원이 책임지고 해결하길

- 반응 : 트위터(RT50), 페이스북(좋아요33), 홈페이지(민우액션 조회수289, 논평 조회수303)

2) 공기업 채용성차별

(1) 사건 내용 :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여성은 채용 말라’는 박기동 전 사장의 말에 합격
권이던 여성 7명이 탈락함.

(2) 대응 내용 : 다른 단위들과 연대체를 꾸려 SNS 해시태그 운동(#여자라서_떨어졌다) 진행.

3) 망원동 맥도날드 임금체불

(1) 사건 내용 : 맥도날드 망원점의 점주가 직원 68명의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함. 본사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점주에게 책임을 미룸.

(2) 대응 내용 : 1/10, 알바노조에서 망원동 맥도날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리벽에 해결
을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종이들로 채움. 민우회도 메시지 적기에 동참하면서 SNS에 함께
하자는 사진과 내용을 올림. 다음 날, 모든 종이가 떼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행인들과 함께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로 유리벽을 채울 수 있게 새로운 종이와 펜을 마련함.

(3) 반응 : 트위터(RT5000), 페이스북(좋아요 500)



4)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1) 사건 내용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5천여 명 불법파견, 임금체불

(2) 대응 내용 :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대책 기구’에 들어감.

5) 10/2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

(1) 국가보훈처 주도 법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여성단체 의견 수렴에 참여해 우려의견을 개진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

②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7개 조항 개정

(3) 주요 전달 의견

- ①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데에 대한 보상은, 사후적이기 보다 직접적이어야 할것. 군 복무 기간 중의 가혹행위 등 심각한 군인권문제 해결에서 부터, 일상적인 생활의 질과 열악한 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

- ②에 대해

: 자영업자, 군미필자가 제외되는 수혜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있음.

: 경력이라는 개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불성설

: 경력 인정은 기업 안에서 곧 승진 자격, 임금 산정과 연동되어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미 성별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을 감안하면, 대상의 대부분이 남성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강화하는데 의도치 않게 기여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

4.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

1) KTX 해고승무원 투쟁 4000일 맞이 토론회 공동주최

(1) 제목 : [4000일 KTX 해고승무원 투쟁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마당]

(2) 일시 : 2017년 2월 10일 (금) 13:30

(3) 장소 : 용산 철도회관 6층 회의실

(4) 4000일을 맞아 민우회 액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2월 10일에 열리는 토론회가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라 토론회를 통해 이후의 운동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필요한 대응 진행하기로 함.

2)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1) 목표 : KTX 해고승무원의 철도공사 복직, 부당이득금 회수조치 철회

(2) 회의 참석 : 4/28, 5/17, 5/23, 6/21, 7/17, 8/10, 8/31, 9/12, 10/19

(3) 대책위 활동

①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9일 (월) 오전 11시, 서울역 앞

- 사회 : 양한중 (조계종 노동위원회)

- 발언 : 정수용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한국기독교 협의회 비정규직대책 한국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배진경 공동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

②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제안 기자회견

- 제목 :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 (월)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금융감독원 연수원)

- 사회 : 양한중 (KTX 대책위 집행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 : 정수용 신부 (KTX 대책위 공동대표/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류은숙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

김혜진 상임연구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노동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 제안서 전달(비서관에게 전달함)

③ 7월 서명전

- 대책위 단위들이 번갈아 서울역에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진행

- 1차 : 7/4 (화) 오후 5시~7시, 망월역

- 2차 : 7/25 (화) 오전 11시~오후1시, 서울역

④ 집중 투쟁 주간

- 기간 및 장소 : 7/10~17, 서울역
- 내용 : 종교계 행사 및 문화제 진행

⑤ 청와대 면담

- 일시 : 8/17 오후 4시
- 참석 : 은수미(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김금옥(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김수현(사회수석 보좌관), 김승하(KTX승무지부 지부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수용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남재영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⑥ 국회 토론회

- 제목 : KTX 승무업무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및 KTX정리해고승무원 문제의 해결방안은?
- 일시 : 9월 18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김민문정 상임대표(한국여성민우회)
- 주제발표
: KTX 승무업무는 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강문대 사무총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06년 정리해고된 KTX승무원은 복직은 왜 정당한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주최 :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의원, 한정애의원, 이정미의원, 이용득의원, 강병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의원, 최인호의원, 안호영의원
외교통상위원회 이인영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의원, 박경미 의원
정무위원회 심상정의원, 제윤경의원
전국철도노동조합
- 주관 : KTX해고승무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코레일관광개발지부
- 후원 :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시사IN, 참여외혁신

⑦ 집중 농성 투쟁

- 시기 : 9/20~29, 오전10시~오후 8시 주간농성
- 오채투지, 바자회, 종교계 행사, 토크콘서트 등 진행

5. 구직문화 개선 후속 활동

1. 2016년 '9직X2직=18:나의 육두문자 구직라이프' 사업 후속 활동

1) 개요

: 2016년 '9직X2직=18:나의 육두문자 구직라이프' 사업을 하며 구직, 이직 경험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차별적인 면접 질문(연애/결혼/출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STOP결남출 캠페인'을 구직시기에 취업박람회 방문하여 구직자 및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확산한다.

2) 진행 일정 및 상황

일정	진행상황
2월	- 2/27, 오마이뉴스 기사 작성 <면접관이 물었다, "차녀인데 책임감이 있나?"> : 2016년도 사업 '9직X2직=18:나의 육두문자 구직라이프'내용 중 면접 시 인터뷰 사례를 담음
3월	- 3/16, 'STOP결남출 캠페인' 기획회의 : 3월 중에 액션에 맞는 규모나 성격의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아 하반기 공채시즌에 진행하기로 함
7월	- 7/19, 하반기 공채시즌에 맞추어 공채를 진행 중인 13대 대기업에 <존중이 오가는 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개제안서>를 발송 - 7/20, 여성신문 인터뷰 <키·몸무게 얼마? 부모님 직업은?... 아직도 개인정보 묻는 대기업들> - 7/26,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9월	- 9/25,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 참석

노동상담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논의 구조를 만들어 대응력을 높인다.
- 2) 기존의 노동법제도로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를 만나 향후 상담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2. 평가 및 과제

1) 기존 1인 상담 체계에서 3인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상담활동가 1인에게 집중되었던 노동현장에 대한 정보와 대응력을 팀 전반에 나눌 수 있었다. 그 결과 팀 내에서 상시적으로 상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팀 전반의 이슈 대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상담 활동가 1인이 노동상담을 전담하는 기존 체계에서는 상담을 기반으로 축적되는 노동 현장에 대한 정보와 대응력이 상담 담당 활동가 1인에게만 집중되었다. 이에 2017년에는 팀내 모든 활동가가 상담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상담 대응에 대한 상시적 논의를 강화하는 변화를 시도해보았다. 상담을 분담하기 위해서 2017년 상반기에는 여성노동 상담원 교육, 상담 실습 등을 통해 팀 전반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였다. 체계 변화를 시도한 결과, 전체 상담 277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150여건이 대응 및 연속 상담으로 이어지는 등, 상담에서 노동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이슈파이팅으로 이어가는 대응력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담을 분담하는 체계를 정비해 좀 더 유기적으로 상담을 논의하고 이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2) 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 사례 중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한 한 해였다. 불이익조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공론화하고 이를 엄중한 여성노동권문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다

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 사건 대법원 판결을 불이익조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이자, 불이익조치 판단의 진실보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이끌어 냈다.

2017년 성희롱 상담 213건 중 불이익 조치 상담은 116건으로 41.88%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37.34%에 비해 4.54% 증가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자신도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이익을 겪었다는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정작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을 지원하면서 불이익조치 문제는 관련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지속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움을 진단해왔기에,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한 지 4년째이지만 아직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실과 협력하여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였다.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조치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사건 외에도 중소기업 비율 사건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우리은행 사건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하였다. 이후 한샘 사건을 대응하면서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는 실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고용노동부에 묻는 활동을 이어갔다.

4년을 이어온 공동 대책위 활동과 올해의 이슈파이팅 활동이 더해져, 연말에는 르노삼성 관련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던 불이익조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불이익조치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었다. 이는 협소하게 인정되어오던 불이익조치 문제를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던 공대위 활동의 중요한 성과이다.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이 만들어진 만큼, 이후 이 판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불이익조치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3) 이후 다변하는 노동조건 속에서 새로운 여성노동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주도의 노동개혁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전반적인 노동조건 하락과 더불어 고용형태가 점점 세분화되는 반면, 법제도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는 영역이 많다. 이처럼 비정형적인 형태로 일하는 이들 중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노동계약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일 경험을 듣고, 노동권이 침해되지만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은 없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상담 전화를 통해 접하게 되는 사례들이 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주5일 상담을 3일로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으로서 법제도 밖 여성노동자들을 일 경험을 인터뷰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나 일정상 소화하기 어려워 목표만큼 진행하지 못했다.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기반한 운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고민을 담은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법제도 영역도 다변화한 한해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이 여러 국회의원과 정부 발의로 추진된 해이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워 추진한 첫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도 서울시 출연기관의 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적극적 이슈화 단계까지 진행하지는 못했다.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이 성과만을 내세우는 허울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여성 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겠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2017년 상담 통계

1. 2017년 상담 통계 (1~12월)	
1) 상담방법	
총 계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전화상담	인터넷메일	방문상담
277	196 (70.76%)	73 (26.35%)	8 (2.89%)

2) 상담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상담 184건 (81.23%)	직장 내 성희롱	213 (76.90%)
	모집 채용 상 차별	5 (1.81%)
	교육·배치·승진 상 차별	3 (1.08%)
	성차별적 해고	1 (0.36%)
	육아휴직	3 (1.08%)
근로기준법 제5장 관련 상담 1건 (0.36%)	출산전후휴가	1 (0.36%)
	생리휴가	0 (0%)
	기타	0 (0%)
폭언·폭행		13 (4.69%)
비정규직		11 (3.97%)
임금체불		4 (1.44%)
부당해고		12 (4.33%)
근로조건		1 (0.36%)
기타		10 (3.6%)
총계		277건 (100%)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번호	사업장	일시	교육 시간	수강 인원	강사
1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2/2	2	20명	최진협
2	남산예술센터	3/9	2	40명	최진협

3	녹색교통운동				
4	함께하는시민행동	3/15	2	15명	최진협
5	환경정의				
6	남산예술센터	5/31	2	30명	최진협
7	태화복지재단	6/20	2	30명	최진협
8	페프토텍코리아	8/7	2	6명	권박미숙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9/7	2	30명	권박미숙
10	남산예술센터	10/27	2	30명	최진협
11	건강보험노동조합	11/16	2	300명	최진협
12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12/6	1	20명	최진협
13	위즈덤하우스	12/14	2	80명	최진협
계	13개 사업장 (11회)	-	21	601명	-

3. 상담 역량 강화 및 논의 체계 확립

1. 변화된 상담 체계

1)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

- 기존에는 상담 담당 활동가 1인이 주5일 상담 전담.
- 상담을 기반으로 한 노동 사안에 대한 정보와 대응이 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상담 담당 활동가에게만 집중됨.
- 상담 사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제도적 해결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함.

2) 변화된 체계

- 상담 시간을 주3일로 축소.
- 모든 팀원이 상담 역할분담하고 상담 총괄 1인을 두어 상시적인 논의 진행.

2. 교육

1) 여성노동상담원 양성 교육

일시		장소	교육내용	강사
2/16 (목)	10:00~12:00 (2시간)	민우회 회의실	근로기준법 5장과 남녀고용평등법	권박미숙
	13:00~15:00 (2시간)	카페 갤러리원	직장 내 성희롱	류형림
2/21 (화)	14:00~16:00 (2시간)	민우회 회의실	근로기준법 - 임금/근로시간/휴일/휴 가	김재진 노무사
	16:00~18:00 (2시간)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23 (목)	13:00~15:00 (2시간)	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	노동법 총론/비정규직	박성우 노무사
	15:00~17:00 (2시간)		인사발령/징계/ 해고/구제절차	

2) 남녀고용평등 업무능력 향상과정 참석

- 일시 : 5/18~19
- 장소 : 고용노동연수원
- 대상 : 고용평등상담실 업무 관계자, 고용평등상담실 소재 지방고용관서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3. 상담 실습

- 일시 : 3/15 (수) 오후 2시
- 참석 : 권박미숙, 류형림, 이가희, 홍문보미
-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등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 유형별 실습

4. 상담사례워크숍

1) 상반기

- 일시 : 8/8 (화) 오후 2시
- 참석 : 권박미숙, 류형림, 이가희, 홍문보미
- 내용 : 상담 사례 공유 및 대응 방향 논의

2) 하반기

- 일시 : 11/23 (목) 오전 10시 30분
- 참석 : 권박미숙, 류형림, 이가희, 홍문보미
- 상담 사례 검토 및 경향 분석

4. 대응 사건

1. 성희롱 불이익 조치 대응

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① 현황

- 고소한 시점은 2014년 2월, 4년째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았음. 피해자가 징계를 받은 날짜가 2013년 9월경이라 이 이상 길게 미뤄진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음.
- 피해자는 현재까지 재직중이나 최하위 업무고과, 업무배제 등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시급함.

② 기자회견

- 제목 :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4년째 직무유기,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부터 해결하라!
- 일시 : 10/27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정론관
- 사회 : 권박미숙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 사건 진행 경과 보고 : 이종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발언 :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검찰의 직무유기 규탄>
: 류형림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현황과 심각성>
: 박윤진 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국정감사 질의 취지>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③ 국정감사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질의 진행
- 10/27 대검찰청 국정감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0/3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④ 언론보도 (11건)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고용노동부·검찰 4년째 방치 이유는? (여성신문, 2017.10.27.)
'4년째 나몰라라' 외면받는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한겨레, 2017.10.27.)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사건, 노동부·검찰 4년째 외면 (미디어오늘, 2017.10.27.)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고과 '갑질'...고용부檢 방관 (시사포커스, 2017.10.27.)
송옥주 의원 "노동부·검찰,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4년째 방관" (브레이크뉴스, 2017.10.27.)
"4년째 직무유기 고용노동부·검찰 규탄한다" (천지일보, 2017.10.27.)

환노위 38개 피감기관 220명 성희롱 피해…김영주 "진상조사" (뉴스1, 2017.10.31.)
환노위 38개 피감기관서 220명 성희롱 피해 (이데일리, 2017.10.31.)
대기업 성폭력 구제 시스템 '있으나 마나' (시사저널이코노미, 2017.11.08)
[국정감사 결산] 여성 목소리 컸지만 정책은 안보였다 (여성신문, 2017.11.07)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꽃뱀 여론몰이 멈춰야" (뉴시스, 2017.11.10)
여성단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기업·사회 환경 바뀌어야" (중앙일보, 2017.11.10)
'한샘, 현대카드, 르노삼성'…문제는 기업과 고장난 시스템 (참세상, 2017.11.10)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 (레디앙, 2017.11.10)
[카드뉴스 팽팡] 이런 일은 여자가 손해? (이투데이, 2017.11.13)
'직장 성폭력' 막으려면 관행부터 바꿔라 (여성신문, 2017.11.14)
오히려 피해 여성 잡는 대기업 성폭력 구제 시스템 (시사저널, 2017.11.16)

2) 중소기업 비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업장 : (주)비울 (의료기기 생산 중소기업)
- 사건 개요 :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폭언, 폭행이 있었음. 이에 회사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되었음.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 책임을 핑계로 사직 요구, 불합리한 업무지시,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대기 발령(자택근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었음. 이에 피해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음. 2017년 1월에 노동부에 다시 불이익조치로 진정하였으나 5월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음.
- 대응 :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권으로 고소.
10/27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사례로 공론화.

3) 우리은행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업장 : 우리은행
- 사건 개요 : 2015년 2월, 5월 상사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발생. 사내에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진술을 받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없었음. 이 사건을 신고한 후 피해자는 하위 인사고과, 1년 이상 대기발령, 사직 권고, 임금 손실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대응 :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권으로 고소.
10/27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사례로 공론화.

5.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활동

1.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

1) 배경

- 한겨레 신문 3월 3일자에 청와대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됨 : 2014년 5월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 위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확인함.

번호	부처	사업자단체	지원내용	지원액		특이사항	조치결과
				2013	2014		
1	고용노동부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비용 지원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원 인건비)	22	22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야권연석회의-국가기관의원선거개입진상규명	단계적 축소 ※2000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으로 상담원 전문성, 단체반발 고려 (고용노동)
2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비용 지원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원 인건비)	22	22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범야권연석회의-국가기관의원선거개입진상규명	
3		(사)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비용 지원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원 인건비)	22	22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근혜정권 1년, 여성들은못살겠다증언대회 ·문재인 지지	
4		(사)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비용 지원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원 인건비)	22	22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국정원대선개입규탄집회	
5		(사)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비용 지원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원 인건비)	22	22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문재인 지지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1)일시 : 3/30 (목)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3) 내용

- 사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회장
- 발언 1 <고용평등에 대한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 발언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막는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내담자
- 연대발언(고용노동부 블랙리스트 기재 단체)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3/31 진상규명 요구 공문 발송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이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및 직장내성희롱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합동 워크샵,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역량강화 및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1) 개정안 내용

- 5/30 서울여성노동자회 제안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함께 피해자 불이익 조치 조항 신설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골자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해보자는 내용

2) 논의 결과 (6/20, 6/28 내부 논의)

- 제안 받은 개정안에 추가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함께 추진하지는 않기로 결정함. (성희롱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시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 짓게 된다는 고민 등)
- 성희롱 조항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음. 전반적인 개정 작업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향후 연구자를 섭

의하여 자문 요청 혹은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3) 개정안 관련 토론회 참석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일시 : 7/6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사회 :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인사 : 이용득(국회의원)

발제1 :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및 불이익 조치 실태
-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실장)

발제2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실효성 강화 방안
- 박윤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실장/공인노무사)

토론1 :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 : 배수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피해구제센터 변호사)

토론3 : 김종철(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주최 :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 이용득 국회의원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발의된 여러 개정안(2016년 7건, 2017년 1건)을 통합·조정하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제354회 국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9.27.)에서 심의·의결함.
- 2017.1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2018년 6월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조).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함.(안 제13조의2).

3)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들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부당한 인사조치·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조)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7조 및 제39조).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

1)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 14조의2)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

1)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2)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

6. 상담 대응 방향 모색 - 법제도 밖 노동 만나기

1. 배경

- 노동시장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쪼개면서 제도망을 피해 노동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개념으로 한 데 묶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노동법제도 시스템으로는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상담을 통해 이들과 접하기 어렵고, 현재 민우회 일고 민상담실로 접수되는 상담의 대부분이 성희롱 상담이라 (2017년 전체상담 중 76.90%가 성희롱 상담)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상담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 이에 상담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파악하고, 상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진행

1) 기획회의

- 일시 : 3/17
- 참석 : 권박미숙, 류형림, 이가희, 홍문보미
- 내용 : 시기별 사업 계획 논의

2) 세미나

- 일시 : 5/24 오전 10시
- 참석 : 권박미숙, 류형림, 이가희, 홍문보미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중 면접상담 내용 발췌(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중 발췌(행사도우미, 희곡작가, 학원강사, 보조출연자)
- 내용 : 기존의 상담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의 노동형태 및 특성 파악, 향후 진행해야 할 인터뷰, 집담회 대상 논의

3) 설문조사 초안 작성 및 검토

- 시기 : 6~7월
- 내용 : 인터뷰, 집담회 등 진행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뷰 대상과 접촉면을 가지기로 함. 설문조사 초안 작성하여 회원, 지인에게 검토 요청한 결과 좀 더 접근이 쉬운 내용으로 수정 필요하여 수정하고 카드뉴스와 함께 게재하기로 결정함.

1.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2.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1번으로 넣은 싶은 게 있다면?
3. 어떤 노동형태로 일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노동형태를 객관식으로 나열하여 선택하게 함. 구체적인 선택지는 다른 실태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정리하기로 함.
예시) 단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 파견회사 소속 / 개인사업자 등등
4. 평균 월 수입
5. 성별 (기타/여성/남성)
6. 나이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7. 이름(별칭)과 연락처 (추후 인터뷰나 집담회 섭외로 연락드려도 괜찮다면 적어주세요.)

성평등복지

1. 사업 총평

1. 사업 목표

- 1) 결혼제도 안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족구성의 유일한 관계맺음인 결혼 제도를 질문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한다.
- 2)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저출산 대책 등 복지와 관련한 일상적 대응 활동을 통해 성평등복지 관점 및 제도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알려낸다.

2. 평가 및 과제

1) 기존의 주요한 성평등복지 의제로 잡은 결혼제도에 대항할 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는 30주년 기념사업인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사업의 기획 및 진행 과정에서 축소 및 조정하여 (기혼 여성/남성, 비혼여성)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집담회를 통해 결혼제도 약화나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결혼 안의 집단 보다는 결혼 밖에 혹은 경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기존의 가족제도의 폐쇄성에 도전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 맺기, 비혼 공동체 형성 등 열린 관점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혼 여성/남성, 비혼여성 각 1회씩 총 3회의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결혼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결혼제도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결혼제도가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도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혼여성 집담회의 경우, 비혼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삶의 형태(동거, 1인가구, 원가족과 함께 거주 등)와 요구들(주거 지원, 돌봄 나눔,

기본소득)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와 열망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 제도를 경험한 여/남성 집담회의 경우 결혼 제도 안에서 갖는 문제와, 어려움 등이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 제도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보다는 결혼 제도 안에서 겪는 성차별, 가족주의를 문제시하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결혼 제도에 진입하는 순간 성차별에 대한 체감적 수위가 높은 것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최근 1인가구 증가는 이미 결혼제도 약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40년 1인가구가 40%를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 청와대의 청원 요구 중 하나로 가족법 개정 청원이 올라 온 것은, 혼인, 혈연, 입양만이 유일한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필요를 보여준다. 결혼 제도 안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서 결혼제도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를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것,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 등이 결혼제도 변화에 더 유용할 것임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2)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하여 다양한 연대단위와 유일한 노후 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공적기능 강화를 추구하고, 전면 개정 이후 대응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후 공대위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에 있어, 가족 내 여성에게 맡겨져 있던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장기요양사들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여성화된 노동을 국가가 어떤 관점으로 공공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에도 돌봄의 영역에서 국가가 지녀할 관점, 대중 인식 변화 등을 위한 활동이 과제로 남는다.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이후 사안 대응 및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면개정 활동 이후를 기획함에 있어 집행위원 뿐 아니라 공동대표 단위로 참여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비율고시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함께 참여하는 등 돌봄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정부기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간 성평등복지 이슈 활동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보육-주거-1인가구-노년까지, 돌봄과 가족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결혼출산률이 역대 최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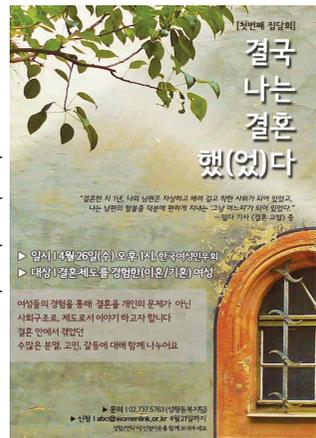
떨어지는 등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민우회는 2016년 진행했던 여성 1인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회 정책 토론회, 지자체 간담회, 보고회 참석 등 1인가구가 기본이 되는 복지 제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비혼 여성의 급증 원인을 여성들의 이기적 선택으로 낙인화하고, 가족제도로의 편입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여성들이 그간 사적·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돌봄을 수행해왔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려내는 작업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관점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를 해결하는 관점이 여성을 가족 안에 재위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과 자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에 있어 돌봄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재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제도적 변화 도모 등에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2017 결혼제도를 질문하다 - “결혼 말고, □□□”

1. 집담회

- 1차 집담회 (기혼/이혼 여성) ‘나는 결국 결혼 했(었)다’
 - 일시 : 4월 26일(수) 오후 1시,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정명희, 윤나리, 이정아, 문지은, 강혜란, 이수정
 - 내용 : 10개의 질문(결혼 전후 달라진 일상, 결혼 후 얻은 것과 잃은 것, 결혼은 선택한 이유, 결혼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할수 있다면, 내가 요구받는 것과 파트너가 요구받는 것의 차이, 결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나는 이럴 때 이혼하고 싶다 등등)에 답하기.



- 2차 집담회(기혼/이혼 남성)
 - 일시 : 5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위근우, 안은석, 김광일
 - 내용 : 집담회 취지 설명, 1차 집담회 간략히 공유함. 결혼을 하게 된 이유, 결혼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 결혼 후 내가 요구 받는 것과 파트너가 요구 받는 것, 결혼 후 얻게 된 것, 결혼 제도의 대안 있다면? 등등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음.

○ 3차 집담회(비혼 여성)

- 일시 : 7월 20일(목) 저녁 7시 30분,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이임혜경, 최혜영, 허오영숙, 박신연숙, 노도희, 강운정, 배예나, 김보련
- 내용 : 집담회 취지 공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혹은 비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비혼으로 살면서 불편했던 경험. 결혼제도로 들어가지 않았을때 불편한게 있다면? 비혼여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새로운 결혼제도를 상상해 본다면?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다면? 등 다양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음.



2. 집담회 기사 연재(오마이뉴스)

- 연재 목록 및 일정

1	결혼제도를 묻다 ① -기혼여성집담회 "결혼을 하고, 내가 이등시민이란 걸 적나라하게 느꼈어요."	7/3
2	결혼제도를 묻다 ② -기혼여성집담회 "딸이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면 마음이 덜컹해요"	12/1
3	결혼제도를 묻다 ③ -기혼남성집담회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착한 남편이란 건 불가능하죠"	12/16
4	결혼제도를 묻다 ④ -비혼여성집담회 "혼인, 혈연보다는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가족이죠"	12/30

2. 일상적 대응활동

1. 일상 이슈 대응

1) 내부 세미나

○ 1차

- 일시 : 4월 10일 (월), 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읽고 기본 소득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함.

○ 2차

- 일시 : 5월 19일 (금), 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 책 <아내가뭘> 읽고 사업 아이디어 나눔

2) 공적연금 제도 대응

○ 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가치와 이를 받침 하는 핵심요소가 요양종사자의 노동 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일시 : 2017년 7월 19일(수)

-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비율고시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판결을 환영 및 정부의 관리감독 촉구.

2. 연대 활동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 집행위 회의

①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월) 오전 9시, 합정 할리스 커피숍

- 참석 : 최경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장보현(보건복지자원연구원), 한정희(민주노총),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이건복(좋은돌봄실천단), 최원진,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 법개정 후속작업(기관 회계, 요양사 인건비 비율 등), 공대위 집행 체계 등

②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전 10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참석 : 최경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장보현(보건복지자원연구원), 한정희(민주노총),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이건복(좋은돌봄실천단),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최원진,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 보건복지부 간담회 관련 내부 논의, 공대위 지난 사업보고 및 평가

- 결과 : 인건비 비율 84.3% 이상으로 명시, 인건비 비율 미준수 시 벌칙조항 마련, 기관의 이윤보장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함.

③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6월 13일(화) 오전 10시, 요양보호종사자지원센터(불광동)

- 참석 : 최경숙, 빈순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김민문정, 최원진 (한

국여성민우회), 장보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 내용 : 장기요양제도 10년을 말하다 토론회 진행 논의

④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11일(화) 오전 10시, 한국여성민우회
- 참석 : 최경숙, 빈순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김민문정,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박대진 (돌봄연대), 장보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내용 : 토론회 평가 및 향휴 계획, 조직체계 정비

④ 5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3일(월) 오후 4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 참석 : 최경숙, 빈순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김민문정,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박대진 (돌봄연대)
- 내용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향 내부 토론 및 토론회 기획

○ 토론회 <‘나이들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 일시 및 장소 : 6월 26일(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김상희,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의원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공동대책위원회, 요양네트워크,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내용 :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황과 한계 및 과제



○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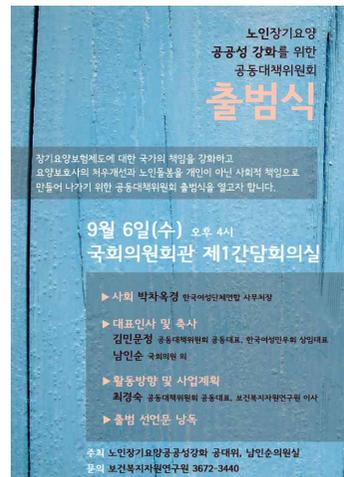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내용 : 사회서비스공단 축소 대응 및 돌봄의 공공성 확대 요구

○ 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 주제 :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문제점과 법안 제정방향
-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김상희, 윤소하
- 발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_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보육, 요양, 활보 종사자 1인, 이용자, 법률전문가, 복지부 등 5명

○ 대표자 회의 및 출범식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참석 :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서울시어르신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김태인(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화연(은평노동인권센터 대표), 김재천(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민주노총 감사),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정실 활동가), 김남희(참여연대 팀장), 이진복(좋은돌봄 실천단 대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박병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장), 고미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직국장),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보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총 17개 기관
- 내용 : 공대위 조직체계 구성 논의, 공대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안 논의, 재정방안, 민우회 김민문정 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3인, 집행위원 9인 선출됨.



○ 내부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서울노동권익센터 10층 교육실
- 세부 프로그램

1부_ 사회서비스공단과 장기요양 제도개혁 과제

* 진행 : 최경숙 공동대표 / * 발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부_ 단체별 발제 및 의견 논의

* 진행 : 김민문정 공동대표/ 각 단체에서 보낸 활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 논의

2) 외부 토론회 및 간담회 참여

○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 세부 프로그램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정책_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조세정책_이영한(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1인가구 빈곤_박건(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비혼 및 가족정책_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의료 및 돌봄정책_노용균(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1인가구_박향진(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 · 노인 1인가구_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여성 1인가구_박상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여성 1인가구 주거권 자문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이연정(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 내용 : 주거정책 대안 및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방안 논의

○ 1인가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24일(금), 오후 1시, 서울시청 8층 2간담회의실
- 참석 : 정진희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선미 (서울시 가족정책팀장), 김상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내용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논의

여성건강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법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모으고 확장하여 ‘낙태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 2) 몸 다양성을 위한 월별 기획 활동을 진행하여 ‘외모피로사회’ 문제를 이슈화한다.

2. 평가 및 과제

1)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하였으며 사진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임신중절 당사자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축적하는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낙태죄가 뜨겁게 이슈화된 국면에서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힘 있는 대응을 펼칠 수 있었다.

2016년 <검은 시위> 이후 뜨거워진 낙태죄 폐지 요구의 흐름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올해는 낙태죄 폐지를 핵심 이슈로 설정해 활동하였다. 법 개정 작업을 위한 논의모임부터 낙태죄 관련 사례 제보함 운영, 당사자 이야기모임, 사진프로젝트, 전시, 카드뉴스 <왜.낙.폐? 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시리즈 발행,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연대 조직 및 발족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경험을 축적 및 확산해가며 낙태죄 폐지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성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알려낼 수 있었다.

임신중절 당사자 이야기모임은 연초 한 내담자의 제안으로 기획·실행되었다. 달마다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소규모 이야기모임은 자신의 임신중절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써 여성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모임 참여자들이 사진 프로젝트나 기자회견, <검은 시위>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며 보다 적극적인 운동 주체로서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야기모임 주최자를 위한 실용적 지침과 조언을 담은 <워크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지역과 단위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모임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획과 활동이 필요하다.

사진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는 형법 제 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몸에 적은 여성들의 사진 269장을 모으는 프로젝트로, 100여장의 사진을 사진작가와 촬영했고, 나머지 169장은 해시태그 액션을 통해 모았다. 낙태죄 폐지 이슈를 예술매체(사진 촬영)를 통해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촬영을 계기로 다양한 대중들과 만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촬영 참여자들은 “낙태가 여성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란 걸 몸과 얼굴로 말한 기분이었다. 더 많은 여성들이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몸에다 메시지를 직접 쓰고 나니 이 문제가 정말 내 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있단 걸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몸의 부위를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해방감과 위로를 얻어간다” 등의 피드백을 남겨주었다.

또한 사진은 여성들 개개인의 몸과 얼굴을 현실감 있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말이나 글보다도 강렬하게 개인의 현실이자 몸의 경험으로서의 ‘낙태’ 이슈에 관심을 모으는 좋은 방식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어진 해시태그 액션에도 400명이 넘는 많은 참여가 이어졌다. ‘페미니스트들의 일만 가지 연대’를 소망하며 국제연대를 통해 해외 참여도 이끌어냈으나, 이러한 수많은 참여를 더 대대적인 흐름으로 가시화하며 조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촬영된 사진의 일부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허핑턴포스트,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공개되었고, 사진 전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약 2주간 전시되었다. 서울지역 내에서 접근성 좋은 전시장소를 물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커서 짧은 기간만 전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쉽다.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순회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7개 지부와 함께 사진을 활용한 거리액션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를 진행하여 각 지역 시민과 만나는 캠페인을 펼쳤다.

10월 말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35,372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낙태죄 폐지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에 입장문, 성명서, 기자회견, 언론인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갔다. 사전에 조직된 연대체가 있어 소속단위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대응할 수 있었다. 11월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남성과 국가의 책임이 빠진 문제점이 있으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

을 내놓았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017 검은 시위>를 주최하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정부의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종교계를 필두로 한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이 조직되고 있고, 낙태죄에 대한 두 번째 위헌 심리도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담론 싸움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시민사회 안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넓혀나가는 동시에 여러 지역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 보다 전국적인 이슈화와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연대가 필요하다.

2) 외모피로사회를 꼬집는 액션을 기획하여 외모와 몸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다다름 필름파티>를 통해 몸 다양성 이슈를 고민하는 이들이 만나 연대하는 장을 만들었다.

외모피로사회를 꼬집는 가볍고 유쾌한 몸 다양성 액션을 매일 진행하고자 외모피로지도 그리기, 주름을 주제로 1인 거리액션, 젓꼭지를 주제로 거리 피켓팅 액션, 몸무게와 인증샷을 주제로 온라인 해시태그 액션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외모지적과 외모관리에 대한 높은 피로도를 체감하는 한편, 그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 또한 거듭 체감하며 기획의 어려움을 겪었다. 몸 다양성 이슈의 경우 우리가 먼저 피로감의 내용을 단정 짓고 그 현상만 지적하거나 비현실적 탈주를 상상하는 방식은 쉽게 공감을 얻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주제를 납작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한편 참여자들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외모 통제에 문제제기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시위 방식이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몸무게연대기 해시태그액션과 같이 몸과 외모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가시화되게 하는 방식의 기획이 훨씬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몸 다양성 운동을 하는 여러 단위로 구성된 ‘다다름 네트워크’와 세 번째 <다다름 필름파티>를 공동 주최했다. 외모피로지도, 커스텀 마네킹 전시 등 다양한 부스 운영과 함께 4편의 몸 다양성 영화 상영 및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대중들과 몸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 산부인과 소책자 재발행으로 산부인과를 둘러싼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산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생리대 속의 유해물질과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 마련을 여성건강의 관점에

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2년 발행했던 소책자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를 재발행하여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이용하며 마주하는 곤혹스러움과 불편함 등 여성건강과 관련한 일상적 차별문제를 다 시금 알렸다. 1,000부 이상의 많은 신청이 들어오며 산부인과 진료와 정보에 대한 대중 적 관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는 동시에, 조금 더 정확하고 풍부한 의료적 정보를 기대 한 것에는 못 미친다는 아쉬움 등이 피드백으로 다수 접수된 점은 추후 관련 활동에 반 영되어야 하겠다.

올해는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다.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3,000건 이상 접수되며 생리대의 유해성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열차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 여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서둘러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과,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의 움직임에 대해 긴급히 <생리대 안전 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를 꾸려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으로 기민한 대응을 이어나갔다.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대체의 활동 결 과 정부가 정밀조사 계획과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본적인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 생리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 속적인 대응활동이 요구된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낙태죄를_폐지하라

1. 인공임신중절 이슈 관련 내부 세미나			
차수	세미나자료	장소	참여
1차 (2/13)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중 “국내 피 임과 낙태 관련 법 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회의실	홍연지, 이운소,
2차 (2/17)	「성과 재생산포럼 II과 젠더포럼: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성과재생산포럼, 2016)	회의실	이지원, 김진선,
3차	『있잖아 나 낙태했어...』(한국여성민우회, 2011)	카페	강혜란

(2/17)			
4차 (3/3)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신경아, 2010), 성평등복지포럼 <저출산을 질문하다> 자료집(한국여성민우회, 2015)	회의실	

2. 낙태죄 폐지 및 대안입법을 위한 TFT 회의

- 구성 : 권미혁 의원실, 장애여성공감, 건강과 대안,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민우회
- 활동내용 : ‘여성의 성/재생산권’ 관련 대안 입법 마련을 위한 TFT 구성

○ 1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2/3(금)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권미혁의원실
- 내용 : ‘낙태죄’ 폐지 이슈 관련 공동대응단위 초동회의, 단위별 이슈대응방향 및 계획공유, 3.8 여성의 날에 국회의원 등 공동주최 단위를 모아 국회 내 영화 상영회(다큐 <파도 위의 여성들>)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공동주최 참여의사 밝힌 국회의원 없고 대선국면과 겹쳐 일정 연기함

○ 2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4/5(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권미혁의원실
- 내용 : 낙태죄 폐지 및 대안입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대안입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 관련된 단체별 자료 공유

○ 3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5/25(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대안입법 마련 위한 내부 세미나 진행

- 신옥주(전북대 교수),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 김선혜(메릴랜드대학교 여성학과 박사수료), 보조생식기술과 재생산권
- 이유림(건강과대안), 낙태의 기한규제-국제적 동향
- 타리(장애여성공감), 산전 진단과 낙태에 관한 장애계 쟁점 사항 발표

3. 임신중절경험 당사자를 위한 달마다 작은 이야기모임

- 한국인권재단 제 14차 인권활동모금사업 선정(3/8)
- 참여대상 :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 프로그램 :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분	아이스 브레이킹	• 참가자 자기소개, 작은이야기모임 소개
5분	영상 상영	• 민우회 제작 <그녀의 어떤 하루> 영상 상영

120분	이야기나눔: 있잖아, 나 낙태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나누기 • 질문박스 (키워드와 질문은 사전에 취합한 내용)
15분	네트워킹: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모임 참가자들로부터 온 연대의 편지 전달 • 다음 모임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편지쓰기

○ 모임 진행내역

- 3월 모임(3/31 금) : 참여자 4인 + 이야기손님(ㅈㅇ) + 민우회 홍연지
- 3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비밀, 시간, 페미니즘, 부활, 경구 피임약 미지마, 용기,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망, 부끄럽지 않아, 사실 난 (안)괜찮아요.
- 4월 모임(4/30 토) : 참여자 4인 + 이야기손님(표ㄱㅇ) + 민우회 홍연지
- 4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불친절, 콘돔, 왜 여성만 당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가, 절대 말할 수 없는 것, 거짓말, 기록, 당연한 권리(건강권을 포함), 병원, 청소년, 성교육의 부재,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남자친구, 배신감, 공포, 산부인과 가는 게 걱정됨, 도망, 안주.
- 5월 모임(5/18 목) : 참여자 3인 + 이야기손님(ㄹㅇㄹ), 민우회 홍연지, 김진선
- 5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선택, 미혼모, 아기, 연애와 성, 미래, 한국사회와 성, 성교육의 정상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만 18세 때의 수술, 비싼 수술비용
- 6월 모임(6/7 수) : 참여자 3인 + 이야기손님(ㄴㅇ), 민우회 홍연지, 김진선
- 6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만 18세 때의 수술, 비싼 수술비용, 술, 원나잇, 비밀, 시험, 폭력, 선택, 물꼬추도 임신은 시키더라, 재미로 몰래 콘돔빼지마, 왜 (나한테 아기) 안 낳아줘?
- 7월 모임(7/31) 참여자 3인, 민우회 홍연지, 김진선
- 7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콘돔, 불법, 학교, 봄, 믿음, 남성의사, 죄책감이 안 들어요, 트라우마, 수술실조명, 아무리 급해도, 약, 정신병, 비밀, 고민하지 않았어, 사실 넌 좋은 남자가 아니야
- 8월 모임: 신청자 미달(2명)로 8월 모임 취소, 차기 모임으로 이월
- 10월 모임: 신청자 미달(2명)로 차기 모임으로 이월
- 11월 모임(11/15): 참여자 3인, 민우회 홍연지, 이윤소
- 11월 모임 참여자 키워드: 왜 피임을 안했어?, 초조한 기다림, 나만의 억울함, 약속, 오빠가 잘 안다며, 결혼하려고 그런 거지?, 증명, 질외사정?, 섹스는 어떡하지?, 몸과

마음의 속도차, 남자친구의 반응

○ 워크북 제작

- 또 다른 이야기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작은 워크북' 제작(e-book으로 제작, 66쪽)
- 일정 : 이야기모임 녹취풀기(6월중순)-내용 분석회의(6월말)-제작회의(7월초)-제작(7월)-배포(7월말)
- 목적 : 이야기모임 내용 확산 및 사회적 인식-제도개선을 위한 이슈 파이팅 촉발
- 배포 : 전국 성폭력상담소,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문 발송 및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SNS 배포

작은 워크북 목차

머리말 5

모임 준비하기
 진행자_사전준비물 등 12
 참가자_사전설문지(온라인) 13

모임 진행하기
 모임 전체프로그램 18
 오프닝영상: 그녀의 어떤 하루 20
 모임소개 21
 자기소개 22
 {1부} 키워드토크/해석의 곡선 23
 {2부} 질문박스 30
 연대의 메시지 쓰기 34
 소감나누기 36

부록 연대의 메시지 39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 63

4. '낙태죄 폐지' 이슈화 활동

1) 온라인 카드뉴스 '왜낙폐(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시리즈 제작

1탄 (6/9)	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트위터 리트윗 1611, 마음글 322, 페이스북 좋아요 603, 공유하기 296
2탄 (7/7)	낙태죄 협박사례들	페이스북 좋아요 293, 공유하기 91, 트위터 리트윗 314, 마음글 64
3탄 (7/24)	낙태죄 판례들	페이스북 좋아요 106, 공유하기 28, 트위터 리트윗 189, 마음글 46

○ 언론보도

: [오마이뉴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조회수 5,343)(6/12)

: [오마이뉴스]'낙태죄' 협박사례들, 이건 생명존중이 아니다(조회수 9,126)(7/10)

- 사업기간: 2017년 7월 1일 ~ 2017년 11월 21일 (총 4개월 3주)
- 프로젝트 내용 요약: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정부, 낙태를 범죄화하는 형법 269조 ‘낙태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그린 여성 269명의 몸을 사진으로 담는다. 100명의 사진을 사진작가와 함께 촬영하고, 169명의 사진을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받는다. 269명의 여성들의 몸 이미지 사진을 모아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하여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고 축적한다. 전시에는 대중들의 참여가 가능한 부스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의 메시지가 연결되게 한다.
- 같이가치 모금함 등록(5/18), 모금함 오픈(5/22): 사단법인시민 지원 1,500,000원, 직접기부 213명 1,563,000원, 참여기부 4,227명 845,000원(100%)
- 기획회의(6/27, 레이브카페): 프로젝트 소개, 사진촬영 기획 논의 및 촬영일정 논의(사진작가 혜영, 민우회 여성건강팀 김진선, 홍연지)

○ 사진 촬영(7~8월)

- 촬영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픈(7/20): 64명 신청(공동촬영 미포함)
- 사진촬영 완료(85인)

날짜	내용	촬영장소	촬영인원
7/17	촬영테스트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2인
7/18	1차 촬영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18인
8/3	2차 촬영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28인
8/6	추가촬영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사진작가 작업실	6인
8/11	3차 촬영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21인
8/18	4차 촬영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10인

: 프로젝트 소개-촬영동의서 작성-촬영부위 및 문구 확정-대기-촬영-소감작성 순으로 진행

○ Battleground 269 사진 공개 외화(언론보도 포함)

- : 사진공개 1차(15장), 2017.9.1. 페이스북 좋아요 404명, 공유 118회, 트위터 리트윗 1570, 마음글 337
- : 사진공개 2차(12장), 2017.9.5. 페이스북 좋아요 137명, 공유 25회, 트위터 리트윗 82, 마음글 17
- : 사진공개 3차(14장), 2017.9.8. 페이스북 좋아요 607명, 공유 103회, 트위터 리트윗 182, 마음글 84

- : [한겨레] 낙태죄 폐지 위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2017.8.1.
- : [오마이뉴스] 아랫배에 새긴 형법 269조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2017.9.1.
- : [허핑턴포스트]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① 2017.9.2.
- : [오마이뉴스] "우리는 반드시 임신중단권을 쟁취할 것이다" 2017.9.5.
- : [경향신문] "[기타뉴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두번째" 2017.9.6.
- : [허핑턴포스트]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②

2017.9.7.

: [오마이뉴스]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2017.9.11.

: [한겨레] "원치 않았어도 키울 수 없어도 닦치고 낳으라고요?" 2017.9.12.

: [허핑턴포스트]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③ 2017.9.13.

: [인물과사상] 2017.12월호 제2면에 Battle ground 269 사진 게재

: [오마이뉴스] 하느님, 저는 낙태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사진 프로젝트 후기) 2017.11.29.

: [위커스] 2018.1월호에 Battle ground 269 사진 코너 게재

○ 온라인 해시태그 액션(9월초~10월초)

- 참여방법: 낙태죄폐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직접 자신의 몸에 적고,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 #Battleground269, #낙태죄를폐지하라 를 적어 업로드 또는 민우 메일로 보내기.

- 참여 독려글 업로드(9/22) (트위터 리트윗 180, 마음글 40, 페이스북 좋아요 62, 공유 15)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D-6! 민우회가 제안하는 액션 ①



**낙태죄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에 참여하기**

바로 지금, 함께해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1.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몸에 적고,

Tip! 문구예시: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내 몸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여성#도구"

Tip!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 같은 화장품이나,
펜, 사인펜, 물감붓 같은 학용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2.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womensbody@womenlink.or.kr (민우회 여성건강팀)

#Battleground269 #낙태죄를폐지하라
두 개 해시태그를 붙여 직접 SNS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보내주신 사진은 낙태죄폐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 사진촬영 참여자들의 번역 도움으로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해시태그 액션 참여 홍보글을 아시아, 유럽, 북미권의 단체에 이메일, 트위터 쪽지 등으로 요청함(9/26)

- 최종 해시태그액션 참여사진 480장.

- 모인 사진 중 100여 장의 사진을 전시장에서 영상으로 상영함.

○ 사진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차 협력전시' 응모(8/17), 선정(9/8)

- 전시장소 및 전시기간: 서울여성가족재단 1층 갤러리 봄, 10/16~11/6 (약 3주)

- 사진선별 및 사진인화 주문완료(10/12)

- 여성플라자 협력전시 담당자 미팅(10/13, 여성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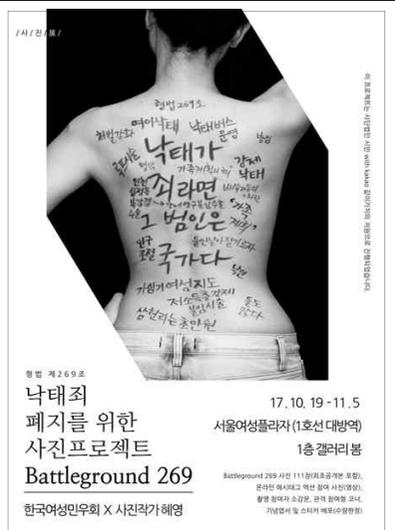
- 전시설치: 10/19~10/27 (3차에 걸쳐 설치)

- 전시내용: 촬영사진 약 100장, 해시태그 액션 사진(영상물), 프로젝트 소개, 임신중절 사례 및 전시방명록 설치, 기념엽서 및 스티커 배포

- 전시홍보: 1차(10/25), 2차(11/1), 3차(11/3), 4차(11/4)

*여성플라자 협력전시 운영 관련한 면담요청 공문발송(11/22): 전시기간 중 전시물 무단 철거의 건이 발생하여 여가재단에 공간 운영 방침에 관한 면담 요청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면담 진행(12/20, 여성플라자, 민우회 김진선, 최진협, 김민문정 참석)



Battleground 269 전시 홍보 포스터



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 '봄'에 설치한 Battle ground 269 전시장

6. 인공임신중절 상담 및 지원활동 및 관련 사례 제보함

○ 임신중절 상담

- 2016년 12월부터 19건(병원문의 6건, 수술실패로 인한 재수술 가능 병원문의 1건, 심리상담소 연계 문의 1건, 협박상담 1건, 낙태종용상담 1건, 면접상담 및 연속상담 5건,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의 법적 지원 상담 1건, 임신중절절차 문의 2건, 수술비 지원 연계 문의 1건)

○ 사례 제보함(온라인)

- 2017년 8개 사례 들어옴

: 중절사실 폭로 협박, 테이트폭력, 강간, 스토킹 당해도 신고할 수 없음

: 의료적 정보 알 수 없어 건강권 침해(육체적, 정신적 부담 심함)

: 함께한 임신인데 정신적 육체적 고통, 공포 모든 것을 여성이 부담·책임져야 함

: 사회적 낙인 심하고 낙태죄가 그 낙인을 더 강화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

: 결혼 후 다수의 중절수술 경험하였으나 변화는커녕 정관수술도 거부하는 남편

: 불법 낙태시술소에 대한 제보

7.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연대활동

- 참여단위: 성과재생산포럼(장애여성공감,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NGA, 희망법),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페미몬스터즈, 페미당당, 불꽃페미액션 이상 8개 단체

○ 연대회의

	일시/장소	내용	참여
사전 모임	7/6, 북카폐정글	공동연대체 구성에 대한 의견 나눔	NGA(1인), 장공감(1인), 건강과대안(1인), 민우회(2인)
초동 모임	7/27, 민우회 사무실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이유림) 발제로 연대체 중심 과제와 요구안 논의함	성과재생산포럼(4인), 민우회(2인), 불펜(1인), 여전(1인), 성폭(1인), 페당(1인) 등 10인 참석
2차	8/17, 민우회 사무실	공동요구사항 정리 및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한국 행사 기획, 연대단위 확장, 행사 이후의 활동 계획	성과재생산포럼(3인), 민우회(2인), 불펜(1인), 성폭(2인), 페당(1인) 등 10인 참석
3차	9/18, 장애여성공감 사무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 기획 확정	성과재생산포럼(3인), 민우회(2인), 페당(1인), 페몬(1인), 여전(1인) 등 8인 참석
4차	11/9, 한국성폭력상담소	9/28 기자회견 및 11/9 기자회견 평가, 이후 계획 논의 및 역할 분담 ·시민사회단체 내 입장 온도차 확인→단위체 확장 신중하게 진행 ·이슈지속→ 2017검은시위 →기사연재 기획 ·조직적 언론대응 필요성 절감→기본쟁점 정리 및 외부 전문가 포함한 대응팀 조직 필요	성과재생산포럼(3인), 민우회(2인), 불펜(1인), 페당(1인), 페몬(2인), 성폭(1인) 등 10인 참석

- 초동모임에서 제안된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내부토론 필요하다고 판단, 8/17 (목) 논의함: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에 반대한다는 대전제는 쉽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나, ‘남성의 책임’ 부분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질문들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함.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 맞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 진행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일시/장소] 2017년 9월 28일(목) 오전11시30분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주최/주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
 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
 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순서]

(사회:민우회 김진선)

사회- 여는말	공동행동 발족 취지 발표 및 안내
10인 발언 퍼포먼스	<p>- 10명의 발언자가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p> <p>❶ 기혼여성, 독박육아, 이중노동의 현실과 임신중절수술 경험 “1996년 10월 23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 나는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 빠듯한 별이에 정신 없는 보통의 부부, 독박육아, 이중노동, 피임은 신경도 안 쓰는 남편을 둔 모든 기혼여성 위해 낙태죄 폐지 요구.”</p> <p>❷ 70년대 가족계획사업 당시 복강경 피임 시술 피해 경험 “1979년 9월 15일. 나는 국가에서 원하는 복강경 피임 시술을 받았음. 이제 애 낳는 게 애국이라던 가족계획사업. 보건소의 계속된 권유로 배꼽수술, 루프수술 받았으나 제대로 된 설명 없어 후유증 겪음.”</p> <p>❸ 10대 여성 경험 “2017년 3월 29일 나는 임신과 낙태를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음. 피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학교성교육에서 배운 것 없이 임신 사실 알게 됨.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맞고, 중절수술 받았으나, 이후 소문이 나자 학교에서 자퇴하길 강요. 학생이 임신하면 죄인인가요?”</p> <p>❹ 20대 여성, 의료권과 건강권 침해 받는 내용 “2016년 3월 24일. 나는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음. 어렵게 찾은 병원이 비위생적이었으나 불법수술이라 제대로 된 소독이나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수술 받은 후 후유증 의심되어 걱정. 낙태죄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이 아닌 건강을 유지할 기본적 권리도 없었음.”</p> <p>❺ 30대 HIV감염인 여성의 재생산권과 사회적 시선 “2010년 9월 29일, 나는 HIV 감염인으로 확진을 받았음.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어도 HIV 감염인에 대해 가지는 성적인 낙인으로 극렬한 반대에 부딪침. 감염인 여성은 어머니될 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시선.”</p> <p>❻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임신중절수술</p>

	<p>“2012.12.18.나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으로 중절수술을 받았음. 안전하고 합법적인 중단수술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가해자 고소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거액의 불법 수술 비용을 요구. 경찰은 허위사실을 의심하며 고소사실확인서 빨리 발급해주지 않아 임신 4주에 알게된 사실을 임신 14주가 지나서야 수술 받을 수 있었음.”</p> <p>⑦ 20대 여성 중절수술 경험 “2014년 6월 20일 나는 임신중단을 했음. 쿠파액으로 인한 임신이었지만 성교육에서는 배운 적 없었음. 나 몰라라 하는 남자친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낙태 결심. 그러나 병원에서는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동의를 요구했고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음. 여성 청소년의 자기 삶의 결정권을 위해 낙태죄 폐지 요구.”</p> <p>⑧ 30대 워킹맘의 출산, 육아, 양육 경험과 재생산권 “2015년 4월 19일, 나는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음. 마치 누구나 쉽게 다 하는 임신과 출산인 것으로 사회 속에서 세뇌됨. 임신 동안 너무 힘들었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후에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중고에 힘들. 사회가 이 모든 일을 여성에게 당연하게 여성의 의무라 여기는 것 잘못.”</p> <p>⑨ 장애여성의 출산 경험과 재생산권 “2009년 7월 31일 나는 첫 출산을 했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해선 안될 몸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낙태해야 될 몸으로 규정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음.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돼야함.”</p> <p>⑩ 장애여성 “2017년 9월 28일, 나는 이 나라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음. 운이 좋아 장애를 갖고도 태어날 수 있었음. 장애에 대한 지식, 감수성 없음이 결국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p> <p>- 발언이 이어지면서 발언자들이 붉은 리본으로 연결됨</p>
자유발언	<p>-참가자 자유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중절경험, 임신공포도 낙태에 대한 죄책감도 모두 여성의 것. 출산장려하는 정부가 책임감도 없이 여성에게 독박쓰라는 것도 어불성설. 딸 낳는 태몽을 꿴다고 낙태를 강요받아 낙태한 어머니 경험. 2. 성판매여성과 임신중단권 3. 퀴어젠더여성과 재생산권
기자회견문 낭독	<p><낙태죄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9개의 단체가 차례로 낭독하며 서로 붉은 리본으로 연결됨</p>
포토타임	<p>모든 참가자들이 붉은 리본으로 연결됨 리본을 높이 들며 구호와 함께 마무리</p>

마무리 구호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호주제도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	--

[함께하는 단위]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동북여성민우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
워크, 여성환경연대, 인천여성민우회



- 9/22 보도자료(1차), 9/25 퍼포먼스 참여요청 자료 발송, 9/26 보도자료(2차), 9/29 기자회견
문 업로드, 9/29퍼포먼스 후기 글 업로드

- 언론보도

: [여성신문]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낙태죄 폐지’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9/28)

: [한국일보] [영상] “내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한다” (9/28)

: [뉴스웨이] [NW포토]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여성들 (9/28)

: [뉴스원]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각계 여성들 ‘낙태죄 폐지’ 한목소리 (9/28)

: [뉴시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9/28)

: [허핑턴포스트] 여성 6명이 ‘임신 중단’ 경험을 이야기하다 (화보) (9/28)

: [오마이뉴스]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낙태를 했다 (9/28)

: [천지일보] “낳으려면 낳고 낳지 말라하면 안낳는 도구인가” (9/28)

: [베이비뉴스]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9/28)

: [라포르시안]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출범...28일 발족 퍼포먼스 (9/28)

: [헤럴드경제] “왜 여성만 독박 처벌하나”...낙태죄 폐지 외치는 여성들 (9/29)

: [메디컬투데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낙태죄 폐지 외치는 여성들 (9/29)

: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 to Safe Abortion> 10월 뉴스레터 “SOUTH
KOREA: Joint Action for Reproductive Justice formed & activities for 28 September”

○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11/9(목) 오전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11/6 연대참여요청 공문 발송, 11/8 보도자료 배포, 11/9 기자회견문 업로드
- 당일 프로그램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 행동센터장)

- 발언1. (당사자 사례 대독) 홍연지,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언2.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발언3. 은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발언4. 이유림,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연구원
- 발언5.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6.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발언7.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언론보도

- : [뉴시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11/9)
- : [아시아경제] “여성은 인구통제수단이 아니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 봇물 (11/9)
- : [경향신문] [경향포토] “낙태죄 폐지요구 기자회견” (11/9)
- : [서울신문] “낙태죄를 폐지하라!” (11/9)
- : [뉴스1] “낙태죄 폐지 결의 기자회견” “낙태 합법화는 모두를 위한 것” (11/9)
- :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인구통제의 도구였다” (11/9)



○ 2017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 일시 및 장소: 2017.12.2.(토) 오후2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 인도
- 당일 프로그램

사회: 심미섭(페미당당),

· 피켓, 검은천(두건), 핫팩 배포

- 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를 위한 합창(노래 배우기, 함께 부르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징글벨”, “창밖을 보라” 개사(3곡)
- 자유발언
- 행진: 세종로공원-경복궁역-청운동 동사무소 방면-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약식 집회(구호, 발언, 노래) 후 세종로공원 앞 인도로 돌아옴



- 언론보도

- : [뉴스1]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2일 낙태죄 폐지 ‘검은시위’ (12/1)
- :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하라’ (12/2)
- : [뉴시스] 여성단체들 ‘검은 시위’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12/2)
- : [환경일보] 낙태죄 폐지, 국내서 두 번째 검은 시위 열렸다...쏟아지는 반응은 ‘제각각’(12/2)
- : [채널A] “낙태죄 폐지하라” 검은 시위...대책 마련 촉구(12/2)
- : [보훈망코리아] “합리적인가? 논지를 흐리고 있나?” 낙태죄폐지, 검은 시위에 쏟아지는 반응(12/2)
- : [뉴스인사이드]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였다 ‘2017 검은시위’ 집회 열어(12/2)
- : [한강타임즈] “낙태는 몸을 함부로 굴러서?” NO! 여성들의 다양한 이유 외면 말라(12/2)
- : [중도일보] 낙태죄 폐지 시민단체 집회 열기 속...‘그 행방은?’ (12/2)
- : [데일리한국]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열려..‘과연 어떤 것이 인권인가’ (12/2)
- : [한겨레] 시민들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12/2)
- : [국민일보] 검은 옷 입고 “낙태죄 폐지” 촉구, 올해 두 번째 ‘검은시위’ 열려 (12/2)
- : [뉴스1]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12/2)
- : [여성신문] 청와대 ‘친절한 답변’에도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 시위 나서는 이유(12/2)
- : [뉴스1] ‘낙태죄 폐지는요?’ (12/2)
- : [천지일보] 모녀, 커플 함께 행진하며 “낙태죄 폐지” 촉구(12/2)
- : [천지일보]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우리는 인구조절 도구가 아니다” (12/2)
- : [기호일보]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 신동운 “술에 술탄 듯” (12/2)
- : [중앙SUNDAY] “국가가 개인의 몸 통제” “태아 생명권 여성 결정권에 우선” (12/3)
- : [여성신문]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2/3)
- : [여성신문] [낙태죄 폐지]“삼권분립?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다” (12/3)

○ 기획기사 연속기고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12/1부터 총 10회, 여성신문)

- 모낙폐 활동가들의 연속 기고를 통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실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변화 촉구

회차	담당	사례	발행
1	불꽃페미액션	청소년, 학습권침해, 섹슈얼리티	12/1 발행
2	건강과대안	건강권침해 관련 사례	12/16 발행
3	페미몬스터즈	20-30대 여성 사례	12/26 발행
4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사례	연재예정
5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의 의미	연재예정
6	한국여성민우회	남성의 고발과 협박 사례	연재예정
7	페미당당	20-30대 여성 사례	연재예정
8	여성의전화	워킹맘 사례	연재예정
9	여성단체연합	중년여성(가족계획)사례	연재예정
10	성과재생산포럼	감염인/질병질환에 따른 차별	연재예정
11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와 재생산정의	연재예정

8.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대응의 건

- 10/1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9/30~10/30 진행 중임을 10/12일 인지함. 10/13 현재 청원 참여 수 11,903명. 민우회 차원의 참여 독려에 대해 고민했고, 운동단체로서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과의 접촉면, 변화를 추동하는 플랫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뭔가를 성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민우회 차원에서의 참여 독려는 하지 않기로 함.

- 10/30 청와대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 청원’이 30일 만에 서명 2만 명 넘어 청와대가 30일 안에 답변하게 됨.

- 10/31 “민우회는 청원에 동참한 235,372명의 시민들과 함께 형법 제269조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논평발표 및 카드뉴스 제작

- 10/31 ‘왜낙폐(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카드뉴스 1~3탄 재홍보

○ 언론대응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전화 토론(10/31, 김진선)

: [경향신문] 임신중절 당사자(이야기모임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 등) 3인 연결(10/31)

: [CBS 노컷뉴스] 민우회 낙태죄 관련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연결(10/31)

: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생방송 토론(11/1, 김진선)

: [SBS] 인터뷰 “다시 불붙은 ‘낙태죄 폐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2, 11/3 김진선)

: [동아일보] 낙태죄 관련 피해당사자 연결(11/3)

: [MBC 라디오] ‘세계는 우리는’ 생방송 토론(11/6, 김진선)

: [서울신문] 전화인터뷰 및 <Battleground 269> 전시 취재(11/2, 홍연지)

- : [한대신문(한양대학교 신문)] 낙태죄 폐지 관련 방문인터뷰(11/2, 홍연지)
- : [SBS] <Battleground 269> 전시취재(11/3)
- : [이코노미스트] 미프진 및 낙태죄 폐지 관련 전화인터뷰(11/6, 홍연지)
- : [NHK월드] 임신중절 당사자 1인 연결(11/7)
- : [농촌여성신문] 낙태죄 폐지 관련 전화인터뷰 (11/9, 홍연지)
- : [서울신문] <Battleground 269> 전시 및 낙태죄 폐지 관련 전화 인터뷰(11/11, 홍연지)
- : [충북대학교 신문] 전화인터뷰 (11/15, 홍연지)
- : [헤럴드경제] 낙태죄 폐지 관련 방문 인터뷰(11/24, 홍연지)
- : [연합뉴스]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관련 인터뷰(11/26, 김진선)
- : [한강타임즈] 낙태죄 폐지 관련 전화 인터뷰(11/28, 홍연지)
- :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 낙태죄 관련 인터뷰(11/29, 김진선)
- : [뉴시스] 미프진 관련 전화 인터뷰(11/29, 홍연지)
- : [오마이TV] 낙태죄 폐지 입장 인터뷰 (12/2, 김진선)
- : [아리랑TV] 낙태죄 폐지 이슈 관련 인터뷰 (12/4, 김진선)
- : [뉴욕타임즈] 낙태죄 폐지 이슈 관련 인터뷰 (12/13, 김진선)

9. 기타

- 1/24 <여성의 건강과 임신 출산이 함께 지지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토론회: 불법 인공임신 중절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 의원회관 4층, 오후 2~5시(김진선, 홍연지 참석)
- 4/18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차 성평등포럼 <젠더와 재생산권> 오후7시,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여성운동단체 활동내용과 고민을 중심으로_김진선 발제)
- 6/1 한국여성연구소 라운드테이블 '낙태' 이슈(홍연지 토론)(18:30, 여성미래센터)
- 6/15 경실련 미팅(11시, 민우회사무실,,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 민우회 김진선, 홍연지 참석)
- : 낙태죄 폐지 이슈 쟁점 공유, 관련 활동 기획 자문
- 8/9 [카드뉴스]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11/18 인제대학교 탐진관, 김해여성회 주최 <2017여성인권바로알기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여성인권 집담회'>(김진선 발표)

2. 몸 다양성을 위한 월간 <머리-어깨-무릎-발> 액션

1. 몸 다양성을 위한 월간 <머리-어깨-무릎-발> 액션

○ 주름 편

- 3/10 월간 <머리-어깨-무릎-발> 액션 예고편 카드뉴스 게시
- 3/31 '주름'편 기획액션 진행 및 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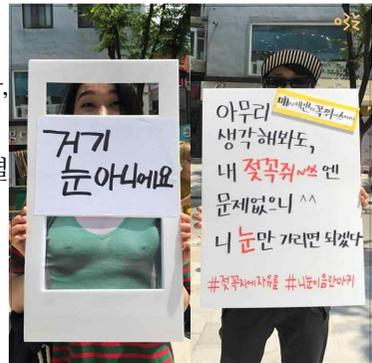


한국암만주름시술광고 해봐라 내가시술안나 먹목이사먹지 협회 #STOP44살



○ 젓꼭지 편

- 5/29 젓꼭지 액션 홍보
- 6/1 홍대 일대를 행진하며 거리 피켓팅 액션 진행 : 활동가, 소모임 회원, SNS를 통해 신청한 4명 등 총 17명이 참여.
- SNS에서의 액션사진 반응이 좋았지만, 행진/구호 이외의 별다른 기획이 없던 것 아쉬움
- 6/8 젓꼭지 액션 총화 카드 뉴스 제작 홍보



○ 몸무게 편

- 7/10 #몸무게연대기 해시태그 액션 시작
- : 200건 이상의 해시태그 액션 참여
- : #몸무게연대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마른 몸에 대한 이야기였음. 이런 경향 때문에 다양한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 보아야 함.
- : 7/28 짧은 후기와 함께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일주일 살기” 제안

60.0kg

몸무게가 60kg이라고 '육십돌'이라고 불리는 아이돌이 있더라고.

여자 몸무게 60kg 넘는 것이 그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난 20대 이후로 쪽 60kg 이상이었음.

#몸무게연대기

○ 인증샷 편

- 8월 액션은 다다름 필름파티로 대체함.
- 9/27 #인증샷_너의의미 해시태그 액션 시작
- 11/23 인증샷 해시태그 액션 후기 업로드

2. 몸 다양성을 위한 ‘다다름 네트워크’

○ 기획회의 (1차)

- 일시 및 장소: 2/22(수) 오전 10시30분, 동묘앞역 66100 사무실(홍연지 참석)
- 참석: 나는 니편(2인), 여성환경연대(1인), 66100(1인), 3355영화제(2인), 21세기자막단(1인), 민우회(1인) 등 6개 단위
- 내용: ①몸 다양성 관련 단위별 신년 활동계획 공유, ②전년도 사업 평가(2회의 필름파티 모두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 시간 부족 아쉬움), ③한겨레 ‘휴센터’ 대관비 지원 사업 진행여부 논의(대관 공간에 맞는 큰 행사 기획의 어려움 등으로 진행 않기로 함), ④올해는 1회의 행사 기획하기로 함(8월중, 행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미정)

○ 기획회의 (2차)

- 일시 및 장소 : 3/31(수) 오후4시 / 홍대 미디어카페 후
- 참석 : 여성환경연대(경진주), 66100(김지양), 창작집단3355(예람, 문문), 민우회(이윤소)
- 회의결과

■ 행사명과 기본적인 행사 형태와 일정

- 행사명 <다다름 필름파티> 확정
- 8월 중하순 중 하루동안 영화 상영과 토크 혹은 캠페인 액션을 기본으로 가기
- 외모다양성 관련 활동하는 다른 그룹들이 참여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도 적극 열어두고 고민하기

■ 행사 내용과 운영 관련 초기 아이디어 나눔

- 의미 있는 영화 콘텐츠, 공신력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이야기손님, 참가자들이 네트워킹하고 능동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가급적) 찾아오기 쉬운 위치와 환대의 분위기 연출 가능하며 저렴한 공간
- 공동 해시태그 발굴하여 게시글마다 꾸준히 운용하기

■ 각 단체별 역분 : 상영작 발굴 및 섭외, 펀딩 기획안, 예산안 마련, 참여프로그램 기획 등

○ 기획회의 (3차)

- 4/28 회의진행(오후 4시, 민우회 사무실): 8월 진행될 다다름네트워크 필름파티 기획
: 민우회는 필름파티에서 몸다양성 액션 부스(외모피로지도 그리기)로 참여하기로 함.
: 굿즈 제작을 통해 예산 마련

○ 기획회의 (4차)

- 7/4 이화여대 근처 카페: 다다름네트워크 필름파티 기획회의의 계속.

○ 기획회의 (5차)

- 8/8 다양한 몸 다양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 <다다름 필름파티> 텀블벅 오픈
- 8/16 서울시NPO지원센터, 다다름 필름파티 실무점검회의

○ 다다름 필름파티(8/26 토요일 11시~1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 개요

- 드레스코드 :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입고 싶은 대로!
- 관람료 : 무료
- 굿즈 현장판매 및 부스 참여 프로그램

■ 타임테이블

- 11:00-12:00 오프닝 / 부스운영
- 12:00-13:40 <마이 스키니 시스터>영화상영
- 13:40-13:50 중간 휴식 // 자리 배열 정리
- 13:50-14:20 토크 1 '마른 몸에 대한 사회적 강박과 영화와 미디어 속 거식증'
*토크 참여자 - 나는니편, 66100, 세컨드필름매거진
- 14:30-15:10 <육체미소동> <춤춰브라> <못난이> 영화상영
- 15:10-15:20 중간 휴식 // 자리 배열 정리
- 15:20-15:50 토크 2 - 감독과의 대화
*토크 참여자 - 상영 영화 감독(1-2명), 스페셜 모더레이터
- 15:50-16:00 다다름네트워크 소개 + 클로징
- 16:00-17:00 전시 관람 및 부스 참여



- 9/20 홈페이지 <다다름 필름파티> 후기 업로드
- 당일 현장에 100명 안팎으로 참여하였음
- 다다름 네트워크는 연대단위를 더 모집하여 활동을 이어갈 계획

3. 일상적 여성건강 대응 및 기획 활동

1. 소책자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재인쇄

- 목적: 소책자 재발간을 통해 산부인과를 둘러싼 여성들의 질문과 경험, 고민들이 재확산되고 더 많이 담론화될 수 있게 한다.
- 텀블벅 모금함 오픈(6/26)~종료(7/26), 총 930명 후원, 11,173,000원 모금

리워드구성(전체 배송료 포함 금액)

- (1) 5,000원: 스티커 2종 각 3매
- (2) 10,000원: 소책자1권, 스티커 2종 각 2매
- (3) 15,000원: 소책자2권, 스티커 2종 각 3매
- (4) 17,000원: 소책자3권, 스티커 2종 각 3매
- (5) 20,000원: 소책자3권, 스티커 2종 각 3매(얼리버드 5세트 한정)
- (6) 25,000원: 소책자4권, 스티커 2종 각 3매
- (7) 27,000원: 소책자5권, 스티커 2종 각 3매(얼리버드 5세트 한정)
- (8) 30,000원: 소책자5권, 스티커 2종 각 3매
- (9) 55,000원: 소책자10권, 스티커 2종 각 5매

○ 일정

- 재인쇄 원고 교정교열 마감(7/5), 모금마감(7/26), 인쇄(8/9), 배송(8/17)
- 9/6 홈페이지 통해 재고본 판매 시작, 텀블벅과 가격구성 동일하되 최소판매 2권(15,000원) 현장 판매시 1권(5,000원).

2. 생리대 관련 대응활동

- 1/16 코리아타임즈 ‘국내 생리컵 시판 불가’ 관련 전화 인터뷰(홍연지)
- 1/26 코리아타임즈, “Debate heats up over silicon menstrual cups”
- 5/11 중앙대 중대신문사 ‘생리권’ 관련 기획기사 인터뷰(김진선)
- 8/24 <우리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한다 -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참여(이지원, 이운소, 김진선, 최진협, 강혜란 참석)
- 8/29 생리대 관련 여가부 간담회 참석(이운소)
- 9/4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아바즈 청원 홍보
- 9/5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참여
- 9/20 긴급토론회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10:30 국회본관 223호(김진선, 홍연지 참석)

[발제]

-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안전 /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 / 조현희(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 /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

- 위기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 고희미(방송작가,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제작)
- 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 이유림(건강과 대안 연구원)
- 민관협동 역학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주관]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 9/28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및 퍼포먼스(민우회 참석)

일시: 2017년 9월 28일 (목) 오전 10:3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안현진

10:35-10:40 경과 보고 | 40여일간의 생리대이슈 대응

10:40-11:00 자유발언1 |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자유발언2 |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자유발언3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자유발언4 | 이선임 서울아이쿵 이사장

11:00-11:10 공동대응기구 제안 및 성명서 낭독 |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

11:10-11:20 추석맞이 독성생리대 퇴출 한가위질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은 안전한 생리대"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국감을 진행하라.
4.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5. 기업은 조속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라.
6.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위원회, 너머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반성착취 여성행동,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공동행동, 부산페미니스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문화미래 이프, 생태지평, 성남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월경하는여성들, 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Just Feminist,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니스트 플랫폼 페이지터너,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9/28 '생리대행동' 1차 대책회의 진행 (민우회 불참, 회의록 전달받음)

- 참석: 김수남(중랑 아이쿱), 김양희, 송주영, 이안소영, 장이정수, 치자(여성환경연대), 김홍철(환경정의),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차옥경(여성단체연합), 윤정숙(녹색연합), 이미선(민중연합당 엄마당), 이은정(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이해리(여성재단), 정남순(녹색법률센터), 정명희(녹색연합), 정미란(환경운동연합)

- 회의내용

: 식약처의 친기업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비상식적 반응, 문제제기하는 기회 만들어야.

: 식약처 결과발표 중 건강영향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할 전문가 연결 필요(위해성 여부 판단)

: 생리대 행동에서 제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외 다른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허울 뿐인 조사가 되지 않을 방법 필요(공동행동의 의사가 반영된 생리대 조사 범위, 기준 마련되어야 함.)

: 안전기준 마련의 구체적 내용 고민 필요

: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꾸려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밖에 알리는 역할 필요.

: 안전기준 마련의 구체적 내용 고민 필요

: 식약처가 법적 강제력 발휘하기 어려운 것들은 기업에 요구하기

: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 드러낼 수 있는 대중 캠페인 필요

- 10/17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책임 있는 국정감사시행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불참, 기자회견문 업로드)

- 11/7 생리대공동행동 2차 회의 서울시NPO지원센터 '마주보다' (김진선, 홍연지 참석)

■ 향후 활동 논의

· 법적 대응(여성환경연대)

· 생리대 관련 이상 사례 온라인 접수(사례 추적)

· 정부/기업대응: 여성들의 요구사항 명확하게 전달, 전성분표시제 공개 범위에 개입하기, 국무총리 면담 요청

· 내부 스터디 진행(총 2차)

· 이슈 유지/확장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8 상반기)(정책+조직팀)

· 이밖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0대 교육 캠페인, 서명/청원 등 필요

· 네트워크 참여 단체 리스트업

■ 역할분담

- 홍보/시민캠페인/제보창구운영: 민우회, 녹색연합
- 정부/기업대응 및 정책: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연, 환경운동연합
- 조직/연대: 여성환경연대, YWCA, NGA
- 운영위: 여성환경연대, 민우회, 녹색연합, 여연
- 공동운영위원장: 장이정수, 윤정숙, 강혜란

- 11/8 국회-정당 공동포럼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김진선, 홍연지 참석)
- 11/21 내부스터디(1차), 10시, 서울시NPO지원센터(김진선, 홍연지 참석)
: '독성 생리대'에 비춰본 여성위생용품의 안전과 도전, 최경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강의 듣고 질의응답 및 내부 토론
- 11/21 생리대공동행동 운영위 회의, 1시, 서울시NPO지원센터(김진선, 홍연지 참석)
: 내년 국제심포지엄 기획 논의, 홍보/시민캠페인 기획 아이디어 논의
- 12/13 내부스터디(2차) 및 2017 활동평가, 10시, 서울시NPO지원센터(홍연지 참석)

- 발제11 생리대 피해 사례 분석 결과와 제안, 김영민(성균관대학교)
- 발제21 생리대 사태 관련 경과보고와 아이디어 제안,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 토론11박차옥경(한국여성연합)
- 토론21신수연(녹색연합)
- 토론31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 12/13 운영위 회의,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홍연지 참석)
: 활동평가와 함께 2018 활동방향 논의, 차기 회의 1/16(화) 오후3시 NPO센터 예정

3. 기타

- 6/27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광화문 열린포럼>, 여성청소년 건강권 분야 정책제안 발표(김진선)
- 7/12 성형대출 브로커 일단 검거 환영 및 관련법 제정 촉구 성명서(연명)
- 7/26 몸다양성과 여성건강을 위한 "문제는 마네킹이야" 기자회견 참여, 명동역(이운소 홍연지)
- 9/25 이화여대 영자신문사 Ewha Voice, 이대학보 인터뷰, '여성 몸 해방' 주제(홍연지)
- 10/17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4쇄 인쇄
- 11/7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2017 여성해방제 여성건강 강연 <예뻐지느라 아픈시대의 여성 건강권> 고려대학교(홍연지)
- 11/8 한국기독교학생연합(남서울IVF) 세계관학교 선택강좌4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강의, 숭실대학교(홍연지)
- 11/23 성형수술 의료과실 대응 상담.
- 11/28 서울 지하철 역내 성형광고 2022년까지 없앤다는 발표에 따른 환영문(SNS)

회원조직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민우회 30주년을 기념하여 행동하는 페미니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여 1,000명의 회원을 확대시킨다.
- 2) 미납회원, 보류회원들의 회비 납부 독려 및 회원 회비 인상 캠페인을 기획해 회비 유지율과 납부율을 높이고 회비재정의 안정화에 힘쓴다.
- 3) 시의성 있는 이슈 대응 활동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을 기획하여 사회 현안에 목소리 내고 싶은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단기 시즌제 소모임의 개편을 통해 소모임 활동의 활력을 이끌어내고 모임의 밀도를 높여낸다.
- 4) ‘열길’(십대, 여성주의로 길을 열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접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로서 10대 페미니즘 주요 이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한다.

2. 평가 및 과제

- 1) 민우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 성취와 미래 지향을 담은 깡판 3종 배지를 제작하여 캠페인 및 행사 등의 오프라인 행사에서 회원 가입 유도를 할 수 있었다. 올해도 2016년과 유사하게 500여명의 회원가입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회원 확대가 이어졌다.

연도	가입계기					
2016	1위	SNS (229명)	2위	권유 (59명)	3위	교육 (57명)
2017		캠페인/행사 (126명)		SNS (108명)		회원활동관심 (56명)

전년도는 강남역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자생적 회원 가입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30주년과 연계하여 회원기획단 다다다 회원들과 유명인에게 편지 쓰거나 민우회 회원 가입의 의미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사무처와 부설의 모든 사업이 회원가입과 연결된 한 해이기도 했다. 2017년 회원가입 계기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캠페인/행사’와 ‘회원활동관심’ 영역이 월등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가입 계기 중 52명이었던 캠페인/행사가 2017년에는 126명으로 두 배가 넘게 상승하였다. SNS를 통한 가입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특히 올해에는 캠페인/행사에서 회원가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깡판 3종 배지의 영향, 입덕 강의나 낙태죄 폐지 행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의 증가도 영향이 있겠다. 오프라인 회원가입은 온라인 가입보다 회원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대면으로 만난 사람들의 회원 가입 유도는 회원 유지와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용하다. 이후에도 온라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직접 만남에서 회원가입이 이어질 수 있는 기획, 이벤트 등을 통해 안정적인 회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올해는 3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요청 노출이 빈번해 계획했었던 회비 인상 캠페인 횟수를 축소해 연 1회로 진행했다. 올해 진행하지 못한 미납 및 보류 회원에 대한 전화는 안정적인 회비 비율 유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지부 회원 중 정보보호기간이 지난 회원정보 정리 등 회비 안정화와 회원 정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전화 및 SNS에서의 후원요청 독려가 많은 해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총회 당시 회비인상 캠페인 진행 후 별도의 캠페인은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낙태죄 폐지 활동, 여성 유투버 살해협박 사건 대응활동 등 민우회 활동을 보고 지지의 의미로 일시기부를 하거나 회비증액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활동과 연계되어 회비인상 및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별도의 회원확대 캠페인은 연 1회 정도로 축소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년도부터는 기존의 회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올해 1회 진행

했던 지부 MRM 교육은 매년 상반기 1회의 계획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회원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더불어 회비를 기준으로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분류했던 기존의 회원 기준을 정관 개정 및 회원분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정회원으로 통합하였고, 부설 미디어운동본부의 회원 역시 올해 본부 회원으로 통합하였다. 올해 진행하지 못한 본-지부 회원 중 정보보호기간이 지난 회원정보 삭제 및 탈퇴자 정리 등은 내년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 꼭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안정적인 회비 비율 유지를 위해서 3년에 1번씩은 상반기에 미납, 보류회원에 대한 전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3)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소모임의 상황에 맞는 단기 시즌제 개편을 시도하여 짧은 호흡으로 밀도 높은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민우봉고가 간다.’ 회원과 함께하는 ‘장미대선 번개’, ‘1+1 사무실 포틀럭 영화제’, <아이캔 스피크> 영화 시사회, <불온한 당신> 상영회, 커밍아웃 파티 <세바퀴>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민우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작년은 민우회와 소모임의 멤버십을 탄탄히 가져가기 위한 의미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단기 시즌제 개편을 통한 밀도 높은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았다. 활동가들의 팀별 이슈 사업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 자칫 소모임 운영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회원 또한 장기간의 소모임 활동의 부담으로 회원활동에 부담을 느껴 쉽게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각 소모임 상황에 맞는 단기 시즌제 개편으로 회원, 활동가 모두 소모임 활동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고민지점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찾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내년에는 자기방어훈련, 세미나, 글쓰기 모임 등 신설 소모임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모임에도 모임 개편, 재단장 등의 변화를 주는 노력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회원활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모임이 많아지는 한편 소모임의 안정과 도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소모임 담당활동가 및 활동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회원팀의 기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양적으로 많아진 회원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이슈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시도했다. 회원기획단 다다다와 올해 초부터 지역 민우회원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회원이 회원을 만나러 가는 ‘민우봉고가 간다’, 회원과 함께하는

‘장미대선 번개’, 민우회에 관심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1+1 사무실 포틀럭 영화제’, 민우회원과 함께하는 ‘아이캔 스피크’ 영화 시사회, 오픈 소모임 활동을 통한 ‘불온한 당신’ 상영회, 커밍아웃 파티 ‘세바퀴’ 등 민우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작고 크게 기획하였다. 특히 ‘민우봉고가 간다’는 지역의 회원들을 만나러 가는 컨셉으로 다다다 참여 회원들과 함께 대전에서 진행했다. 당일 지역 참여자는 비록 1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대전에 거주하는 회원이 회비인상을 한 점, 40여명의 충남 지역 회원들에게 전화로 인사 나눌 수 있었던 점 등 참여자 수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민우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회원공간이 생기는 만큼 민우회 사무실이 회원들로 북적이며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회원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원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겠다.

올해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꾸준히 25명 이상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민우회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만남의 날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기도 하는 등 회원가입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만남의 날에 참여하는 회원이 양적으로 팽창한 만큼 보다 확장된 장으로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공간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 후기 글 등 일상글 게시를 독려했으나, 최근 SNS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온라인 회원공간 활성화에 대한 수정된 기획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 진다.

4) 10대 대상 페미니즘 입문강좌와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설문조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우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10대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20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사업이었던 ‘물,길’을 10대 네트워크 사업 ‘열,길’로 전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되며, ‘열,길’을 통해 10대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올해는 학교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후에는 학교 이외에도 섹슈얼리티, 가족 내 차별, 미디어 등 10대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서 기반 한 다양한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10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올해는 폭을 좁혀 학교에서 10대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과 혐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1회의 집담회와 4회의 주제별 워크숍, 신촌에서 열린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통해 10대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임파워링을 통해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데 힘을 더하고자 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달라져야 할 것들> 집담회에서는 10대들이 학교에서 현재 겪고 있는 학교의 문제들을 모으고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별에 따라 교복을 분리하고, 교칙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여학생들에게까지 선택권이 없는 문제, 교사에 의한 외모평가 발언을 비롯한 차별과 혐오의 말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성폭력예방교육 등 학교에서 오히려 성차별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의 경험들을 모아낼 수 있었다. 집담회를 통해서 10대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현실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4회의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서 각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들과 함께 페미니즘 액션을 기획해보고 이를 반영한 행사를 진행했다. 워크숍 참여자들이 남겼던 긍정적 평가로 “10대 페미니스트로 공통분모에 대해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많이 만나 좋았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경험담이나 액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등 같은 연령대의 페미니스트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등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촌역에서 진행한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 있다>는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상황적 변수가 많은 행사였다. 당일에는 폭우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15여명의 10대 페미니스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선생님 책상에 페미니즘 책을 보기도 하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비록 여성혐오가 가득한 사회지만 나부터 목소리 내면 분명히 다른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등 10대 페미니스트의 발화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으며 10대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닷페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연애, 가족, 미디어 등 다양한 소재발굴을 통한 이슈화와 10대 페미니스트들이 발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의 기획을 통해 10대 당사자의 임파워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1,000명 회원확대 캠페인-“페미니스트들의 천 가지 연대”

1. 회원 및 회비 현황

1) 2017 본부지부 회원현황

소속	총회원수 (평생회원 포함)	평생회원 (전체평생회원수/ 2017평생회원수)
본부	3446	142(0)
고양파주	535	68(2)
광주	434	13(0)
군포	344	21(1)
남서	163	14(0)
동북	356	61(1)
원주	152	20(1)
인천	184	22(0)
진주	334	0(0)
춘천	407	34(0)
합계	6,355	395(5)

2) 2017년 본부-지부회원가입 목표 및 현황

소속	본부	고양 파주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지부 합계	전체 합계
목표	1,000	80	80	50	25	30	30	50	50	40	435	1,435
현황	434	47	31	40	25	31	15	24	24	28	265	699

3) 2017 본부 월별 신입회원 가입현황 및 동기

구분	권유	교육 강의	캠페인 /행사	SNS	언론 매체	상담 및 인터뷰	기획단 활동	회원활동 관심	기타	합계
1월	9	0	4	15	0	1	0	9	2	40
2월	2	0	1	12	1	0	0	4	5	25
3월	5	0	7	19	0	0	0	12	3	46
4월	4	4	3	13	2	2	0	5	4	37
5월	5	13	22	7	1	1	0	2	0	51
6월	17	8	3	8	0	1	1	4	6	48
7월	3	6	36	9	3	0	0	4	2	63
8월	5	0	24	11	2	3	0	3	5	53
9월	2	0	10	3	4	0	0	4	2	25

10월	0	0	0	4	0	0	0	2	2	8
11월	1	2	14	1	1	2	0	3	0	24
12월	0	0	2	6	2	0	0	4	0	14
합계	53	33	126	108	16	10	1	56	31	434

4) 회원구분별 가입계기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계기	세부 유입 경로		합계	
권유	활동가		21	
	회원		26	
	기타		6	
	합계		53	
교육 강의	민우특강		3	
	다만세		8	
	상담소재판지원동행교육		4	
	미디어 교육		18	
	합계		33	
캠페인/행사	재정사업		6	
	퀴어문화축제		36	
	신입회원 만남의 날		20	
	열길		1	
	30주년 테드강의		9	
	30주년 토론회		1	
	낙태죄 폐지 관련 활동	임신중단 사진프로젝트		6
		인공임신중절 말하기 모임		2
		낙태죄 폐지 관련 부스		1
	소모임 일이삼반 행사		6	
	포에트리 슬램		2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13	
	첫사람 발표회 연관검색어		1	
	사무실 영화제		2	
	기타		20	
합계		126		
상담 및 인터뷰	성폭력상담소 상담		3	
	미디어 인터뷰		1	
	기타		6	

	합계	10
언론매체	팟캐스트 해장상담소	8
	기타	8
	합계	16
회원활동관심	합계	56
SNS	합계	108
기획단 활동	합계	1
직접/기타	합계	31
총합계		434

5) 가입경로

- 온라인 : 233명
- 오프라인 : 186명
- 전화(팩스) : 14명
- 기 타 : 1명

6) 2017 본부지부 회비 현황

■ 본부/지부 CMS 회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본부 CMS	24,022,666	24,030,666	24,568,666	25,034,666	24,744,666	25,766,666
지부	23,500,000	23,002,000	22,642,000	23,312,000	22,982,000	23,149,000
합계	47,522,666	47,032,666	47,210,666	48,346,666	47,726,666	48,915,666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부 CMS	25,790,666	26,329,666	26,189,666	26,478,666	26,833,666	26,117,666
지부	23,252,000	23,102,000	23,797,000	23,360,000	23,568,000	23,029,000
합계	49,042,666	49,431,666	49,986,666	49,838,666	50,401,666	49,146,666

■ 본부/지부 CMS 제외 회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본부	405,000	335,000	275,000	275,000	395,000	765,000
지부	742,000	427,000	427,000	362,000	482,000	405,000
합계	1,147,000	762,000	702,000	637,000	877,000	1,170,0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본부	295,000	305,000	295,000	315,000	190,000	3,025,000
지부	340,000	405,000	380,000	400,000	460,000	75,000
합계	635,000	710,000	675,000	715,000	650,000	3,100,000

■ 본부/지부 전체회비 현황

구분		2016	2017
CMS	본부	248,368,994	305,907,992
	지부	285,272,001	278,695,000
CMS 제외회비	본부	12,105,000	6,875,000
	지부	5,343,000	4,905,000
합계		551,088,995	596,382,992

2. 회원확대 캠페인 : 페미니스트들의 일천가지 연대

○ 배경 : 대중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민우회 30주년을 징검다리하여 여성단체 회원 확대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인 1여성단체 회원 가입 캠페인 진행

1) 성 평등한 세상을 위해 ‘페미니스트인 당신의 힘을 보여 주세요’

- 내용 : 회원가입의 의미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외 유명인들의 페미니스트 선언 및 영향력 있는 발언, 행보들을 카드뉴스 제작 및 배우 권해효 외 23명 유명인에게 손 편지 발송
- 결과 : 배우 권해효 손편지 응답 (반응 / 페이스북 좋아요:1460명, 리트윗 : 10,900여회)

2) 회원확대 CM송 광고 제작

- 팟캐스트 해장상담소 회원확대 CM송 2회기에 걸쳐 광고(광고 cm송 개사 등)

3) 깡판 3종 세트 뱃지 제작

- 기간 : 2017년 6월~8월
- 내용 : 30주년 대놓고 일천명 회원확대 캠페인 (가입 시 뱃지 랜덤 1개 제공)
- 총 제작 600개
- 페이스북 좋아요 89/ 트위터 리트윗 : 247



3-1) 깡판 3종 뱃지 주제별 카드뉴스 제작

- 내용 : 각 뱃지별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3회에 걸쳐 소개
- 제 1탄 호주제페지 (7/25)
- 제 2탄 미스코리아 지상파 방송 페지 (8/4)

- 일정 및 장소 : 2017년 3월 4일(토) 2시~5시 / 서울 보신각
- 사회 : 최진협 (민우회 사무처장)
- 프로그램 : 오프닝 플래시몹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슈별 자유발언 / 축하공연 <우리나라>
3.8 무브먼트 <I will survive>
- ※ 페미니스트 행진 3시~4시30분(보신각, 헌법재판소, 광화문광장)



[기념행사2]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_사전집회 주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일정 및 장소 : 2017년 3월 4일(토) 4시반~5시반 / 광화문광장
- 프로그램 : 성평등 의제 관련 자유발언, 공연, 플래시몹 등

[기념행사3] ‘3.8 여성대회 <기념식>과 대선주자 <성평등정책토크>

- 일정 및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오전11시~오후12:3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사회자 : 권해효
- 내용 : 성평등 걸림돌, 디딤돌,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와 시상, 3.8 여성선언, 대선주자 성평등정책토크

<1차 기획실행위 회의>

- 일시/장소 : 1월 25일(수) 오후3시 /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연합
- 안건 :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일정과 형식 슬로건 논의

<2차 기획실행위>

- 일시/장소 : 2월 14일(화) 오후 3시 /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연합
- 안건 :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세부 일정과 슬로건 확정 논의

<3차 기획실행위>

- 일시/장소 : 2월 27일(월) 오전 10시30분 /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연합
- 안건 :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최종점검 회의

※ 평가 : 담당자의 권한 범위가 명확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목표나 주제에 설정이 되었다면 단계별로 실행 범위가 담당을 정하여 추후 단체에 맞게 총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보기로 함.

② 퀴어문화축제

- 일시 및 장소 : 7월 15일 (토)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
- 온라인 액션 : 퀴어문화축제 기념 #무지갯빛 세상 sns액션 (트위터 RT 393/ 좋아요 343)
- 프로그램 : 각테일 후원 가판대 ‘혈오를 갈아마시자’, 나의 차별 경험쓰기 ‘차별을 기록하면 변화는 시작 된다’, 낙태죄 폐지 도장 찍기, 이니셜 무지개 팔찌 판매(소모임 일이삼반), 미니 바자회 등
- 당일 회원가입 36명 / 회비인상 1명



2. 회원·회비 정보 체계화를 통한 회비납부율 향상

1. MRM 프로그램 활용 지부교육

- 일시 : 4월 28일(금), 오후 2시~4시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3층 회의실 진행
- 참석 : 인천(박혜란), 광주(김의영), 진주(성가연), 동북(문지숙), 본부(서지영) 5개 지부참석.
- 내용 : MRM 프로그램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해야할 점 위주 교육진행.
- 평가 : 매년 초 본부 MRM 담당자가 바뀌면 교육을 받고, 지부별 MRM 담당자 바뀌는 것 확인 하여 교육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휴먼소프트에 요청해서 본부 노트북에 임시로 MRM 프로그램 깔아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자. 시간관계상 CMS 관련 업무는 지부에서 교육을 받고, 회원등록 방법, 잘못된 정보 수정하는 법, 정보 검색 방법 등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이후 MRM 사용법 관련해서는 각 지부에 자료를 보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2. 회비 유지율, 납부율 향상

- 회원확대·회비인상 캠페인 : 총회 당일 회원가입 1명, 총회 회비인상 5명

3. 일상적인 회원정보 관리

1) 회원정보관리

- 새 프로그램에 맞는 회원 기초 정보 업데이트
: MRM등록 회원 중 우편물 수신회원의 경우, 기존의 거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정보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 새로운 회원 DB관리 매뉴얼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보 관리
: 기존의 정회원/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회원을 정회원으로 통합하여 관리함.
: 기존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 미디어운동본부 회원을 본부 회원으로 통합하여 관리함.
-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록 공유 및 관리
: 본부 MRM회원 정보 수정시 관리기록을 남겨서 이후 MRM관리 담당자가 회원변경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첫회비 납부자 관리
: 매달 첫 회비 납부자 확인하여 첫회비 납부 감사문자 보냄.

2) 가입탈퇴관리

- 가입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관
: MRM내 CMS금융결제원 출금 신청시 후원신청서 서면등록
: 후원신청서 가입일자로 파일화하여 별도 문서 보관
- 가입 시 감사전화, 손 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 일상 업무로 후원신청서 등록후 안내 및 감사전화 드림. 통화가 어려운 회원의 경우 메일로 회원가입 감사 및 안내 메일 보냄.
: 매월 초, 첫 후원금 출금 회원에게 감사 우편물 전달했으나, 회원 가입후 한참 후에 우편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전 달 회원 가입한 회원에게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함. (우편물 수신안함 회원은 제외)
- 탈퇴, 보류 시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한 확인 작업
: 탈퇴, 보류시 회원정보 보관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전화가 어려운 회원의 경우 메일로 확인하여 탈퇴·보류 진행.

3) 온라인 후원창 개설

- MRM 온라인 직접 회원가입 창 개설(12월 중)
- 기능 추가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시기부(pc), 서명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회원 가입 가능, 지부 선택하여 지부 직접 회원 가입 가능 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정책 관련 개정(2017. 6. 1) : 기존 내용 축약 정리 등

3. 활동 회원층 탄탄히 다지기

1.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1) 다다다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 11일 (금~토) 서울여성플라자 연수실 (4,6인실) 2개동
- 참석 : 김리나(너머), 황수현(보스톤), 신필규(여백), 이지예(작삼삼일), 전다정(일이삼반), 이재은(본다큐), 이지현(순하리)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일 오후 7:30 ~ 10:30	인사 다다다 역할 활동 아이디어 워크샵	· 다시 소개하는 내 별칭 · 다다다의 역할과 의미 소개 · 각 소모임 소개 및 상반기 계획 · 다다다 (짠)다! (한)다! (했)다 · 아이디어 나누기
10일 저녁 10:30 ~	게임+뒤풀이	몸으로 말해요
11일 오전 10:00~10:30		무작위로 물어요 워크숍 참여소감

- 결과 : 다다다 회원 활동 아이디어 기획 및 회원 공간 및 소모임 활성화

※ 다다다 기획단 아이디어

- 유명인과 함께 손편지와 소책자 제작
- 지부와 본부 회원 만남의 날
- 조기대선 번개
- 한정판 굿즈 증정 : 전도 성공시 증정, 굿즈에 넘버링
- 입이 트이는 회원가입 10문 10답



2) 다다다 회의

○ 1차 기획회의

- 일시 : 4월 26일 (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3층 상담실
- 내용 :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원확대 프로그램 기획
- 참석 : 김리나(너머), 배범호(명치), 황수현(보스톤), 신필규(여백), 이지예(작삼), 전다정(일이삼반), 이재은(본다큐), 김수정(순하리) 김희영, 김진희(회원팀)/ 총 10명 참석.

○ 2차 기획회의

- 일시 : 5월 30일 (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3층 상담실
- 내용 : 회원확대 유명인 회원권유 편지쓰기
- 참석 : 황수현(보스틴), 배범호(명치), 이재은(본다큐), 전승우(남성F), 이지예(작삼), 신필규(여백), 전다정(일이삼반), 김희영, 김진희(회원팀)/ 총 9명 참석.

○ 3차 기획회의

- 일시 : 6월 27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3층 상담실
- 내용 : 하반기 회원활동 논의
- 참석 : 진윤선(보스틴), 배범호(명치), 김수정(순하리), 신필규(여백), 김리나(너머), 이재은(본다큐), 전승우(남성F), 전다정(일이삼반), 이지예(작삼), 김희영, 김진희(회원팀)/ 총 11명

○ 4차 기획회의

- 일시 : 8월 1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3층 상담실
- 내용 : 민우봉고가 간다 일정 재논의
- 참석 : 김주아(보스틴), 배범호(명치), 김수정(순하리), 신필규(여백), , 이지예(작삼), 전승우(남성F) 장윤정(본다큐), 전다정(일이삼반), , 서진하(너머), 김진희(회원팀) 총 10명

○ 5차 기획회의

- 일정 : 9월 25일 (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상담실
- 참석 : 김주아(보스틴), 정하나(순하리), 신필규(여백), 장윤정(본다큐), 전승우(남성F), 서진하(너머), 전다정(일이삼반), 김희영, 김진희(회원팀)/ 총 9명
- 내용 : 민우봉고 세부 역할 분담

○ 회원행사<민우봉고> 최종 점검 회의

- 일정 : 10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상담실
- 참석 : 이지예(작삼), 전승우(남성F), 김진희(회원팀)/ 총 3명
- 내용 : 민우봉고 참여자 최종 점검 회의

○ 6차 기획회의

- 일정 : 11월 15일 (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원경선홀 지하 1층

- 참석 : 김주아(보스톤), 신필규(여백), 이지예(일이삼반), 서진하(너머), 전승우(남성F), 김희영, 김진희(회원팀)/ 총 7명
- 내용 : 민우봉고 평가 및 회원송년회 기획회의

2. 소모임 안정화

1) 소모임 지원

○ 2017년 소모임 현황

소모임	모임 계획	담당활동가
본다큐	· 다큐멘터리 보기	김진선
일이삼반	· 쿼어 영화 상영, 쿼어문화축제 기획 등	김희영
여백	· 여성학 책 세미나	류형림
그림일기	· 엽서 제작, 그림 그리기 등	권박미숙
순하리	· 페미니즘 입문서 위주 세미나	김진희
너머	· 여성주의 관련 SF 책 세미나	문보미
작심삼일	· 지부 탐방, 캠페인 기획 등	최원진
보스톤	· 차 마시고 자수하기	홍연지
명치	· 작곡 및 기타 연습	이가희
남성F	·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 작성	서지영
아침여행	· 나를 찾아 떠나는 책, 영화, 수다 여행	김민문정

○ 1차 활동가 회의

- 일시 : 2월 21일(화) 오전 10~12시
- 장소 : 환경정의 회의실
- 참석 : 권박미숙, 김민문정, 김희영, 김진선, 김진희, 서지영, 최원진, 이가희, 류형림, 홍연지, 홍문보미, 강혜란/ 총 12명
- 내용 : 소모임 현황 공유, 상반기 소모임 계획, 모임지기 및 운영방식 변경, 다다다 참여 모임지기 확정, 소모임 담당활동가로서의 고민지점 나누기
- 결과
 - 새로운 운영 방식 : 밀도 높은 운영을 위해 시즌제 적용
 - 활동가회의 3회 연장 : 소모임의 안정화를 위해 연2회에서 3회로 연장
 - 민우소모임 활동 안정화 : 민우회의 정체성에 맞는 소모임 활동 시도해보기
 - 소모임 지원 : 오픈 소모임 기획 등, 외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시 지원

○ 2차 소모임 활동가 회의

- 일시 : 8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원경선홀 지하 1층

- 참석 : 권박미숙, 서지영, 홍문보미, 이가희, 홍연지, 김진선, 김민문정, 류형림, 최원진, 김희영, 김진희/ 총 11명
- 내용 : 소모임 현황 공유, 하반기 소모임 계획 및 회원공간 후기 업데이트 논의

○ 일부 소모임 신설 및 활동가 재배치 사전 조율 회의

- 일시 : 11월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내용 : 내년도 신규 소모임 개설 전 사전 의향 파악
- 참석 : 이운소, 이지원, 정예원, 회원팀 김진희, 김희영
- 결과 : 신설 모임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일상 나누기-일단 씬, 자기방어훈련, 페미니즘 경제학 읽기 등 아이디어 나눔.

3. 회원 참여행사 기획 및 진행

1) 사무실 포틀럭 파티 : 한여름 밤의 초대

- 일시 : 9월 1일 (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우회 사무실
- 참여 : 21명 참석/ 회원가입 2명
- 영화 : 파도 위의 여성들



2) 30주년 기념 후원 회원감사 영화 시사회

- 명필름과 민우회가 함께하는 '아이캔 스피크'
- 일시 : 9월 20일 (수) 오후 7시 30분 ~ 10시
- 장소 : 롯데시네마 합정점, (4관 123석)
- 참여 : 회원 및 후원자 123명
- 내용 : 영화 '아이캔 스피크' 보고 GV 진행
- GV 사회 :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이야기 손님 : 강지연 (영화사 시선 대표)



3) 소모임 기획 행사

○ 영화 <불온한 당신>상영회_소모임 일이삼반

- 일시 : 4월 14일(금), 저녁 7시 반 ~ 10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 프로그램 : 일이삼반 소개,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 참여 : 70여명



한국여성민우회
퀴어소모임 활동지원, 시진주

세상을 바꾸는 퀴어 COMING OUT PARTY 페미니스트

내가 당당해지는 5분

연애, 나 게이야?
연애, 여성, 덜어코 데스레인?
여자도 남자도 아닌 나는 누구일까요?
남은 매일 커밍아웃 해야 한다
부장님 앞에 바이가 있지롱?
연대의 커밍아웃 나누기
우정남, 제 커밍아웃 결재안을 받아주겠어?

일시 2017.11.10(금) 저녁 7:30
장소 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참가비 5천원 (박한희 54007 01-022885, 한국여성민우회)
문의 02-737-5783 3교실

활동지원: 민우회 후원 소모임으로 퀴어한 이야기, 퀴어한 기억, 퀴어한 활동상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퀴어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에서 후원금으로 후원한 퀴어소모임 시진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며 세, 배, 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퀴어 : 커밍아웃 파티_소모임 일이삼반
 - 일시 : 11월 10일(금) 오후 7시 반 ~ 10시
 - 장소 : 민우회 지하 교육장(원경선홀)
 - 참여 : 56명/ 회원가입 6명
 -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부 사회 : 날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 발표 “부장님, 제 커밍아웃 결재안을 받아주겠어?”_설이 “엄마, 나 게이야”_스머프 “교수님 앞에 바이가 있지롱”_더브르시웃 “여자도, 남자도 아닌 나는 누구일까요?”_눈사람 “나는 매일 커밍아웃 해야한다”_박한희
2부 사회 : 비림	연대의 커밍아웃, 소감 나누기

- ‘위안부’ 생존자를 만나다 : <나눔의 집> 방문_소모임 본다큐
 - 일시 : 11월 5일 (일) 오후 12시~
 - 장소 :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거주/지원 시설 <나눔의 집>
 - 참여 : 김진선, 박정은, 이재은, 이정훈, 장소령, 전길수, 사카모토 치즈코
 - 내용 : ‘위안부’ 관련 영상물, 역사관 관람, ‘위안부’ 생존자 분들과 대화(이옥선, 박옥선 님)

- 4) 찾아가는 지역회원 만남 : ‘민우봉고가 간다’
 - 일정 : 10월 21일 (토) 오후 2시 ~ 6시
 - 장소 : 대전 한밭 수목원 장미원

- 참여 : 김혜연, 이지예, 신필규, 배범호, 김민문정, 정예원, 김진희, 서지영, 최원진/ 총 9명
- 내용 : 민우회 활동 소개, 낙태죄 폐지 액션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오후 2:00~4:00	자기소개	민우 봉고에 신청하게 된 계기 별칭 소개
	민우회소개	민우회 소개, 사업소개
	소모임소개	소모임과 다다다 기획단 소개
	보물찾기	민우굿즈 증정
	손피켓 만들기	낙태죄 폐지 손피켓 만들기
오후 4:30~6:00	낙태죄 폐지 거리 사진 캠페인	

- 5) 회원 송년회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 일시 : 12월 8일 (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민 TV카페
 - 참여 : 40여 명
 - 세부 프로그램 (사회 : 신필규, 김진희)



프로그램	내용
오프닝 공연	소모임 명치 (박아름, 정원경, 진운선, 조운지, 배범호, 이가희) 곡 : 빨간맛(민우맛), 그대로 멈춰라
조별 모임	자기 소개, 질문 뽑기,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작성 소모임 소개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낭독 및 선물 교환	
엔딩 공연	듀엣 '안한다니까' (이지예, 허은애) 곡 : 달리기, 매직카펫라이트

- 6) 기타
- 『거리에 선 페미니즘』 출판기념 토크쇼
 - 일시 : 1월 20일(금), 오후 7시 ~ 9시
 - 장소 : 충정로 병커1 카페
 - 내용 :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강의(강사 : 권김현영) '우리는 더욱 더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 등

4. 회원참여 민우액션

1) 38여성의날 맞이 온라인 해시태그 액션

○ '#왜_때문이죠'

- 일시 : 2월 28일~ 3월 8일
- 내용 : “왜 미용실 여자 커트 비는 남자 커트비보다 비싼가? 왜 때문이죠?”, “은행에서 유니폼은 왜 여자만 입죠?” 등 일상 속에서 겪는 성차별을 드러내고 함께 질문하는 장 만들기
- 참여 : 약 200여명 이상 참여/ 최대 리트윗 : 5천여 건
- 평가 : 단체보다 이슈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고, 더불어 회원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비회원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는 장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액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자율적 참여 방식을 고민하도록 한다. 함께 참여했던 질문들은 이후 새로운 액션으로 가공하여 계속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 여자용 신발은 245mm~250mm까지만 나와요. 간혹 255mm도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너무나 적어요. 여자 발 사이즈, 남자 발 사이즈 누가 정한 거죠?

#38세계여성의날#왜_때문이죠 . @Eli****

- 언제까지 육아가 여성의 몫인것만양 취급되는 상품을 보고 광고를 봐야합니까.남성이 아이를 안아 돌보는 광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왜_때문이죠#38세계여성의날 @Lla****

- 점심 먹다가 이런걸 발견. "여자가 드시면 미인이 되고,남자가 드시면 미인을 얻는다"니요.언제부터 삼계탕에 이런 효능이 있었나요?여성은 보습템이 아닙니다.밥 맛있게 잘 먹고 왜 이런걸 봐야하죠?

#왜_때문이죠#38_세계여성의날 @not_****

- 승진발표가 있었어요.

대리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5:5

과장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6:4

차장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7:3

부장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9:1

저는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_때문이죠 #38세계여성의날 . @agree****

○ #여자의 말 (3/7~3/8)

- 일시 : 3월 7일~ 3월 8일
- 내용 : 여성학자, 여성연예인, 소설가 등 기존 여성들이 했던 말 중 함께 나누기 유의미한 내용

을 트위터를 통해 가시화 함.

- 참여 : 최대 리트윗 8백여 건



2) 자전거 액션

- 일시 : 3월 7일(수), 오전 11시, 망원-홍대-합정 일대
- 내용 : '니가 먹은 건 니가 치워라', '암탉이 울어야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등의 피켓 달고 자전거 라이딩 진행 함.

3) 장미대선 번개

- 일시 : 5월 9일(화), 오후 7시
- 장소 : 민우회 사무실
- 참여 : 장소령, 이지훈, 전길수, 김루리, 최혜영, 신한나, 변지은, 김희영, 최원진, 서지영, 김진희/ 총 11명



5. 신입회원 만남의 날



1) 신입회원만남의날

○ 3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3월 23일(목), 저녁 7시30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 참여 : 총 26명 (김미이, 김예지, 김진근, 김진희, 김희영, 명현우, 박규리, 박선훈, 배민정, 서지영, 오영미, 이미령, 이선영, 이예담, 이하림, 임소이, 임윤수, 정수미, 조진영, 조향희, 조현희,

차재은, 채진, 최원진, 최혜영 한가람)

- 내용 : 회원들과 나누는 자기소개, 민우회 활동 및 조직문화 소개, 회원활동 소개_최혜영 (민우회와 함께한 사진 프로젝트 소개), 함께하는 활동-나의 페미니즘 곡선그리기

○ 5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5월 23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교육장
- 참여 : 총 25명 (강지숙, 구보라, 구찬희, 김서래, 김수연, 김수연, 김지은, 김진희, 김희영, 박정은, 서지영, 신동은, 신한나, 여술, 옥도진, 왕혜지, 유예니, 이은나라, 이지연, 정우경, 조성아, 최원진, 최치원, 한은영, 홍슬기)
- 내용 : 회원들과 나누는 자기소개, 민우회 활동 및 조직문화 소개, 회원활동 소개_장한나 (일이삼반 소모임), 함께하는 활동- 페미니스트인 내가 꿈꾸는 소망나무 만들기

○ 8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8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 참여 : 총 32명 (강지현, 김민채, 김실, 김정란, 김현정, 김혜선, 김희수, 김희영, 박소현, 박재연, 방보경, 서지영, 신윤주, 신지호, 안은석, 윤기성, 윤정아, 이슬, 이승열, 이예진, 이지예, 임지영, 임혜수, 임효경, 장은미, 장은정, 정다정, 정희진, 조하나, 최원진, 한준희, 홍승아)
- 내용 : 회원들과 나누는 자기소개, 민우회 활동 및 조직문화 소개, 회원활동 소개_안은석 (여백, 남성 소모임), 함께하는 활동-페미니스트인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나누기.

○ 11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11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 참여 : 25명 (곽상아, 권효은, 김민혜, 김연수, 김지연, 김진희, 김희영, 남궁우연, 노규미, 박영, 박희원, 백지은, 서지영, 송민호, 어선진, 위주리, 이원영, 이예담, 이채은, 이현빈, 장소령, 정다운, 차소윤, 최정호, 최중은)
- 내용 : 질문 뽑기를 이용한 자기소개 및 민우회 조직문화 소개, 회원활동 소개_장소령 (보스톤 모임), 함께하는 활동-페미니스트가 만드는 적폐청산리스트.

6. 신입회원 세미나 (연2회)

1) 신입회원 상반기 세미나

- 일시 : 4월 27일(목) 5월 10일, 17일, 24일(수), 6월 7일(강남역1주기로 참여대체) 총 4회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원경선홀)

· 도서 : 그림에도 페미니즘 (윤보라의 지음)

· 참여

- 1주차 : 이정현, 임소이, 김현지, 정수미, 유수정, 이선영, 한은경, 이지혜, 박내현, 장세은, 황선정, 이지원, 황소연, 김진희, 서지영/ 총 15명

- 2주차 : 김현지, 정수미, 이선영, 한은경, 황소연, 이지원, 서지영, 김진희/ 총 8명

- 3주차 : 김현지, 한은경, 황선영, 이지원, 서지영, 김진희/ 총 6명

- 4주차 : 이정현, 정수미, 이선영, 한은경, 장세은, 황소연, 이지원, 서지영, 김진희/ 총 9명

2) 신입회원 하반기 세미나

· 일시 : 10월 25일, 11월1일, 11월 8일 매주 수요일 (3주간), 오후 7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도서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혹스 지음)

· 참여

- 1주차 : 고혜신, 박희원, 송민호, 이예담, 이인화, 이정현, 정명희, 홍슬기, 김진희, 서지영/ 총 10명

- 2주차 : 고혜신, 곽서영, 남이혜, 박희원, 송민호, 신동은, 이예담, 이인화, 이정현, 홍슬기, 김진희, 서지영 / 총 12명

- 3주차 : 박희원, 송민호, 신동은, 이인화, 이정현, 홍슬기, 김진희, 서지영/ 총 8명

4. 회원과의 일상적인 소통강화

1. 회원과의 소통 강화

1) 온라인 회원공간 활성화

- 온라인 회원공간에 민우회 전체 회원소모임을 소개하는 게시글 작성, 4/12

○ 일상에서의 여성주의 실천 경험을 나누는 <여성주의 바톤터치>

· 3월 : 이정훈, (호두의 커뮤니티 이동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로 오기까지)

홈페이지 조회수 : 1104회

· 6월 : 박아무, (아무의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이유)

홈페이지 조회수 : 540회

· 10월 : 박규리, (굴나무의 오래전 그날의 술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홈페이지 조회수 : 324회

○ 회원 에세이

- <스머프의 영화관>, 신필규

· 1/6 진실로도 떨칠 수 없는 죄 : <어톤먼트>/ 홈페이지 조회수 : 952회

- 3/7 우리를 두고 세상은 움직일 수 없다 : 〈서프러제트〉/ 홈페이지 조회수 : 608회
- 4/19 영부인도 가질 수 없던 것 : 〈재키〉/ 홈페이지 조회수 : 582회
- 7/28 여성 캐릭터를 존중할때 영화가 얻을 수 있는 것 : 〈미스 슬로운〉/홈페이지 조회수 : 788회
- 11/7 끓는 물 속의 개구리 : 〈위스키 탱고 폭스트롯〉/ 홈페이지 조회수 : 276회

- 〈쿼어인컴퍼니〉, 변지은

- 5/26 쿼어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의 옆에서 일하고 있다/ 홈페이지 조회수 : 892회
- 7/31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신문기자, 알고 보니 주최 측이었네
: 신문사 다니는 쿼어, 아까끼의 이야기/ 홈페이지 조회수 : 643회
- 11/22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지지지 않는 느린 걸음으로
: 젠더쿼어이자 팬섹슈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엔진’/ 홈페이지 조회수 : 223회

- 〈사진으로 일상탐구생활〉, 최혜영

- 6/30 사진으로 일상탐구생활 1.<여자의 짧은 머리〉/ 홈페이지 조회수 : 2145회
- 10/12 사진으로 일상탐구생활 2.<몸의 시간을 나누는 행위〉/ 홈페이지 조회수 : 301회

○ 민우 신입회원인 당신의 이야기 : 신입회원 안녕?!, 4/28

- : 민우신입회원들에게 짧은 질문에 대해 본인을 소개하는 신입회원 안녕 글 작성.
홈페이지 조회수 : 763

2) 신입회원과의 소통

- 첫회비 납부 감사 문자발송

- 1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30명)
- 2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33명)
- 3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37명)
- 4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26명)
- 5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20명)
- 6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22명)
- 7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25명)
- 8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54명)
- 9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44명)
- 10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15명)
- 11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20명)
- 12월 첫회비 납부감사문자 (17명)

- 신입회원 환영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 1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22명)
- 2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26명)
- 3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37명)
- 4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26명)
- 5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12명)
- 6월 손편지 및 뱃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32명)
- 7월 손편지 및 뱃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27명)
- 8월 손편지 및 뱃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44명)
- 9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37명)
- 10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가입자 (5명)
- 11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37명)
- 12월 손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13명)

- 신입회원 만남의 날 안내문자 발송
- 3월 만남의 날 안내 문자 발송 (142명)
- 5월 만남의 날 안내 문자 발송 (55명)
- 8월 만남의 날 안내 문자 발송 (121명)
- 11월 만남의 날 안내 문자 발송 (55명)

2. 전체회원에 대한 접촉면 확대

1) 전체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 : 추석 및 설 명절, 3·8여성의 날, 바자회, 후원의 밤, 선거일, 민우회 현행 이슈 대응 사업 등)
- 2017 설 명절 문자 (1/28, 2400여건)
- 3·8 여성의 날 문자 (3/8, 2408건)
-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행사 참여 문자 (4/13, 2262건)
- 바자회 안내 문자 : 서울경기지역 회원 (4/21, 2451건)
- 나머지 캠페인 2. 온라인 차별사례 적기 참여 독려 문자 (7/10, 2200여건)
- 30주년 후원의 밤 감사문자 (9/13, 308건)
- 2017 추석 명절문자 (10/4, 2384건)

5. 열, 길 1기- “10대, 페미니즘으로 길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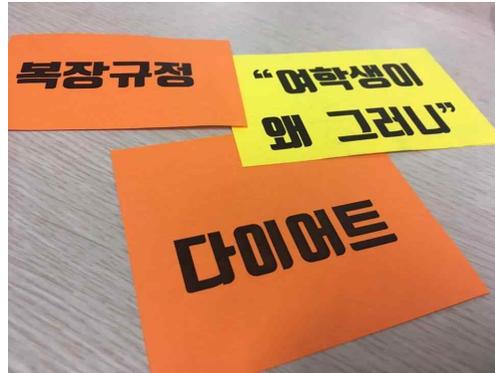
- 1) 열, 길 1기 진행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 개설

- 내용 : 10대 페미니스트 임파워링을 위한 프로젝트 열, 길 1기 집담회 및 워크숍 진행비 모금
- 모금함 진행기간 : 2017.07.19 ~ 2017.09.30.
- 목표금액 : 1,500,000 원
- 최종 모금액 : 309,300원 (기부자 : 76명)

2) 워크숍 및 세미나

○ 학교에 할 말 많은 10대 여성들의 집담회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달라져야 할 것들>

- 일시 : 7월 19일(수), 저녁 6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원경선홀)
- 참여 : 12명 (공채원, 김희영, 박정은, 박채영, 변예진, 서지영, 안수현, 이지수 장민서, 장휘연, 최원진, 홍문보미)



○ [워크숍] 10대, 페미니즘으로 길을 열다 : 열길 1기

- 일시 : 8/22(화), 8/24(목), 8/29(화), 8/31(목) 총 4회, 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원경선홀)
- 참여

- 1강 : 김동은, 김희영, 노이주, 박재이, 박한별, 변예진, 서지영, 아고, 전효리, 최원진, 최윤수/ 총 11명
- 2강 : 김동은, 박재이, 박한별, 변지혜, 서지영, 아고, 전효리, 최원진, 홍용주/ 총 9명
- 3강 : 김동은, 김진희, 박재이, 변지혜, 서지영, 아고, 전효리, 홍용주/ 총 8명
- 4강 : 김동은, 김희영, 노이주, 박재이, 서연, 서지영, 아고, 전효리, 최원진, 최윤수, 홍용주/ 총 11명

· 세부 프로그램

일시	워크숍 내용	워크숍 진행자
8월 22일(화)	- 오리엔테이션 (20분)	이윤소 여성건강팀

저녁 6시 30분~	- 몸다양성 워크숍 '내 몸, 내가 알아서 할게'	
8월 24일(목) 저녁 6시 30분~	- 색다른 성교육: '섹스만큼 중요해!'	정예원 성폭력상담소
8월 29일(화) 저녁 6시 30분~	-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일상적 (성)폭력에 두려움 떨지 않기	문미정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강사
8월 31일(목) 저녁 6시 30분~	-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액션 기획	민우회 회원팀 (김희영, 서지영, 최원진)



○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 있다

-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토), 오후 4~6시, 신촌역 2번 출구 근처 홍익문고 앞
- 참여 : 발언_고민경, 고예빈, 김지현, 김희민, 댄동, 땡강, 박채영, 성지아, 아고, 임태희, 조수연, 파이란 13명/ 그 외 40여 명 참여
- 내용 : 현재 학교 안에서 겪고 있는 여성혐오적 말들과 성차별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말하는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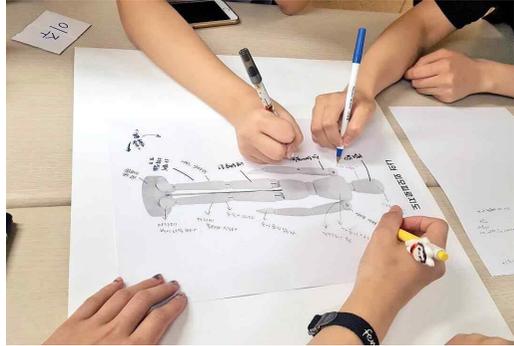
· 언론보도

- 11월 14일, 여성신문, “여자반인데 왜 냄새나?” 10대 페미니스트, 학교 내 여혐 고발 한다 사전보도
- 11월 15일, 연합뉴스, “공부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학교 내 성차별 고발 한다 사전보도
- 11월 16일, 인사이트, “공부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여학생 '얼뽕'하는 '무개념' 선생님들
- 11월 25일, 한국일보, “왜 여학생만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죠?”... 10대들의 교실 내 성차별 고발
- 11월 25일, 한겨레, “아이스계끼를 이해하라고요?”
- 11월 28일 경향신문, 10대 페미니스트들의 외침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 있다”
- 12월 4일, 위키트리, “이런 말 좀 학교에서 그만 듣고 싶습니다” 10대들의 외침 (영상)

○ 10대 페미니스트 필리버스터 :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 있다 진행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 개설

- 모금함 진행기간 : 2017.11.14 ~ 2017.12.31

- 목표금액 : 500,000원
- 최종 모금액 : 500,500원 (기부자 : 140명)



지역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본부-지부 민우회의 일상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강화한다.

2. 평가 및 과제

- 1) 시의성 있고 다양한 의제로 본부-지부 공동액션을 진행하여 여성주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였고, 본부-지부 공동워크숍 개최 및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체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여성운동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민우회는 지부와 본부 간 협력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여성운동이 그 동력을 기반으로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팀별로 본부-지부 공동액션을 기획하고자 노력했고, 대선 전 각 지역 여성주의 의제를 모아냈던 대선주권자행동,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 및 여성폭력 반대 공동행동, 최저임금 1만원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를 위한 거리 액션 등 각 팀별 액션을 9개 지부와 함께 펼쳤다. 그러나 활동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자는 지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본부가 계획한 액션을 지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을 도모하여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나아가 여성주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역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과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의사소통 관련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3월에 열었던 <오늘부터 우리는: 민우 여성주의 조직문화 워크숍>은 사전 설문조사를 포함한 기획과정에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이 들어갔다. 현재 지부 공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이 워크숍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민우회 활동가이자 여성운동가라는 정체성으로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서 이후에는 대표, 사무국장뿐 아니라 부설 활동가를 포괄하는 전체 민우회 활동가 워크숍을 마련하자는 과제를 남겼다.

사무국장네트워크 회의는 주요 이슈에 대한 관점을 가다듬고 확립하기 위한 이슈 토론을 중심으로 했다. 현안을 넘어 생소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고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각 지역 의제보다 수도권 위주의 의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힘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각 지부 사무국장의 연차의 편차가 크고 지부별 상황이 많이 달라 한계가 있었다. 사무국장 역량강화라는 네트워크회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표네트워크는 전반적인 조직 운영 및 리더십 재생산에 대한 고민 나눔, 대표자를 위한 노동법교육, 특정 이슈 및 정부정책 대응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고, 이로써 민우회라는 조직의 원칙과 지향을 재확인하고 각 지부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위와 별도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의 편차로 인해 전반적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의 의의를 실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네트워크에서는 민우회 부설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아동센터의 의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해.보.면> 공동워크숍을 통해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모여서 일상 속 차별을 돌아보고 여성주의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센터 아동들과 어울리거나 활동을 주체적으로 전개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아쉬웠고, 하루 단위의 활동보다는 1박2일 캠프가 더 낫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섹슈얼리티나 아동 대상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지역민우ON>을 통해 지부의 다채로운 사업을 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했고,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공동액션을 독려하는 한편 갈무리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규모가 큰 지부의 활동이 주로 소개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다른 계시물에 비해 대중 호응도가 낮은 것도 고민 지점이다. 지부의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전체 지부의 활동 내용을 골고루 알리고, 더 많은 대중에게 가 닿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본부 지역팀의 역할과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방식으로

그에 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다. 그러한 고민을 팀 안에서 혹은 지역민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본부 활동가들이 서로 공유하고 현 상황과 활동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계획된 사업 집행에 집중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부 상황의 총체적 이해와 본부 지역 사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안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공동액션

1. 10개 민우회 1000명의 공동액션			
일시	제목	내용	참가 지부
4월	대선주권자행동	대선주권자행동의 소속단체로서 각 지역에서 주권자들의 의제를 모아냄	고양파주, 군포, 남서, 진주
4/15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조기 대선을 맞아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대안세상을 제안하고, 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를 도모함	고양파주, (참여) 동북, 인천, 군포
5/17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여성폭력의 상징적 사건이 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반추하고 추모하며 여성폭력철폐의 의미를 다짐	고양파주,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진주, 춘천
7월	최저임금 1만원 페미액션: 여성노동자도 만원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선정 시기를 맞아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냄	고양파주,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9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거리액션을 진행함	고양파주, 진주 (참여) 동북, 군포, 인천
11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거리 사진전	Battleground269 사진전을 각 지역에서 진행함으로써 낙태죄 폐지 의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환기시킴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진주, 인천, 춘천

2. 지역민우네트워크

1. 지역민우네트워크 - 사무국장

○ 구성 : 고양파주(손홍만), 광주(김효경),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원주(심재희), 인천(박혜란), 동북(문지숙-이연아), 진주(성가연-조윤미), 춘천(김교신), 본부(최진협)

1) 1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3/15 (수)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 고양파주(손홍만), 광주(김효경),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원주(심재희), 인천(박혜란), 본부(최진협, 이지원, 김진선) 총 8명

(3) 논의 내용

- 본부 담당역할 소개 및 지부·본부 활동 공유
- 2017 지역민우네트워크-사무국장모임 계획 논의

2) 2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5/24 (수)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 고양파주(손홍만), 광주(김효경),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동북(문지숙), 인천(박혜란), 춘천(김교신), 본부(최진협, 이지원) 총 9명

(3) 논의 내용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주제 토론

3)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6/21 (수)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 광주(김효경),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원주(심재희), 동북(이연아), 진주(이광지), 춘천(김교신), 본부(최진협, 이지원) 총 10명

(3) 논의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관 주도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민우회 입장 및 지향 토론

4) 4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8/22 (화) 오전 11시 어슬렁정거장

(2) 참석 : 고양파주(손홍만), 광주(김효경),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동북(문지숙), 인천(박혜란), 진주(조윤미), 춘천(김교신), 본부(최진협, 이지원) 총 10명

(3) 논의 내용

- 함께 성장하는 민우회를 위한 조직문화 토론

5) 5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12/5 (화)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인원 : 고양파주(손홍만), 군포(이현정), 남서(이주용), 동북(이별남), 원주(심재희), 인천(박혜란), 춘천(김교신), 본부(최진협, 류형림, 이지원) 총 10명

(3) 논의 내용

- 2017 사무국장네트워크 회의 운영 평가
- 2018 사무국장네트워크 회의 계획 논의

2. 지역민우네트워크 - 대표자

○ 구성 : 고양파주(이정아), 광주(나인형), 군포(현미숙, 박미애), 남서(이경란), 원주(지숙현), 인천(문미경, 최리주), 동북(김성희), 진주(이종숙), 춘천(김아영), 본부(강혜란, 김민문정)

1) 1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14 (화) 오전 11시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광주(나인형), 군포(현미숙, 박미애), 남서(이경란), 동북(김성희), 원주(지숙현), 인천(문미경), 진주(이종숙), 본부(김민문정, 강혜란, 김진선, 이지원) 총 13명

(3) 논의 내용

- 2017 지역민우네트워크-대표모임 운영 방향
- 국회 전시회 <더러운 잠> 논란에 대한 토론

2) 2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5/23 (화) 오전 10시 진주여성민우회 교육장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군포(현미숙, 박미애), 남서(이경란), 동북(김성희), 진주(이종숙), 본부(강혜란, 김민문정, 김진선) 총 9명

(3) 논의 내용

- 급여·채용·역할배치 등 운영 관련 논의
- 회원확대 관련 논의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관련 논의

3)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7/26 (수) 남서여성민우회 교육장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광주(나인형), 군포(박미애), 남서(이경란), 동북(김성희), 진주(이종숙), 원주(지숙현), 인천(문미경), 본부(강혜란, 김민문정, 김진선, 최진협) 총 12명

(3) 논의 내용

- 노동법 관련 교육
- 지부 운영상황 안정화 및 리더쉽 재생산에 대한 논의

4) 4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11/20 (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광주(나인형), 군포(현미숙, 박미애), 인천(문미경), 본부(강혜란, 김민문정, 김진선) 총 8명

(3) 논의 내용

- 임시확대중앙위 <리더쉽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논의> 후속 논의
- 2018 지방선거 지역여성민우회 역할 논의

3. 지역민우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

○ 구성 : 고양파주(이정아 대표, 이영남 센터장), 서울남서(이경란 대표, 이우영 센터장), 춘천(정윤경 전대표, 이정미 센터장), 본부(강혜란 대표)

1) 1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6/28 (수)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대표, 이영남 센터장), 서울남서(이경란 대표, 이우영 센터장), 춘천(정윤경 전대표, 이정미 센터장), 본부(강혜란 대표, 김진선, 이지원 활동가) 총 9명

(3) 논의 내용

- 지역아동센터 상황 공유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향, 공동 워크숍 기획
- 아동과 여성의제 논의구조 기획

2) 2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26일 (화) 춘천 달팽이지역아동센터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대표, 이영남 센터장), 서울남서(이경란 대표, 이우영 센터장), 춘천(정윤경 전대표, 이정미 센터장), 본부(강혜란 대표, 이지원 활동가) 총 8명

(3) 논의 내용

- <해보면> 공동 워크숍 평가
- 아동과 여성의제 관련 현황공유 및 토론

3)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 (월) 고양 꿈틀이지역아동센터

(2) 참석 : 고양파주(이정아 대표, 이영남 센터장), 서울남서(이경란 대표, 이우영 센터장), 춘천(정윤경 전대표, 이정미 센터장), 본부(강혜란 대표, 김진선 활동가) 총 8명

(3) 논의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현안 공유
- 네트워크회의 평가 및 2018 계획 논의

3. <오늘부터 우리는: 민우 여성주의 조직문화 워크숍>

1. 지부-본부 공동 워크숍 <오늘부터 우리는 : 민우 여성주의 조직문화 워크숍>

- 1) 일시 : 2017년 3월 27일(월)~28일(화)
- 2) 장소 : 강원 숲 체험장
- 3)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첫날	
오전 11:00~12:00	점심식사
오후 12:00~12:20	오리엔테이션 : 전체 참석자 소개, 프로그램 및 함께지키는 문화 소개
오후 3:00~6:00	LCSI 성격 유형 워크숍
오후 3:30~4:00	쉬는 시간
오후 4:30~5:30	PT쇼 <나의 페미니스트모먼트>
오후 5:30~6:30	저녁식사
오후 6:30~9:30	퀴즈쇼로 보는 설문조사결과 <지금, 여기, 우리> 키워드 조별 워크숍 <함께 만드는 여성주의 조직문화>
오후 9:30~	뒤풀이
둘째날	
오전 9:30~10:30	아침식사
오전 10:30~12:00	마무리 프로그램 <오늘부터 우리는>

4) 참가자 : 34명

지부	참석 인원	대표	사무국장	활동가
고양파주	4	이정아	손홍만	안선희(파주국장) 주정희
광주	3	나인형	김효경	김의영
군포	2	현미숙(상임), 박미애(공동)		
남서	4	이경란, 최양희(부대표), 민경량(부대표)	이주용	
동북	2	김성희		안정희
원주	2	지숙현	심재희	

인천	3	문미경(상임), 최리주(공동)	박혜란(부대표)	
진주	2	이종숙		조윤미
춘천	3	김아영	김교신	김현희
본부	9	김민문정(상임), 강혜란(공동)	최진협, 권박미숙, 김희영, 김진선	홍문보미, 이지원, 이가희

4. 지역민우ON

날짜	제목
2월	9개 지부의 두근두근 2017 총회 소식!
3월	'우리'를 돌아봤던 시간, 민우회 조직문화 워크숍 후기!
4월	페미니즘 정권은 우리 손으로! 대선주권자파티
5월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6월	"이슈를 기억하는 순례_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광주여성민우회)
7월	우리동네 여성영화제(고양파주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8월	지역아동센터 해.보.면 공동워크숍의 그 날!
9월	"할 말이 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시사회 후기(광주여성민우회)
10월	지금 당장, 낙태죄 폐지!

정치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대선 국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페미니스트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 삶의 의제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의제로 확산시킨다.

2. 평가 및 과제

- 1) 대선 시기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의 일상 이슈를 정치 의제로 선언하는 장을 열어 유의미한 유권자 그룹으로서 페미니스트 집단을 가시화했고, 대선 이후 여성주의 관점의 개헌 및 정치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17년은 지난해 촛불광장의 성과인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그에 힘입은 개헌·정치개혁에 대한 욕구 등 정치 이슈가 여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였다. 대선 즈음 각 지부별 <대선주권자파티>를 주최했고, 본부 차원에서는 <#VoteForFeminism: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를 통해 광장에서 페미니즘 정치 의제를 토론하고 요구하는 판을 벌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대해오던 여성단체 뿐 아니라 신생 페미니스트 액션그룹, 학회, 동아리 등 다양한 그룹들과의 넓은 연대를 추진했다. 이로써 당일 모둠토론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각자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제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안에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연대단위 간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추후 연대의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을 가시화한 점, 또한 단순히 ‘페미니즘 정권’을 바란다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별·계층별로 다양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를 통해 페미니즘 정치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선언하는 자리를 열었던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한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광장의 선언을 실질적 변화의 계기로 이어가기 위해

후속 작업으로 <페미니즘은 ___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선언 책자가 제작되었으나, 예산 규모의 한계와 늦어진 제작 시기로 인해 소량 제작·배포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편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인사기준 마련 및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추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정권교체 이후 소위 진보진영 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는 분위기 속에서 현 정부 비판 시 무조건적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겠다.

올해 시민사회에서는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도 활발했다. 민우회는 각 팀별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 여성계의 성평등 개헌안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새 헌법에 성평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차별금지,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사회권의 범위를 넓히고 여성주의 관점을 담아내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내년엔 국회에서의 실질적 개헌 과정에 적극 개입하며 성평등 개헌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올해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 함께하며 정치개혁 전국 워크숍 참석을 시작으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기자회견 참여 및 청원서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내년에는 실질적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며, 2018 지방선거 국면에서 많은 시민들과 일상의 성평등 의제를 나누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대선 대응 및 정치이슈 대응

1. 2017 페미니스트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VoteForFeminism

1) 회의

○ 1차 회의

- 일시: 2017년 3월 30일(목)

- 참석: 고양파주여성민우회(손홍만),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흰'(양나래), 불꽃페미액션(민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장현아), 한국여성단체연합(김영순, 장수진),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김진선, 이지원), 한국여성의전화(유연), 한국외대 여성주의 학회 '주디'(민유라)

- 내용: 전체 프로그램의 틀을 정하고 팀을 나누어 실무를 분담하였음

○ 2차(재정/홍보팀) 회의

- 일시: 2017년 3월 21일(금)
- 참석: 불꽃페미액션(홍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장현아),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홍연지, 김진선), 페미당당(김민아)
- 내용: 텀블벅 모금함 및 홍보 일정과 홍보물 내용에 대해 논의함

○ 3차 회의

-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 참석: 불꽃페미액션(박수영), 여성환경연대(치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장현아), 찍는페미(재승, 도유진), 한국성폭력상담소(오매),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장수진),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김진선, 이지원),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 재재)
- 내용: 행사 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큐시트를 바탕으로 당일 역분에 대해 논의함

○ 4차 회의

- 일시: 2017년 4월 26일(수)
- 참석: 한국성폭력상담소(오매), 불꽃페미액션(수영, 홍학), 한국여성의전화(재재), 한국여성단체연합(장수진), 찍는페미(재승),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김진선, 이지원)
- 내용: 행사 당일 평가 및 회계보고를 진행하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함

2) 행사

- (1) 일시 및 장소: 4/15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 (2) 주관: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기획단, 대선주권자행동
- (3) 주최: 강남역10번출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경희대 여성주의학회 흰,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불꽃페미액션, 서울과기대 여성학회 #Right5, 여성환경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찍는페미,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대여성주의학회 주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진 ©헤영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13:00~ (1시간)	부스 참여	행진피켓 현장제작 부스/기획단 굿즈 부스
14:00~ (10분)	초대공연	여성듀오 <투스토리> 2곡
14:10~ (10분)	행사 소개	사회자: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14:20~ (25분)	페미니스트 마이크	여성청소년, 여성성소수자, 장애여성, 여성폭력고발, 기혼여성노동자, 청년여성노동, 전디협 총 7명 발언 : 삶으로부터 출발한 페미니즘에 대해 발언하고 공감하는 시간
14:45~ (40분)	'나의 페미니즘 정치 선언' 작성 및 모듬 토론	- <페미니즘은 ____ 세상을 만들 것이다> 손피켓 작성한 뒤 모듬별로 '나의 페미니즘 정치' 이야기 공유 : 자기 정체성, 위치성으로부터 촉발된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15:25~ (15분)	'페미니즘은 ____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선언	"페미니즘은 __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100인 선언 후 페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

시간	프로그램	내용
15:40~ (40분)	천하제일 페미피켓 대행진	광화문광장 - 평화의 소녀상 앞 피켓 행진

(5) 전체 참여인원: 약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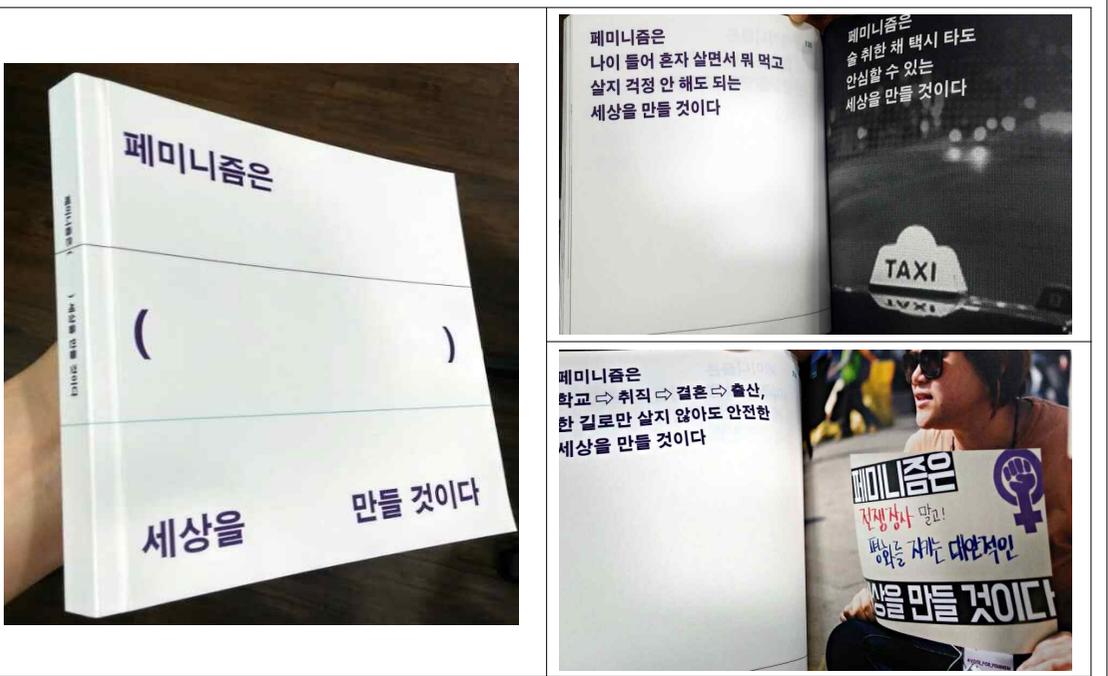
3) 후속사업

(1) 영상 제작 및 배포

날짜	내용	반응(5/10)
5/6(토)	행사 스케치 영상	좋아요 88개, 공유 5회
5/4(목)	#우리는_여성노동_차별없는_세상에_투표한다	좋아요 106개, 공유 10회 / 리트윗 77, 마음 28
5/2(화)	#우리는_낙태죄_폐지에_투표한다	좋아요 252개, 공유 25회 / 리트윗 282, 마음 66
4/28(금)	#나는_혐오와_차별에_투표하지_않습니다	좋아요 45개, 공유 6회 / 리트윗 48, 마음 24

(2) 피켓선언 기록책자

- 제목: <페미니즘은 __세상을 만들 것이다>
- 구성: 앞표지- 여는글- 책자활용법- 본문(선언 230개+백지 1장)- 사진집- 공동주최단위- 뒷표지
- 제작부수: 150부 (공동주최 단위, 페미니즘 도서관 배포 및 온라인 업로드)



2. 대선주권자파티

- 4/10 군포여성민우회 북카페 #vote4for 참여부스 설치
- 4/18 남서여성민우회 양천구 대선주권자파티
- 4/2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화정역 대선주권자파티

3. 성명·논평·기자회견 등

- 1/24 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 2/3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에 부쳐, 성평등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 2/27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 3/22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 4/4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들시다
- 4/25 [성명] 성폭력 범죄 모의에 가담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4/25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4/26 [성명]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5/10 [논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5/31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 6/16 [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권 임명제청 반대한다
- 6/16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 7/7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다양한 주제의 교육사업을 진행해 여성주의 관점을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 2)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가 사회현안과 호흡하고 토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지원한다.

2. 평가 및 과제

1) 전년도에 이어 페미니즘 강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하게 진행된 강의가 교육 참가자들의 성찰과 연대의 힘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십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 강좌와 지역에서 열리는 강좌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십대 페미니스트 임파워링과 페미니즘 확산을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봄에 대중강좌 <민우특강 :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를 열었고 여름과 가을에는 무료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또한 8월에는 30주년 기념 릴레이 강연 <불나방 페미 연대기 : 여성운동의 역사가 된 6개의 순간>을 개최했다.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주간 4회로 진행된 <민우특강>은 탄핵과 조기대선을 맞아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응하여, 현재의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페미니스트의 언어를 갖고 페미니즘 정치 행동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평균 100여명이 참가했던 이 강좌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과거-현재-미래의 연결된 시간을 불러내면서, 참가자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월 15일 페미니즘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참여 독려로까지 연결되었다. 참가자들은 “연대와 열린 비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역사와 현재, 전망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감이 잡혔다”“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실현하고 싶은 정치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강좌”등의 소감을 남겼다. 시의성 있는 기획과 의지와 관심이 높은 참가자들이 만난 뜨거운 자리였다. 다만, 대선 등을 고려하여 기획이 급히 잡히면서 전보다 준비기간이 짧아졌고, 이 과정에서 장소 예약과 시간 배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작년에 이어 무료 강좌의 컨셉을 지속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7월에 전연령 대상 강좌로 진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10대를 위한 강좌를 진행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고양파주, 군포, 인천, 원주, 춘천 5개 지부와 함께 5개 지역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7월의 〈다시 만난 세계〉는 페미니즘과 평등에 대한 오해를 논파하고 페미니즘은 세계를 다르게 보게 하는 새로운 인식론이라는 점을 전하며 페미니스트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강좌였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주변성이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을 알았다”, “우리 여성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함께 연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강의 제목처럼 세계와 나를 다시 만났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간 대중강의나 토론회 등 행사와 온라인 활동에서 십대들의 참여에 주목하게 되면서, 민우회는 10대를 위한 〈다시 만난 세계〉를 신설하였다. 민우회에서 거의 처음 시도하는 10대 대상 입문 강좌이기에,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고 적합한 강좌를 기획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10대들이 강의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강의 이후 참가자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둠토론 시간을 기획하였다. 특히 모둠토론에 대해서 십대 페미니스트들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면서 “같은 뜻을 함께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기뻐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강좌를 꼭 다시 열어달라. 친구와 함께 오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았고 “다음에 캠프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래 페미니스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의에 이은 십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작업을 보다 확장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올해는 여성주의 입문 강의로 주제가 기획되었으나 이후 10대의 섹슈얼리티, 학교에서의 성평등 10대의 관심사와 맞닿은 주제별 강의를 더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년 지역 강좌는 여성주의 관점의 전국적 확산 뿐 아니라 지역 페미니스트 네트워킹과 지부회원 확대의 장으로까지의 연결을 목표로 했다. 〈다시 만난 세계〉 참여자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주의를 접하고 있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로, 기존에 지부 활동에서 중심이 되어온 중장년층 회원들과는 다른 층이다. 지부에서 새로 만난 참여자들을 회원으로 조직하기 위해, 강의에 덧붙여 어떤 기획이 더 필요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이후 비슷한 지부공동 강좌가 기획된다면, 각 지부의 담당활동가들이 사전에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계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활동가들의 토론을 지원하고, 지부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이슈 및 실무 교육을 기획했다. 하지만 사업이 활발한 시기에 한 지역에서 단회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활동가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기획이 향후 필요하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활동가들에게서 나온다. 충분한 질문과 논의가 조직과 개인 내부에서 오갈 때, 이는 활동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여성주의 확산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민우회는 신입활동가를 포함한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3월에 본부 활동가 전원이 하루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는 ‘세미나데이’가 새로이 기획되었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반영한 내규를 개정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도 활동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활동가들 간의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질문과 더 넓은 시야를 만들 수 있었다.

지부 활동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등의 이슈 교육에서 지부 활동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였다. 특히 사진촬영과 PPT 교육 등 실무역량강화교육은 지부활동가를 중심으로 기획했는데,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직접 필요를 느껴 교육 주제를 선정한만큼 유의미한 교육이었다.

활동가 교육은 연초 집중적인 신입활동가 교육 외에는 대부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단회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늘 한계로 꼽히고 있다. 거리가 먼 지부 활동가의 경우 참여가 더 쉽지 않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후 서울 지역에서 강의를 열며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지부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민우특강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

1. 기획 취지

-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맞아 정치와 민주주의, 페미니즘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는 대중

적 욕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의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언어’를 갖고 페미니즘 정치 행동 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2. 각 강좌 별 내용 및 일정

일시	주제	강사
1강 3/31(금)	<p>〈더러운 잠과 섹슈얼리티 : 정권교체부터 한미동맹까지〉</p> <p>한국의 남성 중심 문화가 억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다. 남성은 왜 스스로 싸우지 않고 여성의 몸으로 싸우는가. 그 구조와 결과는 무엇인가. 남성의 자기 인식은 어떻게 자신과 사회, '국가'와 민주주의를 망치는가 분석해보는 시간. 당장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남성들은 꼭 들어야 하는 강좌 !</p>	정희진
2강 4/5(금)	<p>〈혐오의 정치 VS 페미니스트 정치 : 차별금지법과 한국 기독교 정치세력화〉</p> <p>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보수 개신교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거룩한 혐오', 이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모색하는 강좌.</p>	한채운
3강 4/7 (수)	<p>〈페미니스트 정치의 다양한 얼굴들〉</p> <p>페미니즘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가 제도 내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이 공존하고 경합하는 지금, 이 다양한 정치적 장의 가능성과 의미를 살핀다.</p>	김현미
4강 4/12 (수)	<p>〈광장에 선 여성들, 그녀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와 촛불〉</p> <p>세월호와 강남역 이후, 그리고 탄핵정국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나왔다.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 외치면서 정치적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역사적 의미를 짚으며 페미니스트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p>	권김현영

3. 장소 : 중부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 5호선 마포역 도보 5분)

4. 시간 : 저녁 7시반부터 9시 반까지

5. 참가비 : 각 강좌당 1만원, 전체 강좌 3만 6천원

(민우회원 10% 할인, 강좌당 9천원 전체강좌 3만 2천원)

6. 참석자

	신청인원	입금	현장결재	참석자
1강	163명	143명	1명	121명
2강	116명	100명	1명	70명
3강	138명	127명	7명	96명
4강	127명	111명	5명	91명



2017 민우특강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

1강, 3월 31일 (금)
 '더러운 잡'과 섹슈얼리티
 : 정권교체부터 한미동맹까지
 정희진 <왕실시선 - 미타편지로 보 세상> 기자

2강, 4월 5일 (수)
 혐오의 정치 VS 페미니스트 정치
 : 차별금지법과 한국 개인교 정치세력화
 안재훈 <비종교무지개재단 상임이사>

3강, 4월 7일 (금)
 페미니스트 정치의 다양한 얼굴들
 김현미 <민네트 문화인류학과 교수>

4강, 4월 12일 (수)
 광장에 선 여성들,
 그녀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와 촛불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중부여성발전센터 강당에서
 (매포에 드로 5분)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참가비 1만 원 (1만 원
 전체 강좌 9천원
 민우회원 10% 할인)
 수강료 입금 ▶ 신청서 제출
 후회 064-121846-13-403
 예금주 (사) 한국여성민우회
 문의 민우회 교육팀 02-737-5763
 minedu@womenlink.or.kr

2.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

1. 기획취지

- 페미니즘에 관심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문턱 낮은 대중교육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이해 제고, 페미니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관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참가비를 받지 않는 무료강좌로 열어 다양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부담없이 추천하여 같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전연령 대상 <다시 만난 세계>

- 1) 일시 : 7월 21일 (금) 7시
- 2) 장소: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 3) 강사 : 전희경

4) 신청인 : 186명 | 출석 : 71명



3. 십대를 위한 <다시 만난 세계>

- 1) 일시 : 11월 3일(금) 6시 | 장소 : 백주년 기념교회 4층 예배실
- 2) 강사 : 김백애라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전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3) 신청인 : 90명 | 참석자 : 46명
(강의 기획을 위한 사전설문조사 응답자 : 34명)
- 4) 회원가입: 2명 | 10대 필리버스터신청 : 12명



4. 지부와 함께 하는 <다시만난 세계>

1) 진행 일정/ 강사

지부	일시	장소	강사	신청/ 참석
고양	11월 14일(화) 오후 7시	일산 동구청 2층 다목적실	권김현영	128/50여명
군포	11월 21일(화) 오후 7시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김홍미리	92/45명
인천	11월 24일(금)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3층	김홍미리	196/50여명

	오후 7시			
춘천	12월 4일(월) 오후 7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01호	김현미	64/70여명
원주	12월 5일(화) 오후 7시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장	김홍미리	79/50여명

2) 역할분담

- 홍보/조직, 강사와의 소통, 진행비 부담 : 본부
- 당일 진행, 참가자 소통 : 지부

반차별

I. 사업 총평

1. 평가 및 과제

1) 사안들에 대해 시의성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제정 연대 활동을 통해 법제정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지부와 함께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반차별 영역의 활동이 활발했다. ‘촛불 광장’의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내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으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계속되었고, 보수세력은 이러한 혐오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려 했으며, 교체된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퇴행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정세 속에서 관련 현안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민우회는 각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이슈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에 함께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운동 단위들 안에서 제정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흐름을 만들어 왔다. 특히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조직한 점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지부와 함께 하는 반차별 운동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1) 일시 : 2/23 (목) 오전 11시
- 2) 장소 : 광화문 광장

2. 3.4 풍선캠페인

- 1) 일시 : 3/4(토) 오후 2시~4시
- 2) 장소 : 광화문, 보신각, 청계광장
- 3) 내용 : 3월 4일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 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쓰인 풍선을 배포.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퍼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위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1) 일시 : 3/23(목) 11시 30분
- 2)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4. 대선 후보 캠프 앞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1) 일시 : 4/3~4/14 11:30~13:00
 - 2) 장소 :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앞
- * 민우회는 4/13(목) 2인 참여

5.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 발송

- 4/5 발송. 4/10까지 답변 요구

6.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질의 및 기자회견

- 1) 일시: 4월 25일(화) 오후 1시
- 2) 장소: 광화문 광장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번째 '기지가' 워크숍

- 1) 일시 : 5월 25일 (목) 오후 1시~6시
- 2)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3) 프로그램

1부 ·차별금지법운동 10년, 지금 우리가 놓인 지형은? _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 내용과 쟁점 _ 혜인(희망법)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계획 초안 _ 진희(장애여성공감)

2부 전체토론

8. 서명 운동

- 1) 시작시기 : 9. 12 (화) 10:00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2) 종료시기 : 12. 9 (토) 대규모 집회로 마무리

- 3) 상시 거리서명 : 광화문광장 세월호 서명대 맞은편

평일 오전 11시~오후 1시.

*민우회는 9/19(화) 광화문 서명운동, 10/8(일) 보라X뮤직페스티벌 부스에서 서명운동 진행 . 그 외 민우회 행사에서 상시 진행

- 4) 온라인 서명 : bit.ly/차별금지법

9. 10월~11월 지역간담회 및 내부간담회

- 1)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의 현실에 비추어 법안 내용을 점검하며, 쟁점을 토론 하기 위한 연속 집담회

2) 간담회 일정

지역 간담회 : 10/17 전주, 10/20 울산, 10/27 고양, 10/31 광주, 11/1 인천, 11/2 수원, 11/9 안산, 11/17 부산, 11/25 춘천

단체 간담회 : 10/16 전교조, 10/23 공공운수노조, 10/25 홈리스행동, 11/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1/9 인천대, 11/22 고려대, 11/29 이대, 12/6 청년참여연대

*민우회 참가 : 10/31광주와 11/25춘천 간담회

1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10답> 소책자 제작. 배포

- 1) 책자 크기는 A5, 내지 30페이지.

- 2) 20부 1만원(배송비 3,000원) / 40부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 3) 목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함께 해요
- Q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 Q2 여러 개혁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 Q3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 Q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 Q5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 Q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Q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 Q8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 Q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Q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11.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1만명 서명 돌파 기자회견

<1만명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이자, 12월 9일!>

- 1) 일시: 11/16(목) 10:00
- 2) 장소: 광화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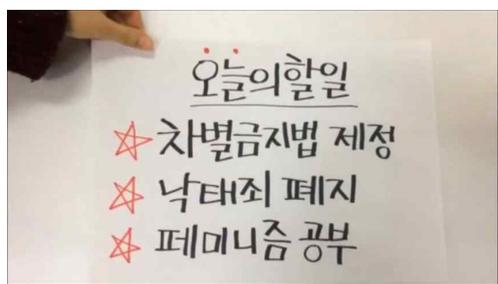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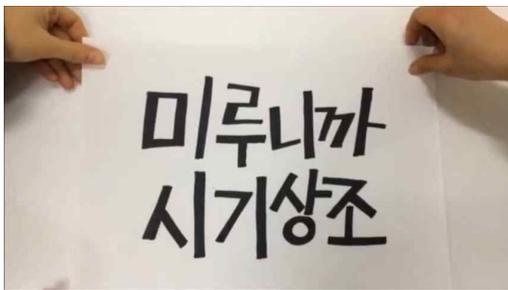
11. 12/9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 1) 일시 : 12/9(토) 14:00
- 2) 장소 : 광화문 광장

2. 사안별 대응 사안

1. '#미루니까_시기상조 #지금당장_페미니즘' 영상 제작 배포

- 1) 배포일: 2/20
- 2) 배경 : 2월 13일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과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시기상조'를 언급.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미루니까 시기상조' 라는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서 배포



2. 균형법 9조의 2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

- 1) 일시 : 5/25 10:30
-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청계 광장, 시청 광장
- 3) 내용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균형법 92조의 6에 따라 육군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

에 반대하여 대형 플래카드들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함.



3. 무지개 현수막 개제

- 7/7(금) 나루 전면에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무지개 현수막 개제

1. 사업 목표

1. 기존 홍보 채널의 강화 및 새로운 방식의 홍보 활성화를 시도하여 민우회 활동에 대한 온라인 접촉면을 확대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민우회 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한다.

1) 새로운 회원층·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홍보방식을 모색하였고, 기존 홍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서 민우회 활동을 널리 알렸다.

올해에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검토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과거 제작했던 동영상을 비롯하여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파일, #VoteForFeminism 기획영상, 성별임금격차 인터뷰, 30주년 기념 테드 강연 등 예년에 비해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했다. 하지만 반응은 저조한 편이었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채널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콘텐츠를 활발히 올리는 것 이상의, 그 목표를 위해 새롭게 기획된 영상 제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영상은 일정 정도 퀄리티를 확보하려면 많은 공이 들어가는 콘텐츠이니만큼, 새로운 홍보 채널 활성화 방식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기획이 새로이 요구된다.

또한 따오기(진보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타임라인 중심의 플랫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의 플랫폼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를 개설했다. 따오기는 타임라인 방식에 맞는 이슈 홍보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경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민우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다. 앞으로 본부와 지부에서 활동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팟캐스트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플랫폼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해 17,600명이던 트위터 팔로워는 5만 5천 여 명으로 약 312% 증가하였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 유저는 지난 해 약 1만 명에서 1만 3천 여 명으로 상승하

였다. 또한 SNS상 반응을 통해 ‘페미 피켓 대행진’,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대응, #몸무게 연대기, 연속특강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될 못해요?>, BJ 살해 협박 사건 대응 등 다양한 이슈가 고르게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5년 이상 플랫폼을 운영해 오며 모든 활동가가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 하도록 체질 개선을 해 온 결과이다.

소식지 <함께 가는 여성>은 연 2회 발행이라는 제한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회원들에게 페미니즘 이슈와 민우회의 활동을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 기획되었다. 이에 기획 쪽지를 전면 배치하고,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가지고 싶은 페미니즘 서적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였다. 개편에 대해서는 “표지가 멋지다” “가독성이 높아졌다” “글마다 다른 편집이 들어가 지루하지 않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발행 시기 변경이나 연간리포트 방식으로의 전면 변경 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의 주기와 구성이 온라인을 통해 활동 소식을 접하지 않는 회원층 및 일반 대중 대상 홍보에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매 발행시기마다 섬세한 기획을 통해 운동의 시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담아내며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우회 제작물의 디자인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스브스 뉴스’와 같이 민우회 카드뉴스의 브랜드화를 기대하며 기획되었으나 초반 계획이 부진하였고, 이미 각 팀에서 이슈에 맞게 자율적으로 카드뉴스가 잘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디자인 통일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다. 민우회의 CI 강화의 초점은 이미지 제고보다는 우리 단체가 제작한 콘텐츠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에 맞춰져야 함에도 적합치 않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추후에는 메시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디자인 TIP, 필수적으로 입력될 정보 등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하여 이를 내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홍보 영역 활동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정기적인 온라인 소식지 발행, 새로운 리플렛과 회원가입서 제작 등을 통해 기존 홍보 영역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금함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 시기가 없도록 시의적절한 기획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것은 모금의 의미를 넘어 민우회의 활동을 알리고 참여를 연다는 의미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제는 플랫폼의 활용 능력이 아닌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단체, 대중조직에게 홍보는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능력에 기대기보다 새로운 대중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지속 하는 가운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한 이슈 회전이 빨리진 시대에 발 빠른 대응에 치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민우회 활동 내용과 입장을 섬세히 정리하고, 단단하

게 담아 알려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팟캐스트는 주 1회 안정적으로 방송되며 구독자를 늘렸고, 사연 참여 독려 및 코너 추가, 다양한 패널 섭외로 콘텐츠의 다채로움과 청취자와의 보다 적극적 소통을 꾀했다. 그러나 다각도의 홍보 활성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빠른 만큼 향후 홍보채널로써 팟캐스트 외 다른 매체 활용에 대한 모색도 요구된다.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는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게스트를 통해 자체 콘텐츠와 민우회 활동의 홍보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회원확대 캠페인 광고, 30주년 광고 삽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이슈관련 행사시기에 맞추어 <여자월급유감> 편, 낙태죄 폐지 이슈와 맞물려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 편을 방송하는 등 민우회 활동 홍보가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정리화 하였던 녹음-방송 주기 및 패널 구성, 주제 선정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였으며, 업로드 시기와 녹음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의 안정화를 꾀하며 고정 청취자 층이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지난 해 방송을 통해 언급되었던 ‘유지장’을 메일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콘텐츠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깊은 인상을 남겨 사연 모집에도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작년 1,219명이던 구독자 수는 올해 1,808명(12/5 기준)으로 약 580여 명 증가했고, 팟빵 재생요청 수는 평균 6,000건 정도로 집계된다. 특히 비교적 최근 방송된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편을 비롯하여 몇몇 에피소드는 누적 재생요청 수가 1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어 트위터 등 후기(“시힘 끝난 동생에게 해장상담소를 추천했다.”, “이번 해장상담소 너무 좋았다. 정말 배울 것 많았고 재밌었다.”)를 통한 청취자 유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장상담소>의 로고를 리뉴얼하였고, 새로운 팟캐스트 플랫폼 <팟티>에도 계정을 개설하였다. 팟티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 아직까지 유의미한 청취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청취자 접촉면을 늘린 점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독 홍보 메일링, 콘텐츠 2차 창작 등 다각도의 홍보를 시도하지는 못했고 <해장상담소> 단독 모금함 마련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 팟캐스트 외에도 민우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및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여, 기존의 팟캐스트 채널을 유지하는 것과 신규 채널에 도전하는 것 사이의 균형 잡힌 역량배분이 필요하겠다.

3) 홈페이지를 하나의 여성운동 아카이브로 만들기 위해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였고, 정보 관리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가 과제로 남았다.

SNS를 통해 민우회 활동이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된다면, 홈페이지는 자료가 꼼꼼하게 축적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캠페인 자료, 과거 발간자료, 소식지 목차 등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수정 작업 및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또한 진행되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각 게시판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SNS에 게시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남기고, 오류가 있는 게시물은 즉각 수정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의 원칙을 정리하고, 활동가들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외장하드 관리 부실로 데이터 유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네트워크형 데이터 저장장치(NAS)를 설치하였다. 모든 활동가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안정적인 관리와 손쉬운 자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 가이드라인, 자료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과 함께 온라인 매체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보강되면 좋겠다. 현재 기초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본부, 지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파악하여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과제이다.

II. 사업 계획

1. 팟캐스트 확대 개편

1.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확대 개편

: 신규 유입층 확대 및 더 적극적인 페미니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기획을 도입한다.

1) 방송 기획 및 제작

- 김진선(제이/갓김치)이 진행 담당, 김희영(꼬감/장미꽃뱀), 이선미(썸/무명)이 고정 패널로 2회차씩

출연하는 것을 기본 세팅으로 함

- 2주 1회 녹음, 총 33회, 주 1회 금요일 고정적으로 업로드
- 새로운 로고 도입
- 해장상담소 사연 받는 이메일 주소를 홍보하여 청취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
- 이슈에 따라 민우회 활동기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패널을 섭외하여 전반적으로 풍성한 주제들을 담아낼 수 있었음
- 다양한 민우회 활동 내용 역시 적재적소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획 구성
- 세부 코너 기획 - 청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골라 추천하는 '해장 픽'

2) 홍보 방식 다각화

- 새로운 로고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로고 확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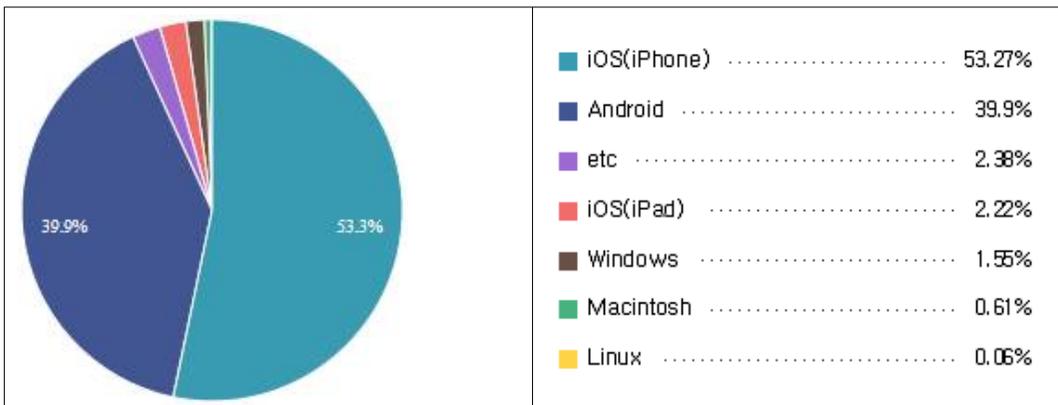
[로고]



- 해장상담소 기존 녹음분의 유튜브 업로드를 추진하였으나 기존 팟캐스트 플랫폼의 구독을 하락을 우려하여 중단하였음

[참고통계: 스트리밍 운영체제]

- 2015년에 비하여 Window 이용자들이 대폭 줄고 IOS(iPhone) 이용 스트리밍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맞춘 홍보 방식이 요구됨.



3) 업로드

날짜	회차	제목	패널	재생요청수 (12/19)	
				팟빵	팟티
3/3	시즌2 예고	안녕, 2017 / 시즌2 예고	갓김치, 장미꽃뱀	2,562	5
3/13	44	재판부의 가해자 ‘과몰입’,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갓김치, 장미꽃뱀, 조개껍데기	15,587	15
3/17	45	내 친구의 여성혐오 / 여자가 돈 쓰는 게 신기합니까?	갓김치, 장미꽃뱀, 조개껍데기	9,835	8
3/24	46	똥똥한 여자로 산다는 것	갓김치, 무명, 큐티보이	10,024	14
3/31	47	엄마와 딸	갓김치, 무명, 큐티보이	7,787	11
4/10	48	한남특집 01	갓김치, 장미꽃뱀, 조빠미	9,084	22
4/14	49	한남특집 02	갓김치, 장미꽃뱀, 조빠미	9,258	14
4/21	50	봄날의 여행을 좋아하세요?	갓김치, 무명, 근돼	7,539	9
4/28	51	혼자서도 잘해요 feat. 자위	갓김치, 무명, 근돼	8,679	52
5/12	52	2017 대선, 귀어하게 - 보자	갓김치, 장미꽃뱀, 큐티보이	8,002	12
5/19	53	페미니스트, 결혼을 만나다	갓김치, 장미꽃뱀, 큐티보이	11,023	35
5/26	54	#변한것과_변하지않은것	갓김치, 무명, 미정	6,852	8
6/2	55	내 나이 묻지 말아요	갓김치, 무명, 미정	5,706	14
6/9	56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ver. 2017	갓김치, 장미꽃뱀, 천상여자	7,974	17
6/16	57	요리의 기쁨과 괴로움	갓김치, 장미꽃뱀, 천상여자	6,369	16
6/22	58	그거 봤어요? 영화 <악녀>	갓김치, 무명, 큐티보이	5,405	13
7/3	59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갓김치, 무명, 큐티보이	6,422	19
7/7	60	내 인생의 여자들	갓김치, 장미꽃뱀, 맘충충	5,482	23
7/14	61	당신이 생각하는 맘충은 없다	갓김치, 장미꽃뱀, 맘충충	7,289	27
7/21	62	그 바닥은 진짜 그럴까?	갓김치, 무명, 찢망	6,949	35

		feat. 연예계			
7/28	63	타인의 범죄를 공유하지 마세요 feat. 몰래카메라	갓김치, 무명, 찢망	4,343	38
8/4	64	다문화라는 라벨링	갓김치, 장미꽃뱀, 가을	4,306	28
8/11	65	편견 너머의 결혼이주여성	갓김치, 장미꽃뱀, 가을	3,716	27
8/18	66	여자월급유감	갓김치, 무명, 오리	4,218	31
8/25	67	이렇게까지 불편할 일인가? feat. 브라펜티	갓김치, 무명, 오리	4,592	38
9/4	68	네 물은 내가 떠 먹어	갓김치, 장미꽃뱀, 미정	8,226	56
9/8	69	꼭 서울에서 만나야 해?	갓김치, 장미꽃뱀, 미정	4,962	84
9/22	70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	갓김치, 무명, 개복치	9,694	74
9/29	71	짧은 머리 여자	갓김치, 무명, 개복치	5,864	82
10/13	72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	갓김치, 무명, 마라탕	5,232	88
10/20	73	기사님, 반말 없는 곳으로 가주세요	갓김치, 무명, 마라탕	9,047	59
11/3	74	#우리예겐 페미니스트_선생 님이_필요합니다	갓김치, 장미꽃뱀, 마중물쌈	13,993	106
11/10	75	이혼이라는 가능성	갓김치, 장미꽃뱀, 마중물쌈	11,236	89
11/17	76	어느 날 엄마가 쓰러졌다	갓김치, 무명, 나랑	7,988	45
11/24	77	동거의 조건	갓김치, 무명, 나랑	10,112	64
11/30	78	수고했어 올해도 / 안녕, 2017	갓김치, 장미꽃뱀, 무명	9,690	39

* 활동가 출연: 김진선, 김희영, 홍연지, 이운소, 김현지, 이가희, 정하경주, 정슬아, 최원진

4) 청취자 반응

① 트위터

: 업로드 이후 8~9개의 트윗 후기가 올라옴



종강만 바라보는 버넥 @beonyeokJ · 8월 18일

해장상담소 밀린거 몰아듣기 했는데 최근에 이주여성 관련된 에피 정말 인상 깊었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뻘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낌 누구 입장에서 다문화인지요 그럼 '한민족'은 단문화인가.....



53

18





Shanti @guereocho · 11월 5일

해장상담소에서 사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발언에 분위기 망치지 않고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넘어가는 팁 알려달라고 한 사연자분에게 장미꽃쌤님은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셨다. 분위기는 망쳐지고 상대는 기분이 상하게 되어있다고 그걸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자고.

2 2,203 459



미식하고독가 @sickaloner · 11월 3일

마중물쌤 나온 해장상담소 듣는데 증말 열받는다ㅠㅜ 인권교육은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를 쌓고 좋은 어른이 되어 준 뒤에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수업 전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한국현실은 이런 좋은 선생님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것 😡

1 155 66

② 팟빵 댓글

: 방송 내용이나 기능적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bluberry

공감의 표시도 좋지만 너무 응응 하는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ㅠ

2017-11-11 02:40 | 신고 | 차단

답글

- ‘페미니스트, 결혼을 만나다’ 편 이후 기혼여성에 대한 일부 발언이 불편했다는 후기가 올라와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③ 이메일 uchijang.today@gmail.com

: 해장상담소의 유의미한 소통창구로 약 35개의 사연이 들어왔고 대부분 방송되었다. 사연코너가 자리잡을수록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2. 새로운 온라인 채널 활성화 시도

1. 새로운 온라인 홍보 채널 모색

1) 민우회 유튜브 계정 활성화 시도

-2017 유튜브 영상목록

업로드날짜	제목	재생수
1월 24일	[한국여성민우회] 2016 활동영상	149회
1월 2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명절, 시대, 며느리의 위치(feat.시대에 둔 며느리 칫솔 실종사건)	131회
1월 2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명절밥상의 정치학, 어른밥상 vs 애들밥상 어느 밥상에 앉고 싶으세요?(feat.천장선평기님의 사연)	68회
1월 2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페미니스트로서 명절을 대할 때(feat.자기분열의 고통)	148회
2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지금당장' 페미니즘	150회
3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 박근혜 만.장.일.치 탄핵 순간	47,253회
3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세계여성의날 기념 자전거액션!	9회
3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3시부터든 무임금이다 그대로 멈춰라! #3시STOP	18회
3월 31일	[민우회] 월간머리어깨무릎발 - 주름편	5회
4월 3일	#VoteForFeminism 티저영상 -1-	290회
4월 5일	#VoteForFeminism 티저영상 -2-	71회
4월 10일	[#VoteforFeminism] 이것은, 유혹, 페미니스트를 위한,입니다.	354회
4월 28일	#VoteForFeminism #나는 혐오와 차별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28회
5월 2일	#우리는 낙태죄 폐지에 투표한다 #VoteForFeminism	73회
5월 4일	#우리는 여성노동 차별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VoteForFeminism	41회
5월 6일	170415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VoteforFeminism	290회
6월 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1화. 스킨십, 다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Full버전)	29회
6월 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2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혼나는 사람vs혼내는 사람 (Full버전)	19회
6월 5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3화. 된장녀와 꽃뱀의 기원을 찾아서(Full버전)	25회
6월 8일	[춘천여성민우회]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16회
6월 12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4화. 풍신 그리고 결혼 이야기(Full버전)	15회
6월 12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5화. 즉문즉답(Full버전)	9회
6월 16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6화. 당신의 월요병은 안녕하십니까?(1) (Full버전)	7회
6월 16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7화. 당신의 월요병은 안녕하십니까?(2) (Full버전)	8회
6월 20일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8화. 가슴이 작아서 미안해요(1)(Full버전)	25회
7월 26일	[슬램36.7%] 성별임금격차 포에트리슬램 홍보 영상	91회
9월 15일	민우회30주년 '앞으로도 용감하게' 기념영상	98회
10월 11일	여직원 구함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 안경착용불가" - 모집채용 성차별로 44개 대기업을 고발하다 (정강자,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68회
10월 11일	시청률 54%의 외모품평쇼, 미스코리아 대회를 지상파에서 퇴출시키다 (조정하, 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31회

10월 11일	제대로 바꾸려면 동네에서부터 - 여성들, 지방의회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다 (용정숙, 전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25회
10월 11일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 - 성인지 예산 분석이 지하철 손잡이 높이 바꾸다 (윤정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31회
10월 11일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 '낙태죄'의 '죄'를 묻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90회
10월 12일	다운로드! 당신도 공범일 수 있다 - '몰카와의 싸움을 시작하다 (이선미, 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42회
10월 31일	[인터뷰영상] 배우 이영진에게 성별임금격차를 물었다!	337회

-#VoteForFeminism, 성별임금격차, 30주년 기념테드 등의 활동 동영상이 제작되었음.

-평가: 활동 전반에 걸쳐 동영상이 활발하게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계정의 활성화가 어려웠음.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 유튜브 자체에서 재생되지 않고 있음.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한다면 이에 맞는 영상이 별도로 기획되어야 할 것임.

2)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채널 상시적 주시 및 활용 검토

-따오기(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 <http://taogi.ne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의 새로운 플랫폼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생성 (친구 258명)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한국여성민우회'로 검색하면 친구추가할 수 있음.
- 정기후원, 일시후원, 상담, 인터뷰, 찾아오는길 등의 기본정보 안내 고정.
- 강좌 신청 안내, 회원모임 공지, 비정기적 액션/행사 정보 등 공지에 사용.

8월 31일 '민우회 30주년 후원에 함께 해주세요!' 메시지 발송
10월 20일 '민우봉고가 대전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 메시지 발송

·추후 명함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추가 예정.

3. 회원소식지 개편 및 CI 강화

<p>1. 회원 소식지 기획 및 제작</p> <p>1) 회원 소식지 <함께 가는 여성> 관련 설문 실시</p> <p>-2월 <함께 가는 여성> 전 담당자 및 일부 소모임을 통해 소식지 개편 의견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은 유지하되 디자인의 전면적인 개편(사이즈 조정)이 있었으면 한다. ·여는글, 사진페이지, 인터뷰 등의 꼭지를 신설 했으면 한다. ·연 2회 발간되는 것을 고려하여 '민우ing' 보다는 '기획'을 강화했으면 한다.

2) 구성 및 기획회의

- 소식지의 제목은 민우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판형을 B5(주간지 크기)로 조정하고, 표지에 사진을 넣어 세련된 이미지를 강화하였음.
- ‘기획’ 쪽지를 앞부분으로 배치하고, 사진으로만 구성되는 ‘함께 하는 순간의 힘’ 쪽지 신설, 기존에 있던 ‘노동이야기’ 쪽지를 폐지하였음.

-2017년 상반기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

·제작부수: 4,800부 (발송부수: 4,189부)

·판형 및 매수: B5, 내지 52P

·일정

5/15 1차 마감, 5/26 최종 마감, 5/29 1차 교정, 6/2 2차 교정, 6/12 발송 완료

·내용

쪽지명	쪽지 내용	필자	
앞표지	사진 / 제목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		
표지 안	4/15 피켓사진 + 피켓문구	편집팀	
목차	목차	편집팀	1
기획	정치,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	편집팀	1
	광장에 선 여성들, 그녀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와 촛불	권김현영	6
	페미니스트 정치의 다양한 얼굴들	김현미	4
	‘여성대표성’ 업데이트 : 불화하며 시끄럽게, 다양한 여성대표성을 떠들 때	김은희	3
	여성가족부의 역사와 나아갈 길(가제)	강혜란	4
민우ing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까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소희	3
	#STOP 연예계 내 성폭력, ‘관행’을 깨자	윤정주	2
	당신의 월급이 낮은 이유는?	이가희	4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홍연지	3
	바로 지금의 기록이 변화의 시작	최원진	2
민우 스케치	함께 하는 순간의 힘	편집팀	2
	월별 민우회 활동 보고	편집팀	2
	#왜 때문이죠(+포스트잇액션 사진)	편집팀	2
모람활짝	민우회 소모임 활동 어렵지 않아요	회원팀	2

회원 이야기	마이 리틀 싸움 다이어리 -일단 모여서 그 때 그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모임-	김리나	2
문화산책	똑똑한 여자를 ‘편집’하는 창작자에게 -영화 <히든 피겨스>, <미스 슬로우>, 드라마 <스콜피온>	권지혜	2
활동가다이 어리	아파서 배우는 것들	정경주	2
아홉개의 시선	‘나중에’가 아닌 ‘오늘부터 우리는’	최양희(남서)	2
지부소식	지부소식	편집팀	2
민우알림	분기별 결산보고서, 신입회원, (후원)감사 명단, 회비인상	편집팀	1
뒷표지 안	회원확대 캠페인	편집팀	
뒷표지	강남역 액션 사진	편집팀	
			52

-2017 하반기 <앞으로도 용감하게>

·제작부수: 4,800부 (발송부수: 4,189부)

·판형 및 매수: B5, 내지 52P

·일정

11/7 최종 원고 마감, 11/14 1차 시안, 11/27 인쇄, 12/5 우편발송

·내용

꼭지명	꼭지 내용	필자	배열
앞표지	사진 / 제목 <앞으로도 용감하게>		
표지 안	30주년 사진+짧은 글	편집팀	
목차	목차	편집팀	1
기획	기획소개	편집팀	1
	Since 1987 한국여성민우회는	편집팀	8
	활동가가 말한다, 민우회의 과거-현재-미래	편집팀	8
	“함께 가요, 내가 있을게요” 회원 합창단으로 참가한 로리가 느낀 민우회의 힘	허은애	2
민우ing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랑색’도 성차별이다.	최원진	4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 성폭력에 관한 아무말, 이제는 바꾸고 싶다!	김현지	2
	‘예쁜 20대’ 아니면 ‘엄마’... 이것이 광고인의 상상력인가요?	황소연	3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홍문보미	2
	우리는 반드시 임신중단권을 쟁취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홍연지	2
민우 스케치	함께 하는 순간의 힘	편집팀	2
	월별 민우회 활동보고	편집팀	2
모람활짝	회원이 회원을 만나러 민우봉고가 간다!	회원팀	2
문화산책	혐오에 맞서는 아름다움, 드랙	진은선	2
활동가다이어리	빙글 빙글 빙글	신혜정	2
아홉개의 시선	우리들의 안전 지대, Untitle	성가연	2
지부소식	지부소식	편집팀	2
민우알림	분기별 결산보고서, 신입회원, 회비인상	편집팀	1
뒷표지 안	책광고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 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편집팀	
뒷표지	1순위 광고 선택 (사이즈)	편집팀	
			48



3) 디자인 업체 변경

- 4/11 '일상의실천'과 미팅진행
- 4/26 디자인 컨셉 선정완료

4) 원고 온라인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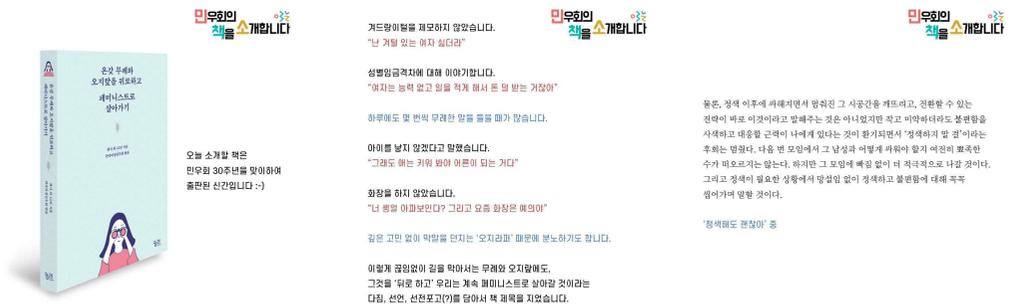
- 홈페이지 소식>소식지에 미리보기, 목차 업로드, 목차에 개별 글 링크되어 바로보기 가능.
- 홈페이지 소식>자료실에 개별 글 업로드

2. CI 강화

1) 민우회의 산출물의 디자인인 통일성을 강화

-카드뉴스 <민우회의 책을 소개합니다> 제작

- 2/14 민책소(민우회의 책을 소개합니다) 기본틀 제작: 민우회 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 5/11 <거리에 선 페미니즘> 소개
- 9/19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 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소개



-온라인소식지 디자인 변경

- CI 색상을 활용하여 디자인 변경

-트위터-페이스북-홈페이지 디자인 연동

- 1/17 30차 정기총회 이미지를 활용한 헤더제작
- 1/20 세계여성 공동행진 이미지를 활용한 헤더제작
- 1/25 <페미니스트들의 일만가지 연대> 헤더제작 → 2017년 각 플랫폼의 기본 이미지로 활용중
- 4/28 <#VoteForFeminism> 헤더제작

- 5/16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다시 포스트잇을 듣다> 헤더제작
- 5/18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다시 포스트잇을 듣다> 두 번째 헤더제작
- 6/2 <대놓고 일천명 회원확대 캠페인> 헤더제작
- 7/5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 헤더제작 → 홈페이지 상단이미지에도 적용



2) CI 통일을 기반으로 한 굿즈 제작

- 3/13 #FEMINIST 담배케이스 200개 제작, 5/10 추가 100개 제작
- 1차로 회원팀 액션포스트잇과 연동하여 텀블벅에서 판매하였고, 2차로 퀴어페스티벌에서 판매, 오프라인 판매 등을 통해 300개 모두 판매 (1개-10,000원)

4. 일상적 정보·홍보 업무

1. 홈페이지 내실화

: 2015, 2016 홈페이지 관리계획 점검 및 완료

1) 캠페인 자료 업로드

- 1998년~ 〈내몸의 주인은 나〉 거리캠페인
- 2002년~ 회식문화 바꾸기 캠페인
- 2008년~ ‘뻘~한 주례를 편(fun)하게’ 캠페인
- 2008년~ ‘네 나이를 묻지 마세요’ 캠페인
- 2010년~ 온라인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
- 2010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캠페인
- 2013년~ 점심시간 유급화 캠페인
- 2013년~ 2013 다르니까 아름답다 : Diversity, now!
- 2013년~ ‘존중’이 오가는 백화점 만들기 시민실천 캠페인
- 2015년~ 해보면 캠페인
- 캠페인 사업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소식-캠페인 게시판에 업로드

2) PDF로 만든 이전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홈페이지 소식-자료실에 ‘한국여성민우회 1987-2016 자료 LIST’라는 게시물 작성.
- 게시물 리스트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 정보홍보 팀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였음.
- 자료 중 일부를 선정해 발간자료실에 업로드할 계획임.

3) 발행된 〈함께 가는 여성〉의 목차 업로드

- 소식>소식지에 각 소식지별 목차를 추가, 목차를 누르면 해당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 추가.

4) 이전 홈페이지, 블로그 점검 및 폐쇄

- 이전 홈페이지→ 백업 가능한지 문의
- 티스토리
 - PDF로 변환저장 완료하였고, NAS에 자료백업.
 - 티스토리 페이지에 더 이상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공지올림.

5) 일상적 홈페이지 관리

- 3/23 슬로워크에 수정내용전달, 견적 문의 (총 37개의 수정사항 있음)

- 홈페이지 수정 견적: 198만원
- 모바일 PC보기 개발 포함 견적: 352만원
- 예상보다 높은 견적으로 인해 슬로워크를 통한 홈페이지 수정을 보류하고, 비영리IT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받아 홈페이지 수정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 6/9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미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개발자와 연결됨.
- 9/20 개발자에게 홈페이지 수정사항과 온라인 회원가입 임시페이지 제작 요청
- 10/16 1차 수정안 전달, 10/19 2차 수정의견 전달, 11/6 최종수정 완료
- 추후 홈페이지 수정을 위한 교육을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에 의뢰

2. 온라인 매체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 1)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 5/24 구글문서에 실무왕백서_디지털미디어 제작함. 앞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계획임.
 - 6/27 폰트저작권 문제가 종종 발생. 실무왕백서에 사용 가능한 폰트 목록 정리.
 - 지부의 온라인 매체 현황 파악 후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11월 중

2) 홈페이지 외의 플랫폼 활용

-오마이뉴스

날짜	제목	조회수
1월 20일	부장님의 집적거림, 거절했더니 보복이 시작됐다	35,179
2월 17일	면접관이 물었다, "차녀인데 책임감이 있나?"	8,890
3월 15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모임이 달마다 열립니다.	348
4월 13일	"안경·볼펜 몰카... 정말 가지가지" 분노한 여성들 모여라	2,538
6월 12일	[카드뉴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4,943
7월 3일	결혼하고 든 생각 "난 이등시민이구나"	9,656
7월 10일	[카드뉴스] '낙태죄' 협박사레들, 이걸 생명존중이 아니다	8,126
7월 31일	[카드뉴스] 판례로 살펴보는 낙태죄, '변화가 보인다'	5,609
9월 1일	아랫배에 새긴 형법 269조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6,580
9월 5일	"우리는 반드시 임신중단권을 쟁취할 것이다"	4,867
9월 8일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1,865
10월 17일	'혁' 소리 나온 성폭력전담판사의 발언, 이유가 있었다	15,587
11월 9일	검색창에 '억울하다' 쳤더니,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광고가?	6,811
11월 28일	"하느님, 저는 낙태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23,211
12월 1일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딸, 마음이 덜컥해요"	3,193
12월 14일	"페미니스트가 아닌 착한 남편은 불가능해요"	10,792

-히핑턴포스트 블로그

·오마이뉴스와 같이 허핑턴포스트에도 글을 실을 수 있음. 편집부에서 검토 후 게재됨.

9월 1일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①
9월 6일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②
9월 13일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③

3. 온라인 모금함 관리

1) 해피빈, 같이가치 with 카카오톡, 텀블벅 등 온라인 모금함 개설 독려 및 관리

-다음 같이가치 '기념일모금함' 중 '인권평화역사' 카테고리 지정단체로 선정됨(~2018년 8월)

-네이버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검색하면 모금중인 모금함 함께 노출되는 서비스 시작(9월)

-2017년 모금함 현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피빈	기본모금함										
	성평등 미디어 교육										
	[미디어]여성연예인인권브로셔										
						[회원]열.길 [교육]입문강좌					[회원]열.길
					[회원]나.여.기				[교육]다.만.세		
						[미디어]여성연예인					
같이가치				Battleground269							
소셜펀치								낙태죄 폐지			
텀블벅			포스트잇액션+ 담배케이스		산부인과 소책자 재인쇄						

-2017년 모금함 모금결과

해피빈	[기본모금함]한국여성민우회의 2017년 활동을 응원합니다	4,672,500원
해피빈	성평등 미디어 교육! 미디어에 질문하는 어린이	4,292,000원
해피빈	여성연예인 인권지원가이드라인 브로셔 제작 및 배포	479,600원
해피빈	나의여성차별드러내기 캠페인을 위한 굿즈 제작!	114,000원
해피빈	10대 페미니스트 임파워링을 위한 프로젝트 열.길 1기	309,300원
해피빈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같이 만들어가요	798,900원
해피빈	여성연예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93,800원
해피빈	전국을 간다!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다시만남세계"	159,300원
해피빈	10대 페미니스트의 말하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500,500원
같이가치	[건강]낙태죄폐지 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	3,908,000원
소셜펀치	[건강]낙태죄를 폐지하라	915,000원
텀블벅	[복지]포스트잇+담배케이스	2,537,000원
텀블벅	[건강] 산부인과소책자	11,173,000원
합계		29,952,900원

4.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1)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전자 서명이 가능한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 MRM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 11월: 일시후원 임시 페이지 심사 중

5. 브로슈어 및 회원가입서 제작(상반기)

1) 새로운 디자인과 컨셉의 브로슈어 및 회원가입서 제작

- 총 5가지의 시안을 통해 브로슈어 디자인 확정 (6/9 1차 시안 ,7/4 2차 시안 ,7/13 3차 시안)
- 11/3 인쇄완료
- 본부 제작 브로슈어 및 회원가입서 틀을 지부에서도 활용하도록 안내메일 발송

6.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1) NAS 설치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7/14 NAS 설치완료
- 7/17 NSA 활용방법 안내메일 발송

2) 데이터 유실 방지와 상시적 데이터 축적의 기능

- 전체외장, 사진외장의 자료를 NAS에 백업하였고, NAS에 해마다 새롭게 쌓이는 자료는 외장하드로 백업하여 자료를 2중으로 보관
- 자료관리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

7. 기타

1)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메일링 리스트 정리

- 반송메일로 기자 리스트 정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추가하고 있음.

2) 온라인 소식지

- 오즈메일러에서 스티비로 온라인 소식지 발송 플랫폼 변경

		회원		온라인소식지 신청그룹	
		오픈율	클릭율	오픈율	클릭율
1/31	페미니스트들의 일만가지 연대_서른번째 정기총회	25.7%	4.6%		
2/22	"성폭력에 맞서는 100시간"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안내) →회원list	24.0%	3.9%	25.0%	6.1%
3/7	모든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왜_때문이죠	23.2%	3.1%	24.3	4.3%

3/22	정리의 마법, 즐거운 나눔, 득템의 기쁨	23.4%	6.4%	25.4%	5.5%
4/4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26.2%	3.8%	24.8%	4.9%
4/11	페미니스트라면,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25.5%	2.8%	24.6%	3.3%
4/19	토요일(4/22) 민우회에 놀러오세요! (바자회 안내)	23.0%	7.3%	24.0%	7.3%
5/2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랑 양성교육이 열립니다!	23.7%	5.4%	22.7%	6.2%
5/19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22.7%	2.5%	22.6%	3.6%
6/1	신상 뺏지 받을 사람, 나아나! 나아나!	22.5%	3.9%	21.9%	3.7%
6/16	"남편 아침밥은 차려줬어?" 기록은 변화의 시작	22.2%	2.5%	22.8%	4.6%
7/5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	22.3%	4.9%	21.1%	4.6%
7/10	여성운동 30년, '용기가 되어주세요!	26.4%	1.4%	23.6%	1.2%
7/20	한국에서 나이든 여성으로 산다는 것	24.6%	2.7%	24.6%	5.3%
8/4	피꼬리가 아니어도 괜찮아! (~8/9 모집)	21.6%	3.4%	19.9%	4.4%
8/21	릴레이 강연-불나방 페미 연대기	23.5%	4.3%	21.0%	5.7%
9/6	9월 12일, 여의도에서 만나요!	23.9%	4.8%	18.9%	3.1%
9/14	30주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7.4%	-	22.0%	-
9/29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하고	21.2%	2.9%	19.4%	3.5%
10/20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	21.9%	3.5%	22.3%	1.8%
11/2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정부의 대답을 기다린다	20.4%	3.5%	21.0%	6.1%
11/20	우리는 매일 사건을 겪고있다 (11/25 신춘)	21.7%	2.4%	20.3%	2.5%
12/19	2017년, 민우회 30주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	24.7%	1.1%	25.0%	2.0%

8. SNS 관리

1) 트위터

-12/31 현재 팔로워수 55,635명

월	트윗수	트윗 노출수	프로필 방문횟수	새 팔로워
1월	101	2,025,390	23,291	546
2월	108	1,909,116	26,905	694
3월	183	3,830,915	46,922	1,076
4월	275	4,445,375	61,673	1,061
5월	204	3,781,533	33,496	21,804
6월	133	3,940,772	31,989	2,798
7월	199	2,833,446	25,039	5,700
8월	221	4,148,058	31,146	15,871
9월	216	3,192,003	23,328	1,327
10월	173	1,484,598	12,957	309
11월	177	2,292,747	19,060	1,828
12월	93	1,317,078	10,198	5,603
계	2,083	35,201,031	346,004	58,617

-인기 트윗

월	트윗 노출수	RT	마음 ♥	내용
1월	246,196	4,432	299	[1/10] 햄버거 사먹으려고 신나서 갔는데 맥도날드 망원 접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알바생 들은 더 황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달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은 채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199,445	1,818	597	[1/24] 표창원 의원께서 풍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를 잘못 알고 계신 듯 하여 침삭지도해드립니다. 국회의 원으로서 책임감있는 성찰과 답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근혜_퇴진하고_여성혐오_퇴장하라 ※위 침삭문은 박사모의 무단전재와 배포를 금함
2월	107,455	1,703	440	[2/1] Q. 페미니즘을 접하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권김현영: 그 질문은 질문의 형태를 띤 공격입니다. 공격과 질문을 분별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자기방어 능력입니다. 역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저한테 왜 예민하냐고 물어보신 건지?"
	106,875	1,737	276	[2/4] "I.여혐.U" 논란을 빚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가림벽 화. "안 웃겨요" "고조선이야, 뭐야~"
3월	526,925	7,334	3,069	[3/10] 박근혜 탄핵의 순간. feat 난리난 활동가들
	168,912	3,543	425	[3/8] "면접장에서 제가 희망연봉 말하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어디다 써요?' 아니, 원래 여자가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미용실 커트도 남자는 7천원, 여자는 9천원이에요" #왜_때문이지

				#3시STOP
4 월	257,230	4,153	710	[4/12] 전국 언론사 OO女 안쓰기 운동본부. #VoteforFeminism #0415페미피켓대행진
	81,600	452	112	[4/6] '탈조선' 과 '개박살' 사이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 이제 더 크게 움직일 때 2017 페미니스트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4/15(토) 2시~4시, 광화문세 종대왕동상앞 #Voteforfeminism
5 월	161,009	1,286	188	[5/26] [긴급서명]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 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119,799	1,237	199	[5/24]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 동성혼 합법 판결이 난 오 늘 한국에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육군대위가 징역을 선 고 받았습니다. 내일, 민우회는 긴급행동을 합니다. << 군형법92조6폐지, 차별금지법제정, 이게나라다! >>
6 월	723,610	9,470	3,704	회원들과 함께 21명의 연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페 미니스트로서 영향력을 보여달라지는 메세지와 함께요. 그 중 1호로 응답해주신분은, 배우 권해효님입니다:)
	115,008	1,095	351	'히포시(HeForShe)'캠페인에서 인상깊은 발언을 한 엠마 왓슨, 할리우드의 남녀임금 격차를 지적한 배우들. 해외 유명인들의 페미니즘 선언과 활동을 모아보았어요. 페미 니스트인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7 월	120,719	1,204	168	"여자 몸무게 앞자리에 5가 있으면 안된다" 아직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달 #월간액션_머리어 깨무릎발 의 주제는 <몸무게>로 정했어요. 해시태그 #몸 무게연대기 를 달고 본인의 몸무게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110,274	517	120	16년째 한국이 OECD 1등인것은 ?성별임금격차! 격차 (36.7%)를 365일로 환산하면, 여자는 8/20부터 무급!? 8/25, 무급으로 일한지 일주일째되는날, 포에트리슬램으로 찾아갑니다.퇴근하고신촌으로!
8 월	467,626	7,739	1,577	<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한 다>기자회견이 조금 전 3시 경찰청 앞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기자회견은 참가자 발언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타래 로 이어집니다.
	188,650	2,597	437	<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한 다>기자회견이 오늘 3시 경찰청(서대문역) 앞에서 진행됩 니다. 몇 천명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예고하고 생중계한 bj에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찰을 규탄합니다. 3 시 경찰청으로 와주세요.
9	167,017	2,348	406	지하철에서 스티커를 발견하면 해시태그 #KTX해고승무

월				원 을 달아서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코레일은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해고승무원들이 복직되길 바랍니다!!!
	132,576	2,315	508	(토론회→발표회) 광고 모니터링 결과, 최악의 광고는 남성의 목소리로 “그날에도 너 빛날 수 있어”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 생리대 광고 등이 뽑혔고, 최고의 광고로는 다양한 성별, 연령의 모델이 등장하는 틴트 광고가 뽑혔습니다.
10월	65,850	692	181	[전시소식/무한RT부탁] 낙태죄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17.10.19~11.5(참여부스, 기념엽서&스티커 10/26 설치예정) 서울여성플라자 1층(1호선 대방역_여의대방로54길 18)
	36,868	212	70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만난세계>가 열립니다! (참가비 무료) 강사 : 김백애라 일시 : 11월 3일 (금) 오후 6시부터 8시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합정역)
11월	131,224	2,224	403	한샘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
	67,634	604	171	민우회는 지속적으로 대중성형광고의 금지를 요구해 왔는데요. 2022년은 조금 많이 멀었지만...지하철 역사 내 성형광고만 없애는 것이지만... 서울지하철의 이러한 결정이 일단은 반갑습니다. (근데 추진 배경이 의아하네요, '젠더 간 갈등'이 아니고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이겠죠.)
12월	106,937	1,618	224	평소 '여자는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장은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 2년동안 면접점수를 조작, 합격권이던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 취업과정에서 성차별 겪은 사람 트위터엔 어디 없나요? 듣고싶어요! #여자라서_떨어졌다
	84,824	749	229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_낙태죄폐지 시위 참가자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를 바꾸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

2) 페이스북

-11/16 현재 좋아요 수 13,860

-인기게시물

월	도달수	공감 댓글 공유	내용
1월	34,788	993	[1/10] [매드맥도 : 분노의 먹튀] 햄버거 사먹으려고 신나서 갔는데 맥도날드 망원점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알바노동자들은 더 황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달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은 채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네, 사장은 튀었고 요~ 본사에서도 돈 못준다고 합니다. (...)
	26,457	908	[1/9] [긴급포럼]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일시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4시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2월	25,732	1,170	[2/3] “혐오는 풍자가 아닙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체장애인 흥내, 검게 칠한 얼굴, 서툰 한국말 억양, 가슴을 부풀린 여장 등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소수자성 비하가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던 사회에서, 그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인권과 존중을 요구하는 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17,628	833	[2/21] '왜 남자동기 연봉이 나보다 높은거죠?' '여성들이 일하는 직군은 왜 임금이 낮은거죠?' 그게 바로 다 성별임금격차 (100:64)! OECD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타이틀에 분노하는 당신,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한 당신, 3월 8일엔 조기퇴근 하고, 3시에 광화문으로 모여요!
3월	47,878	910	[3/10] 박근혜 탄핵의 순간. feat 난리난 활동가들
	26,629	1,097	[3/6] '성별임금격차가 100대 64라는데 진짜 여자라서 임금이 낮은 게 맞을까?' '그렇다면 왜 여자라서 임금이 낮은걸까?' 그 궁금증을 풀어줄 성별임금격차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3시STOP #38세계여성의날 #성별임금격차 #3월8일광화문으로
4월	15,596	598	[4/11] 여자도 두려움없이 발산책하는 세상을 위해. 내 젓이야. 전국에 계신 아저씨들과 팀장님 부장님께 특별히 선사하는 토요일 페미대행진용피켓. 당신이 노잼일 가능성. 한국급성색협회에서도 함께 해주시네요. "싫은데요" (...)
	13,881	579	[4/20]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12년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 했을 때 '함께 공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5월	21,532	771	[5/4] 내가 듣는 노래, 내가 하는 게임, 내가 보는 방송프로그램... 끝도 없이 쏟아지는 미디어 속 '여성혐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여성혐오'에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페미니스트들의 액션으로 미디어를 바꾸는 것에 힘을 싣고 싶다면, 2017.5.18. - 6.8 매주(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민우회 연속 특강에 함께 하세요 :)
	16,528	635	[5/26] [긴급서명]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6월	67,286	1,786	[월간액션 머리어깨무릎발: 찢꼭지편] 홍대 인근에서 찢꼭지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50,274	2,074	민우회 3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회원들이 낸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된 것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유명인들의 힘 있는 목소리 "페미니스트인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입니다.
7월	22,006	537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두번째 고소인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어제(7/4)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전원 만장일치의 무죄판결에 많은 분들이 기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6,437	568	형법 제269조 낙태죄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의 용감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8월	22,186	1,183	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한다>기자 회견이 8/11(금) 오늘 3시 경찰청(서대문역 8번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17,537	465	민우회 30주년 기념 릴레이 강연, 어서 신청하세요! 지난 30년 동안의 여성운동, 그리고 민우회 활동에서 큰 의미를 가진데다 현재의 페미니즘 이슈들과 연결해볼 수 있는 주제들을 쏙쏙 모아 릴레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9월	15,203	867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여성의 몸과 삶을 범죄화하는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 269명의 '몸-메시지' 사진을 모으는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4,287	1,253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나의 몸, 나의 삶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출산의 도구도, 출산기계도 아니다." "음지에서 수술받다 죽고 싶지 않아요"
10월	12,600	494	[인터뷰영상] 배우 이영진에게 성별임금격차를 물었다! '왜 여자는 돈을 적게 받는 걸까?' '여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8,371	184	회원 혜영의 사진에세이 '사진으로 일상탐구생활' 두 번째 주제는 <몸의 시간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11월	44,063	2,355	한샘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
	6,121	274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서 아무 남자랑 술 먹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여성에게 책임전가하는 성폭력예방교육. "여자들은 정치에 관심 없잖아"라는 교사의 발언 <2017 성차별보고서 사례중> 더이상 참지 않겠다, 학교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10대 페미니스트들 함께해요!
12월	4,032	143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234	35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 원주민우회가 있는 건물 4층 무의당에서 김홍미리 선생님의 강의로 잘 마쳤습니다! 한데 모인 원주의 페미니스트들,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 올해의 마지막 <다시 만난 세계>는 시작했습니다.

-내 팔로워

여성73%, 남성 26%

연령	13-17	18-24	25-34	35-44	45-54	55-64	65+
여성	2%	27%	25%	11%	6%	1%	0.6%
남성	0.4%	6%	9%	5%	3%	1%	0.5%

-도달 대상

여성: 도달수 71%, 팬 73%

남성: 도달수 28%, 팬 26%

연령	13-17	18-24	25-34	35-44	45-54	55-64	65+
여성	2%	26%	24%	13%	6%	0.8%	0.3%
남성	0.74%	8%	10%	5%	3%	0.6%	0.2%

재정

1. 사업 총평

1. 사업 목표

1) 바자회와 후원행사를 열어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장을 만든다. 또한 활동과 연계한 온라인 모금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문자후원 홍보를 강화해 일상적인 일시 후원을 조직한다.

2. 평가 및 과제

1) 재정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물품 후원의 의미를 넘어 페미니스트들의 참여와 연대, 함께 즐기고 만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30주년 기념식과 연계한 후원의 밤은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 모금도 다양한 모금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했다. 온라인 모금은 해당 이슈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채널로도 기능하므로 앞으로도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

바자회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물품정리와 배치 등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의 바자회는 후원기업 물품이 거의 없어 오로지 회원과 후원자들의 소장품과 중고물품이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바자회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이는 매해 더 좋은 물건과 더 많은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이전에 비해 SNS등을 통해 당일 바자회에 찾아온 페미니스트들의 수도 월등히 많아지고, 마을주민들에게는 신뢰받는 바자회로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이다. 바자회가 재정마련을 위한 의미를 넘어 물품을 통한 후원의 의미가 조명되고, 바자회 진행에 기꺼이 품을 내어준 회원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연대의 마음으로 바자회를 함께 즐기고 나누어준 수많은 페미니스트와 만나는 장으로 그 의미가 있다.

30주년기념식과 연계되어 진행된 후원의 밤은 목표대비 후원액의 115%를 달성하였다.

5개의 30주년 기념사업의 배치로 평년에 비해 규모를 높인 후원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우회 창립30주년을 동시에 의미부여하는 수많은 회원과 후원자 덕분에 후원목표를 초과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올해 온라인 모금함은 해피빈과 텀블벅, 소셜펀치, 같이가치 등 다양한 온라인모금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되었고, 모금규모도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온라인 모금함은 해당 이슈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채널이기도 하고, 재정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개설과 관련 후기 작성 등을 통해 관련 이슈 노출을 늘리고 신뢰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일시기부창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모금기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민우회 굿즈제작, 문자후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재정

1. 바자회

1) 정기바자회

- 일정 : 4월 22일(토)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주차장 및 교육장
- 참여 : 지역주민 및 회원

2) 비정기 바자회

- 총회, 퀴어퍼레이드, 사무실 상시 바자 등 진행

2. 후원행사

민우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
: 민우회 30년 여성운동, 앞으로도 용감하게

- 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저녁6시~9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
- 참석자수 : 360여명 (업체량 계약한 인원 : 400명 + 50명)
- 당일 테이블 : 10석씩 47개 테이블
- 프로그램

순서	시간	소요	내용
식전	6:00~7:00	1시간	접수, 식사, 함여전시, 포토존
본행사	7:00~7:05	5분	장내 정리, 사회자 등장
	7:05~7:15	10분	대표+ 추진위 무대위 인사 + 플로어 추진위 인사
	7:15~7:45	30분	오신 분 소개
	7:45~7:50	5분	30주년 기념 영상
	7:50~8:30	40분	민우회 30년을 보여주겠습니다
	8:30~8:35	5분	활동가 공연
	8:35~8:45	10분	비전 발표(시원) + 나머지 결과 (미몽)
	8:45~8:50	5분	회원 합창단 공연

3. 굿즈제작

: “FEMINIST”문구가 적힌 담배케이스 200개 제작 및 모두 소진

4. 온라인 모금함

모금함	주제	시기
해피빈	[기본모금함] 한국여성민우회의 2017년 활동을 응원합니다	2017.01.01 ~ 2017.12.31 현재모금현황 4,578,400원(307 명)
	성평등 미디어 교육! 미디어에 질문하는 어린이	2017.02.17 ~ 2017.11.30. 4,292,000원 (160 명)
	여성연예인 인권지원가이드라인 브로셔 제작 및 배포	2017.02.23 ~ 2017.06.30. 479,600원 (251 명)
	나의여성차별드러내기 캠페인을 위한 굿즈 제작!	2017.06.19 ~ 2017.07.31 114,000원 (105 명)
	10대 페미니스트 임파워링을 위한 프로젝트 열길	2017.07.04 ~ 2017.08.31 309,300원 (76 명)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같이 만들어가요	2017.07.06 ~ 2017.08.31 798,900원 (115 명)
	여성연예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2017.07.25 ~ 2017.10.31 93,800원 (92 명)
	여성연예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2017.10.13 ~ 2017.11.30 159,300원 (93 명)
	10대 페미니스트의 말하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2017.11.14 ~ 2017.12.17 500,500원 (140 명)

텀블벅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소책자 양코르 인쇄	11,173,000 930명후원
소셜펀치	낙태죄를 폐지하라	915,000 63명 후원

5. 기타

○ 문자후원 건수 (월 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문자 수	231	134	1,055	106	130	85	82	175	116	41	76	36	2,267

회의체계

I. 사업 총평

중앙위원회는 본부지부 공동사업진행 및 지역여성운동활성화 등 사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확대중앙위를 개최하여 리더십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논의를 이어나갔다. 다만 구성원이 많이 겹치는 지부대표네트워크회의와 위상과 역할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평가가 있어 두 회의체계 간에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핵심사업의 기획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상임집행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원활한 조직 내 소통과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필요한 순간 전체활동가회의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논의력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기년도 민우회 운동방향과 관련하여 모듈별 발제를 준비하여 진행한 전체활동가토론은 향후 사업방향을 함께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매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위원들과 진행되는 정책토론회는 참석률저조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부정책, 다양한 여성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II. 사업집행

회의체계	집행
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본부지부의 활동을 공유하고 본부지부 공동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 구성 : 본부 대표, 사무처장, 부설기구 장, 본부 팀장, 지부 대표 • 횟수 : 분기별 • 중앙위원회 : 4월4일, 6월 16일, 11월 3일 • 임시 중앙위원회 : 리더십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논의(10/20) 중앙위원+사무국장으로 확대 : 본부지부 공동사업 논의(12/12)

<p>이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주요사업 및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 • 구성 : 김민문정, 강혜란, 김진, 김현미, 박봉정숙, 석재은, 이건정, 정형욱, 조인섭, 홍성수 / 참관 사업감사_장지연, 회계감사_변영선, 사무처장_최진협 • 집행 : 1월 9일, 3월 20일, 7월 18일, 11월 8일 • 안전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핵심사업의 방향
<p>상임 집행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본부와 부설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결 • 구성 : 본부대표, 사무처장, 부설기구 장, 사무처 팀장 • 집행 : 1/3, 1/19, 2/6, 2/22, 3/2, 3/7, 3/22, 4/6, 4/19, 5/12, 5/29, 6/9, 6/22, 7/4, 7/21, 7/24, 8/11, 8/23, 9/5, 9/21, 10/16, 10/31, 11/14, 11/22, 12/15, 12,21 (총 26차 진행)
<p>전체활동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대응관련 비정기적 전체활동가회의 개최 • 전체활동가 토론회 : 키워드_“페미니즘의 대중화 운동, 페미니즘 대중화시대의 여성운동.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여성운동’, 우리의 전략과 아이디어”
<p>굿모닝 위민링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상근활동가의 월례조회 겸 소통과 교육의 자리 • 집행 : 1/4, 2/7, 3/10(나루신년회), 5/11, 6/7, 7/19, 8/7, 9/4, 10/26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젠더관점의 모니터링 도구 및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확산에 기여한다.
- 2) 대선국면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청자 관점의 정책을 의제화 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여성연예인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교육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이를 공론화 한다.
- 4)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중접촉면을 확장을 꾀한다.

2. 평가 및 과제

1) 2017년은 젠더관점을 담은 지수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해외 자료번역과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시도한 해이다. 또한 새롭게 조직된 모니터단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모니터링 도구를 보완하고, 20회 차를 맞은 <푸른미디어상> 시상분야에 '성평등상'을 신설하는 등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성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올해 미디어운동본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젠더관점의 지수 개발이었다. 그동안 미디어운동본부는 젠더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제작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에서도 성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부 및 지자체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성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제작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자들을 압박함과 동시에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화된 젠더관점의 지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속 성별에 따른 출연비율, 대사량, 대화의 질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지나데이비스 포용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지나데이비스재단에 메일을 보내 소통을 시도하였다. 애초 계획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자료를 일부라도 분석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참관해보길 희망하였으나 비영어권 콘텐츠 분석 기술 개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불발되었다. 하지만 국외의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기관과의 소통을 준비하는 동안 미디어운동본부가 해왔던 모니터링 내용을 점검하고, 의미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외단체와의 소통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 및 방송사 등의 젠더 관점의 방송 가이드라인, 다양성 바로미터 등에 대한 번역 자료는 본격적으로 지수 개발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젠더 관점의 지수가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니터단을 모집하여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림일기’ 형식을 통해 시청자들이 실제 TV를 보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도록 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별 모니터링 후 집담회를 통해 각자 소회를 나누며 방송프로그램 중 특히나 예능에서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든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획취지와 불합치 하는지, 그 결과 여성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기회를 차단하고 협소하게 만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논의를 통해 ‘성평등 지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1차적으로 모아낼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지수의 현실성을 담보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 평가 되었다. ‘미디어 성평등 지수’의 기본질문과 예능, 드라마, 뉴스, 광고 등 세부 영역에 차등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후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미디어운동본부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모니터단을 모집했다. 모니터단은 광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기존 모니터링 도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매체 및 현 광고의 특성에 맞게 도구를 일부 개선하였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던 모니터링 도구를 현실화 시킨 것에 의의가 있으며 모니터링 도구에 젠더 관점을 강화시켜 성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역할 할 것이다.

이외에도 20회를 맞은 <푸른미디어상>은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지상

파, 케이블 채널에서 새롭게 기획됨에 따라 이를 더욱 독려하고, 미디어운동본부가 시사식을 개최하는 의미인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다양하게,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성평등상'을 신설하였다. 이후 단순히 시사분야의 신설뿐 아니라 구체적인 좋은 사례의 프로그램들의 축적이 갖는 의미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

2)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 하에서도 여성의제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대선 모니터링 및 카드뉴스 발행,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각종 연대활동을 통해 꾸준히 펼친 한 해였다.

2017년 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른 때와는 달리 아주 짧은 선거 기간을 가졌다.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정책 또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몇 가지만 국한되어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뉴스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여러 공약 속에서 여성의제가 잘 살아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였고, 이를 2회에 걸쳐 카드 뉴스로 제작하였고 언론홍보 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카드뉴스는 실제로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하는 후보에서조차 여성 의제가 실종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실제로 여성들이 정치에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지상파 후보자 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지는 이슈에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서도 여성은 '육아'의 존재로만 호명될 뿐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성단체들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여성의제 '젠더100'보고서 등을 통해 방심위, 방문진 이사 등 주결정권을 갖는 직위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등 즉각적 정책반영 여부를 떠나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를 알림으로써 역할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이미 보도된 것만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개선을 위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여성의제가 선거방송에서 더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한편, 대선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망가진 지상파 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파업을 결행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미디어운동본부는 연대 및 1인 시위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다만 연대 차원이 아니라 시의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앞으로 미디어운동본부만의 시각이 담긴 의견들이 좀 더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한다는 평

가가 있었다.

또한 보수 정부 하에서 사업자 중심의 방송정책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토론회, 지상파 편법 중간광고에 대한 의견 제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지상파 1번가’란 이름의 사이트를 공동기획 해 오픈하여 지상파 재허가에 대한 시청자 참여 등 시청자관점의 미디어의제 제기와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청자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방송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청자의 시각이 담긴 정책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쳤어야 했으나 연대라는 한계와 다른 현안에 밀려 결과를 끝까지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지점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3) 작년부터 이어져온 영화계 내 성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움직임 속에서 남배우A, 김기덕 감독 사건 등의 피해 여성배우들과의 상담, 법률지원 활동과 더불어 여성계와 영화계 단체들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시의성 있게 진행하여 여성배우들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올해는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개소이후 가장 많은 사건지원과 기자회견 등이 있었던 한 해였다. 2016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계_내_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증언에 이어 여성배우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판결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이슈화가 본격화되었다. 민우회는 연초 <씨네21>과 공동주최한 긴급포럼 ‘그건 연기라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를 시작으로 배역에 ‘몰입한 연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촬영과정에서의 성폭력, 감독의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더 묵인되는 폭력, 노출장면을 비롯해 사전에 공유되고 합의가 필요한 장면에 대해 약속과 다르게 강요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여성계와 영화계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공론화에 힘썼다.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예인이거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더 쉽게 가십거리로 여기거나, 이런 일들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용인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이들도 함께 만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신상노출이 있음에도 성폭력피해 영상이기도 한 법적 증거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언론계에서 함께 만들어진 성폭력에 관한 보도준칙을 스스로 지켜내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들을 멈추기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사건이 클릭수를 높여줘 수익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내고,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그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와 잘못된 관행, 침묵의 카르텔 깨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로 영화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주관하거나 현장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진선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한 연속토론회의 경우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기도 하였다. 영화계에 지속되어 온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문제들은 내부구성원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적인 현장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보지 않겠다’는 관객들의 선언,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부처의 의지와 정책마련과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관련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애초에 계획한 여성연예인인권가이드라인 리뉴얼과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의 경우 개별 사건대응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올해 활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재구성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젠더관점의 미디어읽기에 관심이 있는 페미니스트를 주대상으로 한 미디어 대중강좌 기획 및 모니터단 모집, 광고 속 성차별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 워크북 온라인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한 해였다.

올해는 힙합, 게임, 표현의 자유, 연예산업 전반 등에 대해 분야별로 시리즈 대중강좌<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를 4회 개최하였다. 해당강좌는 평균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수강생들 중 17명의 회원가입과 이후 진행된 모니터단 활동으로 이어져 단순히 강좌참여 이상의 연결고리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진행한 ‘광고 속 성차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690여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디어운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모니터링과 ‘미디어 성평등 지수’개발을 위한 질문만들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일상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 광고와 TV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직접 젠더관점의 미디어읽기를 시작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동시에 미디어운동본부 활동을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일상적 홍보활동과 안정적으로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을 기록하고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정책사업

1) 젠더관점의 모니터링 도구 및 지수 개발

: 미디어 속 ‘여자’ 이름 찾기

○ 미디어 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한 시작점을 짚다

-8/31, 서울여성플라자에서 <4차산업 혁명과 젠더> 강의수강 및 내부 기획회의 진행

-9/28, 10/12, 1차 번역자 회의 진행(김지강, 장서연, 황소연, 정슬아)

-10/23, ‘지나 데이비스 젠더연구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을 요청하는 메일 발송. 트위터로 메일 확인요청 멘션 발송.

-9월 중 국내 미디어 모니터링 도구 연도별 영역별 정리 및 분석 후 12/5 화상회의 예정이었으나 연구소의 사정으로 화상회의 대신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전환하여 진행함.

-미디어, 페미니즘 관련 연구자 2명(이수연, 심미선)을 섭외해 지수개발을 위한 컨설팅 자문을 수강함(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3인- 윤정주, 정슬아, 황소연)

-해외 미디어 성평등 지수 및 모니터링 자료 조사 및 분석

-미디어 모니터링 지수 개발을 위한 TV 예능 모니터링단 운영

11/13 첫모임 진행, 11/20 집담회 진행 (참석자 : 이현정, 박채영(카카), 이소형, 신소영(소영), 민세희(토니), 유광(김수진), 성은(손다경), 정슬아, 황소연). 집담회에서 모니터링 시트 및 그림 일지, 미디어 모니터링 지수 개발을 위한 질문을 공유하고 우선적으로 질문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논의를 진행함.



〈미디어 성평등 지수개발을 위한 질문/키워드 목록(1차)〉

1. 출연자 성비
2. 주제와 성비의 연계된 분석
3. 대화 비율
4. 여성/남성스러움을 강조
5. 번역시 자막에서, 여성은 존댓말을 쓰고 남성은 반말을 쓰는가?
6. 국적, 인종을 대표하는 인물의 성별이 남성인 것이 당연시 되는가?
7.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얼마나 차이나는가?)
8. 성차별의 빈도수 혹은 총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9. 질문의 질(대화내용)이 어떠한가?
10. 여성출연자가 1분 이상 발언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11. 여성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도하는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12. 여성을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13. 여성의 욕망과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가?
14. 전통적 성역할(고정관념)에 반하는 출연진을 다루는 태도가 어떠한가?
15.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지, 혹은 다시 성관념에 틀에 넣으려하는지?
16. 여성의 나이에 따라 소비 및 연출되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가?
17. 여성 출연자 화면의 특수효과 유무와, 특수효과가 있을 경우 특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가?(성적대상화, 성역할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여성이미지)
18. 여성과 남성을 성역할 고정관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19. 지정복장이 있을 경우, 남성과 여성의 노출도에 차이가 있는가?
20. 여성을 묘사하는 자막에 '상남자', '소녀감성', '천상여자', 'OO엄마'같은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21. '예쁘고 상큼한 애교담당' '이즘마' '췌언니'가 아닌 다양한 여성캐릭터가 있는가?
22. 여성출연자 발언의 성격이 어떠한가?(반박, 의견, 정보제공)
23.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개그,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가?
24. 여성출연자를 잠재적 연애대상으로 취급하였는가?
25. 여성게스트의 출연이 일종의 보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남성출연자에게)
26. 시사교양정보프로에서 여성 전문가를 찾아볼 노력은 해봤는지?(여성 전문가를 등장시키는가?)
27. 경연 프로그램에서 남녀 심사기준이 정말 평등한가?*
28. 여성출연자의 연령대가 다양한가?
29. '더 어린'여성을 선호하고, 나이(나이들)을 여성의 결함으로 생각하는가?
30. 남성이 가운데 자리, 왼쪽자리에 앉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31. 주제와 성비 연계분석
32. 여성의 돌봄을 지혜로운 현모양처 프레임이 아닌 하나의 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33. 프로그램 내 전문가의 신뢰성
34. 성차별적 요소가 출연자 개인의 의견인가 프로그램 연출 차원인가
35. 제작자의 젠더 감수성 정도
36. 프로그램 취지자체가 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사업 결과물과 모니터링 기록물을 담은 워크북 발간

: TV예능 모니터링단의 그림일지 기록물과 모니터링 진행방법을 엮어, 독자들이 쉽게 모니터링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북을 200부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함.

: <미디어 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한 실험일지 : 예능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목차 : [1]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 이제, 사라진 여성들을 찾을 시간
[2] 해외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알아보기
[3] 2017 미디어운동본부 예능 모니터링단 그림일지
: 예능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그림일지 서식
[4] 실전! 예능 모니터링 : 모두의 예능
[5] 부록(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확보

○ 19대 대통령 선거관련 활동

1) 대선 모니터링

- 3/2, [카드뉴스] ‘여러분은 혹시 대선주자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셨나요?’ 발표
: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특집-대선주자에게 듣는다!>, JTBC <20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 뉴스를 연속대담, 소셜라이브>의 대선주자들 인터뷰, 대담 등을 모니터링 결과를 카드 뉴스로 구성
- 4/28, [카드뉴스] ‘대통령 선거 D-11, 대선 뉴스는 성평등의제를 얼마나 다루고 있을까요?’
: 4월 17일~26일까지 총 10일간 7개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를 모니터링 함. 전체 뉴스 꼭지 수에서 대선 꼭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중 성평등 의제를 다룬 꼭지는 얼마나 되는지 기록함. 모니터링 결과, 집중분석 보다는 후보자가 발표한 성평등 및 여성 관련 공약을 전달하는 단순 보도가 주를 이룸.

2)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대응 토론회

- : 5명의 후보에게 미디어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이를 총 19명의 평가 위원이 평가하고 정리하여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4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주최 :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를 포함한 22개 단체
-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후보별 정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청자]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6/30 드라마 편법 중간광고 관련 논의
- 7/12 드라마 편법 중간광고 관련한 의견서를 내고 방통위 고삼석의원 면담

○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

- 일시 : 2016년 4월 10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사회 :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토론 : 김대식(KBS 대외정책부 연구원)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오기현(PD연합회장)

유홍식(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회 이사장)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연대활동 : 지상파공동체라디오 방송재허가 관련

-8/23,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방통위는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총 11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10/16, 지상파불만처리대행서비스 [지상파1번가] 공동기획하여 오픈하고 시청자 참여독려.

: 지상파 재허가 기간에 맞춰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창구이자 시청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모으기 위한 참여공간으로, 1)‘불만’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300건의 ‘좋아요’를 받은 정책제안 코너 2)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최고의 시사방송프로그램 3)2017 방송사 재허가 시청자 투표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사이트 링크 <http://minomiro.com/wp/tv1st/>

○ 연대활동 :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7/13,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13개 단위와 함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 관련 기자회견, 성명, 논평 발표 상시 발표, 돌마고 팻캐스트 운영(연휴 제외, 9/4~12/14),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파티’] 진행, 1인시위 진행.

-12/12, 방통위가 KBS 이사 강규형을 해임 대상으로 통지함에 따라 돌마고 파티가 잠정 중단된 상태임. (결과가 어떻게 최종 정리되는 게 맞을까요? 민우회 집행내용 중심으로 정리 필요)

-9/29, 광화문 세월호 광장 부분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1인 시위 참여, 액션 참여 독려



○ 시청자단체 연대회의(매비우스, 서울YMCA)

- 1/6, 1/10, 2/7, 회의
- 미래부 유료방송 정책 및 케이블방송의 8VSB 관련 대응 논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 비위에 대한 성명 논의
- 3월 중으로 시청자가 바라본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토론회 논의
- 3/14 회의
- 시청자가 본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및 조직개편 토론회 관련 논의
- 3/31 회의
- 시청자가 본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및 조직개편 토론회 관련 논의 및 발제내용 논의
- 〈토론회〉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 일시 : 2016년 4월 10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사회 :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토론 : 김대식(KBS 대외정책부 연구원)
 -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오기현(PD연합회장)
 - 유홍식(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회 이사장)
 -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토론회 이후에 각계 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추혜선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입법화 하고 기구를 만드는데 관심을 보임.
- 4/17 토론회 주최 단위와 추혜선 의원실 보좌관을 면담하고 기구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눔. 이후 기구 설립을 위한 입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6/30 드라마 편법 중간광고 관련 논의
- 7/12 드라마 편법 중간광고 관련한 의견서를 내고 방통위 고삼석 의원 면담
- 10/3 미디어 관련 이슈를 점검함

○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대응

-5명의 후보에게 미디어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이를 총 19명의 평가 위원이 평가하고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일시 :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를 포함한 22개 단체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후보별 정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청자]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대응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2017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토론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박장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페이스북 생중계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하여 즉각적으로 실시간 토론과 질문 받아 진행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장비세팅 및 송출 등 역할을 함.

○ 지상파·공동체라디오 방송 재허가

-목표는 재허가 심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실현 / 이를 통해 공영, 민영, 지역, 공동체방송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재허가 심의 실시 /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의제화 / 지역 마을 공동체 등
지식 분권의 가치가 반영되는 심사의 구현

-9/4, 심사공동행동 기획회의(전국미디어협의회, 매비우스, 언론연대, 미디어운동본부) 진행. 방송
에서의 성평등(민우회), 지역방송의 몰락, 방송제작 노동자 인권 문제 등 분야별 시민참여 캠페
인,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기획하여 진행. 별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에서 진행하
는 공동행동을 기록하여 남기고 심의단위에게 전달.

○ 시청자권익보호제도 평가와 시청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
원 제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3시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사회 : 심미선(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제발표 : “시청자권익보호제도 평가와 시청자 참여확대 방안 모색”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정의철(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토론 : 김동찬(언론연대 사무처장, 현 SBS시청자위원)

김성순(변호사)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양정혜(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전 KBS시청자위원)

-공동주최 : 한국방송학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
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공동대응

-12/21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참여 단체들이 나눠 평가하여 평가서를 내고 후속으로 방통위원
장 면담을 진행하기로 함.

-12/28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명
발표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전국미
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
회 미디어운동본부

2. 일상적 미디어 감시

○ 일본 A/V 국내 IPTV 배포제보 대응 건

-2월 경 일본 연예계 내에서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제작된 영상이 국내 IPTV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

-3/10, 국내 IPTV 3사인 KT올레,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일본 A/V 중단 요청 및 제발방지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KT올레 : 4/24 답변 수신.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들이 출연한 영상목록과, 올레TV 콘텐츠 리스트 대조 후, 영상과 품번이 일치하는 1건의 영상을 즉시 서비스 종료하고 영상 공급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여성들의 이름을 검색에서 금치어로 추가함. 방송심의를 받는 일본AV물에 대해 원천 계약서에 품번 정보 추가 및 타 성인 콘텐츠 공급사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공지함.

-SK브로드밴드 : 5/16 답변 수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총 39개 CP대상으로,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들이 출연한 영상 목록과 콘텐츠 리스트를 대조하여 확인 작업을 한 결과, 2개 CP사의 2개 콘텐츠가 해당됨을 확인함. 즉각 서비스 중지 처리됨. 그 외 37개 CP사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없음을 확인. 또한 다시 한 번 향후 해당 콘텐츠 공급 적발 시 서비스 공급 중지 및 페널티 적용 예정임을 엄중 공지함.

-LGU+ : 6/1 답변 수신.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들이 출연한 영상목록을 바탕으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영상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함. 피해 여성이 출연한 영상 1편을 확인하여 서비스 중지함. 향후 민우회에서 문제가 있는 AV 영상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 중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6/2, [카드뉴스] '강요에 의해 촬영된 일본A/V 유통금지 요청 활동' 발표

○ 광고 모니터단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운영

-5/18~6/8 본 단체에서 주최한 대중강좌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참가자를 중심으로 모니터요원 모집 진행하여 13명 모집.

-6/22, 7/13, 7/27, 8/24 총 4회 모임 진행.

: 성인지적관점의 광고모니터링 강의(윤정주)

: 예비모니터링 과제 분석결과 개별발표

: 모니터링 대상 및 도구 확정 (TV광고, youtube), 모니터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크로스체크를 위해 2인 이상씩 배치함.

구분	광고 송출시기	대상
tvcf	6월 한 달	TV(지상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광고
youtube	7월 17일~8월 17일	온라인 광고

: 광고 속 성차별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문항검토,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최악, 최고의 광고 선정, 모니터링단 대표 발표자 선정,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하여 e-book형태로 배포함.

○ 광고 속 성차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성차별적인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진행

-문항 설계를 위한 모니터링 아이디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10~8/31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최대한 간결한 질문과 일상적 표현 언어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광고 속 여성의 등장 이미지 보기 중 “맥락 없이, '굳이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부각된 사람” 등의 문장 선택함. 총 693명 참여. 주관식으로 취합된 광고주와 광고 제작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아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여 소책자에 포함하여 배포함.

○ 광고 속의 성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제목 : [발표회] 광고 속 성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 ※ 본 행사를 광고주, 광고제작자분들께 바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 PM 7:30

-장소 : 국민TV카페 on-air

-프로그램

*사회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광고 속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황소연(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토크쇼

: 김진아(카피라이터)

: 왕혜지(모니터링단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 정기현(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 안기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장)

-광고주, 광고제작자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 자료집 <여러분은 성차별적인 광고를 본적이 있나요> 200부 제작

- 10/13, 제작완료. 광고 속 성차별 실태조사 결과(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를 담은 분석 글과 발표회 당일 진행된 토크쇼 녹취록을 함께 담았음.

목차

1. 들어가며 - 성차별적인 광고, 어디서 보셨나요?
2. 광고 모니터링 개요 소개
3. 모니터링 결과
 - 1) 광고 속 인물의 성비
 - 2) TV지상파 광고 속 주 등장인물
 - 3) TV케이블
 - 4) 인터넷/극장/바이럴
 - 5) 유튜브
 - 6) 광고품목에 따른 등장인물 성비/내레이터 성비
4. 나가며
5. 별책부록
 - 1) 토크쇼 “광고 좀 아는 사람들” 녹취록
 - 2) 광고주, 광고제작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3) <광고속 성차별 온라인 설문조사>결과 및 도구
 - 4) 광고 모니터링 도구+ 모니터링단이 뽑은 최악, 최고의 광고



- 자료집 배포의 경우 e-book 형태로 배포완료. 오프라인 책자는 행사참여자, 여성단체, 미디어 단체 배포함. 일상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발견될 경우 작성된 편지와 책자를 광고 제작자, 광고주에 발송하는 액션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기획에 고려하기로 함.

○ <대중매체 속 성차별> 모니터링

-방송학회 <대중매체 속 성차별> 연구 프로젝트를 미디어운동본부에서 담당

-6월 15일, 착수 회의를 함. (심미선, 김정희, 강혜란, 정슬아, 황소연, 윤정주) 연구내용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논의

-7월~9월 지상파와 종편의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생활/교양, 뉴스에 대한 양적모니터링 완료 후 질적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완료

○ 그 외 일상모니터링 활동

1)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대응 건

-3/23 [카드뉴스] '#TV조선_탈락소취 : 종편 재승인 심사에 부처' 발표

오보, 막말, 편파보도로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 TV조선이 공공성을 갖춘 방송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재승인 심사에 반대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함.

2) TV조선 <아름다운당신3> 대응 건

-6/14, 5월말 종영한 TV조선 성형 메이크오버 쇼프로그램 <아름다운당신3>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함. <렛미인> 등의 대표적인 성형 메이크오버 쇼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비포&애프터 장면, 성형외과 및 병원 소속 의사를 홍보해주는 점 등을 방송장면 캡처를 첨부해서 전달함.

-6/21, TV조선에서 “후속 프로그램 제작 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옴.

-7/11, [카드뉴스] '성형 메이크오버 쇼 프로그램 TV조선 <아름다운당신> 추가 시즌 제작중단 요청 활동' 발표

3. 교육사업

1) 미디어 교육

○ 청소년 대상 <광고 속 성차별>, <광고 속 외모지상주의> 교육 진행

-4/6,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공문 우편발송

-4/6~4/26. 이메일로 교육 신청서 접수받음. 당초 계획한 200강 보다 초과한 280강 신청들과 선착순으로 일정조율하여 15강을 늘려 총 215강 강의 진행.

-5~9월 초,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215강 진행. 16개 학교 3,252명 교육 수강. 강사 김현희, 백행숙, 손민원, 송미덕, 이현주, 정혜경, 조희정, 한경희 총 8인이 미디어 교육 진행

-교육 후 교육만족도 설문 실시 결과 5점 만점 평균 4.5점으로 집계됨.

(수강인원 3,252명 중 3,140명 참여)

-교육일정

일자	학교	반	차시	강의 수
5/10,12, 6/7,8	우솔초	10	14	20
5/10~11, 6/8	녹번초	5	6	10
5/24	도봉초	2	2	4
5/29~31, 6/2	상봉중	10	7	10

5/30~31	언주중	2	2	2
6/2	목운중	1	2	2
6/13~14	신학초	4	4	8
7/3,4	수색초	3	4	6
7/6~7	송의여중	18	6	18
7/11~12, 7/14	인현중	8	6	16
7/13,20, 8/24	영등포중	13	26	26
7/13,17	숙명여중	27	18	54
7/18	청원중	7	8	14
7/19	홍대부여중	5	1	5
8/22	홍대부중	6	12	12
9/8	고원초	4	8	8
총 강의 수				215

○ <미디어를 활용한 성인지교육콘텐츠 강의안 개발 및 시범강의 진행>

-3/13, 28, 4/4 기획회의 및 강의안 개발관련 논의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희, 정슬아, 강혜란, 윤정주-민우회)

-6/12, 강의PT 및 활용 메뉴얼 작성 논의 (강혜란, 김현희, 윤정주, 정슬아)

-8/3, 16, 활용 매뉴얼 원고 검토회의 진행 (강혜란, 김현희, 윤정주, 정슬아)

: ‘젠더’,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 대상의 강의안을 개발하고 시범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미디어운동본부의 미디어교육 대상의 확장을 꾀함.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문과정’의 교육과정과 차별화의 측면으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직접 공공 홍보물을 모니터링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구성함.

-3~10월, 공무원대상 시범교육 진행. 총 11회 차 진행

: 3/28, (강사 : 김현희, 정슬아-민우회)

: 4/4, (강사 :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희, 윤정주-민우회)

: 4/11, (강사 : 최자은-서울여가재단 / 강혜란, 윤정주-민우회)

: 4/18, (강사 : 강혜란-민우회)

: 4/25, (강사 : 김현희-민우회)

: 5/12, (강사 :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희-민우회)

: 9/5, 8, 15, 10/12, 24 (강사 : 김현희-민우회)

-12월, 미디어를 활용한 성인지교육콘텐츠 강의 해설서 <사회문화 속 젠더읽기> 책자제작 완료

2) 연속특강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될 못해요?>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매체 별 구체적 사례로 본 여성재현의 한계, 여성혐오적 시선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한 기획 강좌진행.

-일시 및 장소 : 5/18, 25, 6/1, 6/8 (총 4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강좌 내용

날짜	주제:강사	강좌별 주요내용	신청	참석	회원 가입
1강_5/18	힙합편: 블럭(음악평론가)	여성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래퍼들의 가사가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현재, 이러한 현실을 '힙합'의 프레임과남성성의 프레임에서 살펴보고, 왜 힙합문화에서 여성혐오적 측면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58명	54명	3명
2강_5/25	게임편: 감나무(전국디바협회 협회장)	국내외에서 게임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여성혐오 사건들과 게임(산업)이 행하는 여혐, 게이머가 행하는 여혐 등을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여성 게이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53명	40명	7명
3강_6/1	표현의 자유편: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소수자 혐오표현의 사례를 소재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맞서 개인적, 조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정책적 과제를 함께 모색해본다.	100명	81명	3명
4강_6/8	연예산업편: 최지은(전 아이즈size 기자)	한국 미디어 속의 여성혐오를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미디어, 연예산업에서의 여성소비 방식과 최근의 불매운동 및 시청 반대운동 흐름을 짚어본다.	98명	74명	4명





3) 미디어교육법 추진위원회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2/3, 추진위원회 회의

: 발족식 및 세미나 점검

: 조직 구성(민주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강혜란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로 추대되었으며 운영위와 법안소위에 모두 참여 하기로 함)

-2/13,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프로그램>

[1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출범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

: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강혜란(한국여성민주회 공동대표/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2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비방안 세미나

- 사회 : 권장원(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발표 :

-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 김양은(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종합토론(가나다순)

: 김정희(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 류지영(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 박한철(덕성여고 교사)
- : 복성경(미디어교육 강사/부산민언련) / 윤정록(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 :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2/27 미디어교육법안소위에서 법안작업에 앞선 점검회의 진행
- 4/20 민주당과의 미디어교육법 추진 관련 업무 협약식 진행
- 8/4, 8/18, 8/25, 9/1, 10/17 법안소위 및 운영위원회 개최
- 법안소위에서 미디어교육기본법 초안을 만들
- 12/29 운영위 워크숍
- 그동안 만들어진 법조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이를 각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함

4.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긴급포럼]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 일시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사회 :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토론 (가나다순) : 김꽃비(영화배우, '찍는 페미' 개설자)
손희정(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이언희(영화감독 <미씽: 사라진 여자>)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이예지(씨네21 기자)
- 공동주최 : 씨네21,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기자회견]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일시 :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 고등법원 앞

-사회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가나다순) : 김꽃비 (영화배우,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페미')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신희주 (영화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공동주최 : 여성문화예술연합,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연속토론회] 방송/미디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연속토론회 2회

1) 1차 토론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일시 : 2017년 4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토론 : 김꽃비 (배우, '찍는 페미')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이윤정 (영화감독)

조인섭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따로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함.

- 공동주최 :국회 시민정치포럼,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PD연합회, 전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2) 2차 토론회 #GO_미디어_내_성평등

- 일시 : 2017년 5월 30일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심미선(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발제 : 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곽현화 (영화배우 / 개그우먼)
 - 김민정 (KBS PD)
 -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팀장)
 - 시한 (tvN 신입조연출사망사건대책위원회 소속)
 - 전별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법제위원장)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 시민정치포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PD연합회



○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88개 단체 공동 성명문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 일시 : 2017년 5월 11일
- 남배우A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영화계 단위 등 총 88개 단위 연명

○ [기자회견]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 일시 : 2017년 8월 8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관 5층 정의실
- 사회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경과보고 : 서혜진(변호사)

- 참가자 발언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채윤희(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찍는페미 대표)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8/8~9/7, <영화·방송·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 진행함. 김기덕 감독 관련 피해 사례 제보, 그 외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제보를 받았으나 추가 법률지원 사례는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음.



○ [토론회]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인권침해 -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 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10:00~12: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세미나실(지하1층)
-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 주최 :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감독)
- 좌장 :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변호사)
- 축사 :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 발제 : 영화계 성폭력 취재보도 이예지(전 씨네21 기자)
- 토론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서혜진(변호사)
 김용훈(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장)
 정지섭(조선일보 기자)
 정다솔(찍는페미)

○ [지지와 연대] 헐리웃과 한국 여성영화인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지지합니다 : 글 발표
 - 10/18, SNS상으로 알려진 헐리웃 영화제작자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배우들의 발언, #metoo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여성들의 발언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SNS상으로 공유함.

○ #STOP_영화계_내_성폭력_남배우A_성폭력_사건_항소심_유죄_판결_환영_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광화문)
-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연대 발언 :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피해자 발언문 낭독 :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공동주최 :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긴급토론회] 남배우A성폭력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개최

- 일시 : 2017년 10월 27일 오후 14:3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토론

디스패치 ‘팩트주의’의 저널리즘적 맹점 : 위근우(전 아이즈 취재팀장)

온라인 매체의 선정적 보도 문제점 : 김언경(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성폭력사건 보도의 법적 문제점 : 정혜선(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성폭력사건 보도의 인권적 문제점 :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남배우A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문제점 :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질의응답

○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 공동주최 :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경과공유 : 서혜진 변호사

- 공대위 발언 : 이명숙(변호사, 한국여성이동인권센터 대표)

홍태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무국장)

남순아(한국독립영화협회)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소장)

- 피해자 직접발언 / 질의응답



○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여성연예인인권지원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을 총 2회 개설하여 총 573,400원 모금이 이뤄짐. 하지만 사건 대응일정에 밀려 가이드라인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 초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하기로 함.

5. 제20회 푸른미디어상

○ 취지

- : 푸른미디어상의 의미 확산 및 시민들의 참여방식 기획
- :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부문인 '성평등상' 신설

○ 후보작 추천 및 후보작 선정

- 대상 : 2016년 11월~2017년 10월까지 지상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 후보작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10월 10일
- 추천 기간 : 2017년 10월 10일~10월 31일
- 추천자 : 일반시청자, 방송프로그램 심의/평가 전문가,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 회원

○ 수상 프로그램 선정

- 최종 수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 11월 24일 최종 심사 회의
- 구성원 : 김동찬(언론개혁연대 사무처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안정임(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왕혜지(미디어 모니터링단)
이승한(TV 칼럼니스트)

○ 시상식

- 일시 : 2017년 12월 13일(수) 오후 7시
- 장소 : 홍대 프리스타일 스페이스 홀
- 식순
- 1부 : 특별프로그램-토크쇼 <“TV속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사회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패널 : 김민지(EBS 까칠남녀 PD), 김은주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 KBS포항 방송국), 류시현(방송인·배우, 2016년 언어상 수상자)
- 2부 : 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사회 : 류시현(방송인·배우, 2016년 언어상 수상자)
- 수상자·수상작
- 푸른미디어·언어상 : 수상자 없음
- 푸른미디어·어린이 : TBC <꿈꾸는 운동장 두두두>
- 푸른미디어·청소년상 : KBS <뽕뽕걸즈>

푸른미디어·가족상 : KBS창원 <내 이름은 정무순>

푸른미디어·특별상 : MBC <PD수첩 -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푸른미디어·특별상 : OBS경인TV<6월 민주항쟁 30주년 특별기획-그 날, 1986년 5월 3일>

푸른미디어·성평등상 : EBS <까칠남녀>



6. 기타 - 회의 및 토론회 · 강의

○ 회의 참석

- 1/6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윤정주)
- 1/20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윤정주)
- 1/2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자문회의(강혜란)
- 1/24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 회의 참석(윤정주)
- 2/3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윤정주)
- 2/7 방통위 방송대상 예심 1차 회의 참석(윤정주)
- 2/15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강혜란)
- 2/16 방통위 방송대상 예심 2차 회의 참석(윤정주)

- 2/17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윤정주)
- 3/3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윤정주)
- 3/7 여성단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세미나 발제(윤정주)
- 3/17 추혜선의원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2차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토론회> 패널(강혜란)
- 3/14 여성정책연구원 정보홍보 성별영향분석 평가 회의 참석(윤정주)
- 3/15 국회 여성 보좌관 대상 여성과 미디어 관련 세미나 발제(윤정주)
- 3/15 여가부 양평원 방심위 공동주최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참관 (윤정주)
- 3/16, 17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워크숍 참석 (윤정주)
- 3/17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 (윤정주)
- 3/24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3/30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고객대표자회의(강혜란)
- 4/6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4/7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참석 (윤정주)
- 4/21 방심위 통신심의특위 참석 (윤정주)
- 4/25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강혜란)
- 5/15~16 방심위 워크숍 참석('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를 주제로 발표) (윤정주)
- 5/18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5/24 여정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관련 자문 회의 참석 (윤정주)
- 5/26 방심위 통신심의특위 참석 (윤정주)
- 6/2 방심위 통신심의 회의 참석 (윤정주)
- 6/22 방심위 <스마트미디어시대 내용규제 방안> 전문가 FGI 참석 (정슬아)
- 6/29 여정연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 회의 참석 (윤정주)
- 7/13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8/3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8/23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 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8/23 지역지상파방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 분과 회의 참석 (윤정주)
- 9/1 지역지상파방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 전체회의 참석 (윤정주)
- 9/15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9/28 신세계TV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촉식 참석 (정슬아)
- 10/16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아날로그종료지원협의체(강혜란)
- 10/18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윤정주)
- 11/16 신세계TV쇼핑 시청자위원회의 참석 (정슬아)
- 12/8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윤정주)

- 12/15 신세계TV쇼핑 시청자위원회의 참석 (정슬아)
- 12/15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개정 자문회의(강혜란)

○ 토론회 참여

- 2/15, 남인순 국회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회 참석 (강혜란)
- 2/28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 패널(강혜란)
- 4/13 방송학회 주최 방송콘텐츠 진흥방안 관련 토론회 참석 (윤정주)
- 4/14 한국방송신문연합회 주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관련 토론회 참석 (윤정주)
- 4/15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토론회 참석 (윤정주)
- 4/27 언론법학회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패널(강혜란)
- 8/10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참석 (강혜란 대표 발표)
- 8/24 한국PD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공동주최 특별 심포지엄 <건강한 방송생태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지상파와 독립PD(외주제작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패널(강혜란)
- 6/2 방송학회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 패널(강혜란)
- 6/29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 패널(강혜란)
- 9/22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언론노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어떻게 할 것인가> 패널(강혜란)
- 9/26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강혜란)
- 1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법>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대응 : '금지하는 규제'와 '지시하는 규제'(홍성수) 발제에 대한 토론참여 (정슬아)
- 10/20 <시청자권익보호제도 평가와 시청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 제도 중심으로> 참석
- 10/27 방송통신정책연구원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패널(강혜란)
- 11/23 방통위 주최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모색> 토론회 참석 (윤정주)

○ 강의

- 4/5 민우회 성폭상담소 상담원 교육에서 미디어와 성폭력 관련 주제로 강의 (윤정주)
- 4/18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미디어 속 여성폭력> 관련 강의 (윤정주)
- 4/27 울산 여성회 <여성과 미디어> 강의 (윤정주)
- 6/16 동국대학교 영상학과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강의 (정슬아)
- 6/20 전성협 워크숍에서 <#연예계_내_성폭력_사례를 통해 본 여성연예인의 차별적 구조 및 개선 방안> 강의 (윤정주)
- 6/2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성평등강사 양성과정-전문강사 '젠더렌즈로 미디어읽기'> 강의 (윤정주)

- 7/6 동북민우회 상담원교육 강의 (윤정주)
- 7/11 장애여성공감 상담원교육 강의 (윤정주)
- 8/30 여성인권진흥원 강의 (윤정주)
- 9/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대상 강의(강혜란)
- 9/19 한국영화아카데미(시나리오, 기획제작) 영화현장 성평등 강의 (정슬아)
- 9/20 동북여성민우회 <요즘 10대 들여다 보기> ‘미디어 속 성차별 넘어서기’ (윤정주)
- 10/24 한국영화아카데미(연출, 시나리오) 영화현장 성평등 강의 (정슬아)
- 11/8 여성인권진흥원 강의 (윤정주)
- 1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대상 강의(강혜란)
- 12/20 한국영화아카데미(예비현장영화인) 영화현장 성평등 강의 (정슬아)

○ 심사

-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대상> 예심 심사 (윤정주)
- 11/24 양평원 <미디어 양성평등 대상> 최종 심사 (윤정주)

○ 기타

- 7월~1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노보 <언론 어때?> 코너를 통해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뉴스, 예능, 드라마 속 성평등 주제로 월 1회 칼럼 연재 (황소연, 정슬아)
- 8/26 23시 온라인상으로 공동행동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진행
- 9/1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진행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1. 사업 총평

1. 사업목표

- 1)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으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운영방식과 역할을 점검하고, 성폭력전담재판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한다.
- 2) 공생의 조건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체의 일상과 관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발굴하고,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 3) 상담소 접수되는 상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제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변화를 만들어 간다.

2. 평가 및 과제

1)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의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렸다. 그리고 피의자 변호사 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피의자 변호사 광고가 성폭력 통념을 강화,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년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하 첫사람)은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부마다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권리 제도를 이해하는 수준이 상이한 현실을 드

러내고 사법제도 안에서의 왜곡된 성인식이 개선돼야 함을 공론화 하였다. 따라서 올해 첫사람은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전담재판부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소재 5개 지방법원의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한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이 실효성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간을 찌푸리고 ‘어’이없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아무말을 ‘갯’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어갯 기획단’을 구성해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피의자 변호사 광고를 분석했다.

재판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해 연초 첫사람 양성교육(필수강의) 및 심화교육(선택강의)을 진행했고, 필수강의 중 성폭력 형사사법절차 강의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서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했을 때 어떠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다뤘다고 평가된다. 선택강의의 경우 2016년 첫사람이 유명연예인 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을 하며 ‘성폭력 무고’에 관한 세미나의 필요를 느껴 필수강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참석할 수 있는 강의로 기획, 진행했다. 성폭력 무고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며, 추후 상담소가 기획하여 대중교육을 진행해볼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교육에는 70명의 시민이 함께 하였고, 43명의 첫사람 재판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서울지역 6개(북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해 총 18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의 경우 피해자 동행이 아니라서 재판 당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모니터링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모니터링 통해 소송관계인 발언, 판검사 질문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 박00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건의 국민 참여재판, 남배우 A 사건 등 피해자 동행을 통한 재판부 모니터링은 꾸준히 진행했고,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민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양적으로 많은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재판 방청을 하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그것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과정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사람 활동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사회 구성원이 반성폭력 운동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개로 존재할 수 있었다. 재판 모니터링은 상담소에서 꾸준히 해온 활동으로, 매해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재판 관계인이 있고 발언의 양이 어느 정도 쌓였기에 유형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 발언을 아카이브 하는 것을 넘어 중단 시

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순간이라 느껴진다. 또 재판 동행 외에도 일상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어캣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 전문성 고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모니터링 등이 부재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웹툰, 기사 등을 통해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성폭력전담재판부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언과 정보공개청구 질의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의 다양한 감각, 아이디어, 문제의식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지역 5개 지방법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향후 필요하다.

기획단은 성폭력전담재판부 정보공개청구 활동과 더불어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광고 분석을 통해 광고의 양을 파악하고 내용을 유형화했다. 지난 몇 년간 첫사람 성폭력재판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사는 가장 문제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소송관계자였으며, 올해 3월 한 법무법인의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지하철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기획단의 조사 결과 카페, 블로그, 기사형 광고, 지식in 등의 플랫폼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의심하면서 막연하게 ‘무고당했다’는 감각을 자극하고, 성폭력을 사소화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사 작성과 결과 발표회를 통해, 피의자 변호사 광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판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성폭력 통념을 벗고 가해자의 논리가 유통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전문’ 문구를 단 피의자 변호사 광고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변호사 검색 시 ‘억울’, ‘실수’, ‘호기심’ 등의 성폭력 피의자 변호 광고로 연결되는 현재 포털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등 후속활동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현재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분석하고, 반성폭력 운동 진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유효한지 전망을 모색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과 회복을 위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이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2017년에 이어온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기 위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차기년도에는 공동체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고자

한다.

2012년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공생의조건>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감수성과 연결돼 있으므로 공동체 문화의 변화로 이어져야한다는 결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의 연속으로 2017년에는 <공생의 조건 시즌 2 :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기>를 진행했다. 2016년 문화예술진영의 성폭력 사건에서 온라인 해시태그를 통해 공론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개념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그 중에서도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토론을 어렵게 하는 여러 장면을 접했다.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토론회를 기획했다.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반성폭력운동 단위의 고민과 개념이 제기됐던 당시 맥락과 현재 반성폭력운동이 펼쳐지는 공동체에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념의 전략 및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체 안에서 개념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공동체의 성찰적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토론회에 360여명이 넘는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는 현재 반성폭력운동을 이어가는 주체들의 누적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민감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이 사업은 반성폭력운동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어가 매뉴얼화·절차화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짚으면서 현재 반성폭력 운동 언어가 정교화 될 수 있도록 성찰적 논의를 처음으로 열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반성폭력운동단위에서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고민한 궤적을 토론회 자료집의 첨부자료로 수록하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과 질문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배포하여 앞으로 이어질 토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거의 처음인 자리였기 때문에 발제 및 토론만으로도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석한 사람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 하는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길지 않은 질의·토론이었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를 둘러싼 이해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개념들을 더 깊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과 담론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상황과 맥락에 기반한 개념의 사용과 새로운 개념 발굴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더욱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2017년도에 걸쳐 문화예술진영에서 성별, 문화적, 상징적, 업무적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사건 발화 흐름이 이어졌다. 공생의조건 매뉴얼 제작에 앞서 공동체의 범위를 한정하여 문화예술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주목하였다. 최근 5년 성폭력 접수 사례 및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 업계종사자 등 당사자 집단 총 11명을 모집하였고 7~8월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연극계, 문학계, 미술계 분야의 인터뷰 대상들과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대응과정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누적된 남성중심적 문화의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각 진영에서 작동되는 문화와 규칙 등을 확인하고, 문화예술진영은 ‘특수하다’라는 명제가 어떻게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는지, 발화 이후 피해자의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진영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력자를 위한 매뉴얼, 즉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석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기에는 단해 사업으로 마무리 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무리 매뉴얼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동체가 매뉴얼에 적힌 대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각 공동체의 조건과 감수성의 현주소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발행되는 매뉴얼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지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이다.

3)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활동 등 현안에 대응하는 활동도 계속되었다. 특히 해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는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위협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명명하고, 해석할지

에 대한 고민의 지속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의 경우 여군 대상 성폭력의 수사촉구 및 종결 사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연대 및 서명 조직으로 문제의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후속 작업으로 퇴역 및 현역 여군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 진행함으로써 매뉴얼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임신, 출산, 신체적 능력 등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평가의 불이익을 받거나, 여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현실 등 여성이 군에서 겪는 성폭력, 성차별 구조를 파악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제안으로 제출하였다.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군을 진단하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활동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군조직 구조와 문화로 인해 접근개입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군의 여성현실을 드러낼 방안과 경로, 나아가 여성단체로서 군대가 한국사회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017년 상담경향을 살펴보면 작년 유명 연예인 성폭력 사건과 #00_내_성폭력 폭로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역고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사건은 친고죄 폐지 이후 신고인과 고소인의 지위로 피해자의 지위가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접수되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알려져야 할 권리와 신고사건과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성 BJ 여성 게임 유저 살해 협박, 여성의 다리에 지속적으로 잉크를 뿌린 남성의 행위 및 채팅어플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많았고, 앞으로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여성에게 위협적인 폭력 상황이지만 성폭력으로 명명할 때 날카롭게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지점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후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명명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의 지속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각 주제별 사업

1.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

1. 첫사람 양성교육

1) 필수 강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00~오후 4:30 100주년기념교회사회봉사관 4층
- 참석: 47명
-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10:00-10:30	집수	-
10:30-12:30	반성폭력 감수성 키우기	정하경주
12:30-13:30	점심식사	-
13:30-15:30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핸들링 하기	정혜선
15:30-16:30	첫사람 재판동행 활동의 의미	정예원

2) 선택강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9:30
- 참석: 23명
- 내용: ‘무고’는 어떻게 성폭력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가 (강사:허민숙)



2. 재판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번	일시	분류	사건유형	수사재판동행지원단
---	----	----	------	-----------

호				
1	3/15	재판 동행	무고	신혜정
2	3/29	재판 동행	강제추행	정하경주
3	3/29	재판 동행	무고	신혜정
4	5/12	재판 동행	강제추행	정하경주
5	5/26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서울중앙지 법)	준강간	신혜정 외 11명
6	6/12	성폭력 전담 재판부 모니터링(남부지법)	준강간, 준강제추행	신혜정, 김현지, 이직녀, 최복경, 문정희, 광민주
7	6/14	재판 동행	무고	신혜정
8	6/20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동부지법)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	신혜정, 김현지, 이규리, 이선화, 강고, 최복경, 심현지
9	6/22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동부지법)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	신혜정, 김현지, 박혜란
10	6/28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서울중앙지 법)	강제추행, 준강간 등	신혜정, 김현지, 강고, 최우림, 배은아, 만두
11	6/30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서울고등법 원), 재판 동행	준강간, 강간 등	신혜정, 강고, 단비, 호두, 이진솔
12	7/4	국민 참여 재판 동행	무고, 명예훼손	신혜정, 김현지, 강고, 최복경, 지선, 최우림, 이진솔, 정필금, 서진
13	7/14	재판 동행	강제추행	이소희, 정하경주, 최복경, 강선자, 최우림, 만두, 하늘, 호두
14	8/11	재판 동행	강제추행	신혜정, 김현지, 하늘, 이선화
15	9/21	재판 동행	무고, 명예훼손	신혜정, 김현지, 이진솔, 오성미, 배은아, 강고, 정필금
16	10/13	재판 동행	강제추행	김현지, 정하경주, 정필금, 강고, 문정희
17	11/9	대법원 재판 모니터링	강간	신혜정, 김현지, 강고, 권용주
18	11/24	재판 동행	무고	신혜정
19	11/28	재판 동행	강제추행	신혜정, 정필금
20	11/30	성폭력 전담재판부 모니터링(서부지법)	강제추행	신혜정, 김현지

3. 미어캣 기획단

1) 1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나루 지하1층
- 참석: 배동미, 변지현, 이남주, 이선주, 지영, 정지은, 김현지, 정하경주, 신혜정
- 내용: 자기소개, 활동 계획 및 성폭력전담재판부 관련 간단한 정보 공유. ‘성폭력전담재판부, 그것이 알고싶다’와 ‘아무말대잔치, 어떻게 할것인가’ 아이디어 나누고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해 궁금한 점 각자 다음 모임까지 찾아오기로 함.

2) 2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갤러리원 카페
- 참석: 변지현, 이선주, 여지윤, 지영, 정민경, 정지은, 김현지, 신혜정
- 내용: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해 각자 찾아온 내용 공유 및 세미나. 형사사법절차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실제 사례나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실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3) 3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나루 지하 1층
- 참가자: 변지현, 이선주, 여지윤, 지영, 장소령, 정민경, 정지은, 김현지, 신혜정
- 내용
 - 성폭력 전담재판부, 성폭력 재판에 대한 문제의식 정리 : 재판부 자체 모니터링, 인권감수성 교육과 학술 세미나 및 사법연수원, 로스쿨 단계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 공유
 - 광고분석: 성폭력 피의자 대응 정보를 담은 도서에 대해 논의함. 법무법인 홈페이지 및 포털 상위링크 현황, sns·카페·블로그·기사형광고·지식in 등 온오프라인 광고 유형별로 담당 나누어 찾아보고 5차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함

4) 4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상담소
- 참가자: 변지현, 이선주, 여지윤, 정지은, 김현지, 신혜정
- 내용: 정보공개청구 내용 정리. 피고인 변호사 광고 전반의 문제점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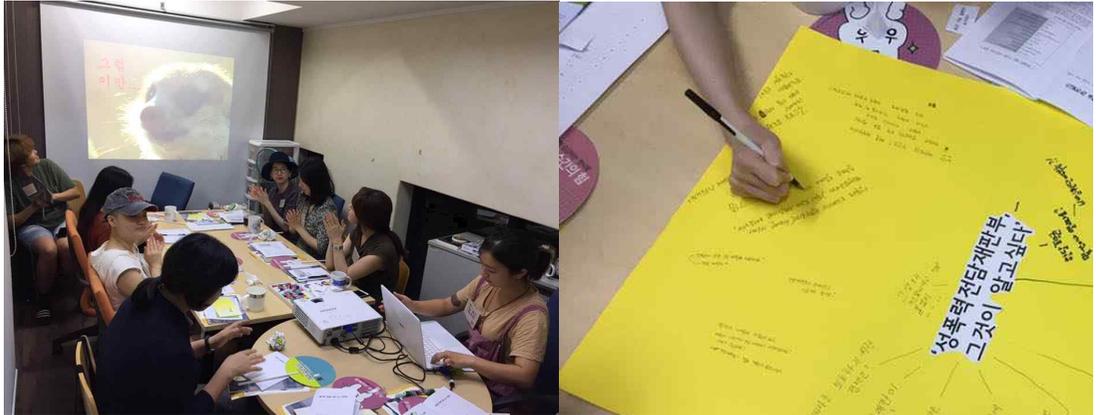
5) 5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갤러리 원
- 참가자: 장소령, 정지은, 김현지, 신혜정
- 내용 : 대법원에 9월 5일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유함.

6) 6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3층 회의실
- 참가자: 김예린, 장소령, 정민경, 정지은, 지영, 김현지, 신혜정
- 내용: 9월 29일 발표회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으로> 준비 회의

웹툰 검토, 토크쇼 질문 내용, 폰트 구성, PT 제작 등 역분 및 논의



4. 성폭력전담재판부 정보공개청구

1) 접수 일시

일시	기관
2017년 9월 5일	대법원(일부 청구는 사법연수원으로 이송)
*2017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운영 전반을 대법원이 파악하고 관리할 것으로 판단해 대법원에 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해와 서울지역 6개 지방법원에 각 각 정보공개 재청구.

2) 청구 내용

성폭력전담재판부 법관 임용 기준, 임기, 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여부, 성폭력전담재판부 자체 모니터링 시행 여부, 한해 판결한 사건 수와 판결 결과, 성폭력 외 형사사건 수, 여성법관 수, 문제적 발언이나 부당한 퇴정조치 등에 대한 민원 시 법원 조치 등

3) 대법원 회신 내용(일부 요약)

정보공개청구	답변
법관 임용기준	없음
근속기간	약 2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세미나	연 1회 신입법관 대상 연수(1박2일) 〈피해자보호방안과 재판장의 피해자를 위한 배려조치〉, 〈성폭력범죄의 심리절차 및 적정한 양형〉,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관련 주요 추진사업〉,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부수처분〉, 〈성폭력사건 재판에서 전문 심리위원 재판참여 및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소년부송치의 기준 및 관련 토론〉, 〈종합토론〉

자체 모니터링

없음

5. 2017 첫사람 발표회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창비 지하 2층
- 참석자: 약 60여명
- 내용:
 - 성폭력 피고인 변호사 광고분석 내용 발표(이선주)
 - 아무말 시상식(장소령, 정지은, 이소희, 정예원)
 - 토크쇼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김홍미리, 이선미, 정혜선)
- 발표회 후기 업로드(2017년 10월 16일)



6. 미어캣기획단 활동 기사 게재

1) '혁'소리 나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이유있었다(오마이뉴스)_2017년 10월 21일



성폭력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획단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월 5일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후 답변 내용을 기사화함. 웹툰은 기획단 장소령 제작, 기사문은 기획단 정지은 과 활동가가 작성함. (조희수 11/28 기준 15,894회)

2) 검색창에 '억울하다' 쳤더니,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광고가?(오마이뉴스)_2017년 11월 9

일

기획단의 성폭력 피의자 변호사 광고 조사 및 유형화한 내용에 따라 기획단 이선주, 정민경과 활동가가 작성함. (조희수 11/28 기준 8,313회)

3) 판검사의 2차가해, 지켜보기만해도 줄쫓(경향신문)_2017년 11월 30일

서부지법 모니터링(11/30) 후 첫사람 재판동행 및 미어캣 활동(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인터뷰 진행함.

2. 공생의 조건 :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1.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1) 내부 세미나

- 일시: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김현지, 강혜란, 이소희, 신혜정,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2012 공생의조건 토론회 자료집 검토 및 2017년 공생의 조건 활동 목적 및 방향 논의
- 목표 :

① 성폭력에 대한 정의 정리 및 성폭력 관련 개념(2차 가해, 피해자 중심주의 등)에 대한 평가 및 제안을 대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성폭력'만'이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가장' 문제라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성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려운 '문제적 행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이름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획회의

- 일시: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권김현영, 오혜진, 전희경,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3) 민우회 발제문 작성을 위한 1차 내부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8일, 4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김민문정, 김현지,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신혜정
- 내용: 민우회 발제문 목차 논의, 민우회 발제문 초안 검토 및 논의

4)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1차 전문가 기획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27일, 4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권김현영, 오혜진, 전희경,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토론회 발제&토론 논의 결정, 토론회 일정 확정, 토론회 세부 운영 방안 논의

5) 2017 공동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2:00, 마포구청 대강당
- 참석: 약 360명
- 내용:

-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며_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발제2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_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활동가)
 - 발제3 :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_전희경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발제4 : 문단 내 성폭력을 중심으로 바라본 '2차 가해'에 대해 : 이자혜사건을 중심으로_오혜진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토론자 :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소 올림)이수경(민주노총여성위원회), 장임다혜(형사정책연구원), 김주희(여성학자)



2. 공생의 조건 시즌2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기획 회의

1) 기획회의

- 일시: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3: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사업 목표, 대상 논의, 내부세미나팀 구성, 운동사회 성폭력 관련 내규 사전 조사(노조, 협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2) 인터뷰이 선정을 위한 내부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회의실
- 참석: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문화·예술진영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및 주변인 인터뷰이 집단 확정, 사업 진행동선 논의

3) 최근 5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문화·예술 진영 성폭력 접수 사례 및 가해자 교육 내용 검토

-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회의실
- 참석: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논의내용: 상담사례 및 가해자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 질문내용 확정, 인터뷰이 모집 홍보 방안 확정

3.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심층 인터뷰

1) #STOP_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인터뷰이 모집

- 모집기간: 2017년 7월 14일~7월21일
- 모집방법: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및 운영 SNS 홍보, 찍는페미 등 문화예술진영 관계자 인터뷰 요청서 전달

2) 심층 인터뷰

- 기간 및 장소: 2017년 7월 25일~8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등.
- 내용: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5명을 인터뷰. 2016년 문화·예술진영의 #000_내_성폭력 운동 흐름에 기반, 문화예술진영 성폭력 피해자 및 주변인 인터뷰
- 인터뷰이 분야별 구성: 영화·연극계 4명, 문학계 3명, 미술계 4명 진행
- 인터뷰이 특성:

	분류	나이	성별	종사업계	세부내용	활동연차
1	A	25	여	영화계	배우 지망생	3년
2	B		여	연극영화과 학부생	연출자 지망생	4년
3	C	36	남	영화계	연출, 제작, 배우	4년
4	D	33	여	연극계	배우	5년
5	E	23	여	문예창작과 휴학생	예고졸업, 작가 지망생	4년
6	F	34	여	출판사 마케터	출판사 마케터→ 노조성폭력특위	5년
7	G	37	여	출판사 편집자	영화 제작사→ 출판사 편집자	10년
8	H	22	여	미술관련 학과 학부생	전시기획 및 관련 단기프로젝트	5년

9	I		남	미술언론	미술잡지 편집장	5년
10	J	25	여	디자인학과 졸업생	현재 진로탐색 중	4년
11	K	29	여	시각미술 작가	시각미술 작가	6년

3. 심층인터뷰 사례 분석

1) 심층 인터뷰 내부 분석회의 3회 진행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16 수요일, 8월 21일 월요일, 9월 6일 수요일,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김현지,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신혜정
- 내용: 인터뷰 분석 키워드 도출, 키워드 기반 사례 토론

2) 심층인터뷰 전문가 분석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이선미, 이임혜경, 김현지, 강혜란,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신혜정
- 내용: 인터뷰 분석 보고서 검토 및 문화·예술 진영 성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 토론

3)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심층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력자를 위한 매뉴얼, 즉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하고자 했음.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석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기에는 단해 사업으로 마무리 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함.

3. 일상 이슈 대응

1. 더러운 잠 대응

- 일시: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 내용: 표창원 의원의 시국풍자 전시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침삭지도 sns, 홈페이지 게시

2.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사건 대응

1)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서명 및 공개요구

(1)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_2017년 5월 26일

-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군 A대위 사건을 수사하라!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연대단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 온라인 서명

- 일시: 2017년 5월 26일 ~ 5월 31일 총 6일간
- 참여자: 5,920명

(3) 공개요구서 및 서명지 전달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00, 국회 정론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국방부 종합민원실

(4) 진행 경과

① 국가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직권조사 기획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후 3:00,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
- 참석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조사총괄과

② 해군: 특별조사위 자문위원으로 전성협 참여

2)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 일시: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 내용: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3) 젊은여군포럼 비공개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후 2:0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석: 젊은여군포럼(김은경, 류영숙, 최기봉),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내용: 군대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발생 매커니즘, 성폭력 예방지원시스템 구성과 운영 현황, 형사사법체계 및 군 지휘체계, 군대 내 성평등 현황, 여성군인의 지위에 대한 질의응답

4) 현역 여군 비공개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4:3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석: 현역 여군 2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 내용: 군대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발생 매커니즘, 군 지휘체계, 현역 여군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5)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단위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4:3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내용: 짧은여군포럼·현역여군 간담회, 진성협 해군 방문, 동향 보고함.

6)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 일시: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대상: 국방부, 여성부, 국회국방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내용: 성폭력 대응지원 매뉴얼 실효성 높이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예방교육 강화, 처벌 가능성 높이기 위한 군 사법체계 전면검토, 여군 배제적이지 않은 업무환경 마련, 여군 비율 확대, 독립적·실효적 지위를 지닌 군대 내 성평등 기구 배치

7) 인권위 성폭력 실태조사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3:00, 국가인권위원회
- 참석: 김현지, 이미경, 김은경, 최재경, 방혜린, 이경환, 강석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이기성, 이수연 주무관, 최혜리 전원위원(인권위)
- 내용: 2014-2017 징계기록을 통해 군사법원 판결 및 양형 적정성 논의, 2013 여군 인권증진 정책 권고 이행 여부 등 검토(자료 대외비)

3.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1) 열린 포럼 ‘성 평등과 교육’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00, 광화문 세종로 공원
- 내용: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정책, 젠더 폭력 실태와 예방교육, 성소수자 인권과 교육

2)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정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6월 22일 목요일, 10월 30일 화요일,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참석: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내용: 열린 포럼 기획 회의, 여가부교육부 민관협의회 구성 관련 논의, 포성넷 연대 제안

4.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 일시: 4월 3일(월) 1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2) 유명 박00 사건 국민 참여 재판

- 일시: 7월 4일(화)
- 참석: 신혜정, 김현지, 강고, 최복경, 지선, 최우림, 이진솔, 정필금, 서진,

3)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기자회견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기자회견

- 일시: 7월 7일(금) 11시 30분
-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4) 유명 박00 사건 항소심 재판 동행

- 일시: 9월 21일(목)
- 참석: 신혜정, 김현지, 이진솔, 오성미, 배은아, 강고, 정필금

5.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토론회 및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1) 대선 정책토론회

- 일시: 2017. 3. 7.(화) 10:00 - 12:30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주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 주관: 한국여성의전화
- 내용:

시간	내용
10:00 - 12:30	<p>사회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현장단체 발표.</p> <p>「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성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p>❖ 패널 발표.</p> <p>「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당별 핵심 정책 및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전문위원) - 이상은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p>☒ 종합토론</p>
--	---

2)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7일 오후 1:00,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주최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 67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29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내용:

시간	내용
13:00 - 13:30	사회_ 송란희(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재인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3. 참가자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6.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 제정 관련 현장단체 논의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5일 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27일 목요일, 11월 10일 금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
- 참석: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단체연합
- 내용: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범명 및 정의규정, 기본법의 형태와 역할 등 논의

7. 성폭력 가해자 감형목적기부행위 규탄 기자회견 및 대법원 의견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서울지방법원 앞
- 발언:

-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정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국성폭력상담소 사례조사결과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 정수경 변호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 문제점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4. 조직사업

1. 민우상담네트워크

<1차>

-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오후 12: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고양파주여성민우회(고양성폭력상담소, 피해자쉼터 하담, 파주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쉼터 다솜누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내용: 1월-3월 활동 및 4-5월 계획 보고, 지원사건 공유, 2015년-2016년 전국상담통계 및 대선정책 논의

<2차>

-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12: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고양파주여성민우회(고양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피해자쉼터 하담),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피해자쉼터 다솜누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내용: 4-6월 활동 및 하반기 계획 공유, 상담 사례 논의 등

<3차>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 12: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고양파주여성민우회(고양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피해자쉼터 하담),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피해자쉼터 다솜누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내용: 7-10월 활동 및 11-12 계획 공유, 젠더폭력기본법(가)논의, 민우상담네트워크 회의 평가 및 계획 논의

2. 운영자문위원회

<1차>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오후 3:3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성원: 김영애, 이선미, 유경희, 최지은, 황금소영, 강혜란, 이소희, 정하경주
- 참석: 이선미, 유경희, 최지은, 강혜란, 이소희, 정하경주,
- 내용: 2017년 상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 2017년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2017년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한 코멘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2차>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3:3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성원: 김영애, 이선미, 유경희, 최지은, 황금소영, 강혜란, 이소희, 정하경주
- 참석: 이선미, 유경희, 최지은, 황금소영, 강혜란, 이소희, 정하경주,
- 내용: 2017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7년 활동 평가 및 2018년 사업계획 논의

5. 교육사업

1.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일시: 2017년 3월 16일~4월 6일 월~금 오전 10:00- 오후 6:00 (총 100시간)
-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배움나루터
- 참석: 24명
- 내용:

차시	날짜	시간	강의 주제	강사/진행자
1	3 / 16 (목)	10-1 1 12-3 3-6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반(反)폭력 감수성 키우기 여성주의, 세상을 보는 관점	정애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하경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진협 민우회 사무처장
2	3 / 17 (금)	10-1 2 1-4 4-6	가해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의 오류 반(反)성폭력운동을 만나다. 위계와 권위주의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정하경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3	3 / 20 (월)	10-1 2 1-4 4-6	10대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현대사회 섹슈얼리티의 이해 1. 현대사회 섹슈얼리티의 이해 2.	김백애라 가톨릭대학교 강사 정희진 여성학자 정희진 여성학자
4	3 / 21 (화)	10-1 2-5	여성운동의 역사와 쟁점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나 인간의 성 깊게 이해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재윤 비운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5	3 / 22 (수)	10-1 2 1-3 3-5	상담의 원리와 기법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의 산부인과적 의료지원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이지혜 서울지방경찰청 CARE요원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6	3 / 23 (목)	10-1 2 1-3 3-5	유형별 1.친족 아내폭력 실태와 지원체계 성매매에 대한 이해	송미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주희 이화여대 강사

7	3 / 2 4 (금)	10-1 2 1-3 3-5	이주여성인권 실태와 상담 유형별 2.장애인 유형별 3.아동	허요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8	3 / 2 7 (월)	10-1 2-4 4-6	여성주의상담 1.역사와 개념 여성주의상담 2.원리와 실제 여성주의상담 3.원리와 실제	김민예숙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김민예숙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김민예숙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9	3 / 2 8 (화)	10-1 2 1-3 3-5	유형별 4.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유형별 5.직장 내 성희롱 유형별 6.동성 간 성폭력	이선미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 활동가 류형림 민우회 여성노동팀 레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0	3 / 2 9 (수)	10-1 2 1-4 4-6	유형별 7.대학 내 성폭력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사례토론 1.	최김하나 대학 성평등상담소 연구원 문미정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강사 정예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1	3 / 3 0 (목)	10-1 2-5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법절차 성폭력 법 담론-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12	3 / 3 1 (금)	10-1 2 1-3	여성의 몸을 둘러싼 쟁점-낙태 비범죄화 운동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으로 운동하기	제이 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 정예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3	4/3(월)	10-1 2-4	성폭력재판 모니터링 성폭력재판 모니터링 방문후기 및 토론	정예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혜정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4	4/4(화)	10-1 2-6	공생의 조건 1.가해자를 말하다 사례토론 2.	이임혜경 민우회 정책위원 신혜정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5	4/5(수)	10-1 2 1-3 3-5	성폭력 상담에 있어 여성주의 인식의 중요성 미디어 속 성폭력, 성평등 감수성 키우기 공생의 조건 2. 성폭력 직면하고 다시살기	유경희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 윤정주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정하경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6	4/6(목)	10-1 2-4 4-6	상담실습 1. 상담실습 2. 수료식	이소희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이소희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후속스터디>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7일, 6월 14일, 7월 12일, 7월 26일, 8월 9일 오후 7:30
- 참석자: 권하늬, 박규리, 박정훈, 배수연, 신성연이, 조진영, 최민서, 황지현, 정하경주
- 내용: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렸죠>, <강간은 강간이다>, <아주 친밀한 폭력>, <페미니스트 모먼트> 세미나

2. 출강 및 대중교육

1) 성폭력 관련 일반 및 심화교육

- 1월 13일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청소년아카데미(한독협) 성폭력예방교육_이선미(썬)
- 3월 3일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의 역사_정하경주
- 3월 20일 단국대학교 영화학과 학생회 성폭력예방교육_이선미(썬)
- 5월 10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유형별 성폭력 데이트성폭력과 스토킹’_이소희
- 5월 18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재판동행지원’_정예

원

5월 19일 원주여성민우회 스물, 여성주의 길을 잇다(상지대학교)_정하경주
6월 1일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반성폭력 감수성 키우기>_신혜정
6월 21일 민주노총 성폭력개념 다시 쓰다_정하경주
6월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사교육 '반폭력 감수성 키우기'_정하경주
6월 28일 안양여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공생의 조건'_정하경주
7월 10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성폭력 피해자지원'_정하경주
7월 17일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교육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재판동행지원으로 운동하기'_정예원
7월 27일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교육 공생의조건_정하경주
7월 31일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교육 상담실습_이소희
8월 24일 한국여성민우회 '열길 성교육 워크샵'_정예원
10월 17일 안산 YWCA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으로 지지하기"_신혜정
11월 7일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심화교육 '사이버성폭력'_정예원
12월 4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하여_이소희

2) 거리성교육

(1) 거리성교육 강사 교육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3:00, 원경선배움나루터
- 참석: 백향숙, 황지현
- 진행: 신혜정
- 내용: 성지식테스트, 피임 실습,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거리성교육 강사 교육

(2) 경인여자대학교 거리성교육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00. 경인여자대학교
- 진행: 백향숙, 황지현, 신혜정
- 내용: 성지식테스트, 다양한 피임방법 실습,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 평가:

① 교구 교체 및 참여 프로그램 내용의 업데이트 필요함.

② 상담원 교육 이수자와 함께 거리 성교육 나간 것 의미 있었음. 수료자들과 접촉면을 만들어 가는 자리였음.

③ 2018년 사업 계획 때 성교육 강사풀 확장 및 어떤 내용으로 대중을 만나고, 성교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도록 함.

(3) 거리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교구 재정비

① 다양한 피임방법 및 콘돔실습



- ② 성지식테스트 : 왜곡된 성폭력통념이 적힌 첫사람 대중캠페인 판넬에 다트로 풍선을 터트려보는 활동을 통해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 ③ 성적의사소통 : 기존 20대 성적의사소통 설문 조사 결과 X배너에 참가자가 직접 설문에 스티커를 붙이게 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 첫사람 캠페인 네컷 만화 판넬 이용하여 성적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스트잇에 써보는 참여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게 개정.
- ④ 성의식 징검다리 : 기존 성의식 징검다리가 정해진 '정답'을 선택하게 한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력의 맥락 성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성역할 고정관념, 나이주의, 동성애혐오, 복장 및 외모 평가, 성적 대상화, 연애 각본 등.) '성폭력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도입 설명과 첫사람 캠페인 '이 안에 있어'일러스트 판넬로 구성.

(4) 가톨릭대학교 거리성교육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12:30, 가톨릭대학교
- 진행: 이소희, 정예원, 신혜정
- 내용: 성지식테스트, 성적의사소통, 성의식징검다리
- 평가

- ① 교육 운영에 대한 논의, 점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 필요.
- ② 캠퍼스 내 성폭력 상담사례 바탕으로 내용 구성.
- ③ 거리캠페인 부스 특성상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명료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험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 ④ 학내 페미니스트들과 성교육 내용 및 교구 정비를 사업적으로 구상해보면 좋겠다.

3. 성폭력가해자 교육

1) 진행 현황

의뢰기관	가해자	가해유형	일시 / 회차	교육자
------	-----	------	---------	-----

1	A대학병원	의사	성폭력	2017년1월12일~2월9일 (10회기 완료)	유경희
2	B재단	상근활동가	성추행	2017년2월7일~3월23일 (10회기 완료)	이소희
3	C대학교	대학생	데이트 성추행	2017년 2월9일~3월3일 (4회기 완료)	정하경주
4	D대학교	대학생	남학생 단독방사건	2017년2월14일~4월7일 (10회기 완료)	신혜정
5	개인 의뢰	단체 회원	언어 성희롱 및 성추행	2017년4월17일~5월19일 (10회기 완료)	이임혜경
6	E 단체	단체 대표	성추행	2017년4월26일~8월1일 (10회기 완료)	정하경주
7	F대학교	대학교직원	언어성희롱 및 성추행	2017년6월14일~7월26일 (15회기 완료)	이선미(썸)
8	G대학교	학생회장	성추행	2017년11월13일~12월6일 (10회기 완료)	이임혜경
9	H교회	전도사	성추행	2017년11월20일~2018년 1월 (10회기 종료 예정)	이선미(너굴)

2) 가해자 교육 진행자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오후 2:00,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 참석: 김현지, 신혜정,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가해자 교육의 실제 및 슈퍼비전
- 강사: 이선미(썸)

3) 가해자교육관련 서식 개정

- 가해자교육 의뢰서, 가해자교육 일지 등 공통 서식 마련.

4. 활동가 교육

1) 활동가 스터디 ‘활개’

-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오후 1:30, 카페 그린나무
- 참석: 김현지, 신혜정,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 내용: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발제 및 주요 쟁점 토론

6. 상담(지원)사업

1) 상담 및 피해자 지원

구분	피해유형	지원기관	담당	담당자	비고
----	------	------	----	-----	----

			변호사		
법률	성추행		박유빈	정예원	민사소송
법률	성추행			이소희	1심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의료	성추행	해솔마음클리닉		정하경주	의료비지원 종료
의료	강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소희	가족 의료비지원
법률	강제추행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보라	신혜정	
의료 / 법률	준강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무고 피의자 진술 경찰 수사동행(9/18)		이소희	성폭력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가해자 피해자 무고 건 경찰서 수사 동행
법률	강간			정하경주	경찰서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법률	준강간, 성추행			이소희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법률	성추행			이소희	인천고등검찰청 의견서 제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이소희	민사소송 준비 중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성희롱	나우리	김연재	정경주	변호사 사무실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직장 상사 성추행			이소희	형사 고소 진행 중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성적소문유포		사선	정예원	상담사실확인서발급
법률	친족성폭력			정예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강제추행	대한변협	정혜선	김현지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강간	대한변협	천정아	김현지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의료	준강간 등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김현지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강간			신혜정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법률	강간			신혜정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의료	직장 내 성희롱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노동팀	의료비 지원
의료	카메라이용촬영 유포	해솔마음클리닉		신혜정	의료비 지원

2) 상담분석

1. 연속상담 및 면접상담 비율 증가

총 559건의 상담에 대해 1035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성폭력상담은 470건으로 924회 이루어졌다. 전체 상담 559건 중 성폭력 외 상담은 89건(15.9%)으로 111회 이루어졌다. 올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경향을 반영해, '상담방법' 항목에 'SNS'를, 성폭력 해결방식 중 '개인' 항목에 '공동체 내 해결'을 추가하여 상담일지를 개선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담건수(명)	46	38	54	34	55	60	55	34	51	44	59	29	559
상담횟수(회)	81	79	96	68	83	107	115	72	95	72	108	59	1035

2017 전체상담건수 및 횟수(단위: 건, 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담건수(명)	38	35	41	28	50	52	45	27	44	38	48	24	470
상담횟수(회)	71	76	79	62	76	99	105	62	83	65	93	53	924

2017 성폭력상담건수 및 횟수(단위: 건, 회)

전체상담건수 559건 가운데 단회상담 408건, 2회이상 연속상담 151건으로 연속상담의 비율이 27.0%를 차지해, 2016년 연속상담 대비 8% 증가했다.

구분	상담건수	비율
단회상담	408	73.0%
2회이상 연속상담	151	27.0%
합계	559	100.0%

2017 연속상담 여부(단위: 건)

면접상담(내방면접³⁾, 동행방문⁴⁾, 가해자교육) 횟수가 2016년 11%에서 2017년 17.1%로 증가했으며 특히 내방면접은 2016년 67회(6.1%)에서 2017년 83회(8.0%)로 증가하여 단회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올해 성폭력상담소는 '상담방법' 항목에 SNS를 추가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민우회 SNS계정

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까지는 SNS를 통해서 상담문의를 하는 경우 이메일, 상담전화를 권유하여 분류하거나 온라인게시판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메일, 온라인 상담과는 별도로 21회(2.0%)의 내담자가 SNS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화	이메일,온라인	SNS	면접			합계
				내방	동행, 방문	가해자교육	
2017	779 (75.3%)	57 (5.5%)	21 (2.0%)	83 (8.0%)	16 (1.5%)	79 (7.6%)	1035 (100%)
2016	927 (83.7%)	59 (5.3%)	-	67 (6.1%)	23 (2.1%)	31 (2.8%)	1107 (100%)

2016-2017 상담방법 별 상담횟수 (단위: 회)

2. 피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기준 마련 및 적용이 필요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320건(54.98%), 강간 124건(21.31%), 통신매체·사이버성폭력이 61건(10.48%), 스토킹이 38건(6.53%)이다.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 상담은 39건(6.7%)이다. 강간의 경우 2016년 50.97%에서 2017년 58.06%로 늘어났으며, 준강간은 29.68%를 차지한다.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폭행, 협박 여부에 따라 강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강간 상담사례의 경우 폭행, 협박을 동반하기보다는 업무상 위력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폭력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주취, 약물 등)에서 가해를 하는 경우 정확한 피해진술이 어려운 특성과 가해자와 아는 관계에서 친밀감을 표시했던 언행이 불리하게 작용해 불기소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성폭력 경험을 반영하고 포괄하지 못하는 성폭력 처벌법 현실에 대한 검토와 강간 판단 기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유형	건수	비율(%)
성희롱/성추행	320	54.98%
강간	124	21.31%
통신매체/사이버	61	10.48%
스토킹	38	6.53%
미파악	39	6.70%
계	582	100.00%

2017 성폭력 피해유형 (단위: 건/ 중복집계)

통신매체·사이버 성폭력 피해상담 또한 2016년 8.99%에서 10.48%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한 상담이 28건(45.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 등 유포 협박 상담이 20건(32.79%)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9월 디지털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종합대책은 영

상 촬영 및 유포에 초점을 맞추어 삭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상 유포 협박 상담 사례에서는 영상물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협박 자체가 여성을 통제하는 유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이 확보 되지 않은 유포 협박의 경우 형법 상 협박죄로만 다루지기에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이슈파이팅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유형	건수	비율
영상등유포 및협박	20	32.79%
카메라 등 촬영	28	45.90%
전화	4	6.56%
온라인	8	13.11%
기타	1	1.64%
계	61	100.00%

**2017 성폭력 피해유형-통신매체·사이버성폭력(단위:
건/중복집계)**

3.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00_내_성폭력 공론화

교육자, 공직자, 종교인,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 의료기관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를 한 경우, ‘가해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통념으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은 성폭력 상담 470건 가운데 122건을 파악하였으며, 교육자 19.67%, 문화예술인 18.03%, 의료기관 종사자 15.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인 22건 가운데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관계는 9건(40.9%), 교사, 강사 관계는 5건(22.7%)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부터 시작된 #00계_내_성폭력 공론화는 다양한 직군과 문화예술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페미니스트 예술가 연대체 결성, 창작물 제작, 소송 등의 대응으로 나아갔다. 가해자가 문화예술인으로서 명성이 있으며 동시에 직업적 관계나 교사 등의 관계인 경우 신뢰관계, 인맥, 지원 등을 빙자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문화예술계에서의 평판과 창작활동을 염려하여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된다. 2017년 접수된 상담사례 가운데에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문제제기한 후 상대방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역고소를 당하거나 협박받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성폭력상담소는 첫사람 재판모니터링단과 함께 남배우 A 사건을 재판동행하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인식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18년에는 2017년 진행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공생의 조건 시즌 2’ 사업의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자	공직자	종교인	의료기관	경검법조인	문화예술인	기타	계
-----	-----	-----	------	-------	-------	----	---

24	6	12	19	2	22	37	122
----	---	----	----	---	----	----	-----

2017 성폭력 가해자 직업 (단위: 건)

4. 역고소(무고·명예훼손 피소 또는 협박)상담비율 증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공론화하여 가해자가 이를 무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무고인지 된 상담사례의 비율이 2016년 19.63%에서 2017년 31.3%로 증가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한편 성폭력 무고가 높다는 왜곡된 정보 유통과 성폭력 무고를 의심·경계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역고소가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위한 쉬운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일관되고 신중한 성폭력 무고 기준을 마련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구분	2017	
검경의 강압적, 성차별적 태도	7	14.6%
합의 중용	5	10.4%
개인정보, 진술 유출	1	2.1%
역고소	15	31.3%
공소시효	3	6.3%
증거불충분	8	16.7%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 배제	1	2.1%
기타	8	16.7%
계	48	100.0%

2017 성폭력 해결방법 - 법적대응에서의 어려움 (단위: 건/ 중복)

5. 공동체 내 성폭력,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하는 문제의식 확산

2017년 성폭력상담소는 사건 해결방법 중 ‘개인’ 항목에 ‘공동체 내 해결 고려’를 추가했다. 이는 개인 조력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조직, 동아리 등) 내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부터 조직문화의 변화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상담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피해자, 제3자, 책임자 등의 공동체 내 해결 고려 상담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그 결과 공동체 내 해결을 고려하는 내담자 비율이 44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과를 받거나(26건, 20.0%) 가해자교육(18건, 13.8%)을 선택하는 비율이 뒤를 이었다. 많은 피해자 및 조력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감지했으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나서서 성폭력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성폭력이 용인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8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7년에 이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법: 공생의 조건 시즌 2’ 사업을 진행 하여, 공동체의 문화를 점검하고 공통의 약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워크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구분	건수	비율
가해자교육	18	13.8%
사과	26	20.0%
제명, 해고	9	6.9%
휴학, 휴직	6	4.6%
감봉	0	0.0%
피해보상	7	5.4%
공동체 내 해결 고려	44	33.8%
기타	20	15.4%
계	130	100.0%

**2017 성폭력 해결방법 - 개인, 공동체 (단위: 건/
중복집계)**

7. 홍보사업

2월 3일 노컷뉴스 전화예고 성범죄 예고글 파문...경찰 수사 착수_인터뷰
2월 15일 아이즈[더러운 잠]꼬리에 꼬리는 무는 여성혐오 끊기_활동 홍보
2월 20일 한국일보 '사이버 스토킹에 별별 떠는데...경찰은 '블로그 닫고 기다리세요'_인터뷰
3월 7일 노컷뉴스 '성희롱 단톡방'에 '몰카'까지...상아탑 왜 이러나_인터뷰(신혜정)
3월 8일 투데이신문 "여성폭력 근절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현장취재]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3월 8일 경향신문 영화인·여성단체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성폭력일 뿐이다" 기자회견
3월 10일 씨네21 [국내뉴스] 세계 여성의 날에 진행된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기자회견
5월 1일 22살 알바생에게 "같이 밥먹자"며 자꾸 작업거는 22살 아저씨_인사이트_2014년 한국여성민우회 스토킹 상담통계 인용
5월 29일 위키트리 '민우회 여성의전화 등 각종 여성단체, 해군 성폭력 진상조사 촉구'_공개요구 안보도
6월 1일 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하라" _경향신문
6월 1일 해군 대령 성폭력 사건 진상요구 기자회견_연합뉴스

3) 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

4) 피해자의 수사·재판기관 출석에 신뢰관계인으로 동행

6월 2일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_시사인

7월 3일 여직원이 데이트 거절하자 '10가지 이유' 대라는 직장 상사_인사이트_2014년 스토킹 상담통계 인용

7월 10일 ‘꽃뱀’ 몰린 성폭력 피해자 향해 “상대방 좋아했냐”고 묻는 검사_여성신문_〈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 2014년 기획포럼 자료 인용

7월 11일 살인까지 부르는데... 스토킹 처벌 고작 10만원_문화일보_2014년 스토킹 상담통계 인용

7월 14일 ‘꽃뱀’ 몰린 성폭력 피해자 향해 “상대방 좋아했냐”고 묻는 검사_여성신문_2014년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 자료 인용

7월 24일 학내 성폭력 공론화 폭발하는데...보조 못 맞추는 대학_노컷뉴스_인터뷰

8월 17일 수영장 몰카 '위장전술'... "샤워실 수도꼭지까지 살핀다"_오마이뉴스_신혜정 인터뷰

9월 20일 “갈 안 듣게 만들기보다...” 몰카 피해 방지 토론회 열려_경향신문_정하경주 토론회 토론 내용 인용

10월5일 성폭력 저지르고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변호전략' 논란_파이낸셜뉴스_정하경주 기자회견 발언 내용 인용

10월22일 해마다 느는 '치마 속' 촬영범죄... “경찰 대응만으론 역부족”_천지일보_정예원 인터뷰

8. 연대사업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30,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석: 전국 성폭력상담소 127개소
- 내용: 시민감시단 시상, 사업 평가 및 계획 승인

〈정책대응팀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오후 5:00, 신길동 그가게
- 참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내용: 법무부 형법개정안 논의, 박**사건 공유

〈인천서울권역회의〉

-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오후 4:00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3월 9일 목요일 오후 2:3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 30 이례

성폭력상담소

• 내용: 전성협 활동 공유, 전성협 통계, 워크숍 내용, 문화계 내 성폭력 관련 대응, 성폭력 가해자 감형 목적 후원 기부 대응 논의 등

<인천서울권역 활동가 및 소장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2:00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6월 8일 목요일 오전1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30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 프로그램: 전성협 통계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활동가 및 소장 역량강화 교육

<운영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후 12:00,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12:0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2) 내용: 권역 활동 공유, 총회준비 등

2. 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8월 21일 월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2) 참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반성매매 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3) 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 미군위안부명예회복및피해보상법 발의 내용 공유 등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결산(안)

-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수지계산서
-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대차대조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수지계산서

(2017년 01월 01일 ~2017년 12월 31일)

(사무처, 상담소, 미디어 합산) (단위:원)

계정과목	예산액	실제발생액	비율	계정과목	예산액	실제발생액	비율
사업수익	861,100,000	877,649,347	101.9	사업비용	861,100,000	855,112,685	99.3
1.회비수입	346,000,000	340,993,512	98.6	1.인건비	544,745,000	541,844,270	99.5
1)정회원회비	316,000,000	309,650,812	98.0	1)인건비	501,380,000	488,669,270	97.5
2)특별회비	30,000,000	31,342,700	104.5	2)퇴직급여전입금	43,365,000	53,175,000	122.6
				2.경상비	92,055,000	116,645,556	126.7
				1)복리후생비	5,800,000	7,084,940	122.2
				2)사무용품비	1,700,000	1,291,280	76.0
				3)사무행정잡비	6,000,000	6,481,580	108.0
				4)사회보험금	43,655,000	41,735,860	95.6
				5)소모품비	4,100,000	22,204,230	541.6
				6)시설관리비	3,000,000	12,876,600	429.2
				7)제세공과금	10,400,000	10,414,568	100.1
2.후원금	232,500,000	270,346,316	116.3	8)지급수수료	4,800,000	4,605,970	96.0
1)일반후원금	132,500,000	138,233,651	104.3	9)지급이자	5,000,000	3,679,878	73.6
2)재정사업후원금	100,000,000	132,112,665	132.1	10)통신비	3,800,000	1,682,388	44.3
				11)회의비	3,800,000	4,588,262	120.7
				3.사업비	222,300,000	196,622,859	88.4
3. 사업수입	280,100,000	263,229,620	94.0	1)조직활동비	26,300,000	21,080,068	80.2
1)정책사업	90,000,000	97,791,686	108.7	가)회원조직활동비	15,400,000	11,065,608	71.9
				나)지부조직활동비	5,400,000	3,484,520	64.5
2)정보홍보사업	1,000,000	1,748,600	174.9	다)총회비	5,500,000	6,529,940	118.7
3)교육사업	31,800,000	23,495,740	73.9	2)정책사업비	117,000,000	99,873,154	85.4
4)사업비지원금	157,300,000	140,193,594	89.1	가)정책사업	87,000,000	92,239,246	
				나)30주년 사업	30,000,000	7,633,908	
				3)정보홍보사업비	28,400,000	24,436,050	86.0
				가)소식지발간	17,000,000	15,690,050	92.3
				나)그외 홍보사업비	11,400,000	8,746,000	76.7
5.기타수입	2,500,000	3,079,899	123.2	4)교육사업비	23,700,000	19,574,788	82.6
1)자료수입	1,600,000	2,489,795	155.6				
2)기타	900,000	590,104	65.6	5)연대활동비	6,900,000	7,384,280	107.0
				6)재정사업비	20,000,000	24,274,519	121.4
				4.예비비	2,000,000		0.0
	당기수지차	22,536,662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대차대조표

(2017년 01월01일 ~ 2017년 12월 31일)

(사무처, 상담소, 미디어 합산)

(단위: 원)

자 산		부채와 순자산	
자 산	931,474,559	부 채	246,006,179
A.유동자산	334,974,559	A.유동부채	17,000,199
1. 현금	283,180	1. 예수금	3,233,790
2. 보통예금	195,685,399	2. 미지급비용	8,208,600
3. 퇴직예금	139,005,980	3. 미지급금	5,557,809
B.비유동자산	596,500,000	B.비유동부채	229,005,980
(1) 유형자산	596,500,000	1. 장기차입금	90,000,000
1. 토지	256,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139,005,980
2. 건물	358,400,000		
감가상각누계액	(17,900,000)	순 자 산	685,468,380
		A.기금(적립금)	404,200,000
		(1) 건축기금	400,000,000
		(2) 건강기금	4,200,000
		B.잉여금	281,268,380
		1.전기이월잉여금	258,731,718
		2.당기운영이익	22,536,662
자산총계	931,474,559	부채와 순자산 총계	931,474,559

2017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 2017년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2017년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공동 이슈대응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여성민우회

2017년은 촛불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국민의 의지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진정한 민주주의의 부활을 이뤄낸 한해였다. 지역별로 활발했던 촛불의 힘은 자연스럽게 <#Votefor 주권자 파티>로 이어져 지역 광장이나 회원공간 등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운동에 이어졌다. 또한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 한다’ 슬로건 아래 대선 국면에서의 페미니즘 정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회원들과 함께 하였다.

3.8 여성의 날에 맞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톱> 운동이 광화문광장과 지역에서도 이어져 최저임금 1만원운동을 동시에 실시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강남역 사건 1주기를 맞아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액션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혐오범죄의 심각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아직도 낙태가 죄라니’라는 슬로건으로 여러 지부들이 함께 캠페인, 사진 인증샷 올리기 등을 진행하였고, 사진 전시회, 집회, 언론대응 및 기고 등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도 큰 공감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여성건강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성평등 의제를 각 지역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페미니즘 교육과 다양한 사업, 회원들의 활동 등으로 지역의 성평등의식 확산

민우회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나여기Ⅱ’ 활동은 지역의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 드러내기 설문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차별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차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페미니즘이 큰 이슈가 된 2017년도에도 지역 회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페미니즘 강좌 ‘다시 만난 세계’가 고양, 군포, 인천, 춘천, 원주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20~30대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인되는 시간이었고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페미니스트 운동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역민우회는 다양한 사업과 회원 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와 리더십발굴은 물론 지역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별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고양파주는 2017여성평화걷기, 파주시 젠더의식조사, 파주여성정치 아카데미, 야밤도주 캠페인, 영화제 등, 광주의 ‘이슈를 기억하는 순례’, ‘히스토리-나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프로젝트’, ‘퀴어라이브 in 광주’, 인천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여성건강 프로젝트’ 등, 남서는 ‘함성팀’, ‘건강식생활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생쓰레기 사업’ 등, 동북은 ‘민우여성학교’, ‘성장통’, ‘38여성의 날 특강/영화’ 등, 진주는 ‘딸들을 위한 페미니즘’, ‘여성혐오 제대로 보기 미디어 모니터링’, ‘여성 영화제’ 등, 원주의 상지대 학생과 ‘여성 페스티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원주 여성영화제’ 등, 군포의 ‘민우아카데미’, ‘한부모 역량강화 리더양성교육’ 등, 춘천의 ‘밥상토크’, ‘민우여행’, ‘여성주의 인문학’, ‘청소년 시민학교’ 등을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여성주의 교육 및 페미니스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한 한해였다.

특히 고양파주와 진주는 20주년을 맞아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여성운동의 가치를 돌아보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고양의 20+민우회원 한마당, 진주의 ‘나에게 진주여성민우회 20주년이란?’ 주제 토크 등 회원들과 20년 여성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경험을 앞으로 지역여성운동에도 녹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외에도 회원만남의 날, 송년회, 소모임 등의 다양한 회원 활동과 정책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활동은 활발하였으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의식 확산에 비해 회원확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지역여성운동 조직으로서 회원확대는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활동 기반이기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중 홍보 강화 및 지역의 여성이슈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춧불로 시작된 지역 연대 활동

2016년에 시작된 박근혜 퇴진운동본부 활동의 마무리로 자연스럽게 대선 주권자 운동이 시작되었고 각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한 해였고 지부들은 시국사안별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고양파주의 고양시민사회, 고양인권연대, 김포관산도로지역공대위, 파주정책네트워크, 엄마품 동산조성사업 협의회, 파주 시민참여연대와 컨소시엄사업 등, 광주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평화나비, 사드배치반대 광주전남행동, 무급타파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동북은 416약속 도봉지킴이 도봉모임, 도봉구 시민협력플랫폼사업,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동북권NPO지원센터 준비모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남서의 생쓰레기 퇴비화사업단, 양천마을 공동체네트워크, 녹색가게 등, 인천은 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부평구 민관협력사업, 원주도 강원여성연대, 원주인권네트워크, 강원남부 해바라기센터 유치 대책위, 원주 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등, 춘천은 강원여성연대, 춘천평화의 소녀상건립 추진위원회, 귀어간담회, 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 대책회의 등, 진주는 경남여연, 615운동본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립사업, 진주시민공동행동, 진주탈핵시민행동,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등, 군포는 한부모연합,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 지역언론연대 등으로 시국사안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의제화 하여 함께 행동하는 등 연대의 힘을 보여준 한해였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으로 폭력과 차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은 상담소가 있는 고양파주, 광주, 군포지부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재판 동행 프로그램도 고양파주, 군포,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의 경우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과 공동사업으로 대학 내 페미니즘 강의로 연결을 하였다.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교육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거리 캠페인, 인천의 평생교육사 실습과정, 진주의 민우학교 등을 통하여 젠더 감수성 키우기, 인권·성평등 의식을 담을 수 있도록 지부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었고, 또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고양파주, 광주, 원주, 군포에서 진행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지역여성민우회의 부설 기구 운영

현재 9개의 지역민우회들은 부설기구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쉼터, 여성센터 등 다양한 부설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파주, 광주, 군포 상담소는 지역의 상담지원 기관으로 뿌리를 내려 지역에서 피해자에 대해 여성주의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로서 고양파주의 <하담>과 광주의 <다솜누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고양파주는 하담인들을 위한 내집마련 프로젝트 시즌2, 삼안사온(3安事溫)을 기획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금활동에 주력하였다. 남서의 <아름드리>, 고양파주의 <꿈틀이>, 춘천의 <달팽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성주의를 담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동북의 경우 <도봉여성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주의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고양파주의 경우 더 많은 회원 참여와 운동 확산을 위한 치열한 내부 논의 결과 2018년, 고양파주민우회 내 파주지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부설기구들은 여성운동을 실현하는 장으로 중요하며, 민우회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감사 보고서

-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 감사 보고서
-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재정 감사 보고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 감사 보고서

장지연(한국여성민우회 감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민우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260여쪽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7년에는 민우회가 애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풍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째, 페미니스트 운동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10대와 청년세대 여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17,600명이던 트위터 팔로워는 55,000여 명으로 약 300%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트위터나 팟캐스트 같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호응을 대중강의, 모듬토론, 필리버스터와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저변이 넓어진 것 뿐 아니라, 참여의 적극성도 강해진 듯 합니다. 10대의 어린 청년들까지도 단순히 들으러 오는 청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분명한 목소리로 털어놓습니다. 이제 민우회의 활동 기획과 핵심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10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점점 더 많은 페미니스트와 연결되면서 민우회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신규회원은 699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회비수입도 지난해 대비 16% 증가하였고, 3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추진한 후원행사도 목표대비 115%를 달성하여 재정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건의 성차별사건으로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한 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민우회의 기여와 역할이 돋보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운동에서는 사진촬영과 전시와 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습

니다. 성별임금격차문제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시각을 담은 영상으로 제작하였는데, 12,000여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3시 STOP 조기퇴근시위’도 호응이 컸습니다. 성폭력전담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은 재판부를 변화시키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를 지지하는 의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꽃뱀’론과 피해자 유발론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나갈지 고민은 오히려 깊어진 상황입니다.

넷째, 일상 속에 구석구석 스며있는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고 변화를 일구어나가는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_시즌2’는 오늘날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사례를 5천여가지 수집하였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의 삶 가까이에서 도사린 차별을 펼쳐내기 위해서 좀 더 대중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였습니다. 제목도 인상적인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라는 대중서 발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어야했고,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페미니스트 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은 개헌이 논의되는 국면으로, 헌법에 성평등 조문의 신설을 넘어 다양한 차별금지사유,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사회권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페미니즘 관점을 담아내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민우회가 3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원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고, 밖으로 연대의 품은 더 넓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원과 격려가 풍성해지고, 지지와 연대가 강해진 가운데 민우회에 거는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활동기획과 가슴에 콕 박히는 카피를 보면 민우회는 언제나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용감하게 활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재정 감사 보고서

변영선 (한국여성민우회 감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귀 법인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귀 법인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인은 별첨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본부,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수지계산서를 합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법인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의 책임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도 보고된 개선권고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본부,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분석적 검토

1. 사업수입에 대한 전년대비 분석적 검토

계정과목	2017예산액	2017발생액	2016발생액	증가율	분석적 검토
------	---------	---------	---------	-----	--------

사업수익	861,100,000	877,649,347	920,838,924	101.9	
1. 회비수입	346,000,000	340,993,512	293,149,094	16.3	회비수입의 꾸준한 상승 총 48백만원 증가
1)정회원회비	316,000,000	309,650,812	262,261,294	18.1	
2)특별회비	30,000,000	31,342,700	30,887,800	1.5	
2. 후원금	232,500,000	270,346,316	229,028,785	18.0	30주년 후원사업으로 인해 재정사업후원금 상승 총 42백만원 증가
1)일반후원금	132,500,000	138,233,651	138,346,585	-0.1	
2)재정사업후원금	100,000,000	132,112,665	90,682,200	45.7	
3. 사업수입	280,100,000	263,229,620	391,764,300	-32.8	프로젝트성 사업비가 총 129백만원 감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사람사업 70백만원, 교보생명 미디어교육사업 50백만원 감소
1)정책사업	90,000,000	97,791,686	165,245,800	-40.8	
2)정보홍보사업	1,000,000	1,748,600	0		
3)교육사업	31,800,000	23,495,740	68,003,500	-65.4	
4)사업비지원금	157,300,000	140,193,594	158,515,000	-11.6	
4. 기타수입	2,500,000	3,079,899	6,896,745	-55.3	
1)자료수입	1,600,000	2,489,795	2,077,123	19.9	
2)기타	900,000	590,104	4,819,622	-87.8	

2. 사업비용에 대한 전년대비 분석적 검토

계정과목	2017예산액	2017발생액	2016발생액	증가율	분석적 검토
사업비용	861,100,000	855,112,685	847,696,947	99.3	
1. 인건비	544,745,000	541,844,270	491,137,516	10.3	인건비 평균 9.5% 상승에 따른 것임 인원은 변동 없음
1)인건비	501,380,000	488,669,270	442,485,951	10.4	
2)퇴직급여	43,365,000	53,175,000	48,651,565	9.3	
2. 경상비	92,055,000	116,645,556	82,807,488	40.9	인건비 상승 반영

1)복리후생비	5,800,000	7,084,940	5,553,470	27.6	30주년 공간개선사업 가구 구입비 증가 디자인비 증가 9월 차입금 3천만원 상환
2)사무용품비	1,700,000	1,291,280	1,312,320	-1.6	
3)사무행정잡비	6,000,000	6,481,580	3,699,650	75.2	
4)사회보험금	43,655,000	41,735,860	36,363,960	14.8	
5)소모품비	4,100,000	22,204,230	7,053,342	214.8	
6)시설관리비	3,000,000	12,876,600	2,913,101	342.0	
7)제세공과금	10,400,000	10,414,568	9,490,020	9.7	
8)지급수수료	4,800,000	4,605,970	4,179,150	10.2	
9)지급이자	5,000,000	3,679,878	5,119,793	-28.1	
10)통신비	3,800,000	1,682,388	3,623,531	-53.6	
11)회의비	3,800,000	4,588,262	3,499,151	31.1	
3. 사업비	222,300,000	196,622,859	273,751,943	-28.2	온라인회원가입 창 구축비 3백, 뱃지 제작 2백 증가
1)조직활동비	26,300,000	21,080,068	13,367,959	57.7	정책사업수입 감소에 따름
가)회원조직활동비	15,400,000	11,065,608	5,385,145	105.5	
나)지부조직활동비	5,400,000	3,484,520	3,467,510	0.5	
다)총회비	5,500,000	6,529,940	4,515,304	44.6	
2)정책사업비	117,000,000	99,873,154	153,957,488	-35.1	30주년 사업비를 계정성격에 따라 소모품비와 시설관리비로 계상함
가)정책사업	87,000,000	92,239,246	153,957,488	-40.1	
나)30주년 사업	30,000,000	7,633,908	-	-	
3)정보홍보사업비	28,400,000	24,436,050	19,185,210	27.4	미디어교육사업 수입 감소에 따름
가)소식지발간	17,000,000	15,690,050	13,665,210	14.8	
나)그외홍보사업비	11,400,000	8,746,000	5,520,000	58.4	
4)교육사업비	23,700,000	19,574,788	66,352,000	-70.5	30주년행사 위한 대관, 식대, 선물구입비 등 증가
5)연대활동비	6,900,000	7,384,280	7,379,766	0.1	
6)재정사업비	20,000,000	24,274,519	13,509,520	79.7	
4. 예비비	2,000,000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계획(안)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목표(안)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 2018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안)
- 2018년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사업계획(안)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 목표(안)

1. 활동 목표

1. 터져 나오는 페미니즘 이슈들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간다.
2. 정부 주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주목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한다.
3.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고착화된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 제도를 바꾸어내는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국 곳곳에서, 10대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페미니스트들과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5.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지부·본부 공동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여성운동의 역량 강화에 힘쓴다.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특별사업 계획(안)

[특별사업] 페미니즘 파도를 타다, 파도를 만들다

I. 사업 목표

1. 터져 나오는 페미니즘 이슈들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간다.
2. 정부 주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주목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한다.

II. 사업 계획

1. 페미니즘 파도를 타다, 파도를 만들다

1) 페미니즘 이슈대응 활동

-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이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대중적 아젠다로 만들고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차별과 혐오를 양성평등으로 포장하는 세력이 적폐이며 민주주의의 걸림돌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운동을 만들어 간다.
- 집행 : 주1회 팀 및 부설별로 주기적인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터져 나오는 페미니즘 이슈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활동을 기획한다. 다양한 방식의 기획과 의견 제시를 통해 페미니즘 이슈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2)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

- 탐·소별로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 탐·소별 핵심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한다.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여성노동

I. 사업 목표

1.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 노동 이슈를 카드 뉴스 등 방식으로 알려 성별임금격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의제로 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련 이슈파이팅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기존의 제도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교육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며 새로운 교안을 제작한다.
4. 정기적인 의제발굴 워크숍과 기획 상담 제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여성노동의제를 발굴한다.

II. 사업 계획

1. 임금공개로 성별임금격차 말하기

1. 배경과 목적

: 지난해 사회 의제로 제안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비공개정보인 임금을 드러내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임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성별임금격차의 다양한 원인으로서의 여성노동의 현실을 이슈파이팅한다.

2. 방법

: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당사자들의 제보 조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 정보를 모으고, 성별임금격차를 드러낸다. 또한 공기업 등에서의 채용과 승진차별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중소기업의 노골적인 성별임금격차, 성별직군분리현상과 여성 집중직종의 저임금화,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조건 하락으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등 각 영역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의 여성 노동현실을 드러내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방식으로 이슈파이팅한다.

3. 시기 및 내용: 4~8월

시기	소주제	내용
4월	공기업·대기업 1 (채용차별)	공공기관, 5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채용 비율을 조사해 여성비율이 낮은 현실을 드러내는 카드뉴스 제작 배포.
5월	공기업·대기업 2 (유리천장)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위직 여성비율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승진에서 여성배제 문제가 어떻게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
6월	중소기업 (성별초봉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별, 직종별 성별에 따른 초봉 차이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드러내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
7월	여초직장/ 남초직장 임금차이	성별에 따른 직군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임금이 낮은 현실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 비슷한 강도의 업종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정보들을 수집한다. 구체적 정보들을 통해 직군분리가 어떻게 성별임금 격차로 이어지는지 이를 문제시 하는 카드뉴스 제작 배포.
8월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고정관념	여성은 보조생계부양자로 남성은 주생계부양자로 보고 있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은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주요인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보조적 업무를 배치받기도 하고, 연봉 책정과정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드러내는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 더불어 개개인들이 직접 임금정보를 공론화하는 해시태그 액션을 진행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이슈 파이팅할 수 있도록 한다.

· 9월: 월별 카드뉴스 내용을 담은 소책자 제작.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활동

1. [성평등 노동정책 대토론회] 성별임금격차, 15년째 최하위, 이제는 바꿔보자

: 새 정부의 여성노동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노동단체 연대에서 2017 한해 동안 이슈파이팅 해온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의제를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3.8 세계여성의 날, 조기퇴근시위 <3시스탑>

: 지난해 여성노동단체들이 연대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여성노동의제로 가시화했던 3시스탑 조기퇴근 시위를 올해도 진행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이슈파이팅을 이어간다.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찰하다, 성평등 조직문화를 고민하다

1. 배경과 목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어서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을 정도로 2017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언제, 누구에게 성희롱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와 성희롱을 문제제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다년간의 상담을 통해 접한 각 직장의 사례들과 민우회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을 통해 확인한 것은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계점이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조직문화를 고민·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안이 필요하다.

2. 방법

1)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교안 제작 :

-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사에서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제보 받아 현장을 반영한 교안 모색
-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점검하여 대안적 조직문화 교육 교안 모색

-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교안 제작

2) 제도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계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들을 인터뷰하고,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등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해, 제도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에 유효한 장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3. 시기 및 내용 : 4월~7월

시기	내용
4월	- 기획 자문회의
5~6월	- 성희롱 예방교육 개선방향 연구 - 교안제작워크숍 - 바꾸고싶은 조직문화 제보받기
7월	- 자료집 제작
7월 이후	-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시연

4. 당신의 일고민은 무엇입니까

1. 배경과 목적

: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주요한 여성 노동 문제로 이슈파이팅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담과 대응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만으로 다 수렴되지 않는 여성노동 현안들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 또한 필요하다.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 경력단절, 승진차별, 낮은 연봉 등 점점 더 노동의 지속을 위협하는 노동조건 속에 놓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과 운동의 접점을 만들고, 시대상을 포착하는 여성노동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 방법

1) 의제 발굴 워크숍 (격월)

: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내부 워크숍을 열어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현장의 흐름을 반영한 여성노동이슈를 발굴한다.

2) 기획 상담 제보 창구 마련 (상시)

: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관련 상담을 제보 받는 창구를 마련하여 상담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노동현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한다.

예) 채용 차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차별 등

3) [기획 칼럼] 계속 일할 수 있을까? (8~10월 / 5회)

: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민을 이어가며 일을 지속하고 있는 30-40대 여성들 개개인들의 이제까지의 노동과 이후 전망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나의 노동역사' 에세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통해 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렵게 하는 노동문제가 무엇인지를 일상의 언어로 발굴한다.

성평등복지

I. 사업 목표

1.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족과 여성에 의존하고 있는 돌봄 현실을 드러내고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2. 1인1복지, 기본소득법, 다양한가족구성권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하고, 남성 부양자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에 대응하여 성평등복지 사회로의 도약을 앞당긴다.

II. 사업 계획

1.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가)

1. 기초 조사 및 분석

1) 기획 및 자문회의(3월)

- 내용 : 사업 방향 논의 및 인터뷰 설계, 지부 공동사업 기획 등
- 방법 : 관련 연구자, 민우회 지부 활동가들과 회의 진행
- 구성 : 주연구자, 복지제도 연구자, 민우회 지부 활동가 등 4~5명
- 횟수 : 2회~3회

2) 인터뷰 (4월~6월)

- 내용 :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방법 : 면대면 심층 인터뷰
- 대상 : 현재 부모를 돌보고 있거나 딸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여성, 장기요양보호사
- 횟수 : 인터뷰 20~25회

3) 인터뷰 분석회의 (7월~8월)

- 내용 : 인터뷰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토론회 발제 자료로 활용
- 방법 : 주연구자, 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의 진행

- 구성 : 주연구자, 민우회 활동가 등 4~5명
- 횟수 : 3회 내외

2. 토론회 ‘개인이 존중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를 꿈꾸다’(가)

1) 기획 회의 (9월)

- 내용 : 주연구자와 복지제도 개선 방안 및 토론회 발제 논의, 해외복지시스템을 수집하고 인터뷰 사례와 비교분석
- 구성 : 주연구자, 민우회 활동가 등 4~5명

2) 토론회 개최 (10월)

- 내용 : 해외복지시스템과 인터뷰 사례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 개선방향 모색
- 구성 : 사회자 1명, 발제자 2명(주연구자, 민우회 활동가), 토론자 4명 등
- 대상 : 복지제도에 관심있는 시민, 부모 돌봄에 고민 있는 비혼 여성, 돌봄 노동자, 정책관련자, 지자체 실무자 등
- 횟수 : 1회

2. 시민 포럼 ‘지금 여기에서’(가)

1. 시민 포럼 ‘지금 여기에서’(가) (6월~7월)

- 내용 :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기반의 복지제도를 주제로 포럼 개최
- 대상 : 1인 1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 복지관련 정책 실무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 횟수 : 격주 2회, 총 4회
- 프로그램(가)

	제목	내용
1강	1인1복지로 복지국가를 꿈꾸다	성평등, 개인, 페미니즘
2강	돌봄 비민주성, 또 다른 적폐	가족에게 의존한 돌봄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3강	제가 저의 보호자입니다만?	제도 상 피부양자로 설정된 여성의 현실 드러내기
4강	국민연금, 연대와 평등으로 나아가기	이혼 시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내 성차별

3. 일상적 대응 활동

1. 정책 이슈 대응

- 가족구성권 : 헌법 개정을 앞두고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 공적연금 제도 대응 : 카드 뉴스를 통한 이슈화, 정책 관련 논평
- 그 외 이슈 대응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1인가구, 주거권, 보육제도 등

2. 연대활동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집행위원회의 참석,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부서 면담, 이슈 파이팅 기획 등
- 외부 간담회, 토론회 참석

여성건강

I. 사업 목표

1. 낙태죄 폐지를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여성이 참여하는 전국적 운동을 조직한다.
2. 여성건강 정책 및 사회현안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여성건강권 확보에 힘쓴다.

II. 사업 계획

1.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1.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 1) 낙태죄 폐지 운동 추진 단위를 확대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한다.
 - 기존 연대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 법률단체 등 다양한 단위와의 연대활동을 펼친다.
(예시- 낙태죄 관련 핵심쟁점 워크숍 및 시민단체 내부 간담회, 공동 시위 기획 등)
- 2)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 낙태죄 위헌소송 등 낙태죄 폐지가 이슈화된 국면에서 인터뷰, 기고, 성명서, 기자회견 등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한다.
 - 종교계 및 일부 언론이 견지하는 임신중절 찬반구도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기반 한 변화를 도모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 기고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10회 연속기사(여성신문, 2017.12~2018.1))
- 3) 낙태죄 관련 법·정책 개정에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되도록 한다.
 - :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안입법 등 각종 정책연구 및 토론의 장에 의견을 개진한다.

2. 낙태죄 폐지를 위한 본부지부 공동사업: 우리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가)

1) 목적

- 더 많은, 더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국적으로 가시화하기
- 자기 삶과 밀접히 관련된 당면과제로서 낙태죄 폐지 의미화
- 더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운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
- 설득과 공감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팁과 정보 공유 등

2) 내용

① 기획회의(2-3월)

- 대상: 지부본부 공동사업 참여단 전체
- 내용: 낙태죄 관련 핵심쟁점 브리핑, 지역별 쟁점별 대응 전략 논의, 집담회 아이디어 나눔

② 지역별 집담회(3-7월)

- 대상: 각 지역별 회원, 운영위원, 낙태죄 폐지 이슈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지역별 1회)
- 내용: 낙태죄 폐지 이슈의 핵심쟁점 발제 또는 지역별 이슈 세미나, 임신중절 관련 자기경험 말하기, 낙태죄 폐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 나눔, 액션 기획 등

③ 지역별 후속액션(5-10월)

- 내용: 전국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중요 과제로 촉구하는 지역별 후속액션을 진행한다.
- 활동예시: 지역구 의원과 진행하는 낙태죄 폐지 토론회, 임신중절 시민 말하기대회, 낙태죄 폐지 촉구 지역별 쟁점대회 또는 거리 캠페인, <임신중절, OO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등

④ 전체 외화(8-10월)

- 내용: 본부 지부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한 집담회, 후속액션 내용을 모아 글, 영상, 사진, 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외화한다.

3. 인공임신중절 상담 및 지원활동

: 상시적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해 심리적지지, 정보 제공, 법률 지원활동

2. 여성건강 이슈 대응

1. 여성건강 관련 사회 현안 및 정책에 관한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

- 월경용품, 성형·다이어트 광고, 피임약 재분류 등 여성건강 관련 현안 및 정책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한다.

2. 몸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다름네트워크> 연대활동

- 다다름필름파티 등 대중행사를 통해 몸 다양성 이슈를 확산한다.

회원조직

I. 사업 목표

1.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이를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 홍보와 연결하여 회원 확대를 촉진한다.
2. 회원/대중들이 가진 다양한 관심사와 주제를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설된 회원공간의 사용을 독려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열, 길 기획단 활동으로 10대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획 및 실행 활동으로 10대 여성주의자로 임파워링한다.

II. 사업 계획

1. 회원확대 캠페인 및 민우액션: 이달의 아직도(가)

1. 배경

2017년 진행한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시즌2> 설문결과로 도출된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을 확산하고, 과제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는 ‘변화를 여는 목소리’를 통해 대중운동을 만들어가는 민우회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열 가지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회원확대 캠페인 및 민우액션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2. 내용

(1) 온/오프라인을 통한 회원 확대 (목표: 700명)

-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을 토대로 하는 회원확대 캠페인 실시
예) 오늘도 TV엔 “짜가지 없는 머느리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뿐”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다양한 여성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성캐릭터를 보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통해 민우회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 On(line)going 민우회(가) 등 민우회 온라인 회원가입 홍보 기획 및 실시(상반기 중)

(2) 민우액션

- ‘2017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을 토대로 하는 민우액션 기획 및 실시

- 지부본부공동 민우액션: 스승의날(5/15)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학부 모 선언 액션
- 민우회 이슈 활동 및 시의성 있는 이슈 대응 시 회원 참여 액션 기획

2. 회원/대중과의 접촉면 넓히기

1. 회원/대중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 페미니스트 좌표게임, 원하는 대로 패션쇼 등 페미니스트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페미니즘 즉문즉답 토크쇼 등 비회원들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우회의 관점을 확인하며 회원가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회원 토론회, 번개 모임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시도

2. 회원 공간 운영

- 회원 공간의 명칭을 회원 대상으로 공모하여 정함
- 회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ex. 회원 공간 집들이: 1+1 포틀럭 파티, 페미니즘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회원들에게 받아 주기적으로 전시, 회원 소모임 작품 전시 등)
- 회원 공간 운영의 원칙 정립

3. 회원 참여 기획단 다다다(격월)

- 다다다 워크숍(3월 중) : 새로운 다다다 멤버십 다지기, 2018년 회원활동 및 회원공간 활용 기획, 다다다의 역할 확인 등
- 신설 소모임의 다다다 참여 확대
- 민우회 활동 공유 및 소모임 활동에 대한 논의와 소통
- 오픈소모임을 독려하여 회원 활동 활성화 시도

4. 소모임 활성화

- 1) 소모임 : 소모임 신설 및 일부 소모임의 활동가 재배치 / 단기, 시즌 성격의 모임 구성·확대
- 2) 소모임 활동가 회의(연2회)
 - 비회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오픈소모임 활동 기획
 -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담당 활동가의 조직 활동 역량 키우기
 - 소모임 운영상황 공유 및 소통 등

5. 신입회원 만남의 날(격월)

-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민우회 활동과 조직문화를 소개하고 소모임 등 이후 지속적인 회원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
- 주목받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민우회의 지향과 가치를 환기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민우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

6. 신입회원세미나(연2회)

-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조직으로 활동 회원층 발굴
- 세미나 참석자들이 이후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2~3월 중 페미니즘 도서를 모니터하고, 활동가 세미나를 통해 적절한 세미나 도서 선정

3. 회원과의 일상적 소통 강화

1. 회원과의 소통 강화

1) 온라인을 통한 회원소개글 기획

- 일상에서의 여성주의 실천 경험을 나누는 <여성주의 바톤터치>
- 회원에세이 필자 회원 발굴 및 연재독려 (하반기)

2) 신입회원과의 소통

- 첫 회비 납부 감사 및 신입회원 만남의 날 안내 문자발송
- 신입회원 환영 손 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2. 전체회원에 대한 접촉면 확대

- 전체회원 문자메시지 발송(추석 및 설 명절, 3·8여성의 날, 바자회, 후원의 밤, 선거일, 민우회 현행 이슈 대응 사업 등)

4. 열, 길 2기- “10대, 페미니즘으로 길을 잇다”

1. 열, 길 기획단 구성

- 배경: 2017년 10대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모아내고 임파워링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10대 페미니스트 기획단을 모집하여, 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장을 만들어낸다.

1) 기획단 모집

- 대상 :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10대
- 기간 : 6월 중

2) 기획단 오리엔테이션

- 대상 : 열, 길 기획단
- 기간 : 6월 중
- 내용 : 네트워킹, 욕구파악, 2017년 열길 워크숍 소개 및 2018 열길 기획 나눔 등.

3) 기획회의

- 대상 :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조직된 기획단
- 기간 : 7월~8월 중 4회
- 내용 : 기획단 활동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 등

4) 2018 열, 길 프로그램 진행

- 기획회의를 통해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
- 프로그램 예
10대 페미캠프(페미니즘 이슈 관련 주제별 토론,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 자기 방어 훈련)
10대 필리버스터(학교, 섹슈얼리티, 가족 내 차별, 미디어 중 세부 주제 선정)

5. 회원DB 재정비

1. MRM 프로그램 활용 지부교육 (상반기, 1회)

2. 회비 유지율, 납부율 향상

- 6개월 이상 미납회원 독려 전화 (상반기 중)
- 보류회원 납부재개 독려 전화

3. 일상적인 회원정보관리

1) 회원정보관리

- 온라인 가입회원 회원정보 확인 작업
- 회원 DB관리 매뉴얼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보 관리
-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안내
-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록 공유 및 관리

- 첫 회비 납부자 관리

2) 가입탈퇴관리

- 가입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관

- 가입 시 감사전화, 손 편지, 동봉한 우편물 발송

- 탈퇴, 보류 시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한 확인 작업

- 지부·본부회원 정보보호기간이 지난 회원정보 삭제 및 탈퇴자 정리(상반기 중)

지역

I. 사업 목표

1. 본부-지부 민우회의 일상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II. 사업 계획

1. 본부-지부 전체 활동가 워크숍

1. 본부-지부 전체 활동가 공동 워크숍 (3월 말)
 - 구성 : 본부-지부 사무국 및 부설 전체 활동가
 - 내용 : 전체 활동가의 소통과 민우회 활동가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1박2일 워크숍

2.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체계 운영

1. 사무국장 네트워크 (연 4회)
 - 구성 : 각 지부 사무국장
 - 내용 : 여성운동 이슈 토론, 지역 여성운동 방향 논의, 활동관련 고민 나눔 등
2. 대표 네트워크 (연 4회)
 - 구성 : 각 지부 대표
 - 내용 : 여성운동 이슈 토론, 지역 여성운동 방향 논의, 활동관련 고민 나눔 등
3.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연 4회)
 - 구성 : 고양파주, 서울남서, 춘천 지역아동센터와 각 지부 본회
 - 내용 : 민우회 정체성을 담은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대한 고민 공유 및 공동 사업 진행

- ①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진행
- ② 아동의 페미니즘 FAQ 모음 및 성교육 표준안 검토를 반영한 공동 교육 매뉴얼 제작

2. 일상적인 본부-지부 네트워킹

1. 공동사업 담당 본부 활동가 회의 (연 2회)
 - 구성 : 담당활동에 지부와 접점이 있는 본부 활동가
 - 내용 : 전국 조직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지부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본부-지부 소통 강화

2. 지부 운영위원 만남의 날 (하반기)
 - 구성 : 각 지부 운영위원
 - 내용 : 각 지부 운영위원회 지역팀 참관 및 운영위원 활동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또는 집담회 진행

3. 지역 민우 ON
 - 지부 활동 소식을 본부 홈페이지, SNS에 공유하여 지역 활동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

정치

I. 사업 목표

1. 성평등 지역사회를 위해 2018 지방선거에 맞춰 새로운 성평등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생활공간에서부터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한다.
2. 촛불혁명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성평등 개헌과 정치개혁운동을 이어나간다.

II. 사업 계획

1. 2018 지방선거 대응

1.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지표 구성 및 대안 제시

1) 배경

- 중앙정부에서는 '성평등'이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공론화되지 못함.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의제 공론화 필요.
- 기존 지표인 지역 성평등 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이 있으나 주로 양적 결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사회 운영의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는 지표가 되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틀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

2) 목표

-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성평등 지수 구성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영역 의사결정권자의 성비, 공공인력의 성별임금격차 등의 지표와 이에 따른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3) 대상 : 민우회 각 지부가 속한 지역(고양, 광주, 군포, 서울,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

4) 방법

- 지역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요 기관들의 단체장·임원·직원 성비, 여성 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에 배정된 예산 비율 및 성별임금격차, 여성 사회 서비스 일자리 급여와 다른 영역의 급여 비교 등 기존 지표에서 누락된 부분 분석

-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18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 및 공론화

2. 성평등 개헌 / 정치개혁

1. 성평등 개헌 실현

- 차별금지,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사회권의 범위를 넓히고 여성주의 관점이 담긴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한다.

: 성평등 개헌 TF 참여

: 성평등 개헌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활동 기획 및 집행

2. 정치개혁

- 2017년 정치개혁운동의 4대 의제 '지방의회·국회 비례대표성 강화, 정치다양성 및 여성대표성 확대, 만 18세 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청소년 선거권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부 교육, 대중 교육 기획 및 집행

: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 기획 및 집행

교육

I. 사업 목표

1. 다양한 주제의 교육 사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성찰과 인식의 힘을 키우고, 페미니즘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여 여성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II. 사업 계획

1.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다시만난세계>

1. 컨셉/ 내용 :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페미니즘 단체 회원활동에 대한 관심을 도모한다.
 - 1) 9개 지부가 함께 하는 <다시 만난 세계> (3월~ 4월)
 - 본부와 지부가 <다시 만난 세계>를 공동으로 기획해, 지역별 입문 강좌를 연다.
 - 강의를 통해 만난 페미니스트들이 이후 지역의 페미니즘 네트워크로 연결 있도록, 적극적인 조직 기획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 2) 본부 기획 진행의 <다시 만난 세계>
 - 상/하반기 1회
 - 3) 십대를 위한 <다시 만난 세계>
 - 7~8월 여름방학 중 진행

2. 민우특강

- 1) 컨셉/내용 : 여성주의 관점 하의 시의성 있는 주제로 선정. 4회 가량의 연속강좌.
- 2) 주제(안) :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역사를 배우며, 그 속에서 2018년 한국 페미니즘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ex) 1970년대 미국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살펴며, 현재 한국 넷 페미니스트 일각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성찰한다)

3) 시기/ 횟수 : 상반기 (3-4월 중), 4회.

3. 열독

1) 컨셉/ 내용 : 여성주의 심화학습. 4회 가량의 연속강좌

2) 주제(안) : 2018년 하반기 여성운동의 흐름에 알맞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선정.

3) 시기/ 횟수 : 하반기 (9-10월 중), 4회.

4. 활동가교육

1. 신입 활동가 교육

- 민우회의 역사 강좌, 조직 이해 강좌의 틀로 수 년 간 진행되어왔던 신입활동가 교육의 관행을 벗어나 지역팀과의 협업 속에서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모색.

1) 본부·지부 신입 활동가 교육

2) 지부 신입대표 교육

3) 지부 신입 운영위원 교육

2. 상근활동가교육

1) 본부·지부 활동가 교육

- 외부 강사 섭외 및 내부 세미나와 워크숍을 병행

정보·홍보

I. 사업 목표

1. 새로운 온라인 채널 활용을 시도하여 여성운동에 대한 접촉면을 확대한다.
2. 민우회 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한다.

II. 사업 계획

1. 새로운 온라인 채널 활성화 시도

1. 새로운 온라인 홍보 채널 모색

: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1)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 시도

-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위주의 편집 등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생산 및 상시적 업로드
- 각 팀별 활동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및 독려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안정화

- 활용 가이드 제작 배포 및 지부활동에 적극 활용 제안

3)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채널 상시적 주시 및 활용 검토

2. 활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 오프라인 자료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및 관리

- 자료실 중복 자료 폐기, 파일철 자료 제본을 통해 공간 효율화
- 자료 리스트 업데이트 및 자료관리 가이드라인 재제작

2. 홈페이지 관리

- SNS 업로드 콘텐츠 홈페이지 추가 업로드
- 〈언론 속의 민우회〉, 〈캠페인〉 등 홈페이지 카테고리별 자료 축적 독려 및 관리
- 홈페이지 오류 수정 -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술 습득 및 매뉴얼화, 업체에 수정 의뢰 등

3. 팟캐스트 제작

1.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기획 및 제작
 - 2주1회 녹음, 2주1회 방송으로 주기를 변경하여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 새로운 사회자 및 패널 구성, 사회현안과 민우회 활동을 시의성 있게 담아 다채로운 방송 송출
2. 팟캐스트 홍보 강화
 - 단독 홍보 메일링, 외부 게시판에 홍보물 게시 등 홍보 강화

4. 일상적 정보·홍보 업무

1. 회원소식지 〈함께가는 여성〉 (상·하반기호, 5월/11월)
 - 기획 구성 및 필자 섭외
 - 디자인업체 소통 및 편집본 검토
 - 배포 관리 및 온라인 업로드
2. SNS 계정 관리
 - 상시적 관리 및 업데이트, 대중 소통
3. 온라인 모금함 관리
 - 해피빈, 같이가치, 텀블벅 등 온라인 모금함 개설 독려 및 관리, 새로운 모금함 발굴
4. 온라인 소식지 발행
 - 2주 1회 온라인 소식지 안정적 발행

5. 기타

- 1)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메일링 리스트 정리
 - 연초 리스트 업데이트
 - 반송메일 정리, 요청 이메일 추가 등
- 2) 연도별 사업 NAS/외장하드 자료관리
- 3) 디지털 기기 관리

재정

I. 사업 목표

1. 바자회와 후원행사를 열어 안정적인 재정보호의 장을 만든다. 또한 활동과 연계한 온라인 모금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문자후원 홍보를 강화해 일상적인 일시 후원을 조직한다.

II. 사업 계획

1. 재정

1. 후원행사
 -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후원행사를 기획한다
 - 후원행사 기획마련
2. 정기바자회(4월말)
 - 연간 지속해왔던 바자회를 올해도 진행해, 회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마련하는 장을 연다.
 - 후원물품 섭외 및 진행기획 (~3월 중순)
3. 온라인 모금함
 - 팀별 활동과 온라인 모금함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업에 기반 한 후원금을 모금한다,
 - 소책자 등 활동 중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련 모금함을 기획해 후원금을 모금한다.
4. 문자후원
 - 문자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간단 웹자보 등을 기획하여 문자후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5. 기타
 - 핸드폰 기기변경 후원금 및 일상적인 일시 기부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굿즈 제작 및 판매 기획을 고민한다.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계획(안)

I. 사업 목표

1. 20주년을 맞아 활동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념포럼, 대중강좌 등 진행하여 앞으로의 운동방향 설정과 함께 미디어운동 내 페미니즘 관점의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 안정적인 모니터링 활동,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 한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II. 사업 계획

1. 20주년 기념사업

1) 시기 및 횟수 : 연중 1회

2) 내용

- 20주년을 맞아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잡아 나가는 내용으로 기념회, 기념포럼, 토크쇼 등 대중과 호흡하는 형식을 통해 비전을 만들어 감
- 역대 <푸른미디어상> 수상자, <어린이 평가단>, <시청자 평가단> 등을 초대해 과거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 내용 속에 미래 방향성을 잡아감

- 기획 의도

: 지난 미디어운동본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기조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장 마련.

: 미디어운동본부의 비전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미디어를 통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확산, 교육, 모니터링, 정책생산 전반의 미디어운동에서의 젠더관점의 운동의 의미성을 다시금 확산할 수 있도록 함.

2.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 “어제 그거 봤어?”

1. 방송 및 온라인 감시

1) 시기 : 연중

2) 내용

- ①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주 1회 고정된 시간 내에 모니터링 및 회의 진행
- ② 일상적 대응 강화를 위한 온라인매체에서의 여성혐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진행
- ③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뉴스, 스포츠 중계 등에서 보여지는 벽 밀치기, 손목 끌기, 기습키스, 성차별적 언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
- ④ 모니터링 기획단을 모집하여 미디어 내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확산하고, 성인지적관점의 모니터링단을 안정적으로 운영
- 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외화활동(방송심의민원, 카드뉴스, 방송사 엘리베이터 대자보 부착 액션 등)

3. 교육사업

1. 대중강좌

1) 시기 및 횟수 : 상반기 총 3강

2) 내용

- 2018년 성평등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환경 등 주제를 선정
- 성평등한 미디어 확산을 위한 계기로 만들
- 적극적인 활동회원 및 기획단을 조직하여 미디어운동을 대중화 함

2. 초중고 대상 미디어 교육

1) 시기 및 횟수 : 연간 100회 이상 진행

2) 대상 : 전국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등

3) 내용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이용방식에 대한 성찰,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등 미디어에 대한 이해 높이기 등

3. 미디어 교육분과 회의 진행

- 내용

- ① 필요시 모임 진행
- 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스터디 실시
- ③ 다양한 미디어교육 내용 및 교안 개발

4.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1. 피해여성연예인 상담 및 사건지원
 - ① 여성연예인인권지원 운영위 개최
 - ② 필요시 기자회견, 포럼 등 관련 이슈 공론화
2. 여성연예인 인권 가이드라인(2011) 재정비 후 재인쇄 및 배포

: 2017년 추진하지 못한 가이드라인 재정비 사업을 통해 그간 모아진 지원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연예인 및 지방생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정, 새롭게 생긴 지원기관에 대한 소개 등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함

5. 푸른미디어상

1. 2018 푸른미디어상
 - 1) 후보작 추천 및 후보작 선정
 - 대상 : 2017년 11월~2018년 10월까지 지상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 일시 : 10월~11월
 - 추천자 : 일반시청자, 방송 프로그램 심의/평가 전문가,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 회원
 - 20주년 기념 신설된 성평등상 분야 후보작에 대한 시청자추천 기획활동 등
 - 2) 수상 프로그램 선정
 - 최종 수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언론학자, 여성학자, 미디어비평가, 회원 등)
 - 일시 : 11월
 - 3) 시상식 개최
 - 일시 : 12월 초

6. 연대활동 : 미디어 정책대응

1. 미디어 정책대응 활동

1) 시청자 단체 등 연대사업

- 일상적 미디어 정책감시 및 시청자단체 연대회의
- 시청자 중심의 정책 개발 및 제안을 위해 상시적인 연대활동 진행 및 관련기관에 의견서 제출 및 외화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안)

I. 사업 목표

1. <반성폭력, 공동의 감각 : 다시 질문하고 말하고 만들기 워크북>을 개발하여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2. 상담소로 접수되는 상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제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변화를 만들어간다.

II. 사업 계획

1. 정책사업

- 1) '반성폭력, 공동의 감각 : 다시 질문하고 말하고 만들기' 워크북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서 가 만드는 책>(가)

1. 배경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등한 공동체 문화가 전제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공동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많다. 2012년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에서 성폭력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문화와 관련돼 있다는 큰 방향을 발견하고, 2017년에는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를 통해 공동체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개념을 점검했다면, 2018년에는 구체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성찰하고 새로이 짜나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한다.

2. 목표 :

- 1) 조직 구성원이 직접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공동체 일상의 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한다.
- 2) 워크북 활용 샘플 그룹을 조직하여 수정의견을 수렴하고, 워크북 사용 설명회를 통해 도구에 대한 활용 예를 적극 제시한다.
- 3)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3. 내용 및 추진일정

1) 자료조사 및 기획자문회의(2월-3월)

· 내용: 2017년 문화예술 진영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주변인 인터뷰 분석 및 기획기사 연재

2) '평등한 조직문화 모먼트' 경험 개인그룹 면담 및 분석 (3-4월)

· 내용: 조직문화 변화개신하게 된 계기와 과정 분석, 평등한 문화 만드는 실천 모아내기

3) 워크북 개발 (5-7월)

· 내용: 개인그룹 면담자료 분석, 워크북 원고 집필, 워크북 자문회의

· 구성:

- '그가 밭 뺨고 누을 자리': 성폭력을 용인해온 문화
- '성폭력사건'만 없었다면 괜찮은 걸까: 성폭력 이외 차별과 폭력 문화 점검

4) 샘플 그룹 조직 및 피드백(8-9월)

· 대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 내용: 샘플 그룹을 대상으로 워크북을 통해 조직문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샘플 그룹의 피드백을 참조하여 수정 반영한다.

5) 워크북 설명·시연회 및 활용예시 외화 작업(10월)

2. 일상이슈 대응사업

1) 반성폭력 이슈브리핑(가)

1. 일상적 이슈대응활동: 파도타기(가)

- 1) 목표: 활동가 역량강화와 이슈대응 안정화
- 2) 운영방식: 매주 금요일, 성폭력 관련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논의, 논의결과 외화 및 축적
- 3) 외화형태: 홈페이지 이슈 발행을 이용하여 분기별(3/6/9월)로 결과물 발행. 결과물은 성명, 논평 외에 칼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

2. “성폭력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내부 간담회 및 토론회(가)

- 1) 목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이 위협받는 사례들에 대해 운동단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2) 내용: 경향과 활동 방향을 짚어갈 수 있는 반성폭력운동단위 내부 간담회 및 토론회 기획

3. 교육사업

1) 대중강연 <성폭력, 두렵게 이해하기>(가)

1. 목표 : 성폭력 이슈를 주제로 연속강좌를 구성하여 성폭력과 관련한 복잡하지만 필요한 문제의식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내용(안)

- 1) 텅 빈 엄벌주의: 성폭력 가해자라고 지목되었을 때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억울해하는 것은 성폭력 엄벌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법정형 상향,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등록 등 성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엄벌주의가 제시되는 동안 과연 성폭력발생은 감소했는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 2)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은 왜 성폭력 구성요건이 되었는지, 왜 피해자가 수치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더럽혀진 것 같음’의 정체를 밝히다.
- 3) 이성애 연애와 성폭력: 한국사회에서 이성애자로 살아가기 위해 용인해 온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직면하기
- 4) 성폭력은 왜 ‘힘 센’ 언어가 되었는가: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피해의식은 견고해지는 것일까? 공동체는 왜 경직되는 것일까? 성폭력과 관련된 개념은 힘이 세지는 것일까?’에 대해 질문하고 정말 성폭력‘만’이 문제인지 돌아보기

3. 추진일정 : 9월 중, 3-4회기 정도의 연속강좌

2) 출강 및 대중교육

1. 목표

- 1)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권력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안을 통해 반성폭력 감수성을 기르고, 성적의사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한다.
- 2)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인식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질문을 교육시간에 던짐으로써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탐색한다.

2. 내용

1) 성폭력 예방 교육

- 대상: 학생, 학부모, 직장인, 상담원, 노조, 단체 등
- 내용: 성폭력에 대한 이해(실태와 예방), 여성주의 상담, 성문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반폭력 감수성 키우기, 성적의사소통, 성폭력 가해자를 말하다,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등

2) 거리성교육

- 내용: 반성폭력징검다리, 콘돔실습, 다양한 피임도구전시, 데이트성폭력예방, 성적의사소통, 성폭력예방실사 등 체험식 프로그램

3) 가해자교육

1. 목표

- 1)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중 성 규범 및 왜곡된 성 의식 점검, 자신의 책임 인정하기와 피해자 공감하기 등을 통해 성 의식을 수정하고 성폭력 가해에 대한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성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2) 가해자 교육에 대한 사례 논의 및 내용 점검을 통해 진행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2. 내용 및 추진일정

- 1) 가해 행위자 개인 면접 교육: 2월~10월
- 2) 가해자 교육 진행자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점검, 사례 논의 진행

4) 활동가교육

1. 목표

- 1) 내부 스터디 및 교육을 통해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기반을 다진다.
- 2) 정기적으로 진행 한 활동가 교육 자료를 DB화 하여 활동의 기틀로 삼는다.

2. 내용 및 추진일정

- 1) 활동가 스터디: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내부논의와 여성주의 도서 스터디를 진행한다.(연중)
- 2) 활동가 교육 :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슈, 쟁점, 여성주의 담론 등 최근 떠오르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연2회)

4. 조직사업: 운영자문위원회 및 민우상담네트워크

1. 목표

- 1) 상담소 사업 내용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 2) 민우회 상담소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연대를 꾀한다.

2. 내용 및 추진 일정

1) 운영자문위원회 (연2회)

- 내용: 상담소 활동 방향, 상담소의 운영, 정책사업 등에 대한 논의
- 성원: 김민문정, 문미정, 이임혜경, 이선미, 이소희, 유경희, 정경주

2) 민우상담네트워크 (연3회)

- 내용: 상담소 사업 및 사안 공유
- 성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하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다솜누리,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 상담(지원) 사업

1) 상담 및 피해자 지원

1. 목표 : 법률의료지원 및 심리적 지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2. 내용

1) 상담활동: 성폭력 상담 지원 및 성상담

: 정서적, 의료적, 법적, 기타 지원 및 상담을 위한 전화 및 면접상담

: 상담시간 10:00~17:00(월-금), 상담전화 02-335-1858

2) 전국 민우회 상담 통계 분석

• 내용: 상담통계 분석(상담소 5곳, 쉼터 2곳) 결과 온라인 게재 및 언론 보도

2) 상담 분석

1. 목표 : 상담통계 공유 및 사례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상담의 경향성 파악 및 이슈를 발굴하고,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지점을 토론하며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2. 내용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계시스템 활용. 통계시스템 기반 보완강화

2) 상담 통계 분석을 통한 상담 경향 분석 및 이슈 발굴

3)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지점 공유 및 논의 : 상담활동가 슈퍼비전(상하반기 각 1회), 상담사례워크숍 진행

4) 상담 활동 역량강화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진행

6. 홍보 사업

1. 목표

1)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를 시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 방식을 모색한다.

2) 상담소 활동과 성폭력 이슈를 현장감 있는 정보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상담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회원을 확대한다.

2. 내용: 인스타그램 시도 및 온라인 매체에 신속하게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활동내용을 정기적 업데이트하여 여론화 도모

7. 연대 사업

1. 단체·기관 연대
 - 1) 여성인권관련 긴급현황 대책 활동
 - 2) 법 제도 제정·개선을 위한 연대
 - 3) 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제안을 위한 활동
2. 기타
 - 성폭력 관련 자문회의 및 위원회 등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사무처, 상담소, 미디어 합산)

단위(원)

계정과목	예산액	비율	계정과목	예산액	비율
사업수익	878,300,000	100.0%	사업비용	878,300,000	100.0%
1. 회비수입	362,000,000	41.2%	1. 인건비	604,570,000	68.8%
1) 회원회비	330,000,000		1) 인건비	548,080,000	
2) 특별회비	32,000,000		2) 퇴직급여전입금	56,490,000	
			2. 경상비	96,730,000	11.0%
			1) 복리후생비	6,300,000	
			2) 사무용품비	2,600,000	
			3) 사무행정잡비	5,400,000	
			4) 사회보험금	46,300,000	
			5) 소모품비	6,000,000	
			6) 시설관리비	3,500,000	
			7) 제세공과금	10,430,000	
2. 후원금	219,500,000	25.0%	8) 지급수수료	5,200,000	
1) 일반후원금	129,500,000		9) 지급이자	3,100,000	
2) 재정사업후원금	90,000,000		10) 통신비	2,800,000	
			11) 회의비	5,100,000	
			3. 사업비	175,000,000	19.9%
3. 사업수입	295,000,000	33.6%	(1) 조직활동비	20,400,000	
			가) 회원조직활동비	8,400,000	
1) 정책사업	87,000,000		나) 지부조직활동비	7,000,000	
			다) 총회비	5,000,000	
2) 정보홍보사업	1,000,000		(2) 정책사업비	86,200,000	
			가) 정책사업	86,200,000	
3) 교육사업	29,000,000		(3) 정보홍보사업비	22,000,000	
			가) 소식지발간	17,000,000	
4) 사업비지원금	178,000,000		나) 그외 홍보사업비	5,000,000	
			4) 교육사업비	23,500,000	
4. 기타수입	1,800,000	0.2%	5) 연대활동비	7,900,000	
1) 자료수입	1,200,000		6) 재정사업비	15,000,000	
2) 기타	600,000				
			4. 예비비	2,000,000	0.2%

2018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 2018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2018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연대로 힘 받고 힘 주는 2018!

2018년 지역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여성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여성운동을 새롭게 다짐한다.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여성문제를 찾아내고 여성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확대, 활동가 역량강화에 주력한다.

대중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며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교육, 일경문화인식개선, 성인지강사양성,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다.

2018년 연대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낙태죄 폐지, 일회용생리대 안전성, 성별임금격차 해소, 헌법 개정,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여성민우회는 지역의 시민단체, 시민들과의 연대, 지부와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여성운동은 가부장주의의 견고함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저력은 2018년에도 충분히 발휘되어 성평등 사회를 한 발 앞당길 것이다.

지역여성민우회 9개 별들이 모인 성평등 민주주의 별자리

|| 고양파주 ||

파주권역 여성운동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내 파주지회 성격으로 활동한다. 돌봄 영역의 사회화 실현을 위해 운영하였던 지역아동센터 <꿈틀이>는 10년의 활동과정을 회원들과 나누며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갖는다.

활동가의 순환을 통해 조직 변화가 큰 해이다. 다양한 의제발굴과 여성운동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소통에 힘쓴다.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활동,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등으로 여성주의 운동을 확대해 나가며 성차별적 문화가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내기 위한 미투(Me, too)캠페인,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등 반성폭력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하담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기획된 내 집 마련프로젝트 ‘삼안사온(3安사溫)’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 등을 강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운동의 확산, 지역 내 반 성폭력 운동을 알려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SNS 등 홍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광주 ||

회원확대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한다. 소모임 활성화로 활동회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일상 속 여성차별을 드러내어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본-지부 공동 이슈 대응으로 다양한 영역의 차별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활동가들이 사전논의 및 공유를 통해 현안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만들어간다.

성평등 개헌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고 스터디모임 ‘젠더로 헌법읽기’에서 찾아낸 개헌 속 젠더의제들을 지역에 알린다.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후보별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정책을 제안한다. 지역 성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여 마을 단위에서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고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성폭력상담소 20주년을 맞아 상담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피해자 지원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성폭력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마을, 대학 등 지역사회 내 자원체계와 연계하여 성폭력 이슈를 확산한다.

|| 군포 ||

2018 지방선거에 맞춰 여성주의 정책제안, 유권자 운동, 의정모니터링을 한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복지정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파이팅한다. 생활 속 성차별을 드러내는 페미니즘 선언 글쓰기 대회, 낙태죄폐지, 성별임금격차해소, #우리에겐_페니미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등 활동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펼친다.

회원들이 여성주의 관점으로 일상경험을 읽어낼 수 있도록 낙태죄폐지 집담회 등 민우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내 친구 회원 만들기’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다. 회원 층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SNS홍보에 주력한다. 위원회와 소모임 활동가들이 군포여성민우회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수사과정, 학교, 직장에서 겪는 2차 피해 실상을 공론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나는 네 편이야’를 실시한다.

|| 남서 ||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각 위원회의 활동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소모임을 개발한다. 지역의 환경적 현안과 시기적 현안에 맞추어 정책 사업을 집중한다. 지역연대사업을 통해 여성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주간 또는 학교 축제 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스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성교육,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먹거리 교육에 힘쓴다.

청소년들이 진로 등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쉼 공간 <드림카페>를 운영한다. 양천구 성인 지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성평등 의제를 확산한다. 여성주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 10대 여성들의 여성혐오와 차별 경험을 드러내는 ‘청소년, 여성주의를 말하다’를 진행한다.

생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양천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녹색가게를 통해 양천지역 환경운동과 공익증진 활동에 연대한다. 부설기구인 <아름드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지원한다.

|| 동북 ||

지역 내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교육, 젠더·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지역문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양육자, 지역단체 등에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회원들이 여성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성폭력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우여성학교,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민주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회원활동 사업과 회원 확대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 자원을 구축한다. 각 팀의 활동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직 강화와 확대를 통해 여성 이슈 발굴 및 외화의 장을 마련한다.

여성생활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분석 활동을 한다. 지방선거 대응활동으로 후보 공약이행 및 여성정책 분석, 제안활동을 한다.

도봉여성센터·도봉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지역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한다.

|| 원주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실, 외모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전래놀이, 원주여성영화제 진행함으로써 지역여성운동을 확산한다.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여성후보 및 정책 발굴, 후보들의 성평등정책과 공약사항을 점검한다.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국 이슈 및 지역 운동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낙태죄폐지 행동에 주력한다.

|| 인천 ||

생리대 안전, 낙태죄폐지 등을 통해 여성건강권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월경금지문화를 개선하고 월경이 평등, 인권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한다. 낙태죄 폐지 집담회를 갖고 후속액션을 기획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초경맞이 안내자, 성인지 강사단을 중심으로 성차별, 성폭력 이슈에 대응하는 교육·문화활동을 전개한다. 평생교육에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페미니즘 교육욕구가 많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만남 세계 이외의 페미니즘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경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가족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와 연대가 가능한 지점을 모색하기 위한 텃밭가꾸기 사업 ‘다색빛 도시 농부’를 진행한다.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에 주력한다. 특히 SNS 홍보에 집중한다.

|| 진주 ||

안정적 조직체계를 위해 회원과 핵심활동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나누며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회원행사, 회원만남의 날로 봄맞이 수련회, 가을나들이, 송년회를 진행하여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인다. 회원참여 프로그램인 ‘여성주의 정치 모니터링’과 ‘여성주의 책임기 모임’, ‘다시만남세계’를 진행하여 여성주의를 강화한다.

2018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여성주의 학교’를 통해 선거 기간 중 드러나는 여성혐오를

모니터링하고 여성의제와 여성후보를 지역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 모니터링해서 언론에 발표한다. 민우회에서 새롭게 만든 성평등 지표 분석 결과를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알려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을 실시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게 멘토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을 공유한다. 지역의 언론인 ‘단디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진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우회 활동의 장을 넓힌다.

본부-지부 공동사업 ‘나여기 캠페인’ 의제 중 하나인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합니다’ 캠페인과 ‘낙태죄 폐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

|| 춘천 ||

다양한 만남의 장에서 회원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민우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밥상토크’ 등 소모임 활동을 통해 민우회원으로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0주년을 준비하며 지역의 여성 이슈를 발굴 한다.

3·8여성의 날, 낙태죄 폐지 행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 만연한 불평등을 인지하고 시민들이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시민학교, 면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지속해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대안적 일상을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성주의를 전파한다.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춘천시와 강원도의 정책과 사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달팽이〉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동가와 회원이 참여해서 민우회 부설 센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며, 센터가 지역의 학교, 기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별첨자료

- 임원 선거 후보 명단
- 2017년 활동일지
- 2017년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성명·논평 목록
- 31차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 본부/지부 활동가 명단

임원 선거 후보 명단

2018년 1월 27일(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31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 '제6조(입후보자 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 7일 전까지 추천된 후보 명단과 약력을 공개한다.'에 의거하여 **2018년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임원후보의 명단과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임원 후보 ▣

사업감사	장지연	現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회계감사	변영선	現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

▣ 임원 후보자 활동경력서 ▣

장지연 사업감사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2011-2017.1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2015.1-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6.1-현재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변영선 회계감사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012 삼일회계법인 근무 ○ 2012-2014 동그라미재단 재무행정실장 및 창업지원실장 ○ 2015-현재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 ○ 저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와 관리실무>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일지

<본부 대표단>

- 2월 6일 [교육] 부평풀뿌리여성센터
- 2월 7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활동공간 심사회의
- 2월 8일 선거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2월 9일 총선넷 공판 참관
- 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 2월 10일 헌법 개정 토론회
- 2월 13일 고양시남북교류위원회
- 2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
- 2월 15일 중부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위원회
- 2월 16일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여성폭력예방강사 심사위원회
- 2월 17일 [토론] 한국여성연구소 라운드테이블 <2018 여성의제>
- 2월 18일 시민대토론회
- 2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상 심사위원회
- 2월 24일 YTNDMB시청자위원회
- 3월 3일 서울시성평등위원회
- 3월 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운영위원회
- 3월 7일 [교육] 부평풀뿌리여성센터
- 3월 9일 [교육] 서울YWCA
- 3월 9일 서울시보육시설확충심의위원회
- 3월 10일 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자회의
- 3월 11일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
- 3월 11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운영위원회
- 3월 15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3월 21일 [교육]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3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실무임원회의
 3월 23일 [교육] 안양청소년성문화센터
 3월 23일 YTNDMB시청자위원회
 3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선 대응 간담회
 3월 31일 대선주권자행동실무회의
 4월 11일 [교육] 고양파주상담소
 4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회의
 4월 14일 서울노동자회 30주년 기념행사
 4월 17일 대선주권자행동 운영위원회
 4월 18일 남서여성민우회 대선주권자파티 참여
 4월 20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선주권자파티 참여
 4월 21일 대선후보 성평등 정책 간담회
 4월 24일 대선주권자행동 대표단회의
 4월 27일 YTNDMB시청자위원회
 5월 3일 여성재단 기부릴레이 행사
 5월 11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11일 서울시보육시설확충심의위원회
 5월 16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17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평가워크숍
 5월 18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19일 선거법개정 워크숍
 5월 22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22일 [교육] 중부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사 인권강의
 5월 23일 [교육] 경남여성단체연합
 5월 24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24일 [교육] 부평 풀뿌리여성센터
 5월 24일 중부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위원회
 5월 25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5월 25일 YTNDMB시청자위원회
 5월 27일 여성평화걷기대회 참석

5월 29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임원회의
 6월 8일 [교육] 경찰교육원
 6월 8일 여성환경연대 후원의밤
 6월 9일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분과 회의
 6월 10일 610항쟁 30주년 행사
 6월 13일 성평등추진체계 간담회
 6월 14일 진주여성민우회 20주년 기념식
 6월 19일 성평등추진체계 토론회
 6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집담회
 6월 22일 YTNDMB시청자위원회
 6월 22일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30주년 기념행사
 6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담회
 6월 27일 서울시아동여성연대 회의
 6월 29일 서울시보육시설확충심의위원회
 7월 3일 [토론회] 한국여성연구소 토론회
 7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추진체계 회의
 7월 5일 춘천여성민우회 후원행사
 7월 6일 [교육]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7월 6일 [교육] 월계문화정보센터 강의
 7월 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포럼 기획회의
 7월 10일 [교육]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강의
 7월 11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7월 12일 녹색교통 후원의밤
 7월 12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후원행사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워크숍
 7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워크숍
 7월 17일 [교육]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정치아카데미 강의
 7월 25일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여성폭력예방강사 심사위원회
 7월 27일 서울시 여가재단 중간심사

7월 27일 탈핵사회적논의기구 회의
 7월 27일 YTNDMB시청자위원회
 7월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간심사
 8월 8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실무임원회의
 8월 9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8월 10일 서울시보육시설확충심의위원회
 8월 11일 한겨레신문대통령배우자호칭관련좌담회
 8월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대위 집행위
 8월 17일 중부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위
 8월 2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월 25일 서울시성평등위원회
 8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자리 TF
 8월 31일 YTNDMB시청자위원회
 9월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공대위 출범식
 9월 7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의 밤
 9월 7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의 밤
 9월 8일 여성가족부성평등TF
 9월 13일 외교부장관 여성단체 간담회
 9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TF
 9월 14일 참여연대 후원행사
 9월 15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
 9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후원의밤
 9월 19일 [교육] 안산가톨릭상당소
 9월 1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9월 20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월 20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영화제 개막식
 9월 21일 YTNDMB시청자위원회
 9월 23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제

- 9월 27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
- 9월 27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단체 간담회
- 9월 29일 서울시보육시설확충심의위원회
- 10월 3일 사회서비스 공단 의원 면담
- 10월 9일 성평등 개헌 관련 의원 면담
- 10월 11일 [교육] 원주여성민우회 강의
- 10월 12일 [교육] 목포대
- 10월 12일 [교육] 전남여성플라자
- 10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회의
- 10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실무임원회의
- 10월 13일 [교육] 전남여성플라자
- 10월 13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워크숍
- 10월 17일 [교육] 광주 성평등문화제
- 10월 17일 여성가족부 성평등컨텐츠 제작 심사위원회
- 10월 23일 인권위원회 CEDAW 보고서 자문회의
- 10월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TF
- 10월 26일 YTNDMB시청자위원회
- 10월 27일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여성연대 후원의밤
- 10월 30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
- 11월 1일 환경정의 후원의밤
- 11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TF
- 11월 10일 여성가족부성평등TF
- 11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CEDAW 대응회의
- 11월 11일 청소년 참정권 집회 발언
- 11월 13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
- 11월 14일 일자리위원회 여성계 간담회
- 11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TF
-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실무임원위원회/여성가족부장관 간담회/이사회
- 11월 16일 양평기본계획 공청회 패널
- 11월 17일 [교육] 전남여성플라자 전남광역새일센터

- 11월 17일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분과 회의
- 11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TF
- 11월 24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1월 29일 여해포럼 참석
-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자회의
- 11월 30일 YTNDMB시청자위원회
- 11월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간담회
- 12월 5일 성평등개헌 관련 여성의원 면담
- 12월 5일 여성정책관련 청와대 비서관 면담
- 12월 5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
- 12월 6일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1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미혼모 호칭 토론회
- 12월 7일 일자리위원회 여성일자리대책 간담회
- 12월 8일 여성가족부성평등TF
- 12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2월 14일 시민사회연대회의 2018신년하례회 준비팀 회의
- 12월 14일 동행 후원행사
- 12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TF
- 12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 간담회
- 12월 21일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여성계 간담회
- 12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준비위원회

〈사무처〉

- 1월 5일 시민사회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1월 9일 KTX 승무원 투쟁 4000일 기념 토론회 기획 자문회의
- 1월 19일 나루운영위
- 1월 24일 [토론회]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 여성의 건강과 임신 출산이 함께 지지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토론회〉
- 2월 16일 나루운영위
- 2월 20일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여성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

안> 사전자문회의

- 2월 24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막는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 참여
- 3월 3일 2017 여성정책연구원 사업계획 자문회의
- 3월 23일 나루운영위
- 3월 28일 [교육]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원양성교육-직장내성희롱
- 3월 29일 [토론회] 전국학생행진 <누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만들까> 패널 참여
- 3월 30일 19대 대선 선결과제 정리 회원단체 간담회
- 3월 30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성평등 기념사업 운영 착수자문회의
- 4월 5일 [교육]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전문상담원
- 4월 5일 수요시위
- 4월 18일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4월 26일 [인터뷰] 한겨레21: 혐오도 적폐다 : 성소수자 혐오에 발목 잡힌 차별 금지법...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제정하겠다”
- 5월 9일 [교육]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5월 11일 [교육] 활동가란 무엇인가 -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활동가 대상
- 5월 12일 [인터뷰] 한양대학생방문인터뷰
- 5월 18일 [교육] 여성노동과 젠더 -노동부 근로감독관대상
- 5월 26일 [교육]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6월 1일 [인터뷰] 뉴스1 : 여성대상 범죄 엄단?...여성혐오 '썩' 빠진 정부 종합 대책
- 6월 1일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6월 2일 한국여성연구소 라운드테이블 낙태죄 폐지 발제
- 6월 15일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 낙태죄폐지 관련 활동 자문 방문 인터뷰
- 7월 3일 [교육]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7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사 출판기념회
- 7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행사
- 7월 11일 [인터뷰] 아주경제: 여성계,이언주 막말에“노동에 대한 관점 사업주 마 인드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
- 7월 11일 [교육] 여성과 노동 -서울시 공무원/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 7월 17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성평등 기념사업 중간심의

- 7월 17일 여연 정책워크숍 기획회의
- 7월 18일 [교육] 여성과 노동 -서울시 공무원/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 7월 20일 [인터뷰] 여성신문: 카·몸무게 얼마? 부모님 직업은?... 아직도 개인정보 묻는 대기업들
- 7월21일 [교육]여성과 노동 -서울시 공무원/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 7월 21일 사회운동 활동가 집담회: 촛불 이후의 사회운동
- 7월 28일 [교육]여성과 노동 -서울시 공무원/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 7월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 자문회의
- 8월 1일 [인터뷰] 한국일보: 신입사원 괴롭힘 . 외모지적. 안경 빼고 렌즈 꺼라 등등
- 8월 10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자문회의
- 8월 10일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8월 23일 [토론회]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 토론회
- 8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 캠프 <2017여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탐색, 숙고 행동>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숙고, 그리고 행동으로-2017 (단체/지역/이슈) 중간리더의 이야기”_발제자 참여
- 8월 29일 나루운영위
- 9월 21일 [인터뷰] 여행학교 로드스폴라 기관 방문 인터뷰
- 9월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9월 25일 [인터뷰] 이화여대신문, 방송국 낙태죄 폐지 관련 방문 인터뷰
- 9월 26일 [교육] 안산YWCA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10월 18일 [교육] 원주여성민우회 성평등강사양성교육
- 10월 19일 나루운영위
- 11월 1일 [교육] 연결을 통해 달라진 것들-민우회 운동을 중심으로 : 경남여연 활동가 대상
- 11월 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성평등 기념사업 최종심사
- 11월 8일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주최 간담회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물의 의미>
- 11월 13일 [인터뷰] 해성여자고등학교학생 방문 인터뷰
- 11월 17일 성평등 임금실천 매뉴얼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11월 17일 [교육] 아시아재단 캄보디아 방문연수단 간담회
- 11월 18일 2017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_라운드 테이블 발표
- 11월 24일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SOGI법정책연구회)
- 11월 24일 [교육] 연결을 통해 달라진 것들-민우회 운동을 중심으로 : 창원여성의 전화 활동가 대상
- 11월 24일 해럴드경제 낙태죄폐지 방문인터뷰
- 12월 1일 [인터뷰] 마포FM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열길 관련 인터뷰
- 12월 6일 나루운영위
- 12월 15일 동북여성민우회 20주년 후원행사
- 5월6~8일 성주 소성리 평화캠핑촌(사드 배치 반대)

<성폭력상담소>

- 1월 10일 여성단체연합 총회
- 1월 11일 남배우 A사건 관련 씨네21미팅
- 1월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
- 1월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회의
- 2월 10일 디지털성폭력아웃 포럼
- 2월 2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회
- 3월 9일 전성협인천서울권역회의
- 3월 10일 시민공간나루신년회
- 6월 13일 [교육] 살림 활동가 실무학교
- 6월 15일 [교육] 살림 활동가 실무학교
- 6월 16일 [토론회] 국방부 성폭력 방지 대책 토론회_토론자 참석
- 6월 20일 [교육] 살림 활동가 실무학교
- 6월 20일 [교육] 살림 활동가 실무학교
- 6월 22일 [교육] 살림 활동가 실무학교
- 8월 21일 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회의

8월 24일	여성단체연합 정책수련회
8월 25일	여성단체연합 정책수련회
9월 20일	여가부 불법카메라촬영토론회
10월 31일	마포구청의료비지원 관련 구청-기관 연계회의
11월 6일	‘그 정치가 놓친 것들’ 집담회
11월 30일	[인터뷰] 재판동행지원단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12월 1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조직운영관련 자문회의
12월 5일	[인터뷰] 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폭력 연구 관련 인터뷰
12월 8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운영관련 자문회의

2017년 성명·논평 목록

1월 18일	[규탄성명]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 위원회의 입장
1월 24일	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2월 3일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에 부쳐, 성평등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2월 8일	[성명서] 온갖 비리로 점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의 조속한 해임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방통위에 촉구한다!
2월 13일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2월 23일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월 24일	[성명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방문진 이사회는 MBC 김장겸 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해체하라!
2월 27일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3월 8일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 부쳐
3월 15일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3월 15일	[시국회의 결의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3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기자회견문>불합격점받은TV조선,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하라!
3월 30일	[기자회견문] 청와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하라!
4월 3일	[기자회견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4월 4일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4월 5일	제127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4월 25일	[성명] 성폭력 범죄 모의에 가담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4월 25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

	하라!
4월 25일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4월 26일	[성명서]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6일	[긴급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배치 못박으려는 한미당국 규탄한다!
4월 27일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4월 28일	[보도자료] 대선후보답변공개 - 여성노동정책질의에대한 19대 대선후보들의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5월 10일	[논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5월 11일	[#STOP_영화계_내_성폭력성명서]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5월 25일	[기자회견문]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 격차해소!
5월 28일	[기자회견문]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에 치얼스(cheers)"
5월 28일	[성명] 국민의당은 여성을 폄하하는 고영신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인사로 다시 선임하라
5월 29일	[기자회견문] 철도공사 사장은 해고된 KTX 승무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정부는 신속하게 KTX승무원 관련 정책협약을 이행하라.
5월 30일	[논평]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6월 14일	[기자회견문]이명박·박근혜정부언론장악진상규명국회청문회개최를촉구한다
6월 15일	[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6월 16일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7월 3일	[기자회견문]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7월 5일	[환영논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7월 7일	[기자회견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기자회견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7월 7일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7월 10일	[성명]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7월 11일	[논평]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7월 11일	[성명]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 없이 성평등 없다
7월 13일	[발족선언문]KBS·MBC정상화시민행동발족선언문'KBS·MBC를국민품으로!'
7월 14일	[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가치와 이를 받침 하는 핵심요소가 요양종사자의 노동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7월 27일	[논평] "임금 떼어도 참는 게 공동체의식"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 이언주의원 발언에 부처
8월 8일	[기자회견문]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8월 9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8월 14일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는 적폐인사 청산이 최우선이다
8월 22일	[이인호 KBS 이사장 관용차 유용 의혹에 대한 돌마고 논평] 이인호 관용차 유용,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인호·고대영을 관련법으로 처벌하라.
8월 23일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방통위는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라
8월 30일	[기자회견]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차별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9월 1일	[기자회견문] 우리에게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9월 5일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9월 5일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9월 6일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9월 7일	[기자회견문]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9월 7일	고대영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대표적인 언론적폐

	사건,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9월 11일	[기자회견문]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9월 14일	[기자회견문]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9월 22일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9월 27일	[공동성명]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9월 28일	[성명]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9월 28일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10월 13일	[환영논평]'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 한다.
10월 17일	[기자회견문]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10월 17일	[기자회견문]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위해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서 제출
10월 24일	[기자회견문] 영화를 만드는 상식은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10월 27일	[기자회견문]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3년째 직무유기,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부터 해결하라!
10월 31일	[논평] 민우회는 청원에 동참한 235,372명의 시민들과 함께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1월 1일	[논평]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1월 6일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11월 9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11월 9일	[기자회견문]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11월 10일	[기자회견문]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 용기있는 여성들과 악랄한 기업 그리고 고장난 시스템
11월 23일	[기자회견문] 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

	권보장 촉구
11월 27일	[논평] 청와대의 전향적 답변을 환영하며,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1월 30일	[성명] 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12월 18일	[성명서] 적폐세력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12월 22일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7년 발간자료 목록

- <온갖 무례와 오지랴를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회사 외 42인 지음,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궁리 출판사)

- 여성건강팀
-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달마다 작은 이야기모임 { 작은 워크북 }

- 성평등복지팀
- 30주년 특별사업 소책자 <2017 성차별 보고서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한국여성민우회 3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7 성차별 보고서>
- 브로셔 <#이게_학교다? #이게_학교죠!>

- 미디어운동본부
- 자료집 <여러분은 성차별적인 광고를 보신적이 있나요?>
- 미디어 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한 실험일지 <예능 프로그램 속 사라진 여성을 찾습니다>
- 미디어를 활용한 성인지교육컨텐츠 강의 해설서 <사회문화 속 젠더읽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발간)

- 성폭력상담소
- 토론회 자료집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제 31차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한국여성민우회	이 름
대표	김민문정, 강혜란 (2명)
이사	김진, 김현미, 박봉정숙, 석재은, 정형욱, 조인섭, 홍성수 (7명)
감사	변영선, 장지연 (2명)
본부	강을영, 권나미, 권박미숙, 권혜진, 김루리, 김명혜, 김미이, 김미혜, 김민주, 김서래, 김선화, 김수진, 김순남, 김영진, 김영진, 김은아, 김주아, 김지영, 김진선, 김창연, 김현정, 김현지, 김현희, 김혜진, 남정아, 노희수, 라용, 문지은, 박건, 박규리, 박정은, 박하윤경, 배민정, 배범호, 배용수, 백미록, 백향숙, 서소은희, 서진하, 손민원, 송나영, 신희규, 안미선, 안은석, 오은유, 오정수, 유화정, 윤정주, 이경숙, 이경은, 이나라, 이남희, 이리화, 이서영, 이선미, 이선미, 이소희, 이수경, 이승열, 이안홍빈, 이운소, 이은나라, 이임혜경, 이재은, 이정현, 이정훈, 이지예, 이지원, 이진이, 이찬희, 이하림, 이현숙, 이현주, 장소령, 장운선, 장임다혜, 전길수, 전다정, 정규현, 정예원, 정하경주, 정하나, 정혜경, 제한재, 조승미, 조윤지, 조향희, 주영은, 지은정, 진운선, 최경희, 최김하나, 최영희, 최지은, 최진협, 한경희, 한은경, 허은애, 홍슬기 (99명)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정희, 김용희, 김지현, 김현심, 백오숙, 손홍만, 송숙영, 심지선, 오종훈, 윤숙희, 이여로, 이정아, 주정희 (13명)
광주여성민우회	김미리내, 김의영, 김춘희, 김효경, 나인형, 박다현 (6명)
군포여성민우회	김동숙, 김묵순, 김영순, 박미애, 박준희, 이현정, 최자영, 현미숙 (8명)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민경량, 이정란, 이우영, 최양희 (4명)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곽선숙, 김선주, 김성희, 남충진, 박정민, 양은경, 이혜숙, 임국희, 홍문정, 홍미자 (10명)
원주여성민우회	김현숙, 박용숙, 배소현, 이영아, 지숙현, 허현숙 (6명)
인천여성민우회	문미경, 박혜란, 최리주 (3명)
진주여성민우회	박현순, 성가연, 이종숙, 정혜정, 조윤미 (5명)
춘천여성민우회	김교신, 김수정, 김현희, 이정미, 정윤경 (5명)

2017 본부 활동가

공동대표	김민문정(상임대표), 강혜란(공동대표)	
이 사	김진, 김현미, 박봉정숙, 석재은, 이진정, 정형욱, 조인섭, 홍성수	
감 사	변영선(회계감사), 허성우(사업감사),	
사무처장	최진협	
사무처	권박미숙(여성노동팀장), 김미경, 김진선(여성건강팀장), 김진희, 김희영(성평등복지·회원팀장), 류형림, 서지영, 이가희, 이지원, 이운소, 최원진, 홍연지, 홍문보미	
정책위원	강을영, 권김현영, 김원정, 박건, 이임혜경, 장임다혜, 전희경, 최정은영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윤정주(소장), 정슬아(사무국장), 황소연	
	정책위원	강혜란, 고민수, 문성현, 심미선, 윤태진, 하종원, 황성기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 운영위원	선종문, 조인섭
부설 성폭력 상담소	정하경주(소장), 이소희(사무국장), 신혜정, 정혜원, 김현지	
	운영/ 자문위원	김경희, 김민문정, 김영애, 이선미, 이소희, 유경희, 정경주, 최지은, 황금소영

2018 본부 활동가

공동대표	김민문정(상임대표), 강혜란(공동대표)	
이 사	김진, 김현미, 박봉정숙, 석재은, 정형옥, 조인섭, 홍성수	
감 사	변영선(회계감사), 장지연(사업감사)	
사무처장	최진협	
사무처	권박미숙(여성노동팀장), 김미경, 김진선(여성건강팀장), 김진희, 김희영, 류형림, 서지영, 이가희, 이지원, 이윤소(성평등복지·회원팀장), 최원진, 홍연지, 홍문보미	
정책위원	강을영, 권김현영, 김원정, 박건, 이임혜경, 장임다혜, 전희경, 최정은영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윤정주(소장), 정슬아(사무국장), 황소연	
	정책위원	강혜란, 고민수, 문성현, 심미선, 윤태진, 하종원, 황성기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 운영위원	선종문, 조인섭
부설 성폭력 상담소	정하경주(소장), 이소희(사무국장), 신혜정, 정혜원, 김현지	
	운영/ 자문위원	강혜란, 김영애, 이선미, 이소희, 유경희, 정경주, 최지은, 황금소영

2017, 2018 지부 활동가

고양 파주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이정아
		이사	고정희, 권순현, 김선희, 김용희, 심지선, 송숙영, 오종윤, 윤숙희, 박보라, 백오숙
		감사	강선미(사업감사), 도기탁(회계감사)
		사무국	손홍만(사무국장), 안선희(파주지역국장), 주정희
		고양 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김지현(소장), 곽혜경, 윤경희
		지역아동센터 '꿈틀이' 상근활동가	이영남(센터장), 한미선
		성폭력피해자쉼터 '히답' 상근활동가	이여로(소장), 김현심, 박옥기, 이미연
		파주 성폭력상담소 '함께' 상근활동가	박수봉(소장), 이소라, 조진실, 최성화
	2018	대표	이정아
		부대표	고정희
		이사	권순현, 김선희, 김용희, 심지선, 송숙영, 오종윤, 윤숙희, 박보라, 백오숙
		감사	강선미(사업감사), 도기탁(회계감사)
		사무국	손홍만(사무국장),
		파주지회 사무국	
		고양 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김지현(소장), 이소라, 주정희
지역아동센터 '꿈틀이' 상근활동가	이영남(센터장), 한미선		
성폭력피해자쉼터 '히답' 상근활동가	김현심(소장), 이미연, 최성화		
파주 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박수봉(소장), 조진실, 곽혜경		
군포 여성	2017	대표	현미숙(상임대표), 박미애(공동대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김목순
		운영위원	권명애, 김목순, 김인자, 박미애, 박선인, 소진형, 이현정, 현미숙
		감사	김정민(사업), 류명화(회계)
		자문위원	강중구, 권미희, 김성관, 김영숙, 석경수, 이새나, 최충식, 한상혁, 한혜규
		상담위원회	김목순, 김미경, 김인자, 김지연, 남혜영, 박선인, 심주영, 이명숙, 장정희, 정미옥, 장우현, 정유진
		지역자치위원회	김인자, 박미애, 박선인, 박지은, 신미란, 심주영, 이현정, 장정희, 정미옥, 정유진, 지성애, 현미숙
		한부모위원회	권명애, 김인자, 손성학, 임경혜, 정경자, 최자영
		교육·홍보/편집위원회	김목순, 박선인, 소진형, 이현정
		카페위원회	권은정, 박선인, 이명숙, 장정희, 정유진
		상근활동가	이현정(사무국), 권명애, 김영순(한부모사업), 박선인(카페사업), 신난희, 김미경(상담소)
	2018	대표	현미숙(상임대표), 박미애(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김동숙, 김목순, 김인자, 남혜영, 박미애, 박준희, 박지은, 소진형, 이난옥, 이현정, 최자영, 현미숙
		감사	이경란(사업), 류명화(회계)
		자문위원회	강중구, 권명애, 김영숙, 원종길, 이새나, 최충식, 한상혁
		상담위원회	김목순, 김미경, 김인자, 김지연, 남혜영, 박선인, 이명숙, 이연아, 정미옥, 정유진, 최영희
		지역자치위원회	박미애, 박선인, 박준희, 박지은, 신미란, 이동현, 이명희, 이현정, 장정희, 정미옥, 정유진, 지성애
		한부모위원회	김동숙, 김영순, 김인자, 손성학, 이현정, 최자영, 현미숙
		교육·홍보위원회	김목순, 박선인, 박지은, 소진형, 위성효, 이연아, 이현정
		재정위원회	박선인, 이명숙, 장정희, 정유진, 현미숙

		사무국	이현정(사무국장), 김영순, 정유진
		성폭력상담소	김묵순(상담소장), 김미경, 이연아
광주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나인형
		이사	김기태, 나인형, 신향미, 안진, 임선숙, 정인경, 채현숙, 최영, 홍성흡, 이수진, 김형남
		감사	이소아(회계), 허정순(사업)
		운영위원	김정, 김향심, 김해숙, 양정훈, 이유미, 정달성, 최희연
		사무국	김의영, 김효경, 박다현, 백희정
		성폭력상담소	김미리내, 김은지, 김효경, 최희연
		다솜누리	김유빈, 김춘희, 박도야, 한소현
	2018	대표	나인형
		이사	김기태, 백희정, 안진, 이수진, 임선숙, 박희석, 정인경, 조영임, 채현숙, 최영, 홍성흡
		감사	허정순(사업), 이소아(회계)
		운영위원	김정, 김향심, 김해숙, 양정훈, 이유미, 정달성
		사무국	김효경, 김의영, 박다현
		성폭력상담소	김미리내, 김은지, 최희연
		다솜누리	김춘희, 김유빈, 박도야, 한소현
남서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이경란
		운영위원	고나경, 김주숙, 노정은, 민경량, 민미애, 박성완, 양성순, 원화연, 이희숙, 조성화, 최양희
		감사	조성화(회계), 권혁태(사업)
		사무국	이주용
		함성교육위원회	고재경, 윤순옥, 조영희
		식생활교육위원회	김주숙, 노정은, 이경란, 이희숙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이우영(센터장), 고나경(사회복지사)

	2018	대표	이경란
		운영위원	고나경, 김주숙, 노정은, 민경량, 민미애, 박성완, 양성순, 원화연, 이희숙, 전민아, 조성화, 최양희
		감사	박진갑(회계), 권혁태(사업)
		사무국	이주용
		함성교육위원회	고재경, 윤순옥, 조영희
		식생활교육위원회	김주숙, 노정은, 이경란, 이희숙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이우영(센터장), 고나경(사회복지사)
동북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김성희
		이사	곽선숙, 김보영, 김선주, 남충진, 박정화, 이혜숙, 홍문정, 홍미자, 황선아
		감사	최유진(사업), 강은경(회계)
		상근활동가	이연아, 문지숙, 이별님
		도봉여성센터	남충진(센터장), 권주희, 김보경, 김숙경, 김유미, 김정아, 김종왕, 김주현, 박인숙, 연문선, 정은주, 최경림, 함정민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오경훈(센터장), 김은희(사무국장), 금영숙, 최경림
	2018	대표	김성희
		이사	남충진, 민미라, 박정민, 박정화, 오경훈, 임국희, 홍미자
		감사	최유진(사업), 강은경(회계)
		상근활동가	권혜주, 이별님
		도봉여성센터	남충진(센터장), 권주희, 김보경, 김숙경, 김유미, 김정아, 김종왕, 김주현, 박인숙, 연문선, 정은주, 함정민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오경훈(센터장), 김은희(사무국장), 금영숙, 최경림
원주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지숙현
		상근활동가	심재희(사무국장), 김현숙(활동가)

		운영위원	박용숙, 배소현, 이영아, 허현숙
		감사	서연남(사업), 전미선(회계)
	2017	대표	지숙현
		활동가	심재희(사무국장), 김현숙(활동가)
		운영위원	박용숙, 배소현, 이영아, 윤성희
		감사	서연남(사업), 전미선(회계)
인천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문미경(대표), 최리주(공동대표)
		부대표	박혜란
		운영위원	이연화, 민수진, 이종귀
		감사	장인실(사업), 정윤미(회계)
		고문	최정임, 기호풍
	2017	대표	문미경(대표), 최리주(공동대표)
		부대표	박혜란
		운영위원	이연화, 민수진, 최정임, 기호풍
		감사	장인실(사업), 정윤미(회계)
		반상근 활동가	강선자
진주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이종숙
		활동가	성가연, 조윤미
		운영위원	문혜선, 박현순, 신소희, 이경희, 이종숙, 정혜정
		감사	김윤자(회계), 광미경(사업)
	2018	대표	정혜정
		활동가	조윤미(사무국장), 성가연
		운영위원	권금자, 박현순, 이경희, 이명숙, 이종숙, 정혜정, 조윤미
		감사	김윤자(회계), 광미경(사업)
춘천 여성 민우회	2017	대표	김아영
		활동가	김교신, 김현희

		운영위원	김나연, 유은정, 이경순, 정윤경, 정지민
		감사	김은주(사업), 심소려(회계)
		달팽이지역아동센터	이정미(센터장), 김수정(생활복지사)
	2017	대표	정윤경
		활동가	김교신, 김현희
		운영위원	김효화, 박해숙, 손영옥, 심소려
		감사	김호연(사업), 황수진(회계)
		달팽이지역아동센터	이정미(센터장), 김수정(생활복지사)